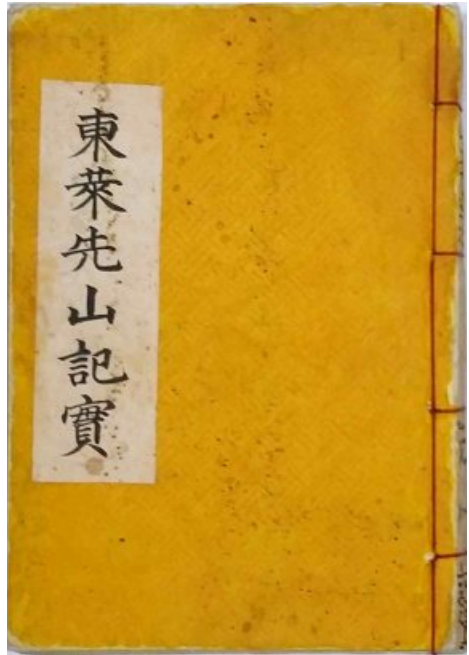


개정판(2024. 4. 12)

동래선산기실

정우홍 원저 정진모 편역

동래선산기실 출판후원회



乙未五月 日華池山禁養松楸之所 在古塚捕好記
 山所交覆 松楸 楸 楸
 中大松二株
 中大松三株
 中大松四株
 中大松五株
 中大松六株
 中大松七株
 中大松八株
 中大松九株
 中大松十株
 中大松十一株
 中大松十二株
 中大松十三株
 中大松十四株
 中大松十五株
 中大松十六株
 中大松十七株

東萊鄭氏華池山宗樞葉序 花州記
 夫木之繁衍者其本固水之長遠者其源深也我鄭
 之貫萊州者其麗不億實由於始祖長公之積
 德餘蔭也即墓在於西華池山而昔我 九代
 祖在相善洲公作華本州守護之節靡不肅穆
 代祖都尉公允暇者持理統頌德 七代祖守密陽
 時與本府伯夷史氏同為天眷改整墓碕增置祭田
 定界稍廣禁護成極逸與諸宗修楸於 墓下 高
 祖晉川公 從祖祭議公皆以蔚山府使者持時恭
 入稟業亦多端贊諸先公為 先之誠于亦歲災歲
 甲午冬不肖時蒙 恩除十二月二十二日天守是
 郡越乙未止朝始約奠謁願瞻左右恭考古今則

▲ 동래선산기실(정우흥, 서문 1920, 완성 1925) [정진모 소장] ※ 청사진 복사본이다.



▲ 종계안(1733년, 1828년, 1921년) [화산재/화수정 소장]



▲ 첨알록 [화산재/화수정 소장]



▲ 종계관련 문부 [화산재/화수정 소장]



▲ 화산재지(좌: 1956(재판), 우: 1953(초판)) ※초판 후반부에 종계안 (1733, 1828, 1895, 1921)이 수록되어 있다. 초판 제목의 齋는 齋의 이체자임.



▲ 한식향사기념 1932년 3월 1일 (양 4월 6일) [출처: 동래정씨일통보(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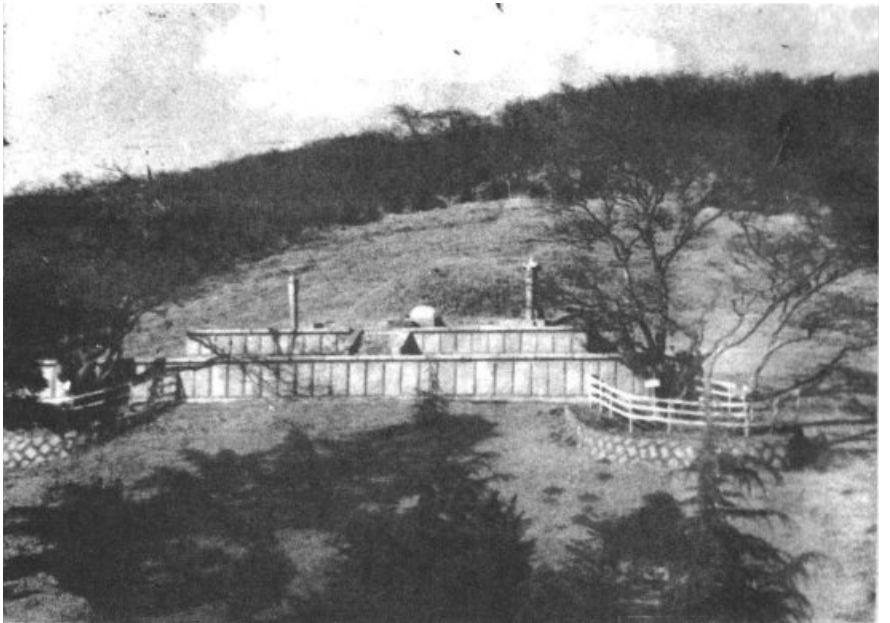


鄭泰臧

東萊郡西面華池山
東萊鄭氏始祖山墳墓

檀紀四二八年乙未三月十三日

▲ 동래정씨시조신분묘 1955년 3월 13일(양 4월 5일) [출처: 동래정씨남은공파보(1955)]



▲ 上·下 모두 1966년 4월 5일 석축공사 이후 1975년 4월 6일 사초봉행 이전
 ※1955년 7월에 鄭珍榮공이 세운 묘비가 묘소 바깥 가까이 있는데 망주석에 가려졌다.



▲ 1966년 4월 5일 석축공사 이후 1975년 4월 6일 사초봉행 이전 [출처: 참의공파보 (1972)]



▲ 1975년 4월 6일 사초봉행 이후 ※봉분 둘레석, 석판 석축, 돌계단과 함께 왜색풍 정원의 조경은 1990년(?) 무렵에 철거되었다.



▲ 화지선산 옛 모습 [출처: 부사공파보(1976)]



▲ 화지선산 원경 [출처: 네이버지도 항공뷰(2009년 3월)]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리, 부산정보고등학교 자리, 양정현대1차 아파트 자리도 원래 선산이었다.



▲ 봉분 돌레석, 석관 석축, 돌계단을 걷어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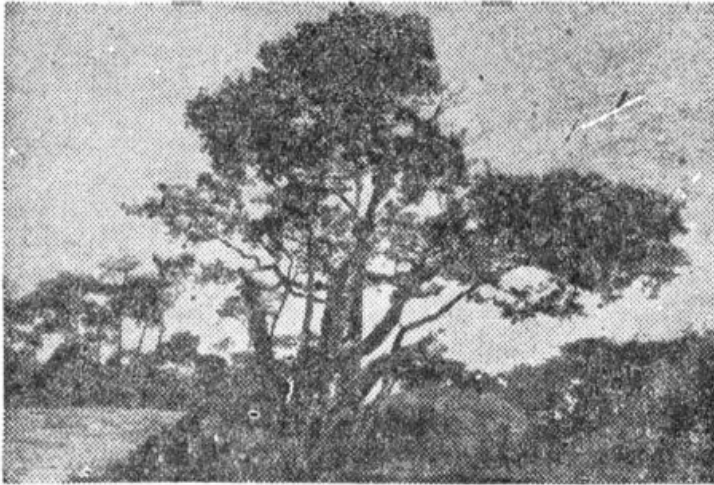
▲ 봉분 돌레석, 석관 석축, 돌계단을 걷어낸 이후



▲ 서쪽 배롱나무



▲ 동쪽 배롱나무



◇백일홍나무 (높이 8·6미터 둘레 4·12미터)

○:천년목은 백일
홍이 부산시내 양정동
469 東萊鄭씨 시조
安逸文長 鄭文道공의
묘과 우편에 있다. (기
본)이 두그루의 백일
홍은 둘레 4「미터」,
높이 8「미터」로 약
1천년전 고려 숙종 때
심어졌 것으로 전해지
고 있다.
○:부산시 교육국
의 해문화재로 지정
신청중인 이 나무는 원
동지는 교목이던 후비
바담에 깎여 흔적조차

찾아볼 길 없으나 교목
에서 다시 움이 트고 그
나무가 다시 교목이 되
고 이렇게 번복되는 동

千年의 傳說담은 「百日紅」

...古木서움이르기 몇차례...

百日滿發하면 豊年든 다고

百日紅은 50, 60년 자
라면 교목이 되고 그곳
에 다시 움이 터 마차
인간세족과 비슷한 생
리를 지니고 있다 한다.
○:부처꽃과의 같
았 큰키 나무에 속하는
배롱나무는 중국 남부
가 원산지이며 나무껍
질은 갈색에 미끄럽
게 자라므로 작은 가지
는 모가나는 것이 특색
인 이 나무는 잎이 마
주나며 타원형 빨간빛
갈파 흰빛갈의 2종이
있다. 가지 끝은 원주
꽃차례(圓錐花序)의 꽃
이 짙을 내어 꽃이 핀다.
특히 흰백일홍은 아이
들의 「백일기침」에 특
효라 하며 한약재의 관
심거리가 되고 있다.

○:동리 노인들의
말을 들으면 이 백일홍
은 매년 6월초에 꽃이
피기 시작하여 10월초
순경까지 계속되는 때
신기한 것은 이 꽃이 백
일동안 만발하면 다음
해에 풍년이 오고 꽃이
쉽게 지면 흉년이 든다
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간직하고 있다. 【釜山
支社 郭奇尙記者發】

안 1천년을 넘긴 것은
로 밝혀졌다.
교목국에 의하면 「백
일홍나무」라고 불리는

東萊의 東西 두 「百日紅」나무

天然紀念物로 指定

戶長)을 지낸 東萊 鄭씨 의 시조 鄭文選공의 묘소 앞 동서양편에 심어져있는

釜山진구양 정동 東萊鄭 씨의 시조 묘 경에있는 동서 (東西)백 일홍(百日紅) 나무 2그루 가 문교부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키로되었다. 이 백일홍 나무 2그루는 약 8백년전 高麗중엽때인 일호장 (安逸

것으로 수령이 오래되어 틀레만 살아있는 희귀한 큰 나무인데 뿌리쪽에 가지가 무성해있다.

이 백일홍의 동쪽나무의 높이는 8.3「미터」둘레가 3.9「미터」나 되고 서쪽나무높이는 8.6「미터」둘레가 4.1「미터」나 된다.

이 나무에 대한 조사는 문화재위원인 권기철 (서울대학) 교수에 의해 진행되어 「백일홍 나무의 생태연구에 중요한료가 된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6월 17일에 있었던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키로 결의한것이라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일홍」

▲ 모전 동서 배롱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결의 신문기사 [1964년 7월 4일자 경향신문 7면]

머리말

우리 선조들께서 동래선산을 가꾸고 지켜온 역사는 천년에 이릅니다. 정언섭공께서 1732년에 묘갈을 수립하고 종계를 조직하기 이전에 남봉공(휘 芝衍), 양과공(휘 太和), 중추부사공(휘 知和), 울산군수공(휘 載大), 밀양부사공(휘 是先), 동평위공(휘 載崙)께서 노력하신 기록이 전하며, 정언섭공의 종계안(1733) 이후 종계를 계속 정비하였는바 정기선공의 종계안(1828), 정인학공의 종계안(1895), 정우흥공의 종계안(1921)이 그것들입니다.

구한말 이후 우리 종중에 몇 차례 수난이 닥쳤습니다. 철도부설로 인한 중태봉의 훼손, 범어사 주지승의 화지사 재산 침탈기도, 하태봉 자성대 탈취기도, 화지산 광산 채굴기도 등으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 동래선산을 어떻게 지켜왔는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동래선산기실》입니다.

이번 편역에서 원본의 저술 당시까지 기간의 자료 중 원본에 들어 있지 않은 수집된 몇몇 자료와 그 이후 시기의 몇몇 자료를 모아서 부록편으로 하여 수록하고 이해에 도움이 될까하여 다수의 사진을 포함시키는 등 나름 노력하였으나 너저분할 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훗날 박학군자가 나타나 완벽한 번역서를 펴내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수십년간 동래선산 수호에 있어서 굴곡의 歷史가 있었습니다. 동래선산! 우리의 자부심이요 자존심입니다.

2018년 7월 20일 역자 근지.

목 차

화보

머리말

1. 서문(정우홍, 1920) 1
2. 丘墓 3
3. 묘표(정시선, 1701) 26
4. 묘지(정재륜, 1703) 27
5. 묘갈(정언섭, 1732) 30
6. 묘갈후지(정래주, 1733) 37
7. 보유 40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약 외, 1724) 42
9. 철도부설 저지 배전 통문(정기회 외, 1901) 48
10. 종계안(정인학, 1895) 49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時, 1895) 58
12. 송추 및 고총 적간기(정인학 계장시, 1895) 67
13. 종계안(정기선, 1828) 69
14. 4절일, 제수, 제기(정기선 계장시, 1828) 73
15. 종계안(정기선, 1829) 추록 75
16. 재사증수기(정기선, 1829) 79
17. 계관시(정엽린, 1858) 84
18. 정복세 종인 성금 계각문(정내화, 1817) 86
19. [계관시(정존일, 1855)] 88
20. 계관시 및 소서(정영조, 1904) 90
21. 종계안後書(정우범, 1903) 92
22. [중태봉 훼손 관련 건(정은조 외, 1901)] 96
23. 하태봉 자성대 인허가 관련 건(1906) 98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육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99
25. 자성대 사유삼림 신고 건(농상공부 산림국, 1908)	105
26. 화지산 및 삼태봉 소유자 확인 보고서(1910)	106
27. 자성대 산림 설명서(정인학 외, 1910)	111
28.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육 외, 1910)	113
29. 자성대 소유에 관한 年高노인 확인서(1910)	117
30. 화지산 山板(1911)	119
31. 위토신고 연명인(1911)	123
32. 화지산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124
33. 삼태봉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125
34. 중태봉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126
35. 하태봉(자성대)	127
36. 자성대 개간 관련(1913)	128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129
38. 자성대부속 田垡地 신고(정기육 외 28인)	134
39. 신고서별지첨부 연명서(1917)	135
40. 광폐(1917) 관련	136
41. 화지산 성소기(정우범, 1918)	143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146
43. 재사 기명	160
44. 제당 기명	162
45. [제수 관련]	163
46. 축문식, 흘기	165
47. 묘하사환임명(1920)	172
48. 예하 및 요로(1920년 현황)	173
49. 음복례 외	175
50. 위토전답 두락수 중간변경 내력 및 이정표	176

51. 화지산 상비문부 신마련건(1921)	179
52. 종계안(정우홍, 1921)	180
53. 신매답 등기(1924)	188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189
【원문】	203
【부록】 선산기실 미수록 자료	333
1. 시조묘 祭田을 하사할 제 문답기록	335
2. 화지산 선산수호절목집 서(정인철, 1953)	337
3. 종계안(정언섭, 1733)	341
4. 계속기명	373
5. 향유사안	384
6. 중대봉 森鑿事 단자(정기회 외, 1902) 및 철도원 훈령	388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394
8. 동래정씨화산재종계안(정우홍, 1921)의 신좌목	409
9. 계관시(정윤섭, 1929)	420
10. 화수정기(정만조, 1930)	421
11. 추원당중건기(정윤모, 1956)	425
12. 부사정공치화청덕거사비	432
13. 묘비이수사실(1975)	434
14. 하마비와 하마비 유래비	439
15. 득관대조와 기세조 제단	443
16. 2세 고려안일호장부군 묘갈 번역비	444
17. 과정공 유적지	445
【인명색인】	453

1. 서문(정우흥, 1920)

1. 서문(정우흥, 1920)

東萊先山記實

기미년(1919) 5월에 종약소에서 [이 사람] 雨興을 동래선산 경감독으로 천거하여 임명하였는데,¹⁾ 경감독은 이전의 경유사의 개칭입니다. 불초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고사하였는데도 면직의 허락도 얻지 못하였고, 또한 감히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이 해(1919) 선달에 京鄉諸宗이 말하기를 선산의 節享에 京宗中에서 한 사람을 참석시키기로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에 명년(1920) 동래의 正朝 다례에 부득불 雨興을 참석시키기로 하였다는 편지를 받고서 날짜만 촉박해 갔습니다. 불초는 이미 그 중요한 임무를 처음부터 감당할 능력이 없어 참석을 고사하였으나 사사로이 몸을 사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²⁾ 마침내 선달 스무여드레 날 기차에 올라 [동래 화지산] 山下에 다다랐습니다. 모여든 70여 종인과 함께 경신년(1920) 정월 초하루 享祀에 참석하였습니다. 불초가 초헌의 禮를 가졌는데 경종중에서 참석한 자가 초헌관이 되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였습니다.

享祀가 끝나고 화수정에 들어가서 여러 종인들과 함께 정담을 나누고 재사에 있는 揭字³⁾를 두루 찾아보고 기타 증빙이 될 만한 문헌으로 계속 기록하여 전해 내려온 선산 소유의 동산·부동산의 보존 및 需用 관련 문서와 장부 등을 가져와서 다시 정밀하게 베껴 쓰고, 또 동래가록⁴⁾ 중에서 동래선산에 관한 글을 선별하여

1) 이때 날짜는 양력 1919년 6월 1일이고 음력으로는 1919년 5월 4일이다. 동래 선산 향감독은 동래 반여에 사는 鄭相朝가 임명되었다.

2) 사사로이 몸을 사리는 것만 같아 더 이상 고사만 할 수 없었습니다.

3) 계자는 현판, 주련, 계관 등을 말한다.

4) 동래가록은 수암공(휘 允容)이 편집한 《東萊鄭氏家錄》(필사본, 1842)을 뜻한다. ※수암공의 가록은 ① 譜系錄, ② 年表錄, ③ 碑誌錄, ④ 補遺錄, ⑤

1. 서문(정우흥, 1920)

옮겨 적어 종류별로 편집하고, 달리 찾은 기록 또한 붙여서 一冊을 만들어 《동래선산기실》이라 명명하였습니다. 다만 동래기록에 들어 있지 않지만 불초가 기록해 넣은 것은 반드시 ‘新增’ 두 글자를 붙였으니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경신년(1920)⁵⁾ 2월 일에

호장공 28세손 雨興⁶⁾이 삼가 기록합니다.

桑梓錄, ⑥ 外派錄, ⑦ 世美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譜系錄과 碑誌錄을 수암공의 손자 무정공(휘 만조)이 訂補하여 1919년에 연활자본 14권 7책으로 간행하였다.

5) 《동래선산기실》의 서문을 쓴 연도는 1920년이지만 <화산재종계안>(정우흥, 1921), <신매답 등기>(등기자 명의 정만조 외 5인, 1924), <화지산중년연혁>(정상조, 1925) 등을 통하여 《동래선산기실》은 1925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6) 鄭雨興(1878-1945): 字는 致夙, 호는 喜亭이다. 청석공(휘 圭成)의 손자이며 청석공이 편집한 一統譜를 증보하여 동래부원군과 종손 鄭世鎭공과 함께 간행하였다. □鄭賜(13)-蘭宗-光輔(창원공)-漢龍-純福-象信-恢遠-之僑-有徵-匡周-雲瑞-彥儒-灝-계자 益東(생부 滄)-人默-圭成-穉鎭-雨興-계자 存秀(생부 雨惠)

※《승정원일기》 자료 (음력날짜)

1900(고종 37) 11월 27일 鄭雨興任外國語學校副敎官

1904(고종 41) 5월 6일 鄭雨興任陸軍參尉

1904(고종 41) 11월 4일 參尉鄭雨興命軍法會議判士

1904(고종 41) 12월 8일 法官養成所博士鄭雨興依免

1905(고종 42) 3월 22일 參尉鄭雨興解軍法會議判士

1905(고종 42) 5월 8일 陸軍步兵參尉鄭雨興命軍法會議判士

1906(고종 43) 윤4월 21일 參尉鄭雨興任陸軍副尉

參尉鄭雨興補陸軍憲兵隊附

1906(고종 43) 윤4월 30일 陸軍步兵參尉鄭雨興解軍法會議判士

1906(고종 43) 12월 14일 憲兵隊小隊長參尉鄭雨興兒馬一匹賜給

1907(순종 1) 7월 26일 參尉鄭雨興解本官 [대한제국 군대 강제해산]

2. 丘墓

2. 丘墓

丘墓⁷⁾ {이 글은 《동래정씨가록》 중 桑梓錄에서 가려 뽑은 것으로 兩興이 다시 조사하였지만 혹 오자가 있을 수 있다.}

○안일호장⁸⁾ 동래정공 휘 문도의 묘는 경상남도 동래군(동래는 예전에 東萊府였다.) 서면 연지리 화지산 자좌원에 모셔져 있으며, 배위의 성씨는 실전이며 합장여부는 고증되지 않아 예로부터 제사시 쌍작을 올린다. 묘표(처음 세운 것은 고증할 수 없음⁹⁾)는 20세손 밀양부사 是先이 교체하여 세웠으며 음기¹⁰⁾가 있으며, 묘지(예전에 지석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증할 수 없음)는 19세손 동평위 載崙이 사기로 구워서 묻었으며, 묘비는 22세손 동래부사 彥燮이 세웠다.

○삼가 살펴보건대 公의 휘가 [족보의] 世系에는 제3세¹¹⁾로 나오나 묘표나 묘갈에는 시조로 쓰여 있는 것은 先墓의 表識가 公의 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¹²⁾

○동쪽으로는 杯山이 6, 7리에 있는데 水營 뒤의 主山이며, 동남쪽으로는 荒巖山이 4, 5리에 있는데 그 언덕이 청룡 밖의 진손방¹³⁾이며, 남쪽으로는

7) 丘墓: 무덤.

8) 남봉공(휘 芝衍: 1525-1583)이 세운 묘표, 1613년에 세운 묘표, 1701년에 감사공(휘 시선), 문안공 묘지(1137), 갑인보(1674)에 모두 ‘호장’으로, 복야공 묘지(1105)에 군장으로 되어 있으며, ‘을미보(1655), 병신보(1716), 휘 언섭공이 세운 묘비(1732)에 ‘안일’이 추가되어 안일호장’으로 되어 있다.

9) 《동래선산기실》 집필 당시에는 고증할 수 없었으나 1975년 사초봉행시 문혀 있던 남봉공(휘 지연)이 세운 비석과 1613년의 비석이 드러났다.

10) 《동래선산기실》의 陽記는 桑梓錄의 陰記를 잘못 적은 것이다.

11) 을미보 세계표에는 제3세이고 병신보 이후에는 제2세이다.

12) 남봉공이 비석을 세울 당시 “정회문-지원-문도-...”의 계보가 알려져 있었는지 없었는지 필자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알려져 있음에도 비석에서 휘 문도공을 시조로 적었다고 하면 분명 묘의 존재 때문에 비석에 휘 문도공을 시조로 적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혹시 남봉공이 휘 문도공의 비석 건립 당시 휘 문도공의 선대가 실전상태여서 자연스럽게 휘 문도공을 시조로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2. 丘墓

釜山鎮이 10리에 있는데 釜山鎮 뒤의 子城垵¹⁴⁾라고 불리는 주봉이 안산¹⁵⁾으로 인사¹⁶⁾이며, 남서쪽으로는 옛 현치(옛 동평현 治所)가 있던 東平面이 6, 7리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草邑과 蓮池¹⁷⁾가 2리쯤에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院堂谷이 1리쯤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金井山 산성이 20리에 있는데 이는 곧 來龍¹⁸⁾이며 산줄기가 내려와 다시 솟아 水湧山¹⁹⁾이 되는데 4, 5리에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부치(동래부 治所)가 10리 정도로 가까우며 (신증동국) 여지승람에는 공의 묘소가 현의 서쪽 7리에 있다고 하였다.²⁰⁾

○화지산은 언양 고현산²¹⁾에서 뺏어 내려온다. 金光이 10리를 달려 양산 취서산(통도사 뒷산)²²⁾이 되고 또 40리를 달려 동래부 경계

13) 辰巽方: 24방위의 辰方 + 巽方을 뜻하는 것 같다.

14) 桑梓錄에 甌臺로 되어 있는 것을 雨興공이 子城垵로 바꾸었다. ※垵는 臺의 이체자이다.

15) 案山: 穴 앞에 낮게 옆드린 산으로, 주인이 손님과 마주 앉은 책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16) 印砂: 도장처럼 생긴 산이나 바위로, 고관의 도장을 뜻하는데 큰 결정권자가 난다. ※砂는 穴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산봉우리들을 말하며, 청용·백호·주작·현무·안산·조산은 모두 砂이다.

17) 桑梓錄에 草池로 되어 있는 것을 雨興공이 草邑과 蓮池로 바꾸었다.

18) 來龍: 宗山에서 내려온 산줄기. ※龍은 산줄기를 가리키며 일어섰다 엎드렸다 하는 산줄기를 용이 꿈틀거리며 달려가는 모습으로 본 것이다.

19) 水湧山은 桑梓錄에 小湧山으로 되어 있다. ※金湧山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필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안산공과보(1949)의 묘도 설명문(24면 참조)에 水湧山이 나온다.

20) 東萊府邑誌[奎10877, 1899]와 東萊府誌[想白古915.15-D717, 1899년경] 산천조에 和池山을 적고 “在府南十里自金井山來有鄭氏始祖墓又有和池菴[菴은 庵의 이체자임]”이라 하였다. ※桑梓錄은 여지승람이나 읍지보다 더 정확히 방향을 적었다. 동래읍 치소에서 볼 때 화지산 묘소는 남서쪽이고 묘소에서 볼 때 치소는 북동쪽이다.

21) 高巘山: 신증동국여지승람 언양현 山川조에 高巘山은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고 하였다. ※桑梓錄에 金光山으로 되어 있는 것을 雨興공이 高巘山으로 바꾸었다.

22) 鷺棲山: 신증동국여지승람 언양현 山川조에 鷺棲山은 현의 서남쪽 12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양산군 산천조에 鷺棲山은 고을 북쪽 30리에 있으며 또 언양현에 나온다고 하였다. ※영축산, 영취산, 축서산, 취서산 등으로 불리던

2. 丘墓

의 녹색산²³⁾이 되고 또 10리를 달려 鷄鳴山(범어사 主峯)이 되고 또 10리를 달려 금정산이 되는데 모두 石山이다. 또 起伏하여 30리에 水湧山²⁴⁾이 되고 평지로 과협²⁵⁾하고 또 5리를 行龍²⁶⁾하여 土脈을 일으켜 봉우리를 이룬 곳이 곧 화지산인데 也字 형국을 이룬다. 내청룡이 起峯하여 石腦가 되고 이 石腦는 내백호에 이르러 그쳤다. 내백호는 묘소의 바로 앞을 지나가서 荒嶺山·金連山·盃山²⁷⁾이 되고 그 아래에 水營이 있다. 외청룡은 起峯하여 東邊이 府治(동래부 治所)의 안산이 되었다. 외백호는 天柱峯 西邊에서 落脈하여 白楊山²⁸⁾과 雲水山이 되고 아래로 낮아져 嚴弓山²⁹⁾과 九鳳山이 되고 과협하여 多大浦가 되고 그 아래로 沒雲臺가 있어 외명당이 되었다. 넓은 들에는 普理³⁰⁾라고 부르는 두 羅星이 있으니 두 사³¹⁾이며 또 子城台³²⁾가 있어서 합하여 三台山

명칭을 2001년 지명위원회를 열어 영축산으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한다. 靈鷲山은 신령스런 독수리가 산다는 곳이다. '취(鷲)'가 '축'으로 된 것은 불교식 발음 때문이다.

23) 鹿蹄山: 노포동의 북쪽 鹿洞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부산을 경상남도 양산시와 나누는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다. 높이는 250 m이다. ※녹제산을 沙背也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배야산은 인근 노포 본동마을 뒤쪽에 있으며 높이 196 m이다.

24) 桑梓錄에 天柱峯으로 되어 있는 것을 雨興공이 水湧山으로 바꾸었다.

25) 過峽: 龍勢가 起峰하였다가 다시 움츠러 낮게 된다는 뜻이지만 그런 지형(龍脈)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 부분을 지나면 龍은 다시 起峰하게 된다.

26) 行龍: 龍勢가 낮았다 솟았다 하며 뻗어 나감.

27) 盃는 杯의 이체자이다.

28) 白楊山이 桑梓錄에는 白陽山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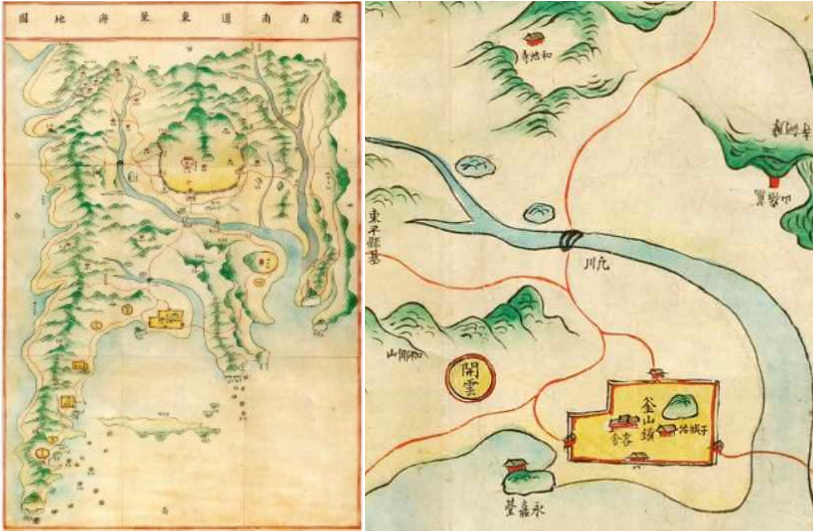
29) 嚴弓山이 桑梓錄에는 嚴光山으로 나온다.

30) 普理가 桑梓錄에는 譜理로 되어 있다. ※釜山鎮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512)에 '東墓'로 표시된 곳이 普理인 것 같다. <102면, 103면 참조.>

31) 砂: 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산을 말하는데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안산, 조산 등의 일체가 砂에 속한다. ※砂인 두 羅星은 상대봉과 중태봉이다. <22면 묘산도 사진 참조.>

32) 桑梓錄에 永臺臺로 되어 있는 것을 雨興공이 子城台(台=臺)로 수정하였

2. 丘墓



▲ 자성대와 영가대 [출처: 동래부읍지(1899)] ※상태봉과 중태봉도 보인다.

되었으며 내안³³⁾은 絶影島이고 외조³⁴⁾는 對馬島인데 점점이 빼어난 봉우리들이 멀리 바깥으로 나열해 있다.³⁵⁾ 내당수는 묘소

다. ※영가대는 1614년(광해군 6) 순찰사 권반이 戰船을 감추기 위해 선착장을 만들었을 때, 파낸 흙이 언덕을 이루자 그곳에 망루를 겸해 세운 8칸 누각으로 1624년(인조 2) 일본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동래에 파견된 선위사 이민구(동래정씨 을미보 서문의 찬자임; 을미보 서문에 “不佞屢道萊郡土人猶指其墓及屋基以爲種德之報云(내가 누차 동래 고을에 가니 그 지방 사람들이 여전히 그 묘소와 살던 집터를 가리키면서 자손이 번성한 것이 모두 덕을 심은 보답이라고 하였다.)”라 하였음)가 순찰사 권반의 본향인 안동의 옛 지명 영가를 따서 이름 붙였다. 1906년(고종 43) 영가대 앞 선착장은 경부선 철도 공사 때 일본인들이 매축하였고, 영가대는 전차 선로를 만들면서 부산의 일본 거주민 단장을 지낸 오이케 타다스케의 별장인 능풍장으로 옮겨진 후 흔적이 사라졌다. 鄭澈의 東萊府使接倭圖, 金允謙의 永嘉臺, 李聖麟의 槎路勝區圖 등의 그림과 향만연구회 김영호가 소장한 1910년(순조 4) 이후의 영가대 관련 사진 자료를 통해 옛 모습을 볼 수 있다.

33) 內案: 안쪽 案山.

34) 外朝: 바깥 朝山.

2. 丘墓

앞에서 합하여 흐르다가 府治 앞에 이르러 감돌아서 水營 왼편으로 모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가 외당수가 되는데 거울 면과 같다. 그리고 穴의 길이가 60여 步인데 그 끝에 재혈³⁶⁾하고, 돌을 보충하여 계절³⁷⁾을 만들었으니 남향이고 아름다워 영남의 큰 명당이 되었다. <출전: 先世事蹟>

○沙峴³⁸⁾은 동래로 향하는 용맥의 퇴사처³⁹⁾이다. 다시 높이 솟아 대귀인의 형상이 되는데 타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후 水形⁴⁰⁾의 峻平之嶺이 되어 별다른 기복 없이 곧 石木이 나타나 작은 봉우리가 되고 석요⁴¹⁾의 층이 나타나 생기가 극히 왕성하게 흐르는 것이 거의 三十里이다. 溫井의 위쪽에 이르러 생기가 더욱 왕성하여 별다른 長枝⁴²⁾는 없으며 亂石이 어지럽게 쌓인 것이 소나기 퍼붓는 형상이다. 山勢는 동쪽으로 가로질러 위락⁴³⁾하여 溫井의 主通脈이 되어 南方으로 조금 낮아져 二 三리를 달리고 또 솟아 수려한 목봉⁴⁴⁾이 되고 그 후 半里 남짓에서 퇴사⁴⁵⁾하고 다

35) 원문: 又有子城坵合爲三台內案絕影島外朝對馬島點點秀峰羅列遠外

36) 裁穴: 묘혈 자리를 재어서 정함.

37) 階節: 무덤 앞에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

38) 沙峴: 양산과 동래의 경계에 있는 沙背峴(여러 고지도와 읍지에 沙背峴뿐만 아니라 沙背也峴 또는 沙背峙로도 나옴)을 말한다. ※1961년 고시에 의해 지경고개로 지명이 변경되었는데(이상한 발상),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사이에 위치하며 금정산과 계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동쪽이며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간다.

39) 退卸處: 退卸하는 곳. 退卸는 용맥이 구르고 꺾여 때를 벗어 조약하고 늪은 용이 평탄한 용으로 젊고 예쁘게 바뀌는 것을 말한다. ※보통 退卸處를 退卸라고 한다.

40) 水形: 봉우리의 모양을 五行으로 분류할 때 산 정상부의 봉우리들이 부드럽게 물결치는 형태.

41) 石曜: 曜星의 하나로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 ※曜星은 용의 기가 왕성하여 일부가 옆으로 새어나가 생긴 기이하거나 툭 불거진 봉우리나 바위이다.

42) 長枝: 分枝한 긴 가지.

43) 委落, 萎落: 쇠하여 떨어짐.

2. 丘墓

시 솟아 좌목봉⁴⁶⁾이 되고 그 후 주맥은 두서너 차례 약간씩 낮아져 혈로 들어오는 봉우리가 되며 청룡·백호 모두 이 봉우리에서 分枝한다. 임계방⁴⁷⁾에서 入脈하여 거의 三四十步이고 조금 돌아서 坎方에서 落脈하는 것이 거의 七八十步이고 原形이 다하여 가운데는 평평하고 아래로 경사져 倒穴⁴⁸⁾하고 傾峻하니 묘는 傾峻의 半 아래로 약간 짧은 곳에 있는데 자좌오향이다. 內龍의 형세는 身肩에 매우 가까우며 中位에 이르러서는 약간 낮아지며 主原의 머리에 서 낮아졌다 솟아 약간 감싸서 혈에서 높아 보이고 내청룡이 낮은 것 같다. 두어 가닥 바깥으로 놓여 있으며 더욱 낮아져 백호가 되며 내청룡에서 약간 먼 곳에 내백호가 있어 멀리 흘러 비스듬히 감싸며 백호에서 分枝하여 그 다음 백호층이 낮아져 감싸 안으며, 면전에서 다시 봉우리가 솟아 돌아서 내청룡의 머리와 함께 합하여 수구⁴⁹⁾가 되어 水破는 午地인데 잠시 병방⁵⁰⁾으로 벗어났다가 오방⁵¹⁾이 된다. 백호가 이 봉우리에서 낮아져 다시 가지를 만들어 안쪽으로 향하여 감싸고 그 후 퇴사하

44) 木峰: 木形의 봉우리. 木形은 붓끝처럼 봉우리가 우뚝 솟아 산세가 단정하며 힘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45) 退卸: 조악하고 험악하던 용이 脫卸하여 평탄하고 예쁜 용으로 바뀌는 것.

46) 坐木峰: 앉은 형태의 木峰(頭身是木足擲橫).

47) 壬癸方: 24방위의 壬方+癸方을 뜻하는 것 같다. ※선산기실의 壬癸方이 桑梓錄에는 癸方으로 되어 있다.

48) 李懿信의 日記 인용문에는 倒穴이지만 雪心都會集의 인용문에는 到穴로 되어 있다. 倒穴과 到穴이 같은 뜻인지 어느 하나가 筆寫하면서 생긴 오류인지 모르겠다. ※풍수서적에 倒頭와 到頭가 혼재하는 것을 보면 倒穴이나 到穴이 같은 뜻인 것 같기도 하다.

49) 水口: 혈에서 보아 물이 최종적으로 빠지는 지점을 가리킨다.

50) 丙方: 24방위의 하나. 정남에서 동쪽으로 15도 방향을 중심으로 삼은 15도 범위의 방위.

51) 午方: 24방위의 하나. 정남에서 동쪽으로 15도 방향을 중심으로 삼은 15도 범위의 방위.

2. 丘墓

여 평지가 되었다가 곧 우뚝 솟아 峻山이 되어 귀인의 형상이 된 것이 하나 있고, 이 귀인과 함께 두 齊峰이 나란히 서 있는데 내 청룡의 머리 바깥과 심히 가까와 마치 그 산을 펼친 것과 같으며, 다시 솟아 돌아서 左肩 바깥에 이르고 또 솟아 두 木形의 尖峰이 되는데 穴에게는[穴에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木形의 두 尖峰은 서로] 매우 가까이 우뚝 서서 [혈을] 호위하고 있으니 수구에서 왼쪽 바깥 關峽과 峻峰이 합하여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外邊의 백호는 主原에서 5리쯤 退行하다가 分枝하여 關峽과 峻山이 되어 흐르면서 감싸서 내백호의 머리⁵²⁾ 근처에서 붙었으며 신미방⁵³⁾에서 시작하여 地境은 정방⁵⁴⁾에서 끝나며, 午地는 들 바깥에서⁵⁵⁾ 끝나며, 바닷가 낭떠러지에 孤山 하나가 있는데 곧 부산진⁵⁶⁾이며 백호의 머리에 있으며, 절영도는 큰 섬으로 海中峻峰과 마주보고 있는데 三台的 외안이다.⁵⁷⁾ 三台는 약간 비스듬히 있는데 그 멀기가 十五里쯤이고 섬의 안쪽 海水는 월견⁵⁸⁾이고 丁午方의 上山⁵⁹⁾ 역시 海島로 이미 丙午地에 있으나 보이지 않는다. 대저 이 산은 통도사에서 시작하여 퇴사한 후 大山이 되어 달리는 것이 거의 四五十里이고 東峽⁶⁰⁾하는 것이 들인데 하나는⁶¹⁾

52) 內白虎之外가 桑梓錄에는 內白虎之頭로 되어 있다. (頭가 맞는 것 같다.)

53) 申未方: 8방위로 보면 坤(24방위의 申+坤+未)을 뜻하는 것 같다.

54) 丁方: 24방위의 하나. 정남에서 서쪽으로 15도 방향을 중심으로 삼은 15도 범위의 방위.

55) 於野中이 桑梓錄에는 於野外로 되어 있다. (外가 맞는 것 같다.)

56) 부산진은 곧 부산진의 뒷산 자성대를 말한다.

57) 원문: 海邊崖有一孤山即釜山鎮在於虎頭絕影大島對立海中峻峰爲三台外案

58) 越見: 혈장에서 저 멀리 산 넘어서 혈장을 훑쳐보는 산.

59) 동래부지[奎11904, 1740] 山川條에 上山에 대해 “一云葦山一云蓬萊在府東十五里望對馬島最近上有平坦處其中卑濕四面如土城狀周圍二千餘步俗云葦山國基”라 하였다.

60) 東峽: 동쪽으로 과협함. ※선산기실의 東峽이 桑梓錄에는 東峽으로 되어 있다.

2. 丘墓

沙峴 앞에서⁶²⁾ 퇴사하며 하나는 沙峴 뒤에서 分脈하고 다시 일어나 대귀인 봉우리 바깥 가지가 大山이 되어 中脊峰 七八里를 감싸고 있으며 成穴處에서 높아져 峻峰이 솟았다 끊혀 그 내협⁶³⁾이 낮아져 中祖山이 되어 흐르면서 호위하니 東萊의 主山이다. 그 주맥은 二三里이며 외협⁶⁴⁾과 함께 가지런하며 西邊 가까이는 과협이 없고 다만 支引이 있다. 강 건너 김해의 산이 과협이 되어 가덕도에 이르는데 [그 과협이] 혈처에서 생겨나 15리 남짓 간다.⁶⁵⁾ 태백산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달리는 산맥이 여기 五六百리에서 다하는데 [산맥 중간 중간의 산들은] 모두 大山으로⁶⁶⁾ 전일하게 조화롭고 언양의 북쪽에 이르러 더욱 깎아지른 듯 높이 솟았고 양산·동래에 이르니 역시 다 壯盛하여 穴까지 三十리에 대귀인의 형상으로 견줄 곳이 드문 참으로 남쪽 지방의 大吉地이다. 다만 占穴이 약간 아래로 치우친 것 같다. 비록 이 혈이 낮지만 그 위로 잡으면 내안⁶⁷⁾이 약간 낮아지고 멀어져 案却⁶⁸⁾이 더욱 드러난다. 옛 사람들의 定穴法은 반드시 안산이 가까운 것을 중요시하며 아래로 치우치는 것을 탓하지 아니했으니 도처에 다 그러하였다. <출전: 李懿信⁶⁹⁾의 日記>

61) 桑梓錄에 者一二則으로 되어 있는 것을 雨興공이 者二一則으로 바꾸었다. (아래에 다시 一則이 나온다.)

62) 退卸之沙峴之前이 桑梓錄에는 退卸於沙峴之前으로 되어 있다. (於가 맞는 것 같다.)

63) 內峽: 안쪽 과협.

64) 外峽: 바깥 과협.

65) 원문: 只有支引隔江金海之山爲峽到加德長於穴處而其去十五餘里也

66) 皆以大山이 桑梓錄에는 皆於大山으로 되어 있다.

67) 內案: 안쪽 안산.

68) 선산기실에 인용된 李懿信의 日記의 표현 “雖低其上則內案稍低遠案却益露”과 역시 선산기실에 인용된 雪心都會集의 표현 “雖似低傾其上則內案稍遠案之脚益露”에서 却과 脚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오자이다.

69) 李懿信(생몰년 미상): 풍수지리학자. 1612년(광해군 4) 그는 임진왜란과 역

2. 丘墓

○북야공이 少時에 太守(원님)가 화자산에 올라 산세를 두루 살필 적에 따라 갔는데 원님이 한 곳에 이르러 혼잣말로 말하기를 “만약 진방⁷⁰)에 殺氣 서린 긴 바위만 없다면 만대에 자손이 부귀 영화를 누릴 묘터인데 天作으로 생긴 바위를 人力으로 없애버릴 수 없구나!” 하면서 탄식해 마지아니하였다. 북야공(휘 穆)이 이를 들었다. 급기야 호장공께서 돌아가셔서 이 땅에 장사지내고자 하니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서 눈이 녹은 곳에 묘터를 잡게 되는 기이한 일이 있었고 또 진방의 긴 바위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 부서졌다. 그 후 북야공은 일로 인하여 上京하여 먼저 지난날의 太守를 찾아뵙고 묘를 쓰게 된 일을 고하니 太守가 기이하게 여기고 문하에 머물면서 독서하게 하였다. 얼마 되지 아니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高氏 집안에 장가들어 자손이 번창하고 대대로 名公 碩學이 많이 났으니 이 어찌 호장공께서 덕을 쌓으신 결과가 아니겠는가? <출전: 先世事蹟⁷¹>

○조선 숙종 연간에(이는 本文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연조를 추정한 것이

적의 변이 잇달아 일어나고 조정이 당으로 갈리고 사방의 산이 붉게 물든 한양의 지기가 쇠해진 것이라 상소하고 도읍을 교하로 천도하기를 청하여 왕의 동의를 얻었으나, 예조관서 이정구와 이항복 등 제신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14년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거절로 무사하였다.

70) 辰方: 24방위의 하나. 정동에서 남쪽으로 30도 방향을 중심으로 삼은 15도 범위의 방위.

71) 先世事蹟의 원본에 “按戶長公爲安逸則年過七十矣墓葬時僕射公長成可推也此所言爲禽高氏之非必謂登科始娶也記者蓋追言其始本也(생각건대 호장공이 안일호장이었으니 연세 70이 지났을 터이니 북야공도 장성하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씨 집안에 장가들었다는 것은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비로소 장가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대개 말이 추가되며 그 처음 것이 본질이다.)”라는 註가 달려 있으나 완담지(1993)에서 “북야공 묘지에는 18세에 서울로 어버이 곁을 떠나서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한 다음 해인 32세에 장가든다고 했으니 註가 없어도 무방했다.”라 하였다.

2. 丘墓

다.} 묘 뒤 몇 자 떨어진 지점에 누군가가 투장⁷²⁾하였다. 仍夷之 10여년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하루는 후손 時翊(近邑에 살고 있음)이 墓下 齋庵에서 자는데 꿈속에 先祖께서 그 사건을 알려주시고 또 그 정상을 상세히 말씀하셨다. 마음속으로 기이하여 마침내 서울에 있는 諸宗에게 서신으로 알리고 또 고을의 수령께 알리고 과연 그곳에 투장이 있는지 試掘하였다. 步數遠近과 埋葬服色이 모두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이 꿈에서 깨우쳐 주신 것과 같았다. 사람들이 이 기이한 일을 감탄해 마지않았다. {時翊은 年七十인 정유년에 졸하였다.⁷³⁾ 동평위공(휘 재륜: 1648-1723)이 만사를 지었는데 만사에 그 일을 序言하였고 또 정성스레 공[時翊]의 정성을 감축하였다. 공[時翊]은 보통 사람 이상으로 오래 살았고 대개 時翊이 이미 늙었을 때 이 일이 있었을 것이고 이 일은 정유년(1717)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임오년(1642, 인조 20)에 18대손 익헌공 太和가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掃墳加土하면서 처음으로 齋庵을 두고 僧徒를 모집하였으며 또 동쪽 황령산부터 서쪽 귀봉산까지 산허리 모두 石牆을 쌓았다. {이 아래의 본문에서 쓰여 있기를 “又於絶影島築牆牧馬以鎮山氣云云(또 절영도에 담장을 쌓아 말을 길렀다. 鎮山の 기운으로 ...)” 하였으나 절영도 말 사육은 옛날부터 있어 이미 오래되었고 임진년에 왜적들이 약탈한 바 있고 승정 계유년에 다시 목장을 설치한 일이 읍지에 실려 있다. 공은, 대개 故事에 의거하면, 임오년(1642)에 처음 설치하지도 않았고 처음 설치자도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絶影島築牆牧馬의 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齋庵은 中年에 화재를 입어 경신년(1680, 숙종 6)에 중건하였으며,⁷⁴⁾ 齋庵 옆에 祭堂

72) 儻葬: 남의 눈을 속여 타인의 묘지 또는 산림에 매장하는 행위.

73) 時翊공의 卒年과 壽로부터 역산하면 生年을 1648년이다.

74) 그 뒤에도 몇 차례 화재가 있었는데 경종 3년 계묘년(1723) 겨울에 齋舍에 화재가 나서 이듬해 갑진년(1724) 봄에 중건하였으며, 신축년(1901)에 齋舍 北廊에 화재가 나서 중건하여 花樹亭이라 명명하였다. ※鄭彥衡(1713-1790)의 문집 《남재일고》에 東萊華池山始祖墓齋舍重建實記라는 글에 있는데全文은 다음과 같다.

2. 丘墓

이 있는데 비가 내릴 때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이 祭堂은 신사년(1761, 영조 37)에 西溪邊으로 이견하였다. 경자년(1720, 숙종 46)에 동래부사이던 21세손 亨益⁷⁵⁾이 망주를 세웠으며, 임자년(1732, 영조 8)에 동래부사이던 22세손 彥燮이 田土를 마련하고 宗契를 설립하였다. {그 뒤로 후손이 本道の 관찰사나 近邑의 수령이 된 분이 위토를 늘리거나 혹은 종계안을 개정한 일이 많은데 다 기록하지 않는다.}

○수호절향 {祭享儀禮는 從先錄⁷⁶⁾에 상세히 나온다.} 등 절목은 本府의 吏廳⁷⁷⁾에 맡겼으며 姓孫 중에 京·鄉有司를 두었고, 山直·祭閣直·齋庵僧을 두어 山下의 位土를 斗數를 정하여 給付로 주어 농사를 짓고 선산을 수호하게 하였다.

○정씨선산{형조참의 소두산⁷⁸⁾ 호 월주}

華蓋金爲祖 華蓋는 금용산이 祖山이 되어

華池之阡舊有齋舍往在景廟三年癸卯冬失火翌年甲辰春大營土木之役先君子預其論一邊往議于京城一邊幹事于役所未幾月而訖功小子時纔龀雖不可詳於目猶有所慣於耳故每入此室追慕之感尤有別焉畧識之以示子孫(화지산 묘소에 예전에 재실이 있었다. 지난 경종 3년 계묘년(1723) 겨울에 화재가 나서 이듬해인 갑진년(1724) 봄에 대규모 중건 공사가 계획되었다. 선친[휘 再興]께서 그 논의에 참여하여 한편으로는 경성에 가서 상의하였고 한편으로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처리하였다. 몇 달도 안 되어서 공사를 마쳤는데小子는 겨우 이를 가는[젓니가 빠지고 간니가 남] 때라서 비록 눈으로 상세히 볼 수 없었으나 귀에 익었을 정도로 여러 번 들었다. 그런 연유로 이 재실에 들어 올 때마다 추모의 마음이 더욱 특별하여 이를 대략 기록하여 자손에게 보이는 것이다.)

□鄭宏(13)-克諧-仁孫-擇-承弼-誦-思忠-僑-三省-再興-彥衡(23).

75) 鄭亨益(1664-1737): 호는 花巖이며 鄭至和의 증손이다. 1719년(숙종 45) 12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720년(경종 즉위년) 10월에 떠났다.

76) 수암공(휘 允容: 1792-1865)이 저술한 44권의 從先錄을 말하는 것 같다.

77) 선산기실의 使廳은 桑梓錄의 吏廳을 잘못 적은 것이다.

78) 蘇斗山(1627-1693): 호는 月洲이며 본관은 진주이다. 1683년(숙종 9) 4월부터 1684년(숙종 10) 8월까지 동래부사를 역임하였다. ※소두산의 시 정씨 선산 2수는 月洲集 卷之一 23장에 나온다.

2. 丘墓

委蛇帶水來 구불구불 강물을 둘러서 왔네
中抽垂乳脉 중앙은 乳脈이 드리워져 있고
外護拱樓臺 바깥은 청룡 백호가 호위하네
門戶重重閉 문호는 겹겹으로 닫혀 있지만⁷⁹⁾
案朝面面開 案山 朝山은 사방으로 열렸네
古來稱吉地 옛부터 吉地로 칭송된 곳으로
無世乏人才 대대로 인재가 끊이지 않았네

又

海山須上最高峰 마침내 해변 산 최고봉에 오르고 보니
大地眞龍隱此中 대지의 眞龍이 이 가운데 숨어 있었네⁸⁰⁾
潮水多情朝曉夕 조수는 다정하게 아침저녁으로 아뢰고
羣山有意擁西東 못 산들은 뜻이 있어 동서로 껴안구나
委蛇形勢千軍陣 구불구불한 형세는 천군이 진을 친 듯
平鋪明堂萬馬容 평평히 퍼진 명당은 만마도 수용할 듯
積德何人能占得 공을 쌓은 어느 분이 이곳 차지하였나
從知福祿世無終 대대로 끝없는 복록 이를 통해 알겠네

○시조 정문도

읍에 속했던 아전이었는데,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했으며, 묘소는 현[동래현 치소]의 서쪽 7리에 있다. <출전: 여지승람 동래 인물>

○상사와 함께 부산성⁸¹⁾[자성대]에 올랐다. 성은 곧 왜인이 쌓은

79) 門戶는 풍수지리에서 물의 드나드는 곳에 위치한 水口砂를 말한다. 문호가 닫혀 있는 것이 명당의 조건이다.

80) 풍수지리에서 龍은 산세의 구불구불한 산의 운동체를 말하는데 眞龍은 용세가 장막을 펼친 듯하고 용신이 생기가 있어 수려한 형세를 가진 산이다.

81) 釜山鎭城을 말하며 부산진 뒷산 봉우리가 곧 子城臺이다.

2. 丘墓



▲ 화지선산과 자성대 [출처: 네이버지도 항공뷰] ※자성대는 1972년 6월 26일에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었다.

것인데 외딴 봉우리가 바다 어귀에 우뚝 솟았고, 앞에 절영도와 마주하고 있다. 북으로 산기슭을 바라보니 古墳이 있는데, 곧 정씨시조의 무덤으로서, 이곳은 안쪽 案山이고, 절영도가 바깥 案山이라고 한다. <출전: 김세렴⁸²⁾의 海槎錄⁸³⁾>

○동래 정문도의 묘에 도착하였다. 묘의 主脈은 사배현⁸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퇴사⁸⁵⁾하여 대귀인⁸⁶⁾이 솟아 이후 水形⁸⁷⁾의 峻平之嶺이 되어 별다른 기복 없이 가다가 石木이 나타나 작은 봉우리가 되고 석요⁸⁸⁾의 층이 나타나 산의 기운이 극히 왕성하게

82) 金世濂(1593-1646): 호는 東溟이며 본관은 선산이다. 1636년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할 때 부사로 선발되어 다녀왔다.

83) 海槎錄은 《동명선생집》에 들어 있다.

84) 沙背峴: 옛 지명으로 양산과 동래의 경계에 있는 고개 이름으로 여러 고지도와 읍지에 沙背峴뿐만 아니라 沙背也峴, 沙背峙로도 나온다.

85) 退卸: 조악하고 험악하던 용이 脫卸하여 평탄하고 예쁜 용으로 바뀌는 것.

86) 大貴人: 큰 산봉우리.

87) 水形: 봉우리의 모양을 五行으로 분류할 때 물이 흘러가듯 굽은 曲形.

88) 石曜: 曜星의 하나로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이다. ※曜星은 용의 기가 왕성

2. 丘墓

호르는 것이 거의 三十里이고, 계방⁸⁹⁾에서 入脈하는 것이 거의 三四十步이고, 약간 돌아서 감방⁹⁰⁾에서 落脈하는 것이 거의 七八十步이고, 原形이 다하여 가운데는 평평하고 아래로 경사져 혈에 이르러 傾峻이 다하고 묘는 傾峻의 半 아래로 약간 짧은 곳에 있는데 좌향은 자좌오향⁹¹⁾이며, 수파⁹²⁾는 午地인데 잠시 병방⁹³⁾으로 벗어났다.⁹⁴⁾ 백호는 낮아졌다 다시 가지를 만들어 안쪽으로 향하여 감싸고 그 후 퇴사하여 평지가 되고 곧 평지가 峻山을 일으켜 貴人の 형상이 된 것이 하나 있고, 이 貴人과 함께 高峰 둘이 들 가운데 있고 해변 언덕에 孤山 하나가 있으니 곧 釜山 鎭으로 백호의 머리에 있으며 絶影島라 부르는 큰 섬 하나가 海中峻峰과 마주보고 솟아 있는데 三台山 된다. 朝山은 午地에 솟아 있는데 案山이 된다.⁹⁵⁾ 그 섬 안쪽에 있는 海水는 월견이고 섬의 바깥쪽은 곧 큰 바다이다. 穴까지 가는데 三十里에 이르는 대귀인의 형상은 필시 비할 바 없이 참으로 小國에서 제일이다. 단 點穴은 조금 아래로 내려 잡은 것 같다.

하여 일부가 옆으로 새어나가 생긴 기이하거나 특 불거진 봉우리나 바위를 말한다.

89) 癸方: 24방위의 하나로 정북에서 동으로 15도 방향을 중심으로 삼은 15도 범위의 방위.

90) 坎方: 8방위의 하나로 정북을 중심으로 삼은 45도의 방위. 24방위의 壬方, 子方, 癸方의 3방위가 坎方에 포함된다.

91) 子坐午向: 등진 방위가坐이며 앞으로 향하는 방위가 向이다. 24방위에서 子方은 정북을 중심으로 하는 15도 범위이고 午方은 정남을 중심으로 하는 15도 범위이다.

92) 水破: 물이 흘러 나가는 곳.

93) 丙方: 24방위의 하나. 정남에서 동으로 15도 방향을 중심으로 삼은 15도 범위의 방위.

94) 李懿信의 日記에는 “水破午地暫犯於丙然爲午也(水破는 午地인데 잠시 丙方으로 벗어났다가 午方이 된다.)”라 하였다.

95) 원문: 海邊岸有一孤山即釜山鎭在虎之頭有一大島名絶影對立海中峻峰爲三台山而朝立午地而爲案

2. 丘墓

전설에 이르기를, 鄭墓 뒤의 높은 곳에 대마도 島主의 묘가 있다고 하지만 정씨들은 대대로 우리나라의 재상이 되었고 자손들이 매우 번성하였다. 島主가 비록 한 섬의 임금이더라도 지역이 매우 좁으니 그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양이 어찌 우리나라 정승의 녹봉에 비기겠는가? 하물며 오랑캐인 바에 島主의 묘인들 정씨 묘자리 명당만 하겠는가?

또 전설에 이르기를, 정씨가 매우 가난하여 큰 눈이 내린 뒤에 시신을 지고 가면서 묘터를 잡지 못하여 길가에서 곡을 하고 있으니 한 노승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 골짜기 안에 가면 눈이 없는 곳이 있을 터이니 그곳이 장사지내기에 좋을 것이다.”라 하므로 그 가르침에 따라 그곳에 묘를 썼다고 하였다.

정씨의 묘자리가 비록 밑으로 치우쳐 잡은 것 같지만 위로 높게 잡으면 內案이 조금 멀어지고 案山의 바닥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 옛 사람들의 묘자리 정하는 법은 반드시 案山이 가까운 것을 중요하게 여길 뿐 [묘자리가] 밑으로 처지는 것으로는 탓하지 아니했으니 도처에 다 그러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조종⁹⁶⁾의 겉보기만 탐하여 힘써 높게 묘자리를 정하니 옛날과 차이가 있다.

<출전: 雪心都會集>

補記

살펴보건대, 以上の 김세렴(호 동명)의 해사록 기록과 설심도회집(찬자 미상) 기록은 동래가록에 실리지 않고 다만 낱장 종이에 기록되어 전래되던 것이다. 왕고와 선고께서 살아 계실 때 찾아 기록한 것으로 [가록의 필자가 가록에] 옮겨 베끼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번엔 모두 기록하여 훗날 참고가 되게 한다.

96) 朝從: 朝山과 從山.

2. 丘墓

新增

묘소의 용절과 좌향

[용절은] 좌선건해룡⁹⁷⁾이고 축간회두⁹⁸⁾이고 계축위이⁹⁹⁾이고 임감전신¹⁰⁰⁾이고 임입수¹⁰¹⁾이고 [좌향은] 자좌오향¹⁰²⁾이다.

호장공 주택의 옛터

동래군 서면 율복리이다. {묘소로부터 동쪽으로 2리쯤 떨어져 있으며 현재 동래군 동래면 연산리¹⁰³⁾이다.}

97) 左旋乾亥龍: 혈의 乾亥方에서 龍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휘어져 달리는 모양.

98) 丑艮回頭: 혈의 丑艮方에서 머리를 돌리는 모양.

99) 癸丑透迤: 혈의 癸丑方에서 최종 마무리로서 얼마 남지 않은 살기를 털어 내기 위하여 좌우로 구불구불하게 굴곡하는 모양.

100) 壬坎轉身: 혈의 壬坎方에서 몸을 구르는 모양.

101) 壬入首: 혈에서 보아 壬方에서 入首하여 들어옴. ※入首는 龍의 머리가 들어온다는 뜻이지만 그런 지형의 龍脈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癸入首로 표시된 자료(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동래부원군중가 기증유물)도 있다. <21면 사진 참조.>

102) 子坐午向: 등진 방위가坐이며 앞으로 향하는 방위가 向이다. ※누웠을 때 머리가 향하는 방위가坐이고 다리가 향하는 방위가 向이다.

103) 1937년 전 증추원의관 鄭禮朝가 양정동 흑암리 일대를 매입하여 지금의 연산동 산186-1번지 3통 5반에 유허비를 세웠다고 한다. <완담지(정재기, 1993) 121면 참조.> □鄭雍(13)-復周-渙-계자 允奇-元沉-洽-應望-燁-堯學(21)-……-東新-震容-基奎-禮朝(28) ※鄭禮朝공이 찬한 호장공의 유허비 비문이 <<조선환여승람>>(동래군지 豎碑條)에 실려 있다. 다음은 그 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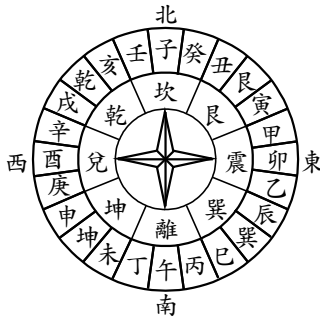
戶長鄭文道遺墟碑

萊府之南有黑岩里惟我先祖安逸戶長公攸宅之址也積德累仁子姓不億而名公巨卿赫世蟬聯爲東方之華閭根深者葉茂源遠者流長其理不忒矣公諱文道皇考曰之遠篤生府君高麗顯宗朝爲東平縣吏旣老家居聞官角聲必下庭拜伏府君之知分也手栽菁根積置路傍以賑行人之飢渴者府君之仁心也當時之人至有賑菁辭而頌之其遺址至今叢竹尚存耕者往往見瓦礫礎石爲其後孫者不勝感古之思立石記其事以遺後世焉(동래부 남쪽에 흑암리가 있는데 우리 선조 안일호장공의 집터가 있던 땅이다. [공께서] 德을 쌓고 仁을 쌓아 자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공거경이 혁혁하게 잇달아 나와 동방의 華閭이 되었다.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고 샘이 원대하면 길게 흐르니 그 이치는 어김이 없다. 公의 諱는 文道인데 皇考이신 휘 之遠께서 고려 현종조에 부군을 냈으셨다. 부군께서 동평현의 관리[吏]가 되었다가 이윽고 연로하여 집에 계실

2. 丘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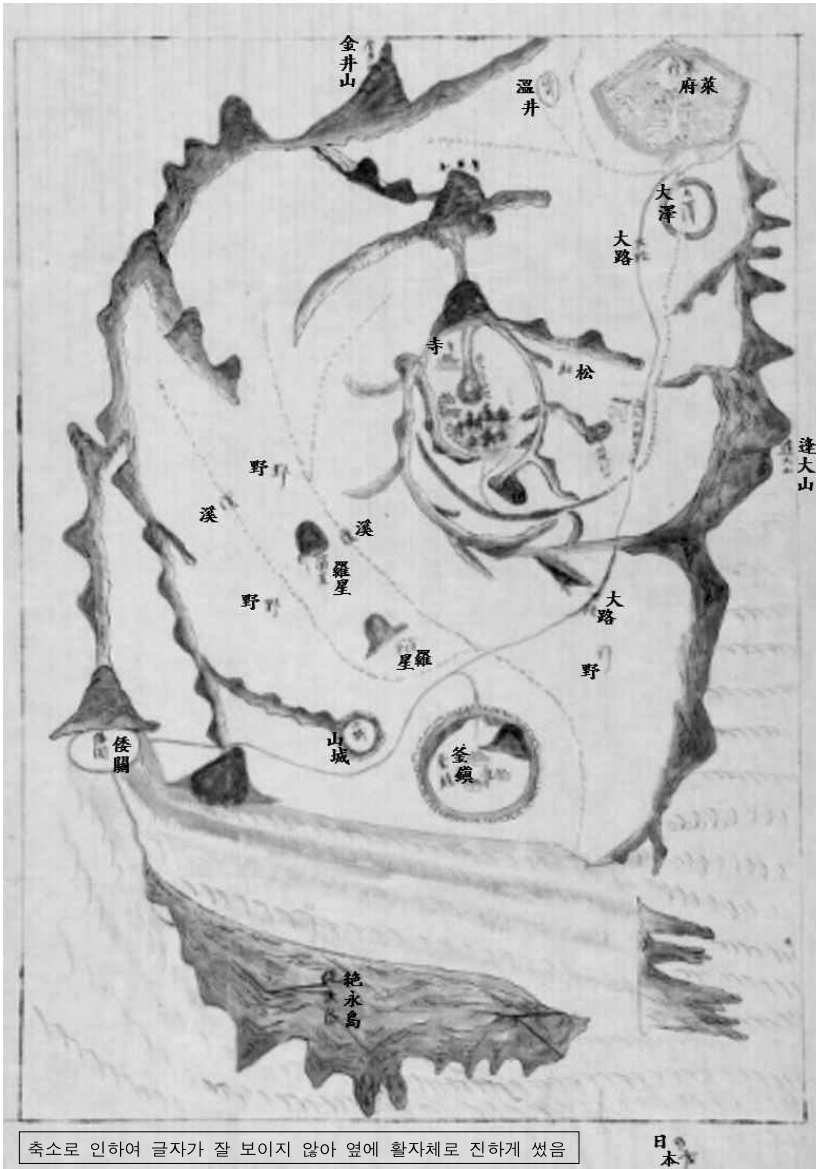
▲ 화지산 [출처: 다음지도 지형도]



◀ 24방위와 8방위

때 관아에서 부는 나각 소리를 듣고 반드시 뜰 아래로 내려가 엎드려 절하였는데 이는 분수를 아신 것이다. 손수 무우를 재배하여 길쌈에 쌓아 두고 굶주린 행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부군의 어진 마음에서이다. 당시 사람들은 賑膏詞를 지어 이를 기렸다. 그 遺址는 지금 대나무가 뿔뿔히 그대로 있고 발가는 자가 왕왕 기와조각과 주춧돌을 발견하니 그 후손으로서 옛 생각의 감회를 억누르지 못하여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이다.)

2. 丘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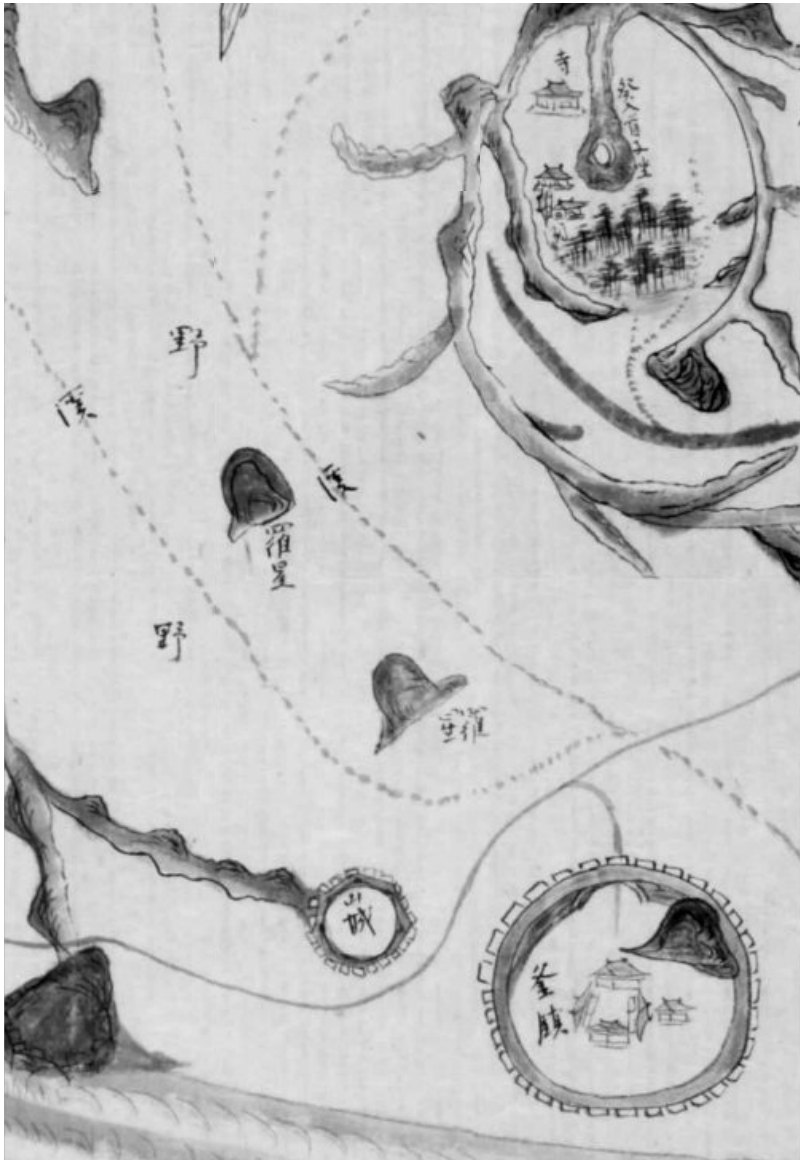
▲ 화지산 묘산도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동래부원군종가 기증유물)]

2. 丘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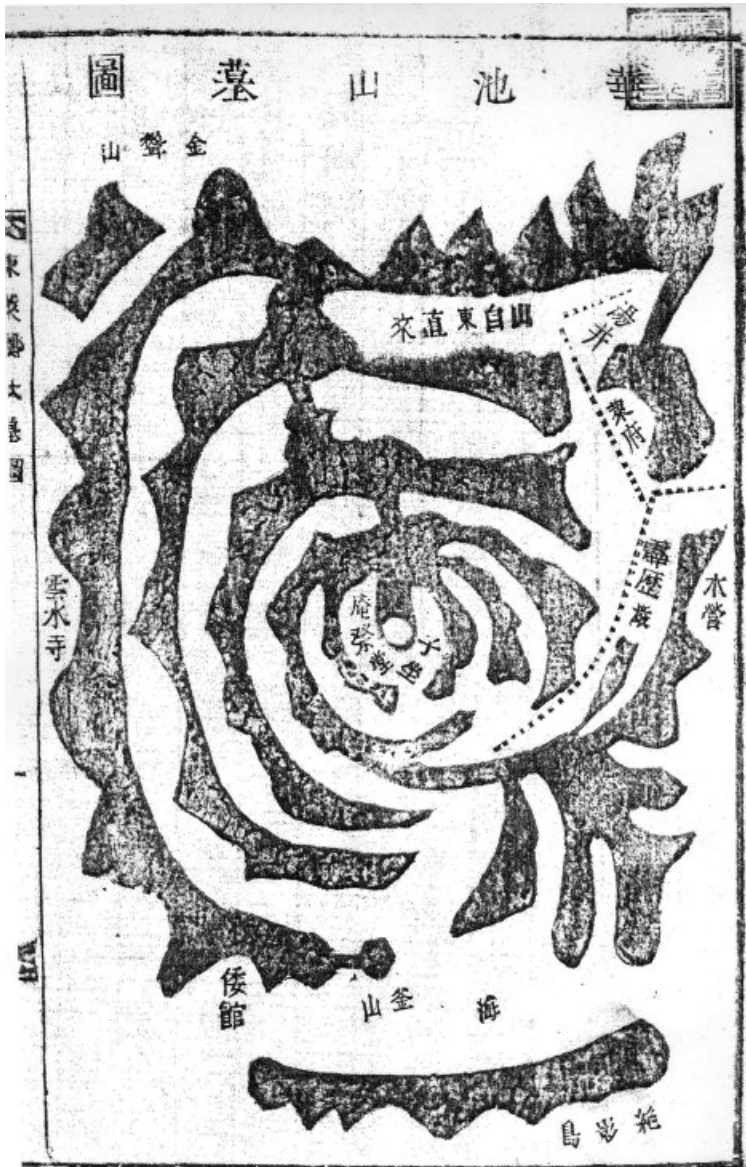
▲ 《선산기실》의 壬入首와 달리 癸入首로 되어 있다. ※東萊鄭氏始祖墓 阡이라고 쓴 비석형태의 표석이 있으며 □(汝?)牧□(軟?)山이라는 작은 봉우리 이름이 보인다.

2. 丘墓



▲ 삼태봉[상태봉(나성), 중태봉(나성), 하태봉(자성대)]

2. 丘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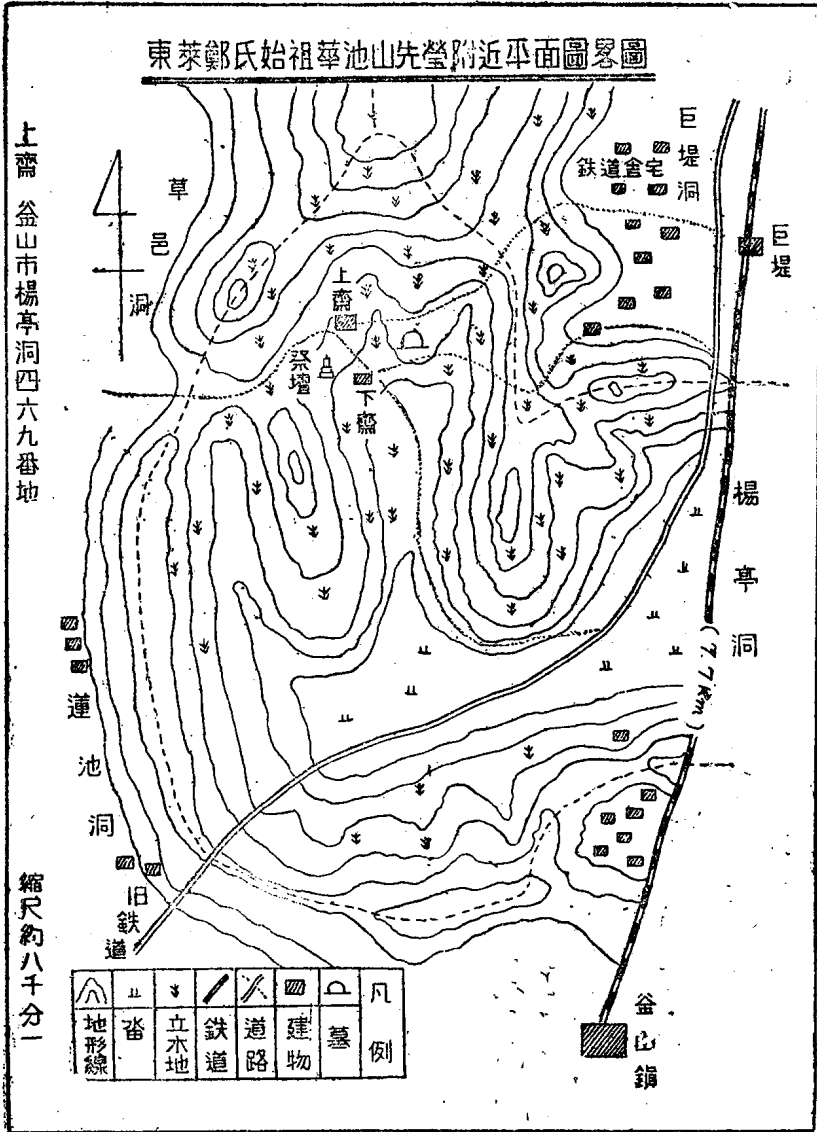
▲ 화지산 묘도 [출처: 안산공파보(1949)]

2. 丘墓

墓在東萊郡西面楊亭里華池山萊府爲西南十里許釜
山關爲東北十里龍自金井落脉水湧山透迤明堂三台
峯爲三點本山爲也字形並成池字形子坐向外白虎白
陽山雲水山下端有汲雲臺外青龍下有五六島一邱巖
石隨海潮進退或五或六案對內白虎有子城臺絕纓臺
外有對馬島秀峯墓下有祭閣齋室設庵置僧墓庭有百
日紅二株不紀幾百年四節享祀正朔寒食端午秋夕

▲ 화지산 묘도 뒷면 설명문 [출처: 안산공파보(1949)]

2. 丘墓



▲ 동래정씨시조화지산선영부근평면도약도 [출처: 화산재지(재판, 1956)]
 ※ 화산재지 초판(1953)에는 華池山이 萊池山으로 잘못되어 있음.

3. 묘표(정시선, 1701)

3. 묘표(정시선, 1701)

東萊鄭氏始祖戶長鄭公之墓(表石前書)

공의 휘는 문도인데 정씨의 시조로 동래 화지산 자좌원에 장사 지냈다. 그 상세에 대한 문적이 없었는데 조선 효종대왕시 장단 송림산 아래에 오래된 묘가 허물어져 지석이 나왔는데 예부상서 문안공 鄭沆의 묘임을 알게 되었다.

지석의 기록에 이르기를 ‘그 선대는 동래사람으로 考의 휘는 穆이며 섭태부경을 지내셨고 祖의 휘는 文道이며 曾祖의 휘는 之遠인데 두 분 모두 본군의 호장을 지내셨다. 문안공 沆의 나이 23세 때인 고려 숙종 임오년(1102)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인종 병진년(1136), 즉 송나라 소흥 6년에 돌아가셨다. 문안공 沆은 형이 세분인데 濟는 일찍 돌아가셨고 漸과 澤 두 분 모두 文章과 材幹 (=才幹)으로 조정에 이름을 날리셨다.’고 하였다. 이로써 공의 연대는 미루어 짐작되므로 삼가 비석의 뒷면에 음기하여 뒷날 후손들로 하여금 참고가 되게 하노라.

황명 승정¹⁰⁴갑신후 58년 신사년(1701, 숙종 27) 동지일에
20대손 밀양부사 是先¹⁰⁵이 바꾸어 세우다.

○삼가 살펴보건대, 비석 묘도문의 시작으로 시조를 쓸 때 제3세인 호장공의 諱로 한 것은 곧 족보의 계보와 다른데 혹자가 말하기를 先祖 묘의 如何 때문이라고 한다.

104) 崇禎은 명나라 16대 황제[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의 연호로 1628년부터 1644(갑신)년까지 17년간이지만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굴복한 후 민간에서는 청나라의 강압에 반대하여 1645년 이후에도, ‘崇禎紀元(1628)後’ 또는 ‘崇禎甲申(1644)後’를 사용하였다. 승정갑신후 58년은 승정갑신 그해를 포함하여(즉 그해를 1년으로 하여) 58년째 해인 1701년이다.

105) 鄭是先[1650(효종 1)-1717(숙종 43), 22世]: 字는 백초(百初)이다. 예조 참판 휘 만화(萬和)의 손자이다. 경상도음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666) 密陽 宦蹟條에, “辛巳(1701)九月來癸未(1703)八月陞拜廣州南行”이라 하였다.

4. 묘지(정재륜, 1703)

4. 묘지(정재륜, 1703)

有宋高麗國東萊戶長鄭公墓誌

府君의 휘는 文道이니 곧 東萊鄭氏 시조이다. 묘는 동래 화지산 자좌원에 모셔져 있고 자손이 끊임없이 이어져 이제까지 거의 천 년 동안 제사 향불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上世를 고증할 문헌이 없었는데 조선조 효종대왕 때 경기도 長湍의 松林山 기슭에서 옛 무덤이 허물어져 묻혀 있던 지석이 드러났는데 곧 고려 예부상서인 문안공 鄭沆의 묘였다. 지석의 기록에 이르기를 ‘그 선대는 동래사람으로 考의 휘는 穆이며 섭태부경을 지내셨고 祖의 휘는 文道이며 曾祖의 휘는 之遠인데 두 분 모두 동래군의 호장을 지내셨다. 문안공 沆의 나이 23세 때인 숙종 임오년(1102)에 과거에 합격하여 인종 병진년(1136), 곧 송나라 소흥 6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문안공 沆은 형이 세분인데 濟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漸은 형부랑중 어사잡단이었고 澤은 급사중 태자찬선대부이었는데 두 분 모두 文章과 材幹(=才幹)으로 조정에 이름을 날리셨다.’고 하였다. 府君의 연대는 이로써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대손 載崙이 나라에 글을 올려 휴가를 얻어 성묘하고 지석¹⁰⁶⁾을 묘소의 오른쪽에 묻는다. 府君의 내외 자손이 몇 천 명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고, 벼슬하여 현달한 분이 조정에 뽐뽐한 데¹⁰⁷⁾ 달리 다 적지 못하고 다만 나의 所自出¹⁰⁸⁾만을 상세히 한 것은 [府君의 후손 중 현달한 자만 보더라도] 그 수를 다 세어서 遍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석을 만들어 묻는 자가 載崙

106) 誌墓之石: 묘를 기록한 돌, 곧 誌石.

107) 比踵: 발꿈치를 잇대어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계속하여 나옴.

108) 所自出: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밝힌 계보.

4. 묘지(정재륜, 1703)

이므로 소순의 족보 서문¹⁰⁹⁾의 뜻을 본받아 [載崙의 所自出만을 적는 정도로] 줄였기 때문이다.¹¹⁰⁾

府君의 長子는 穆이고 穆의 三子는 澤이요 澤의 長子는 전옥령 子家요 子家の 二子는 첨사 弼이요 弼의 三子는 주부동정(注簿同正) 椿老요 椿老의 五子는 검교태자첨사 崇이요 崇의 子는 자섬 부사 之衡이요 之衡의 長子는 예문응교 毗인데 承源으로 개명하였고 承源의 子는 판사복시사 諧요 諧의 子는 결성현감 龜齡이니 조선 세종조에 벼슬하여 어진 관리로 칭송되었고 龜齡의 三子는 직제학 賜요 賜의 三子는 성종조에 좌리공신 우참찬 익혜공 蘭宗이요 蘭宗의 二子는 영의정 문익공 光弼이니 중종조에 재상을 하여 중종묘정에 모셔졌고 光弼의 四子는 강화부사 福謙이요 福謙의 長子는 좌의정 임당공 惟吉이니 선조 때 재상이고 惟吉의 子는 좌의정 昌衍이니 인조 때 재상이고 昌衍의 長子는 형조판서 廣成이요 廣成의 長子 영의정 익헌공 太和는 인조·효종·현종 때 재상으로 현종묘정에 모셔졌고 二子 좌의정 致和는 현종과 금상(숙종) 때 재상이다. 나 載崙은 太和의 五子로서 致和의 계자

109) 蘇明允族譜引: 蘇洵의 족보 서문. 明允은 蘇洵의 字이다. 引은 序의 시 초로서 문장의 성격이 대략 序와 같다. 蘇洵은 미산소씨족보를 만들고 그 서문을 썼는데 아버지 이틈이 序여서 그 서문을 序 대신 引이라고 하였다 고 한다. ※序를 引이라고 한 것이 동래정씨 족보에서도 발견된다. 1859년에 간행된 안산공파보에 鄭元容의 序와 鄭允容의 序가 있고 鄭基三의 引이 있고 鄭存民의 跋이 있다.

110) 蘇洵은 族譜引에서 ‘自吾之父以至吾之高祖仕不仕娶某氏享年幾某日卒皆書而它不書者何也詳吾之所自出(중략)譜爲蘇氏作而獨吾之所自出得詳與尊何也譜吾作也(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의 고조에 이르기까지는 벼슬을 하고 하지 않은 것과 어느 집안에 장가든 것과 몇 살까지 산 것과 어느 날 돌아간 것을 모두 쓰면서 다른 분들에 대하여는 쓰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내가 나온 계보를 자세히 하기 위해서이다. (중략) 족보는 소씨를 위하여 만드는 것인데도 오직 내가 나온 계보만을 자세히 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족보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4. 묘지(정재륜, 1703)

가 되었으며 효종대왕의 딸 숙정공주에게 장가들어 동평위에 봉해졌다.

황명 승정갑신후 60년 계미년(1703, 숙종 29) 9월 일 동평위 載崙¹¹¹⁾이 성묘시에 묻다.¹¹²⁾

111) 鄭載崙[1648년(인조 26)-1723년(경종 3)]: 자는 秀遠이고 호는 竹軒이고 시호는 翼孝이다. 器局이 俊偉하고 생활이 檢소하여 모두 왕의 사위인 줄 몰랐다고 한다. 列聖誌狀通記를 증보 간행하였으며 저서로 公私聞見錄(미간행 필사본으로 公私見聞錄, 遣聞錄 등의 제목으로도 行함), 閑居漫錄이 있다. 동래 화지산과 용궁 오선산의 조상 묘를 성묘하고 埋誌하였으며 병신보(1716) 간행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왔다.

112) 《경모기(景慕記)》(鄭鑣桓 편저, 한림학사, 1989)에 영인 수록된 묘지에 “東平尉載崙省墓時埋”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이다.

5. 묘갈(정언섭, 1732)

5. 묘갈(정언섭, 1732)

有明朝鮮國東萊鄭氏始祖高麗安逸戶長府君墓碣¹¹³⁾

22대손 통정대부 동래도호부사 언섭¹¹⁴⁾이 공손히 쓴다.¹¹⁵⁾

세상에서 씨족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동래정씨를 명문 대가라고 하고, 풍수가들은 또한 화지산의 鄭墓를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명당이라고 한다. 대개 고려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천여년 동안 봉분과 묘역이 완전하고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자손들도 유구히 번창하고, 수많은 公卿이 배출되어 國史와 家譜에 찬란히 서로 이어졌다. 그 시작은 모두 이 묘에 묻힌 공께서 심어놓은 種德에 대한 보답에서 나온 것이다. 아!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무성해지고 냇물의 양이 풍성하면 흐름이 멀리까지 가는 것이다. 이 어찌 근본 없이 그렇게 되겠는가?

묘소 앞에는 예로부터 나지막한 작은 비석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닳고 이지러졌다. 신사년(1701, 숙종 27)에 20대손인

113) 두전에 이렇게 쓰여 있는바, ‘유명조선국’은 조선시대에 건립했다는 뜻이고 실제 공의 생존 연대는 ‘고려안일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이다.

114) 정언섭[1686(숙종 12)-1748(영조 24)]: 字는 公理이며 병신보(1716)를 修譜한 수와공(휘 필동)의 아들이다. 경술년(1730) 10월부터 계축년(1733) 4월까지 동래부사를 역임하였으며, 공께서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된 동래읍성을 1731년(영조 7) 대대적으로 수축하였으며(이 사실을 칭송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735년(영조 11)에 당시 부사 최명상이 건립한 萊州築城碑는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6호임), 1731년에 공께서 동래읍성을 수축할 때 임진왜란의 격전지였던 옛 남문터에서 많은 전사자의 유골이 발견되어 삼성대 부근에 6개의 무덤을 만들어 안장하고 공께서 손수 비문을 짓고 글씨를 써서 壬辰戰亡遺骸之塚(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3호)이라는 비를 세웠다. 時述齋 서당에서 세운 府使鄭公諱彥燮興學去思碑가 동래향교에 남아 있다. □鄭欽之(13)-昌孫-价-啓咸-鎰-應期-泐-慶業-櫺-台壽-必東-彥燮(24)

115) 찬자 표시가 《동래선산기실》의 원문 수록에는 묘갈문 끝에 나오지만 번역에서는 실제 묘갈 비석에 따라 이렇게 앞에 두었다. (뒤에 두든 앞에 두든 똑같다.)

5. 묘갈(정언섭, 1732)

감사공 是先이 밀양부사로 있을 때¹¹⁶⁾ 돌을 다듬어 碑陰을 간략하게 새겨 새 비석으로 고쳐 세웠다. 삼가 그 기록을 살펴보니 “공의 휘는 문도이며 정씨의 시조로서 동래의 화지산 자좌(정남향) 언덕에 안장되어 있지만 그 윗대에 대해 고증할 문헌이 없었는데, 효종대왕 때 경기도 장단의 송림산 아래에 있던 오래된 묘가 허물어지면서 幽誌¹¹⁷⁾가 나왔으니 이는 예부상서 문안공 鄭沆의 묘였다. 그 지식에 ‘그 先代는 동래인이며 아버지의 휘는 穆이며 섭태부경에 올랐고, 할아버지의 휘는 文道이며 증조부의 휘는 之遠인데, 모두 이 고을의 호장을 지냈다. 沆은 나이 23세 때인 고려 숙종 임오년(1102)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인종 병진년(1136) 곧 송나라 소흥 6년에 세상을 떠났다. 沆에게는 세 분 형이 있는데 濟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漸과 澤은 모두 문장과 재간으로 조정에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하였다.

슬프도다! 공의 연대는 이로써 그 대강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유독 신중[謹], 순후[厚], 충직[忠], 성실[愨]의 덕행과 겸손[謙], 공손[恭], 질박[質], 검소[儉]의 기풍은 의당 가문을 일으킨 시조가 될 만하고 후세 자손들의 모범이 될 만한데도 잃어버려 전해지는 것이 없다. 동래군지에 이르기를 “공께서 동래현의 향리로 있다가 연로하여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매월 초하루에 나팔소리가 들리면 고을의 수령이 조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곧바로 뜰에 내려가 엎드려 절하였으니 그 공손함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동래군지에 또 이르기를, “공께서 세상을 떠나서 장

116) 《경상도읍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666) 밀양 窟蹟條에 ‘鄭是先 辛巳(1701)九月到癸未(1703)八月陞拜廣州南行’이라 하였다.

117) 幽誌: 죽은 사람의 이름과 태어나고 죽은 날, 지위와 행적, 무덤이 있는 곳과 무덤의 방위인 坐向 등을 간략하게 기록한 글로서, 石版이나 陶版에 새겨서 무덤 옆이나 壙內에 묻었다. 墓誌라고도 한다.

5. 묘갈(정언섭, 1732)

사지널 적에 行喪이 화지산에 이르자 마침 눈이 녹은 것이 범이 웅크리고 앉은 모습과 같은 기이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장사 지냈다.” 하였다. 지금도 고을 사람들이 모두 鄭戶長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 묘를 가리켜 鄭墓라고 한다. 나무꾼과 목동이 감히 들어가지 않아 丘木¹¹⁸⁾이 탈이 없었고, 이곳 땅은 남쪽 변방에 있는데, 난리를 여러 번 겪었으면서도 역시 감히 침범하지 못했으니, 이는 모두 공께서 덕을 베풀어 쌓고 선을 두터이 한 까닭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족보를 보니 공의 손자가 네 분이다.¹¹⁹⁾ 시랑 濟와 어사잡단 漸은 자손이 전하지 않고, 沆은 幽誌에서 말한 문안공인데 자손 또한 전하지 않는다. 유독 자손이 전하는 문하침의 찬성사 급사중 澤은 고려 조정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인종 때에 예빈소경으로 왕명을 받들어 金나라에 사신으로 간 사실이 고려사¹²⁰⁾에 실려 있다. 공의 자손들은 찬성공 澤에 이르러 더욱 번창하여 지금까지 두루 온 나라에 대대로 名公碩卿¹²¹⁾을 배출하여 왕실을 보좌하고 나라의 世臣이 된 사람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대개 충직함 [忠]과 순후함 [厚]과 공손함 [恭]과 신중함 [謹]을 법도로 삼아 내려오는 유풍(流風)과 여운이 지금까지 쇠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

118) 丘木: 무덤가에 있는 나무. 邱木으로 쓰기도 한다.

119) 실은 다섯 분인데, 네 분은 병신보(1716)에 나오는 공의 장자 穆의 아들(휘 濟, 漸, 澤, 沆)이고 한 분은 공의 차자 先祚의 아들(휘 秋)이다. 병신보에는 吏派인 호장공(3세 휘 先祚)파가 배제되어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선영 관리에 정성을 다한 호장공 휘 先祚의 많은 후손들은 기미보(1919) 수보시 3세 복야공 휘 穆의 후손으로 입보하였는데 일부는 교서랑공(6세 휘 보)파로, 일부는 첨사공(휘 필)파로 되었다. 이에 대한 엄밀한 고증이 있는지 필자는 궁금하여 그 고증을 찾고자 노력중이나 아직 찾지 못하였다.

120) 高麗史(권16 세가 제16 인종 11년 9월 갑인일)에 “遣禮賓少卿鄭澤如金賀天清節”이라 하였다.

121) 名公碩卿: 名公巨卿, 名公鉅卿.

5. 묘갈(정언섭, 1732)

들이 이 忠厚恭謹을 정씨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이라고 한다.

나 彥燮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고 조상의 음덕을 입어 이곳에 부사로 와서 묘역을 바라보며 성묘하고 있는데, 한 줄기 기운이 흘러 통하는 느낌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곧 문중의 어른인 밀양부사 赫先¹²²)과 함께 인근 고을에서 벼슬하고 있는 집안 일가들에게 알려 그 녹봉을 떼어 祭田을 더 마련하게 하고, 또 이 고을의 종친들과 함께 묘소 아래에 모여 종계를 조직하여¹²³) 종족을 거두고 묘역을 수호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것은 천년 백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언덕과 골짜기가 변하게 되면 묘표¹²⁴)의 기록을 알아보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묘소의 섬돌에서 남쪽으로 십여 걸음쯤 되는 곳에 돌을 다듬어 묘갈을 세우게 되었는데 묘갈문은 묘표의 음기 畵文을 모두 사용하고, 또 동래군지에 실린 기록으로 후세에 증거가 될 만하면서, 묘표의 음기에 빠진 것을 간략하게 첨가하였다.

묘소 앞의 석물이 너무 간소하여 마땅히 고쳐 세워야 하겠지만 또한 감히 하나하나 새롭게 더하여 번듯하게 보이게 하지 않은

122) 鄭赫先[1666(현종 7)-1733(영조 9), 22世]: 字는 현보(顯甫)이다. 양과공(휘 태화)의 손자이다. <경상도읍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666) 密陽 宦蹟條에, “庚戌(1730)十一月來癸丑(1733)以善賑加資同年三月卒逝”라 하였다.

123) 이때 제정한 종계안의 당시 성책본이 오늘날까지 전하며, <華山齋誌>(서 정낙필, 1953)에도 수록되어 있다. ※<華山齋誌> 초판본(1953)은 전반부 華山齋開錄(서 鄭寅書, 서 鄭升模)과 후반부 華池山先山守護節目集(서 鄭寅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반부 절목집에는 동래정씨종계절목(계장 정언섭씨종계안 一冊), 화지산산소수호절목(정기선씨제정절목 一冊), 동래정씨화지산종계안(계장 정인학씨개수안 一冊), 동래정씨화산재종계안(계장 정우홍개수안 一冊), 동래정씨종계안(개수)(自稷長 鄭彥燮[氏]設稷後繼續記名 一冊), 향유사안 一冊이 수록되어 있다. <華山齋誌> 재판본(1956)에는 초판본의 후반부 華池山先山守護節目集이 빠졌다.

124) 감사공 시선께서 고쳐 세운 묘표를 말한다.

5. 묘갈(정언섭, 1732)

것은 忠厚質儉의 遺德을 해치지나 않을까 염려한 때문이다. 무릇 이 묘의 자손 된 사람들은 어찌 감히 조상의 덕을 떨어뜨려 가풍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아! 湧山¹²⁵이 깎이어 솟돌처럼 닳고 蓬海¹²⁶가 마르고 줄어 작은 도랑처럼 될 때까지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겠으니 후손들은 와서 입을 지어다.

숭정갑신후 89년¹²⁷ 임자(1732, 영조 8) 11월 일 세우다.

감역 후손 유학 震僑,¹²⁸ 師玄,¹²⁹ 절충 金昌夏.

125) 화지산 뒤의 祖山인 金湧山(金湧山)을 뜻한다.

126) 蓬萊 바다, 즉 東萊 앞바다를 뜻한다.

127) 崇禎甲申(1644) 당해를 1년으로 할 때 89년은 임자년이다.

128) 鄭震僑(1696-1754): 字는 공시(公始)이며 호장공(휘 先祚) 10대손 휘 深(13세)[기미대동보(1919) 이후 복야공(3세 휘 穆) 10대손 휘 琛(13세)]의 10대손이다. 공은 將官廳 中軍, 別騎衛廳 別將이었으며, 임자년(1732) 10월에 東萊華池山始祖墓守護宗契의 鄉有司를 맡았다. <조선 후기 동래의 무청선생안과 무임 총람(손숙경, 이훈상,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과 華山齊誌(鄭樂弼, 1953) 참조.> □鄭先祚(3)-秋-命海-振成-孟-善敷-泰淑-順興-允耆-慶章-深(13)-觀-世徵-緇賢-琳-濠-麟角-彥龍-嗣後-泰彬-致韶-震僑(23) ※ <동래선산기실>에 수록된 묘갈의 頭註에 “震僑 詹事弼[田] [田] [田] [田] [田]”이라 하였는데 이는 병술별보(1766)에 震僑는 호장공(3세 휘 선조)파였는데 기미대동보(발 정만조, 1919)에서 동지공(12세 휘 진)파를 처음으로 만들어 첨사공(6세 휘 필)[호장공의 형인 복야공(3세 휘 목)의 증손]파로 입보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鄭穆(3, 복야공)-澤-子家-弼(6, 첨사)-椿老-謂-允昌-天德[병신보(1716)에 자손무전으로 기록]-之成-軫(12)-琛(13)-觀-世徵-緇賢-琳-濠-麟角-彥龍-嗣後-泰彬-致韶-震僑(23)

129) 鄭師玄(1700-1774): 字는 경이(敬而)이며 호장공(휘 先祚) 10대손 휘 沆(13세)의 12대손이다. 공은 別騎衛廳 別將이었으며, 계축년(1733) 4월에 東萊華池山始祖墓守護宗契의 鄉有司를 맡았다. <조선 후기 동래의 무청선생안과 무임 총람(손숙경, 이훈상,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과 華山齊誌(鄭樂弼, 1953) 참조.> 또한 병술별보(1766) 간사자 3인(후손 鄭師玄, 출신 鄭得命, 출신 鄭萊興) 중 한 사람이다. □鄭先祚(3)-秋-命海-振成-孟-善敷-泰淑-順興-允耆-慶章-沆(13)-信重-裕諳-文-厚豐-東榘-春孫-之成-斗-德逸-時昌-萬重-師玄(25) ※ <동래선산기실>에 수록된 이 묘갈의 頭註에 “師玄 校書郎輔十八世孫”이라 하였는데 이는 병술별보(1766)에서 師玄은 호장공(3세 휘 선조)파였는데 기미대동보(발 정만조, 1919)에서 교서랑

5. 묘갈(정언섭, 1732)



▲ 안일호장공(휘 문도) 묘갈 [우: 4면 중 제1면, 좌: 4면 중 제2면]
2015년 11월 8일 촬영

(6세 휘 보)공[호장공의 형인 복야공(3세 휘 목)의 증손]의 6대손인 참의공(12세 휘 절)파로 입보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참의공파보(서정만조, 1927) 卷二 6장에 보면 鄭師玄의 방주 후미에 “華池山神道碑創建時有司故諱昭載焉(화지산 신도비(묘갈) 창건시에 유사였음. 따라서 휘 사현이 분명하게 그곳에 기재되어 있음.)”이라 하였다. □鄭穆(3)-澤-子家-輔(6, 교서랑)-承宗-筠-惟義-瑚-良生-節(12)-子若-泓-齊賢-訥-祉柄-炯-忠仁-斗-德逸-時昌-萬重-師玄(24)

5. 묘갈(정언섭, 1732)



▲ 안일호장공(휘 문도) 묘갈 제3면

좌: 2015년 11월 8일 촬영 ※비간 후여서 비신 하단부의 이끼가 더 푸름

우: 2017년 8월 23일 촬영 ※풍우로 인한 비신 하단부 박락이 최근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6. 묘갈후지(정래주, 1733)

6. 묘갈후지(정래주, 1733)

始祖戶長公墓碣後識¹³⁰⁾

예기에 이르기를 군자는 그 뿌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고 또 예절은 그 조상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으니, 대저 뿌리와 조상은 모름지기 군자가 소홀히 하지 못할 바이로다.

동래는 곧 우리 시조의 본관인 고을이고 또 시조의 묘소도 여기 모셔졌다. 우리 종인 정언섭(字는 公理)이 이 고을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3년이 됨에 政事가 잘 이루어져서 인심이 화합했으며 그 직무의 여가에 선조의 묘소를 돌보고 가꾸기에 힘을 써서 위토를 더 장만하고 墓下의 일가들과 宗稷를 만들고 또 비석을 세우면서 손수 비문을 지어 선조의 忠厚하고 謙恭하며 質儉한 덕을 날날이 열거하여 百世가 지난 다음에라도 고증할 수 있게 했으니 公理야 말로 참으로 그 뿌리를 생각하며 그 조상을 잊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것이니 조상의 덕을 추모하면서 백성들의 道義를 더욱 두텁게 다졌다고 하겠다.

公理의 조상의 덕을 추모하는 효도가 이와 같더라도 충성하고 나라를 위하는데 소홀했었다면 곧 참된 효도라고 할 수가 없으니 어찌 자랑삼을 수 있으랴. 그런데 동래는 어디까지나 국경지방에 있는 중요한 고을이므로 본디부터 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무너진 채로 방치된 것이 수백년을 지나도록 이 고을에 임명되어 온 名臣과 碩輔가 어찌 없었을까마는 모두들 뜻을 두고도 고쳐 쌓지 못한 것을 公理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하루아침에 새롭게 그 城을 단장했으니 축대와 담장이 화려하며 망루의 규모가 갖추어지고¹³¹⁾ 창고와 고을의 재정이 충실해져서 우뚝하게 솟아 무

130) 이 번역문은 《동래정씨집의공파보》(정하복, 1991)에 실린 것이다.
131) 원본 《동래선산기실》의 원문 “板築雉堞之殷, 井榦樓櫓之勤”에서 雉堞은 雉堞의 오기이며, 榦은 榦, 榦, 榦으로 쓰기도 한다.

6. 묘갈후지(정래주, 1733)

계를 더해 주어서 우리 남쪽 지방이 保障되었으니 무릇 그 政事하는 솜씨의 뛰어난이 이와 같아서 비록 그이가 갈리어간 뒤라고 해도 그 남은 위업이 풍속을 달라지게 했고 끼친 教化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여기 변방까지 흠뻑 적시고 그 명성이 진실로 本貫인 고을에 널리 퍼져서 湧山과 蓬海로 더불어 한가지로 영원히 뻗치어 가리니 이것이야말로 진정코 참된 효도라고 할 것이니 진실로 들추어 자랑할 만한 일이다.

내가 그이의 다음을 이어 이 고을 동래를 맡아 다스리면서 매양 사무 처리가 그이보다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며 더욱 그이가 조상의 덕을 추모하던 효도를 흠모하여 그 碑文을 탁본해서 집무실의 책상 위에 두고 인하여 몇 마디 말씀을 그 끝에 이와 같이 적는다.

동래부사 來周¹³²⁾ 識



◀ 임진전망유해지총비(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3호) ※1731년에 동래부사 정언섭공이 퇴폐한 동래읍성을 수축할 때 임진왜란의 격전지였던 옛 남문터에서 많은 전사자의 유골이 발견되어 삼성대 부근에 6개의 무덤을 만들어 안장한 후 손수 비문을 짓고 글씨를 썼다. 일제강점기 말 토지개간으로 동래구 복천동 뒷산 영보단 부근에 이장하였다가 1974년 현 위치인 금강공원으로 무덤과 비석을 옮겼다.

132) 鄭來周(1680-1745): 호는 東溪이며 창원공(휘 광보)의 7대손이다. 동래읍지 宦蹟조에 의하면 鄭來周공은 계축년(1733) 4월에 동래부사로 到任하여 갑인년(1734) 정월에 病遞하였다.

6. 묘갈후지(정래주, 1733)



▲ 萊州축성비(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6호)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된 동래읍성을 1731년(영조 7) 동래부사 정언섭공이 대대적으로 수축한 사실을 칭송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735년(영조 11)에 당시 부사 崔命相이 건립하였다. 최초 남문 밖 농주산에 세운 것을 1765년(영조 41)에 옮겨 세웠다가 1820년(순조 20)에 다시 남문자리에 옮겼으며[좌측사진(출처: 부산대관(1926))], 일제 강점기에 한 일본인이 금강공원 인근에 자신의 별장을 만들면서 조경을 위해 금강공원 안의 독진대아문 뒤쪽으로 옮겼으며, 2012년에 동래읍성을 복원하고 북문 앞으로 옮겼다.[우측사진]



◀ 府使鄭公諱彥變興學文化去思碑 ※동래향교의 뜰에 세워져 있다.
 (전면우측)
 學闡蜀郡 風變潮陽
 天南一域 儒化洋洋
 (전면중앙)
 府使鄭公諱彥變興學文化去思碑
 (전면좌측)
 豈惟止斯 崇墉百雉
 文武之治 萬代受賜
 (후면)
 崇禎紀元後[再]乙卯五月日
 時述齋立 1735
 都監 朴敏求
 座首 金夏三

7. 보유

7. 보유

補遺

○동래부 인물 고려 鄭文道{읍에 속했던 아전이었는데,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했으며, 묘는 현의 서쪽 7리에 있다.} 鄭沆{충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과거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예부상서 한림학사에까지 이르렀으나, 집에는 석[石]을 메울 만한 저축도 없었다. 임금이 감탄하여, “30년을 近侍로 있었고, 11년을 承制에 있었으면서, 가난하기가 이러하니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호는 文安이다.} 鄭叙{沆의 아들, 곧 鄭瓜亭이다.} 鄭良生{벼슬이 重大匡에 이르고 逢原君에 봉하였다.} 본조 鄭矩{良生の 아들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은 의정부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靖節이다.} 鄭欽之{良生の 손자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은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文景이다.} 鄭甲孫{欽之의 아들로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충직하고 청렴하며 慷慨하여, 조정에 있으면서 기특한 절조가 있었다. 벼슬이 의정부좌참찬에 이르렀고, 시호는 貞節이다.} 鄭昌孫{甲孫의 아우로, 과거에 두 번이나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佐翼·翊戴·佐理 등의 공신에 들었고, 5朝를 내리 섬기면서 세 번이나 영의정이 되고, 86세까지 장수했으며, 성품이 고요하고 간결하며 살림엔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 시호는 忠貞이며, 성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鄭蘭宗{두 번이나 과거에는 장원으로 급제했고 佐理功臣에 들었으며, 벼슬은 이조판서에 이르렀고, 초서·예서 등을 잘 썼으며, 시호는 翼惠이다.} 鄭恬{昌孫의 아들로 과거에 급제했고, 벼슬은 의정부좌의정에 이르렀다. 기개와 절조가 있었고, 정사의 요체를 알았다. 시호는 恭肅이다.} 신증 鄭光世{과거의 갑과에 첫째로 발탁되었고, 벼슬은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鄭忠樑{光世의 아들로 과거에 급제했고, 벼슬은 승지에 이르렀으며, 성품이 청렴하고 간결하였다.} <출전: 여지승람>

○정씨의 시조는 호장이니 옛 아전의 首任으로서 漢나라의 主吏와 같은데 年老하여 물러나 쉬게 되어 집에 있으면서도 매양 開衙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들리면 문득 뜰에 내려가 俯伏했으니 그 공손하고 勤幹함이 이와 같았다. 돌아가시자 아들 복야공이 상여

7. 보유

를 받들어 화자산에 이르니 범이 웅크리고 앉았던 자리가 눈이 녹아 기이하므로 거기에 장사지냈다. 그 후로 고관대작이 연달아 나왔으니 하늘이 복된 묘자리를 주어 자손으로 하여금 음덕을 입게 하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리요? 옛날에 정고부¹³³⁾가 세 임금을 섬겨 벼슬이 높을수록 더욱 恭謹해서 그 후손에 어진 자손이 많이 태어났으니 호장공이 律已恭謹하여 그 후손에 巨卿名公이 대대로 서로 이어져 빛났으니 그 報應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출전: 夢軒 홍만중¹³⁴⁾의 筆記>

○수찬공(휘 雍)의 증손 纘宗의 외손인 승지 권문해¹³⁵⁾가 東萊鄭氏始祖戶長公行蹟을 지었다. <출전: 족보¹³⁶⁾>

133) 正考父: 공자의 조상으로 宋나라의 上卿이었다. 세 임금 戴公·武公·宣公을 섬겼다.

134) 洪萬宗(1643-1725): 호는 몽헌이며 본관은 풍산이다. 저서로 해동이적, 소화시평, 순오지, 시평보유, 동국역대총목, 증보역대총목, 시화총림, 동국악보, 명엽지해, 동국지지략 등이 있다. 동래 鄭廣敬(1586-1644)의 외손자이다.

135) 權文海(1534-1591): 호는 초간이며 본관은 예천이다. 저서로 대동운부군옥과 초간집이 있다.

136) 병신보(1716) 卷十 12張 참조.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악 외, 1724)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악 외, 1724)

通文

동래정씨 시조 墓下에 본래 묘지기가 없었으며 또 자손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대부터 齋宮을 창건하여 승려를 모집하고 땀나무 벌채와 가축 방목을 금하고 물 뿌리고 쓸며 정성껏 가꾸었으니 거의 근 천년에 이르도록 폐단 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계묘년(1723) 11월 17일에 우연히 실화로 모두 잿더미가 되어 僧徒들은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뿔뿔이 흩어지는 우환을 눈앞에서 당하였습니다. 땀나무꾼들과 목동들로 인한 피해를 장차 면하지 못할 것이고 묘소의 수쇄¹³⁷⁾를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손된 자로서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그 가슴아픔과 안타까움이 어떠하겠습니까? 증건하는 것을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조금이라도 지체할 수 없어 서울에 사는 후손들이 한 곳에 모여 상의한 결과 그 財力은 매우 커서 몇 사람이 마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분담하기로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통문을 보내어 알립니다.

자손 중 고을 원 신분인 자는 그 邑力의 풍박¹³⁸⁾에 따라 그 월급의 半을 떼어 보태어 한 모퉁이의 비용에 충당하고, 관직에 있으면서 녹을 받는 사람과 관직을 그만두었지만 貧乏에 이르지 않은 자는 모두 넉넉히 출물¹³⁹⁾하고, 窮儒·寒士에 이르러서는 형편껏 출조¹⁴⁰⁾하고, 승관자¹⁴¹⁾는 비록 父子兄弟가 같은 집에 거처 하더라도 모두 인원수에 포함시켜, 비록 한 자의 배와 한 푼의 돈

137) 修灑: 닦고 물뿌리는 것으로 곧 묘소의 관리를 뜻한다.

138) 豐薄: 후함과 박함.

139) 出物: 돈이나 물품을 냄.

140) 出助: 돈이나 물품을 찬조로 냄.

141) 勝冠者: 冠을 쓸 나이가 된 사람.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악 외, 1724)

이라도 전부 수합하고, 지방은 한결같이 京中의 例를 따르기 바랍니다.

先祖의 후손은 그 수효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분명 보첩에 수록된 것에 그치지 않겠지만 오직 보첩¹⁴²⁾에 의거하여 통문을 보내기 때문에 보첩에 빠진 후손에게는 통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庶派에 대해 말하자면, 또 더 낮은 반열로 떨어진 편민¹⁴³⁾에 대해 말하자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지만 그 선조를 받드는 정성을 생각하면 반드시 귀천에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諸宗은 비록 다른 고을에 있더라도 듣고 본 것을 두루 알릴 것이며, 각기 정한 지방유사가 수합하는데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서울 가까운 쪽의 충청도 거주 종인은 서울 박석동 동평위 家의 수찬 喪人¹⁴⁴⁾에게 보내고, 서울에서 먼 쪽 충청도와 호남 거주 종인은 나주·영암·남원 3읍의 수령¹⁴⁵⁾ 중 한 사람에게 가깝기에 따라 편리한 대로 보내고, 영남 거주 종인은 김해 승지¹⁴⁶⁾의 謫所에 보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수합된 것

142) 병신보(1716)를 말한다.

143) 編民: 민간호적에 편입된 일반 백성.

144) 수찬 喪人은 동평위 정재륜[1648(인조 26)-1723(경종 3)]의 양손 鄭錫五인데 1720년(경종 즉위년) 11월 16일에 수찬이 되었으며(나중에 좌의정까지 오름), 동평위는 1723년(경종 3) 2월 8일에 세상을 떠나셨다. 통문의 발송일 1724년(경종 4) 1월 9일은 아직 居喪 기간이라서 수찬 喪人이라 하였다. ※喪人: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居喪 중에 있는 사람.

145) 3읍의 수령은 나주목사 鄭覺先(1660-1743), 영암군수 鄭來周(1680-1745), 남원부사 鄭錫三(1690-1729)을 말한다. ※鄭覺先은 1722년 6월 17일에 나주에 부임하여 1725년(영조1) 7월 일에 떠났으며, 鄭來周는 1722년(경종 2) 6월 일에 영암에 부임하여 1724년(경종 4) 4월 3일 파주목사를 제수받아 영암을 떠났으며, 鄭錫三은 1724년(경종 4) 1월 일에 남원에 부임하여 영조즉위년(1724) 9월 30일에 司諫을 제수받고 떠났다.

146) 승지는 鄭亨益(1664-1737)을 말한다. ※鄭亨益은 1719년(숙종 45) 12월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악 외, 1724)

을 동래 화지산에] 전송¹⁴⁷⁾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出物하는 때에 모름지기 물품이 적다고 싫어하지 말고,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힘닿는 대로 구하여 보내고, 비록 錢兩¹⁴⁸⁾일지라도 수합하면 하나가 모여 열이 되고, 열이 모여 백이 되고, 마침내 보용¹⁴⁹⁾하게 되는 것인즉 선조를 받드는 도리에 거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뜻을 헤아려 반드시 정월 그믐에서 이월 보름 전까지 輸送하여, 미처 도착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근심이 없도록 해 주시면 크나큰 다행이겠습니다.

갑진년(1724, 경종 4) 1월 9일 同宗出文¹⁵⁰⁾

20대손¹⁵¹⁾ 동지중추부사 載岳

군자정 行五

21대손 前군수 翫

前영장 智

선공부정 勗先

일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720년(경종 즉위년) 10월 일에 떠났으며, 1720년 11월 9일에 承旨를 제수받았다. 그 뒤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에 있었는데, 이무렵 김일경이 경종의 생모 희빈장씨를 위하여 號를 정하고 사우를 세우려 하여 鄭亨益이 抗疏하여 불가함을 주장하다가 辛壬土禍(1721-1722) 때 노론 4대신과 함께 파직되어 김해로 유배되었다. 영조가 즉위한 다음해인 1725년 배소에서 대사간으로 기용되어 언관의 중책을 맡았다.

147) 轉送: 간접으로 남의 손을 거쳐서 돈이나 물건을 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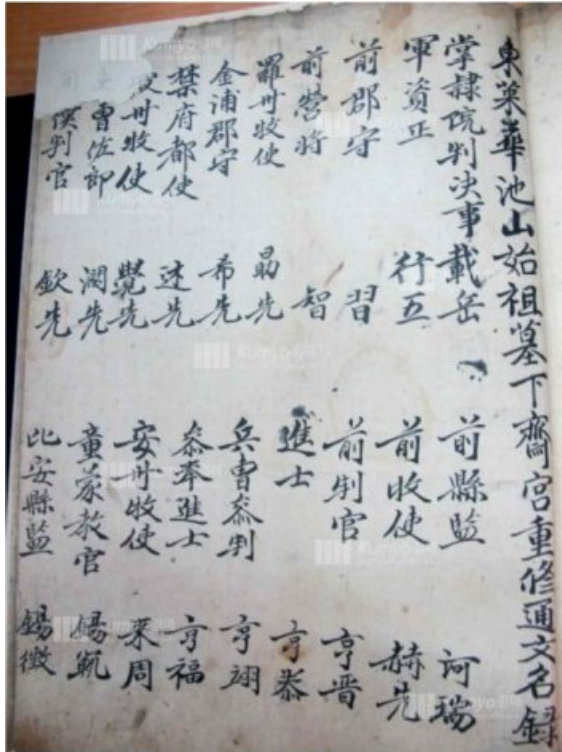
148) 錢兩: 그다지 많지 않은 돈. 錢錢兩兩.

149) 補用: 부족한 곳에 보태어 씀.

150) 同宗出文: 同宗에서 通文을 냄. 또는 同宗의 出文者 20대손 동지중추부사 載岳, ... (인명 나열).

151) 《동래선산기실》 원본의 계대 數字에 착오가 있다. 載岳, 行五是 동래정씨 2세 호장공(휘 문도)의 19대손이며 翫, 智는 18대손이며 勗先, 希先, 述先, 赫先, 潤先, 欽先, 達先은 20대손이며, 河瑞, 亨晉, 亨泰, 錫圭, 錫疇, 亨萬, 錫徵, 錫範, 錫慶, 亨復, 錫三은 21대손이며 履儉, 彥儒는 22대손이다. ※원통문에 없던 代數를 적어 넣을 때 생긴 착오인 것 같다. <45면 사진 참조.>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악 외, 1724)



▲ 陽坡鄭相公宅會洞簡牒 [豹菴先生舊藏]

김포군수	希先
금부도사	述先
前목사	赫先
형조좌랑	潤先
사복판관	欽先
경릉참봉	達先
前현감	河瑞
前판관	亨晉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악 외, 1724)

	진사	亨泰
	연안부사	錫圭
	호조좌랑	錫疇
	진사	亨萬
	前현감	錫徵
	동몽교관	錫範
	진사	錫慶
	진사	亨復
	남원부사	錫三
23대손	진사	履儉
	승문정자	彥儒

남원

鄭生員 德潤宅

富潤宅

금번 이 통문은 다만 보첩에 의거하였으므로 遠地 종인들의 존망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간혹 빠진 곳이 있으면 차차 전달하고, 간혹 하세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 보여주시면 크나큰 다행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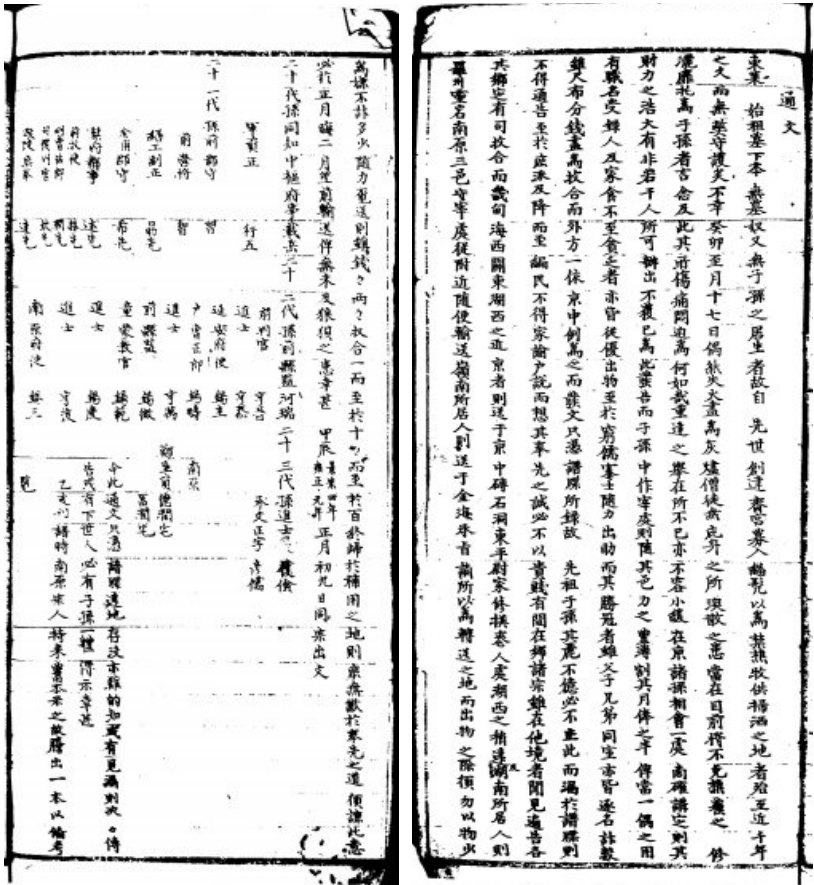
을해년(1875) 족보¹⁵²⁾ 간행시 남원에 사는 종인이 [통문의] 舊本을 가져와서¹⁵³⁾ 보여주므로 考覽에 대비하고자 一本을 베껴 둔 것입니다.¹⁵⁴⁾

152) 이 을해보는 직제학공과보인데 서문은 鄭肅東과 鄭圭成이 썼으며 발문은 鄭學默이 썼다. ※호음공(휘 사룡)후파, 남봉공(휘 지연)후파, 임당공(휘 유길)후파, 안산공(휘 광좌)의 손자 참봉공(휘 기연)후파는 모두 不錄이다.

153) 《동래선산기실》 원본의 指來舊本은 持來舊本의 오류이다.

154) 베껴올 때 “남원 鄭生員 德潤宅, 富潤宅”은 통문의 피봉에 적힌 것을 통문에 연속해서 적은 것이며 “금번 이 통문은 ... 보여주시면 크나큰 다행이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악 외, 1724)



▲ 萊鄭全譜(필사본, 1902)[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동래부원군증가 기증유물]에 기록되어 있는 1724년 통문 ※萊鄭全譜(萊鄭鄭譜는 표제이며, 권두제는 東萊鄭氏一統譜略임)는 원래 청석공(휘 圭成)이 간딘명료하고 열람에 편리하게 1권으로 엮은 것으로 금초공(휘 學獻)과 함께 간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청석공의 손자 雨興공과 금초공의 손자 世鎭공이 下系를 증보하여 9권으로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 바로 東萊鄭氏一統譜(1935)이다.

졌습니다.”는 일종의 추신으로 피봉속에 들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을해년(1875) 죽보 간행시 ... 베껴 둔 것입니다.”는 鄭雨興공이 선산기실에 게재한 통문의 유래를 적은 것이다.

9. 철도부설 저지 배전 통문(정기회 외, 1901)

9. 철도부설 저지 배전 통문(정기회 외, 1901)

通文

동래정씨 시조 산소의 안산이 철도와 상관이 있어서 금번에 경중
중에서 참관 闇朝씨와 議官 耆朝씨로 하여금 달려가서 일을 처리
하게 하였습니다. 내왕하면서 드는 제반비용은 별 도리 없이 종중
에서 변통하여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편껏 돈을 배당
하여 거두오니 모두 아래의 기록대로 이번에 송부하여 며칠 내로
떠나는데 차질이 없게 해주기 바랍니다.

신축년(1901, 大韓光武 5년) 11월 27일 門長 基會

判書宅 基會	10元	直學宅 寅昇	5元
承旨宅 學默 省達	10元	侍從宅 寅獻	5元
兵使宅 周默 安山	5元	主事宅 寅復	2元
判尹宅 完默 省達	5元	陰竹宅 基恒	10元
局長宅 恒朝 松亭	10元	麻田衙中 喆朝	10元
主事宅 翰朝 松亭	2元	靈巖衙中 寅國	10元
叅判宅 闇朝 成川宅	5元	議官宅 圭成 安中	10元
沁判宅 選朝	2元	課長宅	2元
祀丞宅 肅朝 栗北	2元	清道宅 寅琥 長橋	10元
崇叅宅 宅朝 古邑	2元	牙山宅 寅鎭	5元
承旨宅 寅星 竹岩 追錄	2元	叅奉宅 箕鎭	2元
叅判宅 寅學 鳳山宅	10元	叅尉宅 觀秀 安中	5元
承旨宅 寅錫 廣尹宅	2元	技師宅 建謨	5元
協辦宅 寅興	5元	稷山宅 全州 宗人	5元

10. 종계안(정인학, 1895)

10. 종계안(정인학, 1895)

東萊鄭氏華池山宗稷案序 (화수계)

무릇 나무가 번성하는 것은 그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이며 물이 멀리 흐르는 것은 그 근원이 깊기 때문이다. 萊州(동래)를 본관으로 하는 우리 정씨들이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은 실로 시조 호장공¹⁵⁵의 積德餘蔭에 연유한다. 묘소는 동래부 서쪽 화지산에 있다.

지난날 나의 9대조 좌의정 碁洲公(휘 치화)¹⁵⁶께서 본 고을 동래의 수령이 되어 守護의 예절에 극진하게 힘썼으며, 8대조 東平都尉公(휘 재륜)¹⁵⁷께서 휴가를 내어 성묘하고 지석을 묻고 덕을 기렸으며, 7대조(휘 혁선)¹⁵⁸께서 밀양부사로 계실 때 본 고을 동래의 수령 언섭공과 같이 성묘하고 묘갈을 바꾸어 세우고 祭田을 늘리고 [묘역의] 경계를 좀 넓혀 정하고 禁護하여 모양을 갖추고 마침내 諸宗과 더불어 墓下에서 宗稷를 조직하였으며, 고조 晋州公¹⁵⁹과 종조 參의공¹⁶⁰은 모두 울산부사로서 성묘 때 稷案에 參入하고 또 폐단을 바로 잡은 것이 많으며, 여러 先公께서 爲先

155) 여기서 시조 호장공은 2세 휘 문도공을 뜻한다.

156) 鄭致和(1609-1677): 1642년 3월 동래부사로 도임하여 1642년 8월에 監司 相避(감사는 정태화의 경상도 관찰사를 말함)로 체직되었다.

157) 鄭載崙(1648-1723): 양파공(휘 태화)의 5자이며 기주공(휘 致和)에게 입양되었다.

158) 鄭赫先(1666-1733): 양파공(휘 태화)의 손자이다. 1730년 11월에 동래부사로 도임하여 1733년 3월에 卒逝하였다. <경상도읍지(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666) 密陽 宦蹟條 참조.>

159) 진주공의 휘는 東協이며 1792년 7월 4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도임하였으며 1794년 1월 일에 인삼차사원으로 상경하여 같은 해 2월 일에 수원관판으로 임명되었다. <울산부선생안(울산박물관, 2012)의 원본 영인 및 번역 참조.>

160) 참의공의 휘는 基大이며 1874년 9월 15일에 울산도호부사로 도임하였으며 1875년 4월 15일에 체직되었다. <울산부선생안(울산박물관, 2012)의 원본 영인 및 번역 참조.>

10. 종계안(정인학, 1895)

에 크나 큰 정성을 바쳤다.

갑오년(1894) 겨울 불초가 특별한 은혜를 입어 12월 22일에 이군의 수령으로 왔다. 다음 해 을미년(1895) 正朝에 비로소 奠謁하고 좌우를 둘러보고古今의 자료를 살펴본즉, 구목¹⁶¹⁾은 아름답다고 일컬을 만큼 오래된 것이 없으며 祭田은 지금 잘못 전해지는 것이 많으며 碑文은 밝게 기재되어 뚜렷이 잘 보이고 稷案은 간략하게 존재하지만 無實하였다. 지난날을 추모하며 선조의 마음¹⁶²⁾에 감동되어 종인 寅祐·煥奎와 색리¹⁶³⁾ 鍾綸에게 명하여 가서 祭田을 조사하게 하였으며 양안 2권을 바르게 정리하여 하나는 경종중에 비치하고 하나는 향종중에 비치하였다. 또 5월 5일에 奠謁한 후 나는 약간의 재물을 보태었으며 이 곳 동래 및 近邑의 諸宗들에게 각자 이름으로 돈 2냥씩을 내게 하고¹⁶⁴⁾ 새롭게 修稷하고 寅祐를 특별히 유사로 정하여 各派中에 稷錢을 나누어 利殖을 불리게 하였다. 매년 한식과 추석 2차례 稷會에서 이자를 받는 뜻은 아래의 절목을 정하여 宗稷가 守護의 자산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는 대개 密陽公(휘 혁선)의 창설한 뜻을 계

161) 邱木, 丘木: 무덤 가에 있는 나무.

162) 《동래선산기실》에는 ‘自不無感先之’이나 《화산재지》(1953)에는 ‘自不無感先之心’으로 心자가 들어가 있다. ※《華山齋誌》 초판본(1953)은 전반부 華山齋閑錄(서 鄭寅書, 서 鄭升模)과 후반부 華池山先山守護節目集(서 鄭寅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반부 절목집에는 동래정씨종계절목(계장 정언 섭씨종계안 一冊), 화지산산소수호절목(정기선씨제정절목 一冊), 동래정씨화지산종계안(계장 정인학씨개수안 一冊), 동래정씨화산재종계안(계장 정우홍씨개수안 一冊), 동래정씨종계안(개수)(自稷長 鄭彥燮[氏]設稷後繼續記名 一冊), 향유사안 一冊이 수록되어 있다. 《華山齋誌》 재판본(1956)에는 초판본의 후반부 華池山先山守護節目集이 빠졌다.

163) 色吏: 監營 또는 郡衙 등의 아전. 조선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말단 향리를 색리라고 하였다.

164) 《동래선산기실》에는 ‘各下名下錢二兩’이나 《화산재지》에는 ‘各出名下錢二兩’이다.

10. 종계안(정인학, 1895)

술¹⁶⁵)함이다. 무릇 우리 諸宗은 어김없이 정성껏 지키고 영원히 좇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噫라! 碁洲公(휘 치화)은 여기 동래에서 6개월 동안 善治하여 유애비가 세워졌고¹⁶⁶ 백씨 陽坡公(휘 태화)은 [동래부가 속한 경상도] 관찰사로 있다가 應避還朝하였고¹⁶⁷ 나 역시 여기에 와서 6개월 동안 수령을 하고 경제¹⁶⁸)를 면하지 못하니 政令의 베풀지 않음[政令無所施]¹⁶⁹)이 어찌 이렇게 전후 달수까지 부합하는가? 돌아갈 임기가 임박하여 끝내 稷會에 한 번도 참석치 못하니 원망스럽다.

개국 504년 을미년(1895) 5월 5일 27대손 가선대부 行동래부사 寅學이 삼가 쓰다.

좌목

제장 府伯¹⁷⁰)

鄭寅學(字景國 기해생) 居 京 회동 [喜朝子, 賜 16대손]

계원

鄭琪瑀(字行彦 신축생)[정유] 居 양산 소석 [漢宗子, 吉明 16대손]

鄭學淳(字致彦 무자생)[致远] 居 기장 응천 [采觀子, 縉賢 15대손]

165) 繼述: 조상의 하던 일이나 뜻을 끊지 아니하고 이어 감.

166) 이 유애비와 같은지 알 수 없으나 화지산 경내에 府使鄭公致和清德去思碑 (1895년 5월 9대손 寅學 建閣)가 남아 있다. <432면, 433면 사진 참조.>

167) 양과공은 인조 20년(1642) 5월에 경상감사에 제수되었으며 그해 10월에, 평안감사로 있을 때 명나라와 通信한 일을 청나라가 조사함에 鳳凰城에 가서 청나라 장수의 심문에 응하느라, 뜻하지 않게 이임하였다.

168) 徑遞: 임기전 교체.

169) 政令無所施: 조정의 명령이 임기가 찰 때까지 근무하도록 놓아 주지 않음을 말한다.

170) 《화산재지》에는 稷長府伯에 鄭寅學과 鄭泳朝 2인으로 “鄭泳朝(字敬童 (족보에는 章)) 居昌寧 癸卯(1903)秋莅任甲辰(1904)正朝追祭”이라 하였다.

10. 종계안(정인학, 1895)

鄭彙朝(字仁兼 임진생)[臨謙]	居 동래 생민	[基坤系子, 賜 15대손]
鄭錫倫(字敬先 경인생)	居 기장 고촌	[宅僑子, 吉明 15대손]
鄭奎憲(임진생)	居 기장 고촌	[元淳子, 吉明 17대손]
鄭寅錫(字國明 신유생)[寅暉]	居 양산 소식	[祐煥子, 子若 16대손]
鄭時權(字和見 갑진생)[和顯]	居 동래 반여	[會演子, 斗 9대손]
鄭在鎭(字子允 계사생)[周鉉]	居 기장 고촌	[允壹子, 吉明 17대손]
鄭璘杓(字明瑞 갑진생)[寅杓]	居 기장 구칠	[學濂子, 緇賢 13대손]
鄭煥奎(字乃兼 병오생)	居 동래 전포	
鄭弼朝(字君烈 갑인생)	居 기장 화전	
鄭寅祐(字子翼 을묘생)[子益]	居 동래 연지	[進永子, 緇賢 13대손]
鄭仁煥(字敬仲 을묘생)[完朝]	居 양산 대석	[時權子, 子若 15대손]
鄭台謨(字子善 을묘생)	居 동래 미남	[德禧子, 緇賢 13대손]
鄭寅華(字子賢 무오생)	居 동래 연지	
鄭基鉉(字德亨 정사생)	居 기장 화전	[文容子, 子若 14대손]
鄭在寬(갑진생)	居 기장 고촌	
鄭基永(字榮伯 기해생)	居 양산 본법	[義宅子, 惟賢 11대손]
鄭基玉(字成八 정미생)[琪玉]	居 기장 임기	[學寅子, 吉明 16대손]
鄭浩俊(字大允 경신생)	居 동래 고현	
鄭相朝(字聖贊 정묘생)	居 동래 반여	[吉淳子, 斗 8대손]
鄭祺周(字周瑞 정자생)	居 동래 학성	
鄭基弘(字致彥 신해생)[琪洪]	居 양산 영천	[邦潤子, 吉明 16대손]
鄭仁杓(字■一 을묘생)[禮杓][仁一]	居 동래 옹호	[敬臣子, 厚豐 16대손]
鄭煥哲(字元珍 경신생)	居 동래 반여	[善權系子, 斗 10대손]
鄭驥洙(字致明 정사생)	居 양산 가촌	
鄭圭午(字在仁 계해생)	居 양산 소식	
鄭鍾範(字德五 정사생)[鍾照][병진]	居 동래 석포	[仁浩子, 吉明 16대손]

10. 종계안(정인학, 1895)

鄭民浩(字殷五 경자생)	居	웅천읍	
鄭寅斗(字太允 기사생) ^{[寅正][太輪]}	居	동래 금산	[纘朝子, 緇賢 13대손]
鄭基泰(字德長 기미생) ^[基大]	居	기장 화전	[文瑛子, 子若 14대손]
鄭奉佐(字允汝 계축생) ^[정사]	居	동래 동평	[斗星子, 沈 19대손]
鄭魯賢(字琪玉 무오생)	居	동래 동평	[致權子, 斗 9대손]
鄭景浩(字子允 임술생) ^[敬浩]	居	울산 범서	[翰周子, 厚豐 15대손]
鄭箕杓(字箕一 무오생)	居	동래 석포	[敬錄子, 厚豐 16대손]
鄭舜賢(字和玉 경오생)	居	동래 옹호	
鄭度彥(정묘생)	居	양산 가촌	
鄭允周(계유생)	居	기장 입석	
鄭相燁(字性賢 경오생)	居	기장 웅천	
鄭煥民(字太振 갑술생)	居	동래 반여	
鄭寅八(字聖瑞 임인생)	居	동래 괴정	
鄭謙東(을축생)	居	동래 금산	
鄭天宇(字魯詹 임인생)	居	양산 북동	
鄭致漢(계축생)	居	동래 후동	
鄭德華(字德五 갑인생)	居	양산 이동	
鄭憲奭(字乃益 경신생)	居	김해 덕도	
鄭鍾綸(字明仲 경술생)	居	동래 읍	[부청선생안에 나온다.]
鄭奎相(字性允 경술생)	居	동래 영선	
鄭信茁(字允一 계유생) ^[錫朝]	居	기장 연화	[基淳子, 惟賢 12대손]
鄭相翼	居	동래 두구	
鄭英奎(字琪瑞 계축생)	居	동래 부산	
鄭有完(갑인생)	居	동래 읍	[道律子, 仁國孫, 東彬玄孫: 신좌목(정우홍, 1921) 제46항 참조.]

끝

10. 종계안(정인학, 1895)

追叅¹⁷¹⁾

鄭基燧(字致文 경신생)[寬朝] 居 동래 구서 [義奎子, 斗(21) 8대손]
 鄭有圭(字大圭 경신생) 居 양산 소토 [駙子, 子若(13) 15대손]
 鄭奎錫(字周善 경술생)[奎祥] 居 양산 소식 [慶贊子, 吉明(13) 17대손]

稷錢收合秩

계장 錢 10냥

계원 53인 각 2냥

合元錢(원금합계) 116냥 {또 추참자가 2냥 가져와 合元錢은 118냥}

分殖秩 {매월 1냥당 3푼씩}

錢 28냥 鄭寅祐 동래 연지 {또 추참자의 2냥 합하여 30냥}

錢 22냥 鄭相朝 동래 반여

錢 22냥 鄭鍾範 동래 석포

錢 22냥 鄭基鉉 기장 화전

錢 22냥 鄭寅錫 양산 소식

절목

一、享需는 한식·추석 두 節日에 각 75냥씩 배용¹⁷²⁾하고 各處의 諸宗은 모두 참여한다.

一、正朝·단오 두 節日에 각 20냥씩 배용하고 단헌¹⁷³⁾ 행사로 헌관 1인, 집사 2인 외에 절대로 참여자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

一、모저세¹⁷⁴⁾의 看坪¹⁷⁵⁾時와 捧上時에 절대로 많은 사람을 모아

171) 《화산재지》에는 추참에 “鄭寬朝 外五十二人記載畧”이라 하였다.

172) 排用: 따로 떼어 내어 쓰게 함.

173) 單獻: 제사에 三獻할 술잔을 한번만 하고 그침.

174) 牟(모)는 보리이며 租(저)는 벼이다. ※租: 조세 조, 벼 저.

175) 看坪: 지주가 賭租를 매기기 위하여 수확하기 전에 농작물의 잘되고 못

10. 종계안(정인학, 1895)

서 留宿하지 말고 有司 한두 사람이 와서 검사한다.

- 一、벼 1섬은 향유사 巡山糧米로 지급한다.
- 一、벼 1섬은 별좌승 秋捧時에 지급한다.
- 一、돈 5냥은 租捧時에 지급한다.
- 一、돈 5냥은 牟捧時에 지급한다.
- 一、돈 2냥 5전은 쇠백정에게 지급한다.
- 一、모저세를 바치는 중에 혹 납부를 어긴 자가 있으면 將廳에 통지하고 쫓아가서 독촉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하였는데도 완강하게 거절하면 먼저 고쳐주고 이름을 적어 경유사 댁에 서신으로 보고한다.¹⁷⁶⁾
- 一、松楸는 만일 범작¹⁷⁷⁾한 자가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본손도 타성과 함께 경미하면 향종중에서 엄하게 다스리거나 또는 將廳에 통지하고 심한 자는 경유사 댁에 논보¹⁷⁸⁾한다.
- 一、稷會는 한식·추석 두 향사 때 모임을 갖는다.
- 一、稷錢은 每兩頭¹⁷⁹⁾ 매월 3푼 이자로 정하고 봄과 가을 稷會 때에 이자를 내어 불러 나간다.
- 一、四山の 禁養 구역 안에 만약 투장¹⁸⁰⁾하고 隱避한 자가 있으면 향유사는 京中齋會에 통문을 보내고 정단¹⁸¹⁾할 때 稷長 이하 列名하여 먼저 향무¹⁸²⁾와 의논하여 관가에 보내 아뢰고 파내

뭍을 實地로 살펴보는 일.

176) 《동래선산기실》의 원문 “若如是頑拒先爲改作指名書報于京有司宅事”가 《화산제지》에 수록된 종계안 절목에는 “若如是頑拒指名書報于京有司宅하여 措置할 事”로 되어 있다.

177) 犯斫: 禁養한 나무(베지 못하게 한 나무)를 베어 냄.

178) 論報: 죄를 논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것.

179) 每兩頭: 1년을 둘로 나눌 때 각각의 첫 날을 뜻하는 것 같다.

180) 偷葬: 남의 눈을 속여 타인의 묘지 또는 산림에 매장하는 행위.

181) 呈單: 서류를 관아에 제출하는 일.

10. 종계안(정인학, 1895)

는 것을 기다린다.

- 一、四山局內의 古塚數와 大中松株數를 함께 성책¹⁸³⁾에다 기재하고 혹 범장¹⁸⁴⁾과 풍락송¹⁸⁵⁾이 있으면 좃아가 거두어 신지¹⁸⁶⁾를 보호하고 경종중에 일일이 보고한다. 만약 은닉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유사는 당해 산직과 함께 마땅히 형배¹⁸⁷⁾한다.
- 一、華池寺는 곧 齋宮이다. 他寺와 달리 잡역이 있어서 한꺼번에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서원¹⁸⁸⁾·면주인¹⁸⁹⁾이 거둬들이는 조미¹⁹⁰⁾와 뇌령¹⁹¹⁾이 아록¹⁹²⁾·공수미¹⁹³⁾ 명목으로 거둬들여 면임¹⁹⁴⁾에게 주는 例給을 모두 혁파한다.
- 一、매년 말에 하기¹⁹⁵⁾는 例에 따라 책자로 작성하여 正朝에 호장편으로 올려 보내야 하며 반전¹⁹⁶⁾으로 1냥을 지급한다.
- 一、稷錢의 捧殖은 매년 책자로 작성하여 稷長宅에 보고하고 관인을 찍어서 가져온다.

182) 鄉武: 조선후기 신분적으로는 일반 양인이나,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향촌사회에서 일정한 武力을 형성할 기반을 지닌 계층.
 183) 成冊: 문서 등을 책의 형태로 제작한 것. '乙未五月 日華池山禁養松楸及所在古塚摘奸記'가 그 성책인 것 같다. 이 속에 松楸秩과 古塚秩이 들어 있다.
 184) 犯葬: 허락 없이 몰래 묘를 쓰는 일 또는 몰래 쓴 묘.
 185) 風落松: 태풍이 불어 바람에 넘어진 소나무.
 186) 信地: 규정된 순찰 분담 지역.
 187) 刑配: 죄인에게 형장을 쳐서 귀양 보냄.
 188) 書員: 각 고을의 세금을 받던 아전.
 189) 面主人: 주·부·군·현과 면과의 사이에 오가며 문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190) 租米: 조세로서 비치는 쌀.
 191) 牢命: 군대에서 죄수를 다루는 병졸.
 192) 衙祿: 지방 수령의 식구 몫으로 주던 食料.
 193) 公須米: 관아의 경비로 쓰기 위해 公須田이라는 논밭을 주고 경작료로 걷던 곡식.
 194) 面任: 지방의 면에서 호적 기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195) 下記: 돈 치른 내용을 적은 기록.
 196) 盤纏: 먼길을 다닐 때 드는 돈.

10. 종계안(정인학, 1895)

- 一、모저세의 看坪時와 捧上時에 本邑의 首公兄¹⁹⁷⁾이 例에 따라 아울러 看檢하며 매년 下記와 稷錢을 책자로 작성할 때 전부 서명해야 하며 내왕 여비는 합계 1년에 3냥을 지급한다.
- 一、本邑과 他邑의 종인은 享事時 외에는 절대로 재실에 留宿하지 말아야 한다. 경종중에서 혹 성묘하러 오더라도 여비는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 一、재공¹⁹⁸⁾·장염 및 창호지·삿자리는 쓰이는 만큼 例에 따라 지급한다.
- 一、향유사는 탈 잡힐 데 없이 거행¹⁹⁹⁾하면 임기를 정할 필요 없이 오래 맡겨 공효를 나타내게 하고, 부득불 갈아야 하면 감당할만한 사람이 列名으로 경유사 댁에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린다.
- 一、미진한 조항은 추후 마련한다.

계장	押署 躋印	유사 鄭相朝 별유사 鄭寅祐
----	----------	-------------------

追²⁰⁰⁾ 정묘년(1927) 10월 28일 契會時

鄭寅弼(字子明 을미생)	居 本鄉 九瑞里
鄭修朝(字漢玉 임신생)	居 本邑 南面 中里
鄭龜朝(字士淑 갑술생)	居 本邑 同面 右里

이하 89명 생략함

197) 公兄: 조선시대 관찰사나 수령 아래 각 고을의 戶長·吏房·首刑吏의 세 상급 관속.

198) 齋供: 부처님전 공양물.

199) 舉行: 어떤 일을 정한대로 행함. 명령대로 이행함.

200) 이 追는 《동래선산기실》에는 나오지 않고 《화산재지》에 나온다.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時, 1895)

乙未(1895)正月 日 동래 화지산 位土田畝 및 齋寺畝 新正量案冊
舊畝秩

振字 서하면 田浦員				
21		畝 5斗地 ²⁰¹⁾	7負 4束 ²⁰²⁾	
22		畝 6斗地	8負 2束	
纓字				
34		畝 3斗地	7負 6束	
兵字				
31		畝 3斗地	7負	
36		畝 2斗地	6負 9束	
濟字 花寺員				
34	3夜味 ²⁰³⁾	畝 4斗地	9負 5束	
車字 甫伊員				
19	1夜味	畝 3斗地	11負 8束	
夏字 花池員				
30	3夜味	畝 6斗地	19負 4束 內 9負頃 ²⁰⁴⁾	
邑字				
20	2夜味	畝 3斗地	11負 9束	
22	3夜味	畝 3斗地	12負 4束 內 5負頃	
23	5夜味	畝 3斗地	9負 3束 內 8負頃	
43	1夜味	畝 5斗地	14負 3束 內 8負頃	
都字				
2	2夜味	畝 2斗 5刀地 ²⁰⁵⁾	10負 7束	
15	3夜味	畝 3斗 5刀地	12負 3束 內 8負 3束頃	
22	1夜味	畝 1斗地	2負 3束 全頃	
24	2夜味	畝 5刀地	1負 1束 全頃	
29	3夜味	畝 5刀地	2負 2束	
30	2夜味	畝 5刀地	1負 2束	
47	1夜味	畝 2斗地	7負 7束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46	1夜味	畚 3斗地	9負 7束	
麤字				
71	1夜味	畚 2斗 5刀地	8負 8束	
63	2夜味	畚 2斗地	6負 8束	
64	2夜味	畚 2斗地	8負 3束	
自字				
26	2夜味	畚 4斗地	19負 7束	内 4負頃
13	1夜味	畚 2斗地	5負 9束	
14	3夜味	畚 2斗地	4負 3束	
爵字				
38	5夜味	畚 2斗地	9負 7束	
37	3夜味	畚 2斗地	8負 5束	
雅字				
84	1夜味	畚 2斗地	6負 5束	
88	2夜味	畚 2斗地	7負 8束	
97	10夜味	畚 2斗地	5負 9束	
堅字				
14	2夜味	畚 4斗地	13負 3束	
28	1夜味	畚 4斗地	16負	
西字				
3	1夜味	畚 1斗地	2負 5束	
二字				
15	3夜味	畚 5斗地	20負 2束	
25	5夜味	畚 6斗地	21負 7束	
京字				
7	3夜味	畚 2斗 5刀地	7負 1束	
8	5夜味	畚 5斗地	19負	
10	1夜味	畚 1斗地	2負 5束	
面字				
11	5夜味	畚 5斗地	14負 1束	内 10負頃
渭字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49	1夜味	畚	2斗地	3負 6束	
50	9夜味	畚	5斗地	20負 4束	
58	1夜味	畚	5斗地	1負 8束	
59	5夜味	畚	4斗地	12負 9束	內 10負頃
60	2夜味	畚	1斗 5刀地	6負 3束	
62	3夜味	畚	3斗地	9負 1束	
63	2夜味	畚	3斗地	10負 8束	
64	5夜味	畚	6斗地	22負	內 10負頃
65	5夜味	畚	4斗地	12負 6束	
據字					
11	2夜味	畚	2斗地	6負 6束	
12	3夜味	畚	3斗地	8負 8束	內 4負頃
13	3夜味	畚	1斗地	2負 3束	
31	5夜味	畚	3斗地	7負 9束	內 3負頃
涇字					
6	3夜味	畚	6斗地	19負 7束	內 5負頃
守字 서상면 昌順員					
2	2夜味	畚	4斗地	11負 3束	
交字 石寺員					
101	2夜味	畚	5斗地	19負 2束	
投字					
76	9夜味	畚	4斗地	10負 5束	
虧字 豆泥員					
17	8夜味	畚	5斗地	23負 5束	內 6負頃
22	2夜味	畚	5斗地	24負 2束	內 6負頃
36	7夜味	畚	2斗地	10負 3束	
37	3夜味	畚	1斗地	4負 8束	
44	10夜味	畚	5斗地	23負 2束	內 7負頃
45	7夜味	畚	5斗地	22負 5束	
46	4夜味	畚	5斗地	2負 1束	
情字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17	5夜味	畓 2斗地	3負 3束	全頃
구답 합계		畓 199斗 5刀地		

新畓秩 병자년(1876) 3월 일 新買

聽字	북면	木坪員		
22	2夜味	畓 1斗 9刀地	5負 8束	
27	1夜味	1刀地	5束	
28	2夜味	畓 2斗地	2負 8束	
因字				
11	1夜味	畓 1斗地	2負 5束	
합		畓 5斗地	元稅 租 60斗	每兩頭 6刀씩
緣字				
24	5夜味	畓 6斗地	25負 4束	
元稅 租 60斗				
攝字				
66	5夜味	畓 2斗 5刀地	8負 3束	
68	10夜味	畓 1斗 5刀地	5負 2束	
합		畓 4斗地	元稅 租 40斗	
政字				

201) 斗地[斗落地, 斗落只]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 단위이다. ※벼 한 말을 파종할 만한 면적의 논을 1斗落只, 한 되를 파종할 만한 면적을 1升落只라 한다.

202) 負와 束은 (탈곡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 단위이다. ※벼를 낮으로 벨 때 한 줌으로 움켜잡는 양이 1과(把)이고, 10과가 1속(束, 묶음)이며, 10속이 1부(負, 짐)이며, 10부가 1결(結) 또는 1구(口)이다. 비옥도에 따라 1결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203) 夜味: '배미'를 그 뜻과는 상관없이 새김과 음을 따서 적은 것으로 배미는 논두렁으로 둘러싸여 구획된 논을 세는 단위이다.

204) 頃: 사고, 탈.

205) 刀: 되(升)의 이두식 표현. ※곡식의 용량의 단위는 작(勺), 홑(合), 되(刀·升), 말(抹·斗), 섬(苫·石) 등이 있다.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138	1夜味	畝 1斗地	1負 8束
元稅 租 10斗			
璧字 남촌면 生川員			
7	4夜味	畝 7斗 5刀地	14負 4束
元稅 租 54斗			
坐字 동상면 票亦員			
45	1夜味	畝 6斗地	5負 4束 內 1負頃
元稅 租 24斗			
振字 동상면 票亦員			
9	17夜味	畝 2斗地	3負 1束 全頃
元稅 租 12斗			
10	7夜味	畝 2斗地	4負 6束
元稅 租 12斗			
世字 院旨員			
28	1夜味	畝 3斗地	9負
元稅 租 23斗 4刀			
侈字			
40	5夜味	畝 13斗地	39負 1束
元稅 租 67斗 8刀			
涇字 馬守員			
28	6夜味	畝 6斗地	28負 6束
元稅 租 72斗			
殿字 萬德員			
103	8夜味	畝 4斗地	10負 2束
元稅 租 40斗			
127	5夜味	畝 2斗地	5負 2束
元稅 租 20斗			
신답 합계		畝 57斗 5刀地	
合元稅 租 495斗 2刀			
近來隨年形收賭十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이상 신구답 합계 畓 257斗地 以

下畓 6斗地 祭堂直
 畓 8斗地 東山直
 畓 10斗地 西山直
 畓 8斗 5刀地 南山直
 畓 4斗地 北山直
 畓 14斗地 禁松亭山直 2명
 畓 3斗地 別座僧
 畓 4斗地 上羅山直
 畓 3斗地 下羅山直

合下畓 60斗 5刀地 舊畓中

신구답 실합계 畓 196斗 5刀地

新買田秩 병자년(1876) 3월 일 新買

高字		田浦員	
14	5等	田 10斗地	3負 1束
元稅 牟 6斗			
陪字			
37	3等	田 14斗地	14負 3束
元稅 牟 12斗			
32	3等	田 10斗地	12負
元稅 牟 15斗			
輦字			
88	3等	田 10斗地	7負
元稅 牟 15斗			
綺字		花寺員	
12	2等	田 15斗地	14負 5束 內 6負頃
元稅 牟 21斗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回字				
12	5等	田 8斗地	4負 6束	内 3負 6束頃
元稅 牟 20斗				
濟字				
12	3等	田 25斗地	25負 2束	内 12負頃
元稅 牟 42斗				
弱字				
16	3等	田 4斗地	4負 5束	内 3負 5束頃
元稅 牟 6斗				
夏字 花池員				
4	3等	田 5斗地	6負 5束	
元稅 牟 10斗 2刀				
渭字 栗長員				
38	4等	田 2斗地	3負 6束	全頃 四方松田 祭堂直例給
실합계		田 101斗地		
合元稅 牟 147斗 2刀				

寺畚秩

富字 院旨員				
4	3等	1夜	畚 6斗地	18負 6束
5	3等	2夜	畚 3斗地	10負 1束
10	3等	2夜	畚 4斗地	14負 4束 内 4負頃
振字 田浦員				
21	4等	2夜	畚 2斗地	2負 8束
36	3等	4夜	畚 5斗地	11負 1束
邑字 花池員				
40	2等	2夜	畚 2斗地	5負 3束
41	2等	1夜	畚 1斗地	2負 4束
44	3等	3夜	畚 2斗地	6負 3束
都字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37	4等 3夜	畚 2斗地	5負 3束	內 3負 3束頃
邨字		小釜員		
30	3等 3夜	畚 3斗地	9負 8束	
渭字		栗長員		
37	4等 16夜	畚 2斗地	3負 3束	全頃
39	4等 11夜	畚 2斗地	5負 6束	全頃
41	4等 5夜	畚 1斗 5刀地	4負	全頃
42	4等 9夜	畚 3斗 5刀地	8負 8束	全頃
46	3等 12夜	畚 5斗地	12負 4束	內 10負頃
53	2等 2夜	畚 2斗地	5負 4束	
54	2等 1夜	畚 3斗地	9負 8束	
57	2等 9夜	畚 5斗地	20負 4束	內 2負 9束頃
61	2等 3夜	畚 3斗地	10負 5束	
據字				
1	3等 5夜	畚 1斗 5刀地	4負 7束	
2	2等 2夜	畚 2斗 5刀地	6負 6束	
29	3等 2夜	畚 3斗地	10負 2束	
56	2等 4夜	畚 4斗地	15負 3束	內 5負頃
涇字				
1	2等 2夜	畚	8負	永陳 ²⁰⁶⁾

사답 합계 畚 68斗地 以

下畚 17斗地 負木僧 例給

畚 11斗地 佛尊僧 例給

合下畚 28斗地

사답 실합계 畚 40斗地

合畚結 8口 53負 2束內 1口 13負 7束頃

實結 7口 39負 5束

206) 永陳: 영원히 묵함.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合田結	95負 3束內	28負 7束頃
實結	66負 6束	
寺位 合畚結	2口 3負 9束內	47負 7束頃
	內	8束永陳
實結	1口 56負 2束	

이상

合田畚結	11口 52負 4束內 1結	90負 1束頃
實結	9口 62負 3束	

使 押署
躡印

12. 송추 및 고총 적간기(정인학 계장시, 1895)

12. 송추 및 고총 적간기(정인학 계장시, 1895)

乙未(1895) 五月 日 華池山 禁養松楸 및 所在古塚 摘奸記
松楸秩

산소동편

中大松 2株

中松 103株

산소서편

大松 3株

中大松 4株

中松 85株

산소남편

大松 7株

中大松 117株

中松 258株 이상 齋閣直 禁養

산소북편

中松 1株

小中松 5株

齋舍後嶺

中大松 4株

小中松 49株

寺門外西嶺

中松 5株 이상 齋僧 禁護

祭閣後

中松 10株

祭閣前

中松 55株 이상 齋閣直 禁護

東山直 禁護內

中松 112株

西山直 禁護內

中松 24株

南山直 禁護內

大松 2株

中松 39株

北山直 禁護內

中松 3株

禁松亭山直 禁護內

中松 152株

小中松 123株

이상 포함 1163株內

大松 12株

中大松 127株

中松 896株

小中松 128株

上羅山中松 22株

下羅山中穉松 不計幾百株

12. 송추 및 고총 적간기(정인학 계장시, 1895)

古塚秩

白虎嶺 2塚	主金哥 居本邑楊亭	南山外嶺 2塚	主李哥 居釜山
又 1塚	主文哥 居本邑北面	東山外嶺 1塚	鄭始牧母塚
西外嶺 4塚	主萊機鄭派中	又 2塚	主孫哥 居本邑內
又 2塚	主金哥 居本邑沙上	靑龍外嶺 4塚	主宋哥 居水營
外白虎嶺 1塚	主朴哥 居本邑美南	又 2塚	主孫哥 居本邑內
西山外嶺 4塚	主李哥 居本邑凡田	又 2塚	主萊機鄭派中
又 2塚	主文哥 居本邑沙上	禁松亭 3塚	主鄭哥 居機張
又 3塚	主金哥 居釜山	又 1塚	主鄭哥 居本邑內
又 1塚	主鄭哥 居本■■■	又 1塚	主金哥 居本邑內
又 2塚	主鄭哥 居本邑凡田	이상 포함 41塚	
又 2塚	主鄭哥 居本邑內		

使 押署
躡印

補記

살펴보건대 이상 松楸秩과 古塚秩 모두 寅學氏가 동래부사 때에 조사한 것이며 그 종계안의 서문 중에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앞의 두 件의 조사가 서문의 작성 뒤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열람하는 자는 서문 중에 거론하지 않은 것을 의아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홍 씀}

13. 종계안(정기선, 1828)

13. 종계안(정기선, 1828)²⁰⁷⁾

순조 28년 무자년에 호장공 25세손 基善공이 慶尙監司로 재직시에 이 절목을 정하고 齋舍를 중수하였다. 이 절목 책 1건은 山下 재실에 두고 1건은 本孫家에 두었다.²⁰⁸⁾ 《동래정씨가록》에 이 절목이 기록으로 실리지 않아서 그 증손 薰謨에게 이를 얻어 베껴 쓰고 원본은 잘라서 각 장에 도장을 찍어 성첩하였다.

新增

화지산 산소 수호절목²⁰⁹⁾

화지산 산소 수호법절은 옛날에 本府(동래부) 吏廳²¹⁰⁾에 맡겨졌으니 그때의 巡山日記와 祭奠의 物種과 각종 文蹟이 이렇게 현재 존재하여 각근봉행²¹¹⁾하였음을 지금도 가히 알 수 있다. 中年에 우리 氏族²¹²⁾이 살고 있는 境內로 移屬한 것은 어찌된 것인가? 서울과 거리가 너무 멀어 進身자손²¹³⁾들이 종종 성묘할 수 없고 세월이 차츰 오래되어 兪잡묘예²¹⁴⁾들은 한번 임무를 맡고는 오래토록 나태하여²¹⁵⁾ 송추²¹⁶⁾라고는 [화지산 묘역] 전국²¹⁷⁾

207) 번역의 세 항목(13. 종계안(정기선, 1828); 14. 4절일, 제수, 제기(정기선 계장시, 1828); 15. 종계안(정기선, 1829) 추록)은 모두 《화지산산소수호절목》이라는 하나의 成冊 속에 들어 있다.

208) 실은 節目의 한 항목에 의하면 節目을 3건 작성하여 吏廳, 齋舍, 京宗中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209) 基善공은 <화지산산소수호절목> 뿐만 아니라 <용궁오선산수호절목>도 마련하였는데 《완담지》(정재기, 1993)에 <용궁오선산수호절목>의 원문이 실려 있다.

210) 동래부에는 부청의 중요 관아 건물로 吏廳, 武廳, 鄉廳 등이 있었다.

211) 恪勤奉行: 화지산 산소 수호와 관련된 모든 행사를 정성껏 받들어 행함.

212) 《동래선산기실》의 始族은 氏族의 오기로 보인다. 화산재/화수정 전래 성책본 옛 종계안 《화지산산소수호절목(1828)》[이것을 <1828종계안1>이라고 부르겠음]과 동래부원군종가의 필사문적의 종계안[이것을 <1828종계안2>라고 부르겠음]과 《화산재지》에는 氏族으로 되어 있다.

213) 搢紳子孫: 벼슬하고 있는 후손.

214) 冗雜苗裔: 쓰잘머리 없는 후손.

215) 《동래선산기실》의 怠惰가 <1828종계안1>과 <1828종계안2>에는 怠墮

13. 종계안(정기선, 1828)

에 헐벗었고 재력²¹⁸이라고는 남아 있는 것(留貯)이 고갈되었고 향사에 절의 수호는 지극히 허술하였다.

이번 순시 길에 성묘할 때 나도 모르게 송구스러워²¹⁹ 이마에 땀이 흘렀다. 마침내 신중을 기하매 남의 일처럼 방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옛 규례²²⁰로 돌아가 금양²²¹하고 전수²²²하는 등의 일을 모두 吏廳에 맡겨 거행하고, 옛 절목²²³ 중에서 여러 조항을 취하여 상호 참조하여 시의에 맞도록 고쳐서 아래에 조목조목 열거한다.

무자년(1828) 4월 일(개국 437년 순조 28년)

一、松楸禁養의 항목과 錢穀出納의 일은 古例에 의하여 吏廳에 맡겨 4인의 公兄²²⁴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각근봉행하며 옛 규례를 폐하지 말고 본받는다.

一、4인의 각 산직²²⁵은 금표를 정하여 날마다 산을 순찰하고 각

로 되어 있고 《화산재지》에 怠慢으로 되어 있다. ※惰(계으를 타), 慢(계으를 만), 墮(계으를 타, 떨어질 타).

216) 松楸: 산소 주위에 심는 나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주로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많이 심었다.

217) 全局: 산소가 있는 산 전체.

218) 《동래선산기실》의 射力은 財力의 오기이다. <1828종계안1>, <1828종계안2>, 《화산재지》 모두 財力으로 되어 있다.

219) 《동래선산기실》의 不覺悚이 <1828종계안1>, <1828종계안2>, 《화산재지》 모두 不覺惶으로 되어 있다.

220) 《동래선산기실》의 舊規가 <1828종계안1>, <1828종계안2>, 《화산재지》 모두 古規로 되어 있다.

221) 禁養: 나무나 풀 등을 베지 못하게 말림.

222) 典守: 어떤 일을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것.

223) 《동래선산기실》의 遠節目은 原節目의 誤記이다. <1828종계안1>, <1828종계안2>, 《화산재지》 모두 原節目으로 되어 있다.

224) 조선시대 각 고을의 戶長·吏房·首刑吏 세 官屬을三公兄이라고 하였다.

225) 山直: 산지기.

13. 종계안(정기선, 1828)

기 금표 내에 나무를 베는 자는 당해 산직이 즉시 吏廳에 보고하고 경미하면 吏廳에서 징계하여 다스리고 심한 자는 관사(226)에 보고하여 엄히 죄를 다스리게 하되, 公兄은 향유사와 함께 매달 산을 순찰하며 적간(227) 때에 나무밀동을 자른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당해 산직은 吏廳에서 엄히 다스리거나 또는 파면한다.

- 一、산을 순찰한 상황을 사계절의 마지막 달에 4인의 公兄이 京有司 택에 치고(228) 하되 우리 정씨종중에서 [경상도] 관찰사 벼슬을 하고 있을 때는 매달 말 영문(229)에 치고한다.
- 一、해마다 들어오는 錢穀은 吏廳에 맡기고, 四節享日의 祭需역시 吏廳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그릇의 수량대로 진배(230) 하며, 享祀時 참여 종인들과 멀리서 와서 하룻밤 묵는 종인들에게 대접하는 음식비용은 稅入租 중에서 齋僧에게 일정량을 떼어 주어 필요한 만큼 쓰게 하되 그 출납을 장부에 기입하여 예전처럼 뒤섞여 어지럽지 않게 할 것이며, 매년 말에 錢穀의 잔액·잔량을 기록하여 慶유사 택에 올려 보내되 향유사가 서명하고 4인의 公兄이 치고한다.
- 一、近年에 參入한 종계원의 수가 적지 않은데 捧入한 禮錢이 모두(231)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 의당 일일이 소고(232) 하여야 하

226) 《동래선산기실》의 官舍는 官司의 誤記이다. <1828종계안1>, <1828종계안2>, 《화산재지》 모두 官司로 되어 있다.

227) 摘奸: 법제나 규정에 어긋나거나 위반한 위반한 사항이 있는가를 조사함.

228) 馳告: 말을 달려 알림. 시급히 알림.

229) 營門: 관찰사가 일을 보던 관아.

230) 進排: 물품을 바침.

231) 《동래선산기실》의 並은 盡의 誤記이다. <1828종계안1>, <1828종계안2>, 《화산재지》 모두 盡으로 되어 있다. ※盡: 모두.

232) 溯考: 옛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세히 고찰함.

13. 종계안(정기선, 1828)

지만 자질구레한 것 같아 이를 보류한다. 차후 宗人의 新入禮錢은 일일이 捧入하여 錢穀 장부에 소상하게²³³⁾ 기록하여 혹 시라도 있을 유류의 폐단²³⁴⁾을 없애며, 치부²³⁵⁾ 등의 일 역시 원래 절목 중에서 정해진 방식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一、종계 설치의 뜻은 본래부터 정중하였으나 근래 追入한 사람들은 용잡의 폐단²³⁶⁾이 없지 않으니 차후 반드시 신중을 기하여 감히 이전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 一、향유사는 墓下 종인 중에서 원래 鄉家の 자손을 경중중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며 無故하면 교체하지 말아야 한다.
- 一、祭閣直 1명과 四山直 4명과 羅星山直 2명 합하여 7명의 案冊은 이번에 고쳐 수정하고 성첩하여 비치하되 뒷날 만약 결원이 있어 대신 채우면 각 이름 아래에 付標를 고쳐 붙인다.
- 一、稷畚은 매년 가을 답험²³⁷⁾ 때 公兄이 향유사와 함께 직접 검사한다.
- 一、節目 3건과 山直案 3건을 작성하여 1건은 吏廳에 비치하고 1건은 齋舍에 비치하고 1건은 京宗中에 비치한다.
- 一、田案 2건은 올해에 고쳐 수정하고 성첩하여 1건은 吏廳에 비치하고 1건은 京宗中에 비치하고 舊田案은 齋舍에²³⁸⁾ 비치한다.
- 一、미진한 조항은 추후 마련한다.

233) 《동래선산기실》의 於錢穀文書昭詳이 <1828종계안1>, <1828종계안2>, 《화산재지》 모두 於錢穀文書中消詳으로 되어 있다.

234) 遺漏之弊: 물래 빼돌리는 폐단.

235) 致簿: 금전 또는 물품의 출납을 기록하여 둠.

236) 冗雜之弊: 용잡묘예에 의한 폐단.

237) 踏驗: 논밭에 가서 농작의 상황을 實地로 답사함.

238) 《동래선산기실》의 于齋舍가 <1828종계안1>, <1828종계안2>, 《화산재지》 모두 于齋中으로 되어 있다.

14. 4절일, 제수, 제기(정기선 계장시, 1828)

祭器秩

餅楪器(병접기) 2坐	熟菜器(숙채기) 1坐
糲器(면기) 2坐	膾器(회기) 1坐
餅菜器(병채기) 2坐	醋醬器(초장기) 1坐
匙楪(시접) 1坐	煎器(전기) 1坐
淸器(청기) 2坐 新備	沉菜器(침채기) 1坐
飯器(반기) 2坐 具蓋	脯器(포기) 1坐
羹器(갱기) 2坐 具蓋新備	食醢器(식해기) 1坐
醬器(장기) 1坐 新備	茶楪(다접) 2坐 新備
匙(시) 2柄 新備	佐飯器(좌반기) 1坐
盞(잔) 2坐 新備	切肉器(체육기) 1坐
箸(저) 2偶 新備	香爐(향로) 1坐
湯器(탕기) 3坐	香盒(향합) 1坐
炙器(자기) 1坐	燭臺(촉대) 1雙
果器(과기) 4坐	

15. 종계안(정기선, 1829) 추록

15. 종계안(정기선, 1829) 추록

추록

齋庵은 영건²³⁹⁾한 지 오래되어 재목과 개와²⁴⁰⁾는 썩고 깨지고, 기둥과 주춧돌은 뒤틀려 한쪽 면이 이미 기울어져 넘어질 지경이었다. 승려들도 거의 발붙이고 살 방도가 없어서 수호하는 일이 그에 따라 소홀해져 諸宗이 빈민한 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일은 큰데 힘은 부족하여 수리하지 못한 채 세월이 또 여러 해가 흘렀다. 지난 을유년(1825) 함흥 종인들이 200냥의 돈을 모아 수천 리 밖에서 가져와서 전하니²⁴¹⁾ 山下의 宗인들이 이 돈으로 이자를 불러 족히 경시²⁴²⁾할 수 있도록 대비²⁴³⁾하고자 하였으나 [돈을] 들고 널 때에 폐단이 많아 단지 본전만 받고 그 이자는 탕감하고, 300냥을 더 마련하고 또 本府 城主²⁴⁴⁾ 金鑄²⁴⁵⁾이 특별히 100냥을 찬조하고, 山下 종인 成彥이 100냥을 헌납하기를 원하여, 도합 696냥 6전 2푼으로 재목과 개와 및 공역비에 충당하였다. 우

239) 營建: 건물을 지음. ※營: ① 계획하다. ②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240) 蓋瓦: 기와를 이는 것이 蓋瓦이지만 기와 자체를 蓋瓦라고도 한다.

241) 이후에도 함흥 종인들의 향사참여는 계속 있었다. 참제록에 “三十代孫 應周 戊申二月 咸京[鏡]道咸興”과 “二十六代孫 均恒 居咸鏡道咸興府東溟社馬九味監司公十六代孫字卿心 戊戌四月朔旦來拜謁”의 기록과 첨알록에 “三十一代孫 學鍊 居咸南新興郡東古川面興京里 壬戌十月二十一日”과 “二十八代孫 慶欽 戊午生 咸興南東邊里 辛卯年五月端午謁墓, 完欽 癸丑生(거주지와 알묘일 동일함), 義欽 戊午生(거주지와 알묘일 동일함), 禮欽(거주지와 알묘일 동일함), 洙日(거주지와 알묘일 동일함), 源深(거주지와 알묘일 동일함)”의 기록이 보인다. <관북감사공파보(2001) 卷之下 13장, 16장, 102장, 161장, 163장, 338장 참조.>

242) 經始: 공사를 시작함. 開始營建. ※經: ① 날줄. ② 집을 짓다.

243) 待備: 저축, 비축. ※待: ① 기다리다. ② 저축하다. 비축하다.

244) 本府는 동래부를 말하며 城主는 부사를 말한다.

245) 金鑄(1772-1833): 호는 犀園이며 본관은 연안이다. ※순조실록(27년(1827) 6월 16일)에 “以金鑄爲東萊府使”라 하였으며, 동래읍지 宦蹟조에 “金鑄 丁亥(1827)六月倒己丑(1829)五月遞”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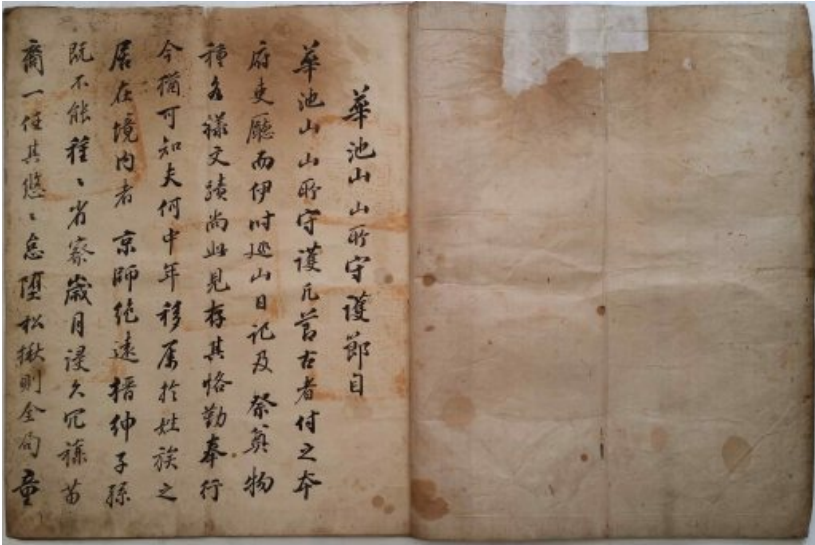
15. 종계안(정기선, 1829) 추록

리 일족인 막비²⁴⁶⁾ 玆으로 하여금 왕래하며 감독케 하고 향유사 有一²⁴⁷⁾과 색리²⁴⁸⁾ 李重倓에게 始終 간사역을 맡게 하였으며 공형²⁴⁹⁾ 尹師嫻, 李思淳, 宋儒殷 등 역시 모두 그 정성과 책임을 다 하여, 옛 것을 철거하고 새 것을 창건하는 데에 총 4개월이 지나서 완공되었다. [나²⁵⁰⁾] 스스로 증건기를 짓고, 玆으로 하여금 편액²⁵¹⁾을 쓰게 하고, 城主가 또한 華之寺²⁵²⁾와 東華福地 등의 글자와 주련 四句를 써서 내외 문미²⁵³⁾와 기둥면에 걸고 나니 장대하고 미려한 모습으로 一新하였다. 이에 그 대략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에 대비하며, 이번 영건시 하기²⁵⁴⁾를 2건으로 성첩하여 1건은 吏廳²⁵⁵⁾에 비치하고 1건은 경종중에 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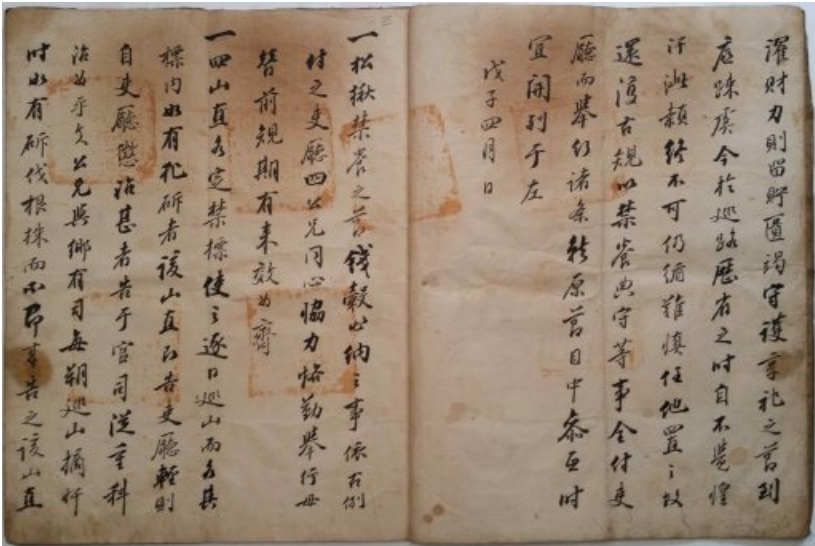
기축년(1829) 6월 일

-
- 246) 幕裨: 감사·유수·병사·수사·견외사신의 일을 돕던 무관 벼슬.
 247) 鄭有一: 공은 무자년(1828) 4월부터 을미년(1835) 4월 후임 선임시까지 향유사를 맡았다. 鄉廳의 가장 높은 職任인 座首를 역임하였다. ※黃一夏(1705년 2월부터 1706년 10월까지 동래부사로 재직)의 공덕을 기리는 황일하영세 불당비의 뒷면에 “崇禎紀元後二丁亥吏民豎立年久剝落四辛卯孟夏作廳改建座首鄭有一別監辛東珪文鳳來公兄宋儒殷孫禧彥李重倓尹師翰監役具鳳祥李思勳李正民(승정기원후 둘째 정해년(1707)에 아전들과 백성들이 비석을 세웠다.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가 剝落하여 승정기원후 넷째 신묘년(1831) 4월에 吏廳에서 다시 세운다. 좌수 정유일, 별감 신동규·문봉래, 공형 송유은·손희연·이중달·윤사한, 감역 구봉상·이사훈·이정민)”이라고 쓰여 있다.
 248) 향리는 戶長層·記官層·色吏層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49) 公兄: 관찰사나 수령 아래 각 고을의 戶長·吏房·首刑吏의 세 상급 관속.
 250) 1829년 6월에 쓰여진 이 추록은 1828년에 작성된 鄭基善의 종계안(화지산 산소수호절목)의 끝에 추가된 것으로 鄭基善공이 쓴 것으로 보인다. ※증건기(중수기) 끝에 “己丑(1829)季春(3월)上澣觀察使基善記”라고 하였으며 순조실록[순조 29년(1829) 6월 5일]에 “代點以鄭基善爲吏曹參判”이라 하였다.
 251) 편액은 “華池山永護庵”이다.
 252) 원본 본문에 華之寺에 대해 “懸板本書即花之寺”라는 頭註가 달려 있다.
 253) 門楣: 문 위에 가로로 댄 나무.
 254) 下記: 행사 또는 공사에 사용된 비용에 관한 결산 기록.
 255) 동래부에는 부청의 중요 관아 건물로 吏廳, 武廳, 鄉廳 등이 있었다.

15. 종계안(정기선, 1829) 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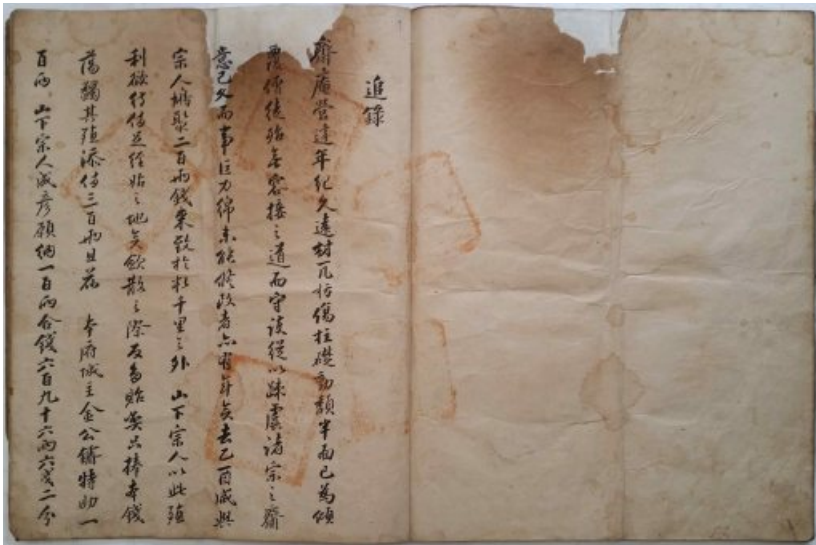


▲ 종계안(정기선, 1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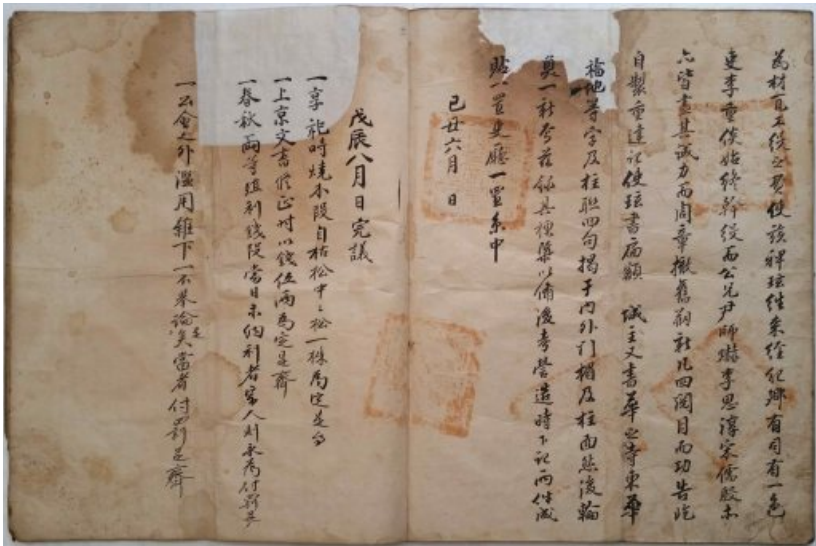


▲ 종계안(정기선, 1828)

15. 종계안(정기선, 1829) 추록



▲ 종계안 추록(정기선, 1829)



▲ 종계안 추록(정기선, 1829)

16. 재사중수기(정기선, 1829)

16. 재사중수기(정기선, 1829)

新增

齋寺²⁵⁶重修記 永護庵揭板文

화지산이 우뚝 솟아 바닷가 물 가운데 침수²⁵⁷)하니 연꽃 봉우리[菡萏²⁵⁸]가 물에서 나온 것과 같고 긴 산등성이에 첩첩 봉우리들은 연밭[蕙葍] 같고 잇닿아 껴안고 있는 산들은 자손들 같고 노을 속에 옥을 깎아 놓은 듯 솟아 걸출하니 동래부의 진산²⁵⁹)이다. 작은 사찰²⁶⁰)이 산 속 깊은 곳에 있고 數幃²⁶¹) 떨어져 4척 높ی 봉분이 있으니 우리의 시조 호장공의 묘소[의리유장²⁶²])이다. 이 사찰[齋庵]은 선영을 수호하기 위하여 창건한 것이다. 우리 동방의 정씨로 내주²⁶³)를 본관으로 삼는 자 누구인들 꾀에게서 유래된 그 후손이 아니겠는가?

선영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금호²⁶⁴)의 일을 맡아서 하고, 조포 등의 제수를 준비하는 일은 집[家]에서 하지 않고 [齋庵의] 향적²⁶⁵)에서 하는 것이 추세였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 齋庵은

256) 《동래선산기실》(서문 1920, 완성 1925)에는 齋舍로 되어 있으나 번역문에서 현판(1829)에 따라 齋寺로 하였다.

257) 尖秀: 풍수지리에서 山形의 한 형태를 형용하는 말. 尖秀한 文筆峯이면 문장가나 학문이 높은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

258) 菡은 菡(연꽃봉우리 함)의 이체자이고 萏은 萏(연꽃봉우리 담)의 이체자이다.

259) 鎮山: 한 마을이나 고을의 중심이 되는 산.

260) 작은 사찰(小刹)을 추록에서는 齋庵으로 표현하였다.

261) 幃는 활터의 射臺에서 과녁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것 같다. ※幃: 과녁 후.

262) 衣履攸藏: 衣履之藏, 衣冠之藏 등과 함께 일반적인 묘에 대한 현학적인 표현. ※시신이 없어 묻지 못하여 대신 옷과 신을 묻었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263) 萊州는 萊山, 蓬山과 함께 모두 東萊의 고향이다.

264) 禁護: 塋域 안의 나무나 풀 등을 베지 못하게 말리고 봉분을 보호함.

265) 香積: 절간의 주방.

16. 재사중수기(정기선, 1829)

바람과 비에 쓸려서 대들보는 썩어 기울고, 서까래는 비틀려 위태롭고, 섬돌은 뒤집히고, 안치²⁶⁶)같고 어린²⁶⁷)같이 가지런하던 기와는 착잡²⁶⁸)하게 매달렸다. 그래서 諸宗이 완전하게 수리할 것을 함께 상의할 때 관북에 거주하는 종인이 천리 길을 걸어 와서 백전²⁶⁹)을 주면서 一助하기를 청하였다. 宗中이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받아서 특별히 보관하였다. 그 役事는 거창한데 재력이 부족하여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루지 못하였다.

무자년(1828)에 내가 관찰사로서 순시하던 때 시조 묘소에 제사를 지낸 후 물러나 절에서 쉬면서 諸宗과 의논하여 일을 잘 주관할 수 있는 아전과 향임에게 이듬해(1829) 정월 중순에 공사를 시작하게 하여 2개월에 이르러 공역을 마쳤다. 기둥으로 헤아리니 총 10개인데 규모²⁷⁰)와 間架²⁷¹)는 조금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여서 트이고 널찍함은 줄어들고 정교하고 치밀함은 늘어났다. 寮宇는 겹겹이 우뚝하며 마루의 기둥들은 가지런하다. 마침내 길일을 택하여 낙성식을 가졌다.

아로새긴 동자기둥²⁷²)과 棋包가 온통 빛나고 솔숲의 백백한 이내²⁷³) 속에서 僧徒가 고개를 들어 우러러 보고 옆드려 절하고 말하기를 “이 사찰은 마땅히 진작 수리되었어야 했는데 수리되지 않은 채 흘려간 세월이 얼마이던가? 하늘이 적당한 방편으로 은

266) 雁齒: 기러기가 가지런히 편대를 이루어 나는 모습이나 치아가 가지런히 난 모습.

267) 魚鱗: 물고기 비늘.

268) 錯雜: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했음.

269) 百錢: 백냥 규모의 돈. ※추록에는 200냥이라 되어 있다.

270) 規模를 원문처럼 規撫 또는 規撫로 적기도 한다.

271) 間架: 정면 칸을 間, 측면 칸을 架라고 하며, 정면은 대개 도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리칸, 측면은 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칸이라고 한다.

272) 원본의 挽는 稅의 오류이다.

273) 이내: 해 질 무렵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

16. 재사중수기(정기선, 1829)

혜를 내려 잘 마무리되어 아름답게 완성되었도다.” 하였다. 諸宗이 또 함께 기뻐하며 말하기를 “묘소에 제사를 지내면서 齋舍가 없는 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들이 [齋舍를] 지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중수하는 일] 번번이 꺾였다. 금번에 날짜를 맞추어 건물을 지으니 옛 규모대로 모두 복구되었다. 이처럼 모여서 이처럼 齋戒하니 우리의 기운이 선조의 기운과 어렴풋이 상접하는 듯하다. 이 어찌 다행스럽지 않은가?” 하였다.

내가 술을 따르고 말하기를 “龍象眞詮에 이르기를 ‘大慈는 본래 憐[혼인함]의 뜻이다. 普濟는 慈는 航證이라 하였고 遍照는 慈는 등불로 널리 비추어 함께 혜택에 젖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곧 慈는 구름이고 慈는 물이다.’ 하였으니 진실로 그 慈를 대중의 마음으로 받들어 우러러 섬길 것을 생각하면 호도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 마음을 호도하는 데에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목저미²⁷⁴)와 금승인로²⁷⁵)도 은중반계²⁷⁶)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풀어보면 우리 儒家에서 추원보본의 뜻은 千念萬誦을 하다가 손가락 한 번 튀기는 찰나에 문득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리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원컨대 훌륭한 승려를 얻어 방등²⁷⁷)을 크게 베풀고, 가성²⁷⁸)을 정성껏 수호하고, [제사 준비에] 가마솔

274) 弩目低眉: 금강역사가 눈을 부릅떠 사방귀신들을 굴복시키고 보살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눈썹을 낮게 드리워 육도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

275) 金繩引路: 금으로 만든 줄을 쳐서 극락의 길로 인도함.

276) 恩重半偈: 부모은중경과 열반경. ※열반경에, 석가여래가 과거생에 설산에 들어가 보살행을 닦을 때 나찰에게서 계승의 전반(諸行無常 是生滅法)을 듣고 기뻐서 다시 후반(生滅滅已 寂滅爲樂)을 듣고자 하였으나 나찰이 배가 고파 힘이 없어 일러줄 수 없다고 하자 그에게 몸을 던져 주기로 약속하고 계승을 마저 들었다고 하는 설화가 있다.

277) 方等: 華嚴. ※산스크리트어 vaipulya의 번역으로 설하는 바의 이치가方正하고 平等하므로 方等이라고 한다.

16. 재사중수기(정기선, 1829)

을 깨끗이 씻는데 반드시 정성과 공경으로 내 몸과 같이 하고, 선조의 업적을 계승하고, 장차 善因을 이어서 변함없이 冥福의 불사를 행하고 淨界에 오래 머물면서 법륜²⁷⁹⁾을 항상 두루 펴기 바란다.” 하였다.

또 술을 따르고 말하기를 “천지간에 형상이 있는 것으로 다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바탕을 엮는 나무와 틈새를 붙이는 흙이 [齋庵이 되어]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되어 마침내 형상을 갖게 되니 어찌 한 번 낚아서 한 번 새롭게 지어지지 않겠는가? 무릇 사람이 선조의 업적에 대해 마땅히 돌아보고 폐하지 않는 것은 크고 중한 일이다. 孝謹이 타락하지 않는 것과 敦朴이 이지러지지 않는 것과 詩禮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습득하는 것은 자질구레하여 오직 가옥의 뼈대 사이를 채우는 벽으로 지엽적인데 하물며 사찰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원컨대 諸宗은 齋舍를 重修하는 것으로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경하고 어려워하고, 생각마다 욕되게 하는 마음 없애고, 일마다 [선조께서] 살아 계신 듯이 대하는 정성을 다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여 몸을 닦고 대대로 추락함이 없다면 어찌 크게 번창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마침내 글을 써서 [편액을 만들어] 門楣에 걸어두고 법중²⁸⁰⁾에게 警戒토록 하며 또 우리 종족의 萬子孫에게 힘쓰도록 하는 바이다.

기축년(1829) 3월 상한에 관찰사 基善²⁸¹⁾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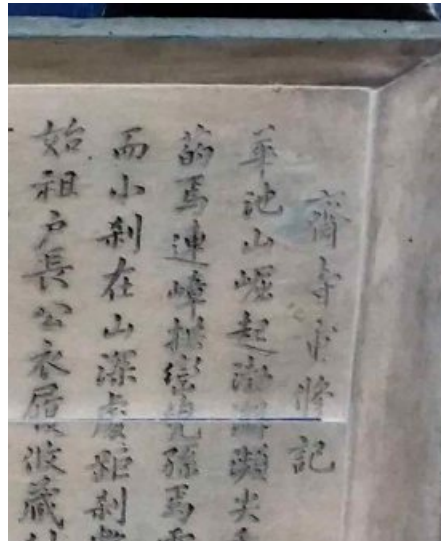
278) 佳城: 무덤. ※무덤을 견고한 성에 비유한 말.

279) 法輪: 부처의 교화와 설법.

280) 法衆: 스님의 무리.

281) 鄭基善(1784-1839): 호는 수석(脩石)이며 밀양부사 재임시 묘장공(휘 문

16. 재사중수기(정기선, 1829)



▲ 재사중수기(정기선, 1829) [2017년 8월 현재 화수정에 걸려 있다.] ※아래 두 사진은 부분확대이며 그 중 하나는 반전 이미지인데 齋舍 대신 齋寺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도)의 낡은 표표를 고쳐 세운 휘 是先공의 5대손이다. 1827년(순조 27)부터 1829년 6월까지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는데 1828년 극심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에 구원을 요청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17. 계관시(정엽린, 1858)

17. 계관시(정엽린, 1858)

[후손 정엽린의 계관시]

曰我東萊始祖公	우리 동래정씨 시조 호장공 할아버지
平生恭儉儉深工	평생 공손하고 검소한 덕 남몰래 닦으셨네
雪消默佑仁天澤	하늘은 눈 녹은 명당으로 말없이 도우시고
巖雷感回造化功	벼락으로 액운 바위 깨니 신묘한 공력이네
碑面四隈三拱白	비석은 네 면 굽이에 세 아름 희게 빛나고
花心百日二株紅	花心으로 심은 두 그루 백일홍은 붉디붉네
羅星外案云何鳥	나성 바깥 안산은 무슨 섬이라고 이르던가
絕影獻情緊補空	절영도 섬이라 정 바쳐 긴히 빈 곳 채우네

庵名永護有華山	영호암이라 부르는 암자 화지산 속에 있어
意在深長不在閑	의미는 깊고 깊어서 등한한 것이 아니라네
曾憶往三千劫際 ²⁸²⁾	일찍이 생각만은 삼천 겁 즈음까지 갔지만
尙書來幾百年間	오히려 글로서는 몇백 년 동안 전래되었네
彫樑美矣開新跡	조각한 대들보는 아름다와 새 자취 열었고
金佛天然幻古顏	새 金佛은 천연스러워 옛 얼굴로 헛보이네
竊取其義文勢拙	고요히 그 의미를 취하니 文勢가 웅졸하여
後人謂我浪吟還	후인은 내가 마구 읊조리다 간다고 하겠네

黃枝嶴址問²⁸³⁾ 黃枝嶴 호장공의 집터 물어 보면

三尺小童知 三尺의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네

282) 劫은 劫의 오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계관시(사진)에는 劫으로 나온다.

283) 黃枝嶴에 대해 원본 頭註에 “黃枝嶴在東萊西面北栗(栗北의 오류임)而戶長公旧基今稱蓮山洞”이라 하였다. ※읍지 방리조에 栗北이 보이며, 천산기실의 丘墓 끝부분 新增에서 “戶長公住宅舊基 東萊郡西面栗北里(自墓所東距二里許現稱東萊西面蓮山里)”라 하였다.

17. 개판시(정엽린, 1858)

瘦竹叢巖裏 파리한 대숲은 바위틈 속에 있고
 流聞登口碑 도는 풍문은 비석에 새겨져 있네

송정기원 무오²⁸⁴⁾ 맹하²⁸⁵⁾ 전라도 김제 27세손 燁璘²⁸⁶⁾ 謹稿



▲ 개판시(鄭燁璘, 1858) [2017년 8월 현재 화산재에 걸쳐 있다.]

284) 송정기원후 넷째 무오년(1858)이다.

285) 孟夏: 음력 4월을 달리 일컫는 말.

286) 鄭燁璘(1810-1876)은 동래정씨 28세로 호장공(휘 문도)의 26세손(세손=대손)이다. □鄭緜(11)-昇-可宗-守弘-任-孝孫-堅-應璧-麟壽-克明-嶷(21)-元義-東虞-天奎-亨祿-載福-守信-燁璘(28) ※현판에서 '27세손 燁璘'이라고 적은 것은 世와 代에 대해 있었던 한 때의 착오인 것 같다. 이런 착오는 대호군공(휘 인)의 9세손(세손=대손)인 정세규공(鄭緜(11)-昇-可宗-守弘-傑-洪孫-振-彥信-慄-世規(20))이 세운 대호군공의 묘표에도 발견되는데 “崇禎十五年壬午(1642)三月日十世孫觀察使世規立”이라고 하였다. 이런 착오는 을미보 계대[정희문(1)-지원(2)-문도(3)]에서 병신보 계대[정지원(1)-문도(2)]로 바뀐 것과는 무관하다.

18. 정복세 종인 성금 계각문(정내화, 1817)

18. 정복세 종인 성금 계각문(정내화, 1817)

花樹亭所揭刻文

우리²⁸⁷⁾ 齋宮은 곧 先營²⁸⁸⁾을 수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先世諸宗이 논밭을 많이 장만하고 齋宮을 완성한지 수백년이 지나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다. 세월이 흘러 건물은 朽傷하고 기와는 깨지고 떨어져 곧 기울고 쓰러질 것 같아 걱정이 되어 諸宗이 회의하여 改建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갑술년(1814)과 을해년(1815)에 참혹한 흉년이 든 나머지 契에는 저축된 곡식과 돈이 없었고 빛을 낼 길이 막혔고 돈을 거두어 모으는 일은 방향을 잃고 헤매었다. [이때] 종인 福世가 문득 돈 100냥을 내놓고 改建 공사를 앞장서서 시작하였다. 나머지 [좀] 부족한 物財는 契物에서 들어내어 사용하여 완공하였다. 아름답도다! 이 분의 크나큰 爲先의 정성이 후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감동하기에 충분한 점이 있으므로 전말을 그대로 기록하여 재실의 벽에 걸어 놓을 뿐이다.

정축년(1817) 맹동²⁸⁹⁾ 宗稷首 乃和²⁹⁰⁾가 삼가 기록하다.

도감 鄭乃和, 유사 鄭萊栢²⁹¹⁾, 별유사 鄭福世²⁹²⁾

287) 《동래선산기실》의 원문 惟我齋宮이 현판에는 惟此齋宮으로 되어 있다.

288) 보통 先塋으로 많이 쓰이지만 先營으로 쓰기도 한다. ※先營은 묘소뿐만 아니라 그기에 깃든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다.

289) 孟冬: 음력 시월을 달리 일컫는 말.

290) 鄭乃和(1758-1823): 공은 1814년에 종계 계원으로 들어왔으며, 1815년 ○월부터 1817년 10월까지 향유사를 맡았다. □鄭先祚(3)-……-深(13)-觀-世徵-緇賢-琳瓏-麟角-彥龍-嗣後-泰彬-致咸-興僑-萊仁-乃和(25)[기미보(1919)에 첨사공파로 입보.]

291) 鄭萊栢: 공은 1806년에 종계 계원으로 들어왔으며, 1817년 10월에 향유사를 맡았다. ※[기유보]() □鄭光佐(안산공)-世謙-4자 惟祥-紹衍-廣緒-永和-行敏(1자 時龍, 2자 時鳳, 3자 時麟)-時麟(初諱致宗丁酉生○墓東萊長林里甲坐○配清州韓氏父國忠○墓合窆)-星鳳(甲寅生○墓加浦里甲坐○配清州韓氏墓上山頭器峯子坐)-壽根(字大連乙酉生墓舊四坪里西坐配密陽孫氏父瑞萬墓門現谷良坐)-萊栢(字君潭乙酉十二月初九日生乙酉十二月十五日卒享年六

18. 정복세 종인 성금 계각문(정내화, 1817)



▲ 鄭福世 종인 성금 계각문(1817) [2017년 8월 현재 화산재에 걸려 있다.]

十一○墓東萊西下面黃[荒]嶺山下甲坐原生三男○配潭陽田氏萬壽甲午六月初六日生忌十一月十二日○墓同山下乙原)： 일통보(1935) □鄭光佐-世謙-3자 惟祉-承衍-廣鳳-善和-東嶷(翊城李國忠女)-致賢(慶州金國仲女)-星奉(清州韓永暉女)-壽根(密陽孫瑞萬女)-萊栢(潭陽田萬壽女)： 안산공과보(1859) □鄭光佐-世謙-3자 惟祉-承衍(후손 미기록)；世謙-4자 惟祥-紹衍-廣緒-永和-行敏(자 萬龍, 萬鳳)-1자 萬龍(초휘 時龍)-…，2자 萬鳳(초휘 時鳳)-…； 안산공과보(1949) □鄭光佐-世謙-3자 惟祉-承衍-廣智, 廣信；世謙-4자 惟祥-紹衍-廣緒-永和-行敏(자 萬龍, 萬鳳)-1자 萬龍(초휘 時龍)-…，2자 萬鳳(초휘 時鳳)-…； 안산공과보(2012) □鄭光佐-世謙-3자 惟祉-承衍-廣鳳-善和(초휘 善文)-東嶷(초휘 昱)-致賢(후손 미기록)

292) 鄭福世： 공은 1811년에 중계 계원으로 들어왔다. 교련청선생안에 공은 敎鍊官으로 나온다. <조선후기 동래의 무청선생안과 무임 총람(손숙경, 이훈상,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참조.

19. 계판시(정존일, 1855)

19. [계판시(정존일, 1855)]

太古淸風吹滿山	太古淸風은 불어 산에 가득하고
千年景物一區閑	千年景物은 한 구역에 한가롭네
雲生老柏蒼松裏	老柏蒼松 속에 구름이 생겨나고
路入幽花細草間	幽花細草 사이에 진입로가 있네
天勢圓如開鏡面	둥근 하늘은 펼쳐진 거울면이고
峰形秀似對仙顏	빼어난 봉우리는 신선 얼굴이네
庵僧禮佛時鳴磬	스님 예불 때 풍경 소리 울리어
驚起林禽任往還	놀란 새들은 이리저리 날아드네

積善行仁戶長公	積善하고 行仁하신 호장공 선조
佳城全局自天工	하늘의 솜씨로 全局은 佳城이네 ²⁹³⁾
千年邱木森羅地	천년 邱木 뿔뿔히 벌여 있는 땅
百世雲仍闕闕功	百世 후손들은 闕闕家門 이루네
衆水來朝江海碧	뭇 물길 강에 모여 海碧에 가고 ²⁹⁴⁾
羣峰環拱日輪紅	뭇 봉우리 껴안으니 日輪紅이네 ²⁹⁵⁾
肅然起敬傳來說	숙연히 일어난 恭敬心 전래되고
尙記雷巖指彼空	雷巖이 생각나서 저쪽을 향하네

을묘년(1855) 멩하²⁹⁶⁾ 하한 24세손 存一²⁹⁷⁾

293) 佳城: 성과 같이 견고하다는 뜻으로 무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94) 海碧: 푸른 바다.

295) 日輪紅: 붉게 떠오르는 해.

296) 孟夏: 음력 4월을 달리 일컫는 말.

297) 鄭存一: 공은 동래정씨 26세로 호장공(휘 문도)의 24세손(=대손)이다.

□鄭先祚(3)-……-深(13)-觀-世徵-緇賢-琳瑯-麟角-彥龍-嗣後-泰彬-致咸-興僑-萊仁-乃和-存一(26)[기미보(1919)에 첨사공파로 입보.] ※현판에서 25세손이라 한 것은 한때 세손=대손+1로 여기는 혼란으로 인한 것 같다.

19. 계판시(정존일, 1855)



▲ 계판시(鄭存一, 1855) [2017년 8월 현재 화수정에 걸려 있다.]

20. 계관시 및 소서(정영조, 1904)

20. 계관시 및 소서(정영조, 1904)

小序

이 고을은 곧 우리 정씨의 관향이다. 이 산 역시 우리 先墓가 있는 곳이다. 내가 서울에서 먼 곳에 사는 잔약한 후손으로 외람되어 과분한 은혜를 입어 이 고을에 부임해 와서 묘소에 절하고 받은 감동을 비교할 때 산도 오히려 가볍고 바다도 오히려 얕다.

영예로운 제사를 올리는 날 제사 끝나고 이 정자[花樹亭]에 올랐는데 정자는 화재를 겪어 重新하였다. 宗族에게 물어본즉 대답하기를, “임인년(1902) 겨울 일본인이 案山과 마주 대하는 中台峰을 굴착·발파하여 도랑을 트고 길을 닦았다. 이때에 범이 밤에 묘 옆에서 울부짖었고 또 花樹亭에 불이 났다. 괴이하고 두려워 京鄉諸宗은 힘을 합하여 [공사들] 禁止시켰고 저들 역시 스스로 흙과 돌을 저다 부어 완전히 메웠으니 先靈께서 강림하시어 遠近을 警戒하셨음을 볼 수 있다.”라 하였다.

그 옛날 길일을 택하여 장지를 정하는 날 범이 쭈그리고 앉은 자리에 눈이 녹아 묘를 쓰게 된 기이한 일[雪消虎踞之異]이 가승에 실려 있으며 오늘날 정자가 불타고 범이 울부짖은 일[亭火虎吼] 또한 千年 후 일어난 일로 어찌 동일한 영험이 아니겠는가?

기타 사실은 이전의 序에서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굳이 다시 적을 필요가 없고 四山에 둘러싸인 화수정이 예전보다 더욱 새로워졌는데 보고 들은 것을 위와 같이 대략 서술하며 또 아래의 시 한 편을 붙일 뿐이다.

名山先墓萬千年	명산에 모신 선조 묘소 천년만년 영원하고
拱揖孫峯采袖連	작은 봉우리들 소매 벌려 손잡고拱揖하네
芳麓孤庵禪卓錫	향기 가득한 산록에 외로이 스님 駐錫하고

20. 개판시 및 소서(정영조, 1904)

華池古洞陸生蓮	화지산 오래된 골짜기 언덕에 연꽃 자라네
竹符南國來何後	竹符 차고 남쪽 고을에 어느 훗날 또 와서
梅閣北軒宛侍前	관아에 봉직하며 전날처럼 모실 수 있으리
長記春秋花樹在	화수정에 남아 있는 춘추 기록은 장구한데
小亭風月定無邊	끝없는 청풍명월에 그 정자는 작아 보이네

광무 8년 갑진년(1904) 중춘²⁹⁸⁾ 동래군수 泳朝²⁹⁹⁾ 謹稿

嶠南勝地如將譜	영남의 명승으로 장수의 족보와 같고
鄭氏名阡最可書	정씨의 명당으로 최고 좋은 서책이네

{이 두 구절은 풍문으로 전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水營水使 朴鼎和³⁰⁰⁾ {戊寅年間³⁰¹⁾}

298) 仲春: 음력 2월.

299) 鄭泳朝의 字는 敬章이고 癸酉(1873)生이며 1903년 7월부터 1905년 1월까지 동래군수를 역임하였다. 거주지는 昌寧이다. □鄭善卿-種-禮耘-世良-師源-模東-卞正-云理-胤尙-紘-東厚-仁泰-尙起-昌信-基秀-泳朝

300) 朴鼎和(1823-?): 본관은 밀양이다. 1877년에 경상좌도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朴斗錫-聖煥-天源-宗臣-基豊-敬鎭-永善-鼎和-應學

301) 무인년은 1878년이다.

21. 종계안後書(정우범, 1903)

21. 종계안後書(정우범, 1903)

新增

書東萊華池山宗稷案後

무릇 효도는 百行의 근원이며 모든 美行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 때문에 자손이 祖先께 살아계실 때는 그 봉양을 극진히 하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그 공경을 극진히 하고, 美行이 있으면 반드시 서술하고, 덕이 있으면 반드시 현창하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증자께서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신중하게 행하고 먼 조상을 정성껏 제사 지내면 백성들의 덕성이 한결 돈후하게 될 것이라 하였으니 어찌 신중히 하고 또 공경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조 호장공 묘소가 동래 화지산에 있으며 우리 동래정씨는千百으로 갈래가 나누어지고 누대에 公卿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모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전 숙종 계미년(1703)³⁰²⁾에 후손 동평위 휘 載崙이 지석을 묻었고, 숙종 신사년(1701)에 후손 밀양부사 是先氏가 묘표를 교체하여 세웠는데 그 음기를 간략히 적었고, 또 [송정잡신후] 89년 임자년(1732)에 후손 本府伯[동래부사] 彥燮氏가 宗長 밀양부사 赫先氏와 함께 각기 그 봉급을 떼어 祭田을 늘렸으며³⁰³⁾ 돌을 다듬어 묘갈을 수립하고 몸소 글을 지어 새겼으며 또 山下諸宗과 함께 종계를 설립하고 종계안 절목을 제정하여 종족을 거두고 묘역을 수호할 것을 다짐하였으니 그 尊祖敬宗의 정성이 참으로 대단하였다. 얼마 안 있어 [동래부사 임기만료로] 족조 동계공 휘

302) 《동래선산기실》의 원본에서 ‘孝宗 癸未’는 오류이다.

303) 언섭공이 세운 묘갈에 “遂與宗長密陽府使赫先通告於姓族之爲旁近邑宰者各割官俸增置祭田”라 한 것으로 보아 동래와 밀양 외 다른 가까운 읍의 수령도 祭田을 늘리는데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21. 종계안後書(정우범, 1903)

來周³⁰⁴)가 이 부[동래부]에 부사로 부임하여 그 비문을 탁본하고 또 後識를 지어 彥燮공을 찬양하였다. 금상[고종] 을미년(1895) 후손 寅學氏가 또 이 부[동래부]에 부사가 되어 宗族들과 더불어 옛 종계를 다시 정비하여 마침내 종계안 규례를 작성하고 서문을 썼다. 무릇 祭田의 착인³⁰⁵)은 옛 문서를 살펴서 바르게 정리하고 邱木[松楸]의 다소³⁰⁶)와 人塚[古塚]의 성발³⁰⁷)은 新簿를 만들어 기재하고 [松楸와 古塚을] 종계안에 別錄하였다. 享祀의 의례와 禁護의 법도에서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아! 이것이 참으로 仁人孝子의 마음씀이며, 참으로 선조의 덕을 추모하여 근본을 잊지 않고 선조의 공열을 계승하여[紹先] 빛내는 것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나의 조부³⁰⁸)께서는 선조를 숭모하는 일[慕先]에 독실하여 연로함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무릇 선조들의 남긴 영광과 숨은 덕이 파문혀 알려지지 않은 것과 문장과 저술이

304) 鄭來周(1680-1745): 호는 東溪이며 창원공(휘 광보)의 7대손이다. 동래 읍지 宦蹟조에 의하면 鄭來周공은 계축년(1733) 4월에 동래부사로 到任하여 갑인년(1734) 정월에 病遞하였다. 중앙에 올라가 승지를 지냈고 이어 북청부사로 나갔다. 이후 병조참판과 형조참판을 지냈다.

305) 錯澗: 착오로 인멸된 것.

306) 多小: 多少 ※小 ① 작다. ② 적다.

307) 省發: 조사하여 적발한 것.

308) 나의 조부는 鄭圭歲(1831-1907)으로 호가 晴石이며 직제학공과보(1875)의 서문을 짓고, 《소원록》(필사본, 1881), 《가장누세연보》(필사본, 1902), 일통보략(필사본, 1902)을 편집하는 등 종사에 깊이 관여하였다. 창원공과보(2012)의 晴石公 방주에 “以斯文孝行薦報掌禮院至有表厥宅里題手抄家蹟及他書二百餘卷有文集”이라 하였다. 흔히 말하는 일통보(1935)는 원래 청석공이 간단명료하고 열람에 편리하게 1권으로 엮어서 東萊鄭氏一統譜略(1902) (표제: 萊鄭全譜, 95면 사진 참조)이라고 이름붙여 금초공(휘 學默)과 함께 간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청석공의 손자 雨興公과 금초공의 손자 世鎭公이 下系를 증보하여 9권으로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일통보(1935)는 12단으로 되어 있어 보통의 6단 족보보다 계보가 눈에 확 들어온다. 기재 방식은 기본적으로 생졸과 묘소는 적지 않고 벼슬명만 적었으며 배위에 대해서는 ‘의성김천택女,’ 사위에 대해서는 ‘女진주강시경’ 정도로 간단히 적었다.

21. 종계안後書(정우범, 1903)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이를 널리 수집하여 멀리 전하고 후손을 깨우칠 계획이었다. 이에 판서 故 율산공[휘 基會]³⁰⁹⁾께 편지를 보내어 종중의 문장가 允容氏가 편집한 《동래 정씨가록》을 빌려 필사한 것이 이미 전해지고 있으며 또 寅學氏의 종계안을 빌려 一本을 필사하였다. 마침내 이것을 가지고 小孫들을 훈시하고 孝悌敦睦의 방도를 자세히 일러 주셨는데 아주 은근³¹⁰⁾하고 절실하였다. 불초가 비록 못났지만 [조부께서 필사한] 이 종계안을 읽을 때마다 세 번씩 읽고 황홀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마치 동래정씨 諸宗과 함께 모여 앉아 講學하는 것 같아 孝睦의 마음이 무럭무럭 피어났으며 이에 효도가 百행의 근원이며 民德의 귀후³¹¹⁾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 同宗의 군자로 이 帖을 보는 자는 정말로 각자 행실을 가다듬어 述先의 미덕과 敦宗의 의리에 서로 더불어 힘쓴다면 다만 우리 종족만의 행운이 아니고 세상의 교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어찌 알디알디라고 하겠는가? 小子는 조부의 慕先에 이미 감동하였고 寅學氏의 紹先에 심히 부끄럽다. 삼가 몇 마디 말을 주워서 채우자면 그것은 역시 ‘동계 참판공(휘 내주)이 지은 後識의 遺意’라는 말이다.

광무 7년 계묘(1903) 1월 3일에 호장공 28대손 雨範³¹²⁾이 삼가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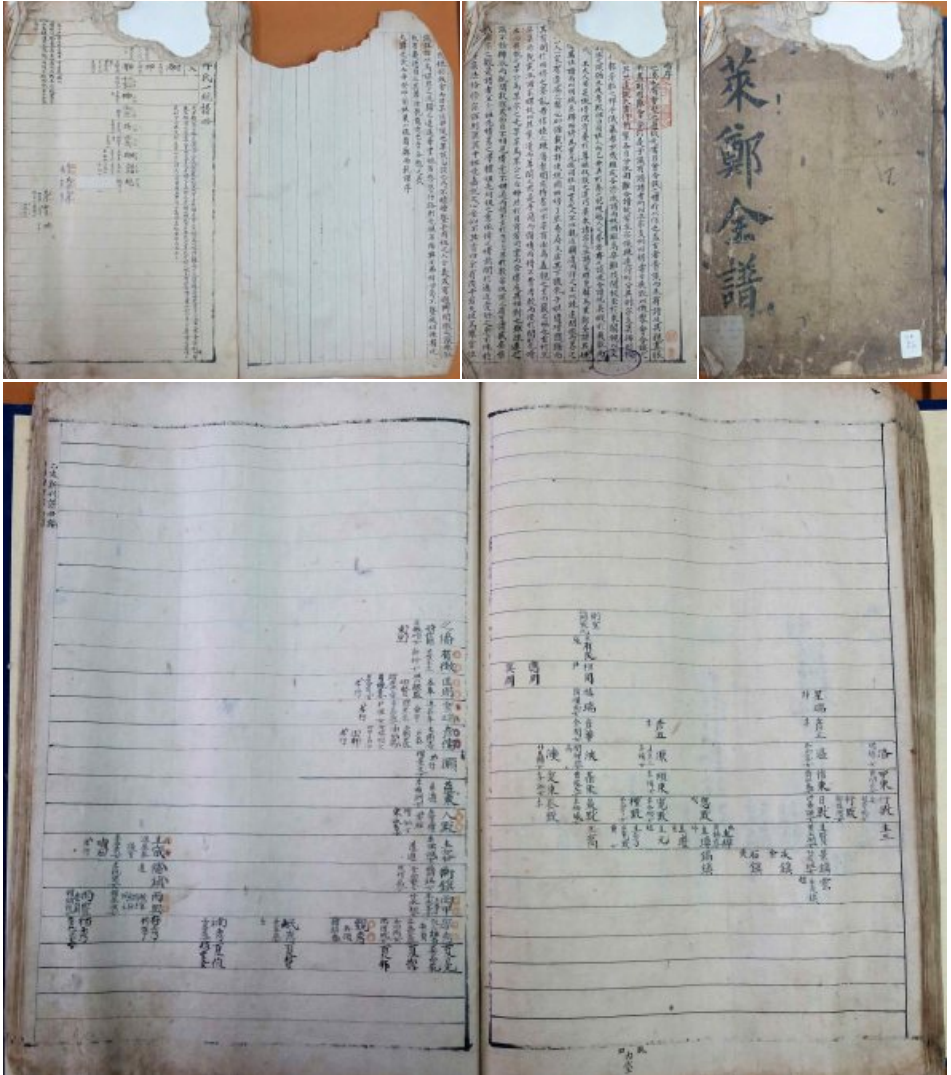
309) 율산공은 수암공 鄭允容(1792-1865)의 종질인 鄭基會(1829-?)이며 호조를 제외한 5판서를 두루 지냈다. ※鄭基會의 졸년은 소속과의 최근 족보인 知敦寧公과보(2001)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항목 21(鄭雨範의 종계안후서)과 부록의 항목 6(중대봉 森鑿事 단자 및 철도원 훈령)에 의하면 1902년, 1903년 중 하나이다.

310) 殷勤, 殷懃: 情意가 심후함. ※오늘날 ‘은근’은 좀 다른 뜻으로 쓰인다.

311) 歸厚: 증자의 가르침으로,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감을 뜻한다.

312) 鄭雨範(1886-1934): 청석공(휘 圭歲)의 손자이며 청석공의 장손 鄭雨興과 사촌간이다. ※範은 範의 이체자이다.

21. 종계안後書(정우범, 1903)



▲ 萊鄭全譜(권두제: 東萊鄭氏一統譜略) [소장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鄭雨範의 서문이 시작되는 면의 하단 오른쪽에 만송 김완섭이 수집하기 전 소장자인 鄭雨豐(鄭雨興의 동생)의 도장이 찍혀 있다. 또한 침석공 鄭圭成이 편집한 東萊鄭氏家藏屢世年譜(필사본, 1902)도 만송문고에 소장되어 있는데 동일한 藏書印이 찍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필사본 萊鄭全譜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동래부원군증가에서 기증한 것이다.)

22. 증태봉 훼손 관련 건(정은조 외, 1901)

22. [증태봉 훼손 관련 건(정은조 외, 1901)]

삼가 감히 아됩니다. 저희들 시조 선산은 천년동안 대대로 지켜 왔는데 안산 中羅峰³¹³)의 한 쪽 면이 현재 鐵道派門³¹⁴)으로 인하여 鑿破된 바 10월 20일부터 이 달(12월) 14일까지 이루어진 공사가 철도원³¹⁵)의 훈칙과 주식회사 主務人 竹內綱³¹⁶) (다케우치 츠나)의 電報로 인하여 현재 정지되었으나 이 봉우리는 본래 石山으로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도면과 서로 비교해본즉, 공사가 이미 완성된 곳이 75평이며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225평입니다. 이 절반쯤 이루어진 곳은 당해 회사가 補築·植木하겠다고 하였으나 마땅히 그 절반쯤 진행된 곳의 공사시 운반키 어렵게 되어 있는 수천 개의 석괴(돌덩이) 값을 이미 공사가 끝난 75평에서 나온 석괴 값과 함께 鐵道工式³¹⁷)에 의하여 지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1901년 12월 17일

화민³¹⁸) 前特進官 鄭闇朝, 前議官 鄭耆朝, 幼學 鄭元朝,
幼學 鄭彙朝, 鄭寅祐, 鄭時權 언양, 鄭在旭, 鄭斗煥 양산,
鄭載赫, 鄭仁杓 기장

城主[동래부사] 각하

313) 두 羅星의 하나인 中台峰을 말한다.

314) '鐵道派門'이 부록의 항목 6 문서에는 '鐵道波門'으로 되어 있다. ※派(물 갈래. 갈라져 흐르다.)와 波(물결. 물결이 일다.)는 다른 글자이다.

315) 鐵道院: 경인·경부의 철도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로 광무 4년(1900)에 설치하고 광무 9년(1905)에 폐하였다.

316) 竹內綱(1838-1922): 경부철도를 사들임으로써 조선자원을 약탈하는데서 악명을 떨친 자이다.

317) '鐵道工式'이 부록의 항목 6 문서에는 '鐵道公式'으로 되어 있다.

318) 化民: 국왕 또는 수령의 교화를 입은 백성이란 뜻으로 겸칭이다.

22. 중태봉 훼손 관련 건(정은조 외, 1901)

題教³¹⁹⁾

이미 파헤쳐진 75평의 땅값은 마땅히 정부 처분을 따라야 하고
절반쯤 파헤쳐진 225평 땅은 당해 회사로부터 補土·植木을 약
속 받은즉, 석재 값은 거론하기 어려운 일임.

[12월] 22일

319) 題教: 題音으로 시킨 일.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의 결재 처분을 일컫는 말.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욱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욱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청원서

住 南署 會賢坊 鄭基旭 등

본인 등의 시조 분묘가 동래 화지산에 있으며 앞에 세 봉우리가 나열하고 있어 池字 형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華池山이라 합니다. 전에 철도 부설시 中峯[중태봉]을 굴착훼손한 일이 있어서 본인 등이 철도원³²⁵⁾에 소장을 제출하니 그 때 총재 沈相薰이 日人과 교섭하여 당해 郡에 훈령을 내려 당해 회사가 굴착훼손을 정지하고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그 봉우리를 완전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산진 관아 뒤의 봉우리 자성대는 역시 그 세 봉우리의 하나이되 이 봉우리는 해변에 있어 조수의 출입에 항상 脫落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 길이 넘는 높이의 석축을 빙 둘러 쌓아 아주 특별히 수호하였습니다. 그 후 조수가 빠지고 물이 된 후에 부산진 관아를 증산³²⁶⁾에서부터 이 봉우리 아래로 이견하였으니 이 봉우리가 예부터 정씨의 산임은 백성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金建培라는 자가 本府에 청원하여 부산진 옛 관청 基址의 인허를 얻었다가 부산 주민이 제출한 소장으로 인하여 標木을 뽑고 잠잠해졌다는 소식을 지난 여름에 갑자기³²⁷⁾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등이 번잡함 없이 바로잡아지기를 희망하여 정문³²⁸⁾을 울리지 않았더니 지금 또 本官(동래부)에서 本部(탁지부)의 훈

325) 鐵道院: 경인·경부의 철도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로 광무 4년(1900)에 설치하고 광무 9년(1905)에 폐하였다.

326) 甌山: 좌천동과 범일동 사이에 있는 완만한 경사를 가진 구릉성 산. 조선 시대 부산진성이 있던 곳으로 산릉을 따라 쌓은 성의 모습이 마치 시루와 같다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327) 원문의 '忽聞'에서 忽은 忽의 이체자로 보아야 한다.

328) 公文: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내던 공문서.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령에 의해 官有·民有의 부산진 基址(釜基)를 조사하고 마침내 주민들과 함께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인이 이 봉우리의 매입절차에 들어갔으며 장차 혈고 깨뜨려 바다를 메우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봉우리가 본래 官有도 아니며 民有가 확실하다는 것은 조사를 기다릴 것도 없이 명백히 판명되거늘 지금 認許라고 하기도 하고 買得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은 어찌 말이나 됩니까?

金建培의 認許 題³²⁹)를 가져다 살펴보니 요지는 당해 鎭(부산진) 뒤의 자성대는 李弘植의 인허신청에 이미 인허가 났다고 하니 더욱 괴이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본인 등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목소리를 같이하여³³⁰) 우러러 호소하오니 조사하신 후 당해 府(동래부)에 엄하게 훈계하여 즉시 옮겨 바로잡도록 하시어 수호하는 이 선영이 전과 같이 보호 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융희 2년(1908) 2월 일

前郡守 鄭基旭	從二品 鄭寅爽	正三品 鄭寅旭
正二品 鄭完默	從三品 鄭翰謨	郡 守 鄭肯朝
正三品 鄭基鳳	郡 守 鄭元謨	典 祀 鄭丙朝
從一品 鄭漢朝	郡 守 鄭薰謨	從二品 鄭寅昇
正三品 鄭選朝	正三品 鄭承謨	副贊議 鄭恒議
前宣傳 鄭圭善	主 事 鄭允謨	郡 守 鄭翰朝
主 事 鄭燮朝	郡 守 鄭瓚朝	主 事 鄭寅煥

329) 광무 10년(1906) 10월 6일자 金建培·元世燁의 請願에 대한 탁지부 題辭. ※題辭는 백성이 官府에 제출한 訴狀·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부에서 써주는 처분(판결문·처결문)이다.

330) 원문의 '齊聲'에서 聲은 聲의 이체자이다.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從二品 鄭寅學	正三品 鄭寅星	局 長 鄭鎮弘
從二品 鄭寅興	正三品 鄭龜朝	幼 學 鄭寅祐
主 事 鄭寅昉	直 閣 鄭萬朝	九 品 鄭相朝
正三品 鄭寅琥	前 令 鄭彥朝	正三品 鄭賢朝
前正言 鄭玄謨	前議官 鄭耆朝	前注書 鄭寅五
從二品 鄭恒朝	前叅尉 鄭雨興	前郡守 鄭寅獻
正三品 鄭寅杓	正三品 鄭肅朝	叅書官 鄭寅韶
幼 學 鄭佐朝	正三品 鄭寅羲	

탁지부대신 高永喜 각하

度指令 202호

지령 鄭基旭 등

재작년에 李弘植의 청원에 의거하여 자성대에 가옥을 건축하는 것을 인허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1년 내 착공하지 못하거나 외국인에게 매도하면 무효임을 지관³³¹⁾하였음.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건축하지 않았으니 당해 인허는 자동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가니 불필요하게 거론하지 말아야 할 일임.

융희 2년(1908) 3월 3일³³²⁾

탁지부 印

융희 2년(1908) 6월 29일³³³⁾ 起案謄本

大臣 산림국장 林務課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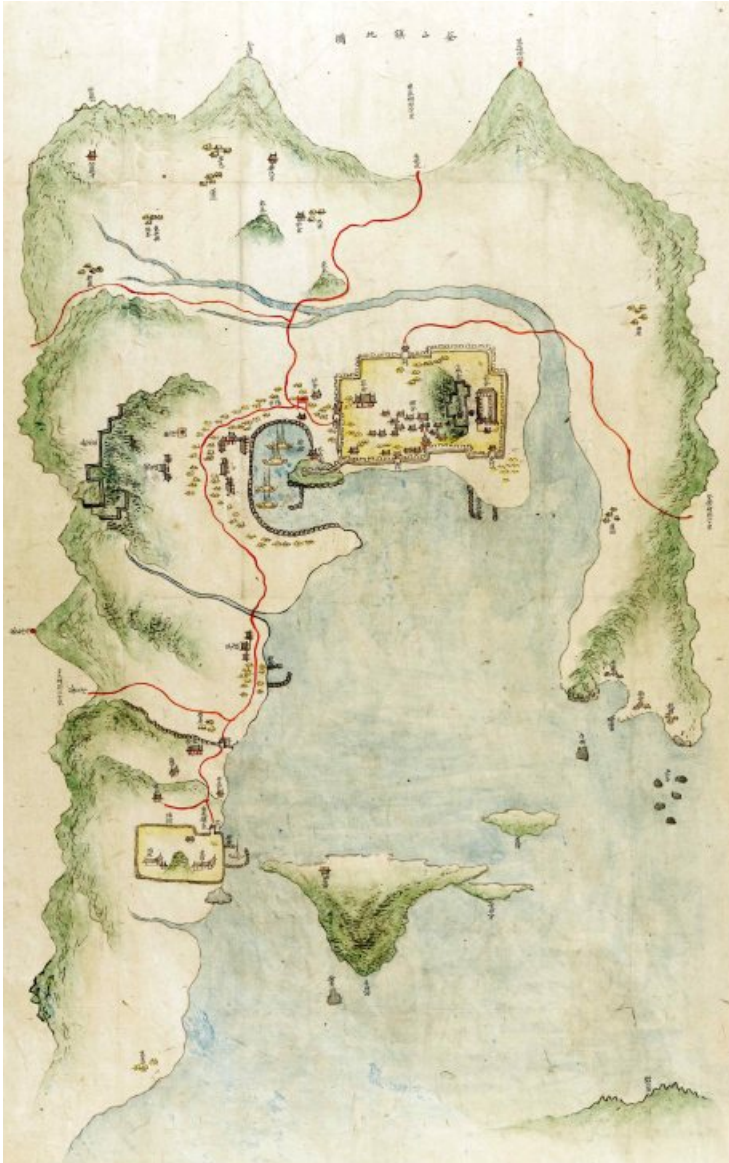
次官 技師

331) 指辦: 지령으로 사무를 처리함.

332) 이 날짜는 탁지령(탁지부지령) 202호의 발급날짜인 것 같다.

333) 이 날짜는 탁지령(탁지부지령) 202호의 등본 발급날짜인 것 같다.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욱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 부산진지도(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512)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욱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 東墓로 표시된 두 곳은 상태봉과 중태봉인 것 같다.



▲ 자성대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욱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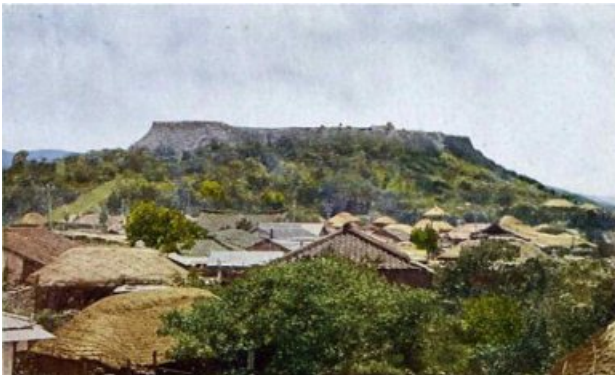
(가)



(나)



(다)



(라)

▲ 하태봉 자성대와 그 주변 [(가) 1884년, (나) 1890년대, (다) 1907년, (마) 일제강점기 시기 엽서]

25. 자성대 사유삼림 신고 건(농상공부 산림국, 1908)

25. 자성대 사유삼림 신고 건(농상공부 산림국, 1908)

사유삼림 신고의 건

경성 남부 호현방 회동

鄭選朝 外 4명

위는 鈴木(스즈키) 사무관이 복명³³⁴할 차례도 있으나 아직 의심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케 하여 심사중에 정씨가 본국[산림국]에 출두하여 누술³³⁵한바 차례대로 하나씩 同 사무관에게 이를 청취한즉 本件에서 신고한 삼림은 實地와 서류에 의하여 사유삼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위의 인 증은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유람³³⁶하시는데 제공합니다.

本年(1908) 4월 14일에 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地籍報告書를 제출한바 당해 보고서 중에 경상남도 동래부 부산면 西部洞 하태봉 자성대 삼림 면적 7433평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니 이것에 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³³⁷ 이에 통지합니다.

윙희 2년(1908) 5월 21일

농상공부 산림국

鄭基旭 등 좌하

334) 復命: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335) 縷述: 자세하게 자기 의견을 말함.

336) 瀏覽: 죽 읽어 봄.

337) 제출하여야 하므로.

26. 화지산 및 삼태봉 소유자 확인 보고서(1910)

26. 화지산 및 삼태봉 소유자 확인 보고서(1910)

보고

본면³³⁸에 소재하는 동래정씨 시조묘 화지산 및 의안산 상태봉과 중태봉과 하태봉 자성대가 京城 南部 會賢坊 88통 3호 鄭寅學의 소유가 확실하여 의심할 바가 없으므로 이에 보고하오니 조사하고 대조하여 증명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융희 4년(1910) 2월 17일

서하면 면장 손문식

연지동 동장 박문훈

범전동 동장 이태기

양정동 동장 김재호

부산면 범일동 동장 최근한

동천동 동장 김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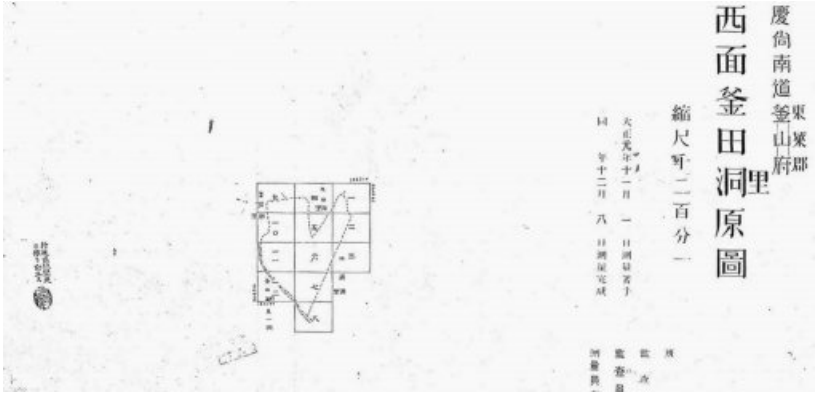
338) 1910년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화지산은 동래부 서하면 연지동, 상태봉은 서하면 부전동, 중태봉은 서하면 부전동(원 동래부 부산면 범일동), 하태봉 자성대는 동래부 부산면 동천동(후에 부산부 이었다).

26. 화지산 및 삼태봉 소유자 확인 보고서(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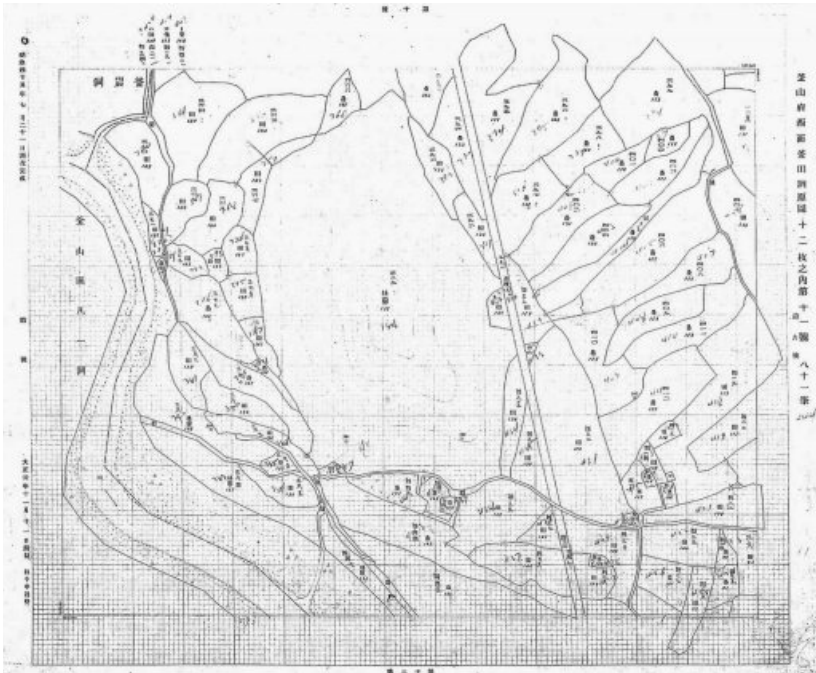


◀ 화지산 묘소와 삼태봉[상태봉, 중태봉, 하태봉(자성대)] ※강점기시 등기부상 지번이 상태봉(11,175평)은 부전동 389번지, 중태봉(3,427평)은 부전동 476번지, 하태봉(4,632평)은 범일동 590번지이다. 상태봉 일부는 깎아서 건물이 들어섰고 일부는 봉우리 그대로 남아 있으며, 중태봉은 깎아서 현재는 봉우리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며, 하태봉(자성대) 남쪽 바다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매립되었다. [사진출처: 다음지도 스카이뷰]

26. 화지산 및 삼태봉 소유자 확인 보고서(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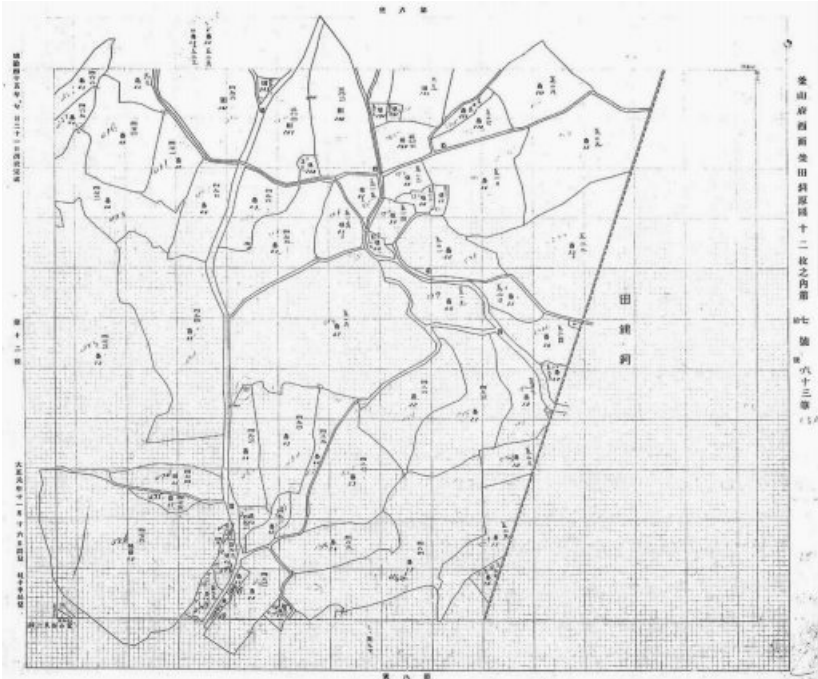


▲ 경상남도 부산부 서면 부전동(경상남도 동래군 서면 부전리) 원도의 도엽번호 [소장처: 국가기록원] ※이 지적도는 1912년에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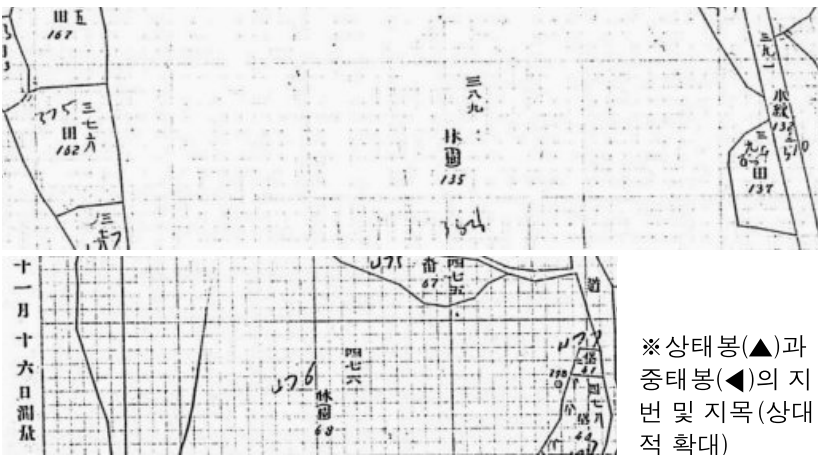


▲ 도엽번호 11호 ※389번지 林(樹) 135로 표시된 곳(중양)이 삼태봉이다.

26. 화지산 및 삼태봉 소유자 확인 보고서(1910)



▲ 도엽번호 7호 ※476번지 林(樹) 68로 표시된 곳[좌하단]이 중태봉이다.



※상태봉(▲)과 중태봉(◄)의 지번 및 지목(상대적 확대)

26. 화지산 및 삼태봉 소유자 확인 보고서(1910)



▲ 삼태봉 [사진출처: 다음지도 스카이뷰]



▲ 일부 남아 있는 삼태봉 [2018년 4월 15일 촬영] ※ 위 스카이뷰 사진의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이다.

27. 자성대 산림 설명서(정인학 외, 1910)

27. 자성대 산림 설명서(정인학 외, 1910)

山林說明書

저희들 시조묘가 府下 華池山에 있고 안산 삼태봉이 화지산 앞에 나열해 있으며 하태봉 자성대가 해변에 가까와서 항상 脫落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조 양과공이 경상도관찰사 때에 봉우리를 빙 둘러 석축을 쌓아 특별히 수호하였습니다. 200년 전에 부산진의 관청을 이 봉우리 아래로 이군하였지만 정씨가문의 千年所有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 李弘植이라는 자가 이 봉우리를 관유지로 오인하고 몰래 탁지부에 인허를 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탁지부에 신청하여 그렇게 된 까닭을 질문한즉 회신 지령 속에 “자성대는 이미 李弘植에게 인허가 났으나 지금까지 3년이 경과하여도 아직 가옥을 짓지 않았으니 당해 인허는 자동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가니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하지 말라. …” 하였으며, 또 측량하여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본부[동래부] 부윤과 당해 面洞長의 조사·보고를 첨부하여 농상공부에 地籍을 보고한 후에 당해 府[동래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미 처리를 끝냈기에 증명서를 繕給하시기 위하여³³⁹⁾ 전후 증거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윙희 4년(1910) 8월 3일 鄭寅學 鄭允謨 鄭寅祐
鄭寅錫 鄭相朝 鄭昌禧

동래부윤 金彰漢³⁴⁰⁾ 좌하

339) (발급기관이) 繕給하시기 위하여; (신청자가) 繕給받기 위하여. ※繕給: 원본서류를 베껴서 발급함.

340) 金彰漢은 1908년(순종 2) 11월 28일에 동래부윤에 임명되고, 1909년 3월 8일에 동래부윤으로 공립부산실업학교장을 겸임하였으며, 1910년 7월 21일 정3품에서 종2품으로 올랐다. <승정원일기 참조.>

27. 자성대 산림 설명서(정인학 외, 1910)

아래

度支部請願指令 一度

本府尹與面洞長調查報告謄本 各 一度

農商工部處辦謄本 一度

28.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10)

28.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10)

청원서

동래정씨 시조의 묘가 경상남도 동래부 화지산에 있는데 그 산의 형체가 也字形이고 안산인 상태봉, 중태봉, 하태봉 자성대³⁴¹⁾ 합하여 三峯이 [화지산] 앞에 세 점 모양으로 나열해 있어서 池字形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여 華池山입니다. 정씨의 후손이 繁衍하여 이 산을 수호한지가 지금 1천여 년이 된 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바입니다. 자성대로 말하면, 본인 등의 선조 양파공³⁴²⁾께서 하태봉 자성대가 脫落할까 염려되어 빙 둘러 석축을 쌓았음은 동래가록³⁴³⁾에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옛 노인들의 구전으로 회자되어 온 바입니다. 200년 전에 부산진 관청을 이 봉우리 아래로 옮기고 빙 둘러 성을 쌓았습니다.

이 봉우리가 비록 ■■■■■■■■에 있더라도 정씨의 소유임이 자명한데 몇 해 전 鎭을 폐한 후에 李弘植이라는 자가 官有地로 오인하고 가옥을 짓고 나무를 심을 뜻으로 탁지부³⁴⁴⁾에 인허를 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등이 당해 府(동래부)에 청원하여 즉시 취소하게 하였습니다. 그 [취소] 명령서에 李弘植에게 내린 자성대 인허는 지금 무효로 돌아가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측량 후 농상공부³⁴⁵⁾에 地籍을 보고하고 당해 部(농상공

341) 자성대는 하태봉의 다른 이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342) 양파공은 휘 태화이다.

343) 수암공(휘 윤용) 所編 동래정씨가록 부편 桑梓錄에 나온다.

344) 度支部: 대한제국 때 탁지아문을 고쳐 이르던 이름. 정부의 재무를 총괄했음.

345) 農商工部: 대한제국 고종 32년(1895)에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을 합한 관아. 농업, 상업, 공업 및 우편, 전신, 광산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는데 융희 4년(1910)까지 있었음.

28.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10)

부)에서 관리를 파견·조사하여 정씨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귀결처리한 후에 첨부서류는 돌려주라는 명령서가 있으며, 뒷날 흑이들을 침해할까 염려되어 땅의 경계에 정씨소유임을 알리는 표석을 세우고, 또 本府(동래부)에 청원하여 몸소 조사한 후에 부윤이 당해 면장·동장과 함께 이를 인증하는 뜻으로 각기 서명 날인한 증서³⁴⁶)가 있어서 府下의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게 한 것이 지금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고자 본부(동래부)에 신청하였는데 동래부윤의 言中에 비록 정씨의 소유라는 것은 알지만 자성대에 대하여는 일본인 志邨太郎(시무라 타로)에게 이의가 있으니 志邨(시무라)의 서류제출을 기다려서 조사 후에 증명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하나 신청일이 지금까지 4개월이 되어 누차 재촉하였지만 아직 가부의 응답이 없으니 志邨(시무라)를 편들어 비호하여 시일을 끌어 動靜을 살피는 것이 불을 보듯이 명백합니다.

志邨(시무라) 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동래부 주사 三吉赫의 言中에 志邨(시무라)가 지금 경성(서울)에 갔으며 편지에 이르기를 “서류가 경성 집에 있으니 당연히 가져와 제출하겠습니다.”고 하고는 또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됨을 걱정하여 본인 등이 수차 志邨(시무라)의 집에 찾아가서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자성대를 田中常次郎(다나카 죠오지로)에게서 샀으며 田中常次郎(다나카 죠오지로)는 李弘植에게서 샀습니다.”라고 하므로 본인 등이 웃을 가치조차도 없어서 다시 말하기를, “소위 李弘植이라는 자는 거짓이름이다. 한 번 李弘植의 인허가 무효가 된 후부터 田中(다나카)가 역시 4년 동안 아무 말 없었다. 언제

346) 서명 날인한 年高노인 28인의 주소와 나이가 《동래선산기실》에 실려 있다.

28.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10)

그대에게 팔았으며, 만약 그렇다면 어찌하여 동래부에 제출치 않고 우리 가문의 일을 방해하느냐? 그대의 증명 문적을 즉시 나에게 보여라.”라 하였습니다.

志邨(시무라)가 처음에는 서류가 부산 理事廳에 있다고 하다가 다시 동경(토쿄)에 있다고 하면서 본인 등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경위가 틀린 것을 스스로 알겠으나 떠보는 역지는 너무나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설령 李弘植이 인허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탁지부의 인허가 무효로 되었기에 어찌 효력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돌아왔으나 증명을 끝내는 일이 아득히 기약 없이 한스러우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閣下께서 조선인 재산보호의 유시³⁴⁷)에서 거듭 말씀하셨거늘, 지방관이 백성의 재산관계의 막중함을 생각지 않고 이와 같이 흐지부지 넘기는 것에 분하고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여 이에 청원하오니 밝혀서 아신 후 동래부윤에게 훈칙³⁴⁸)하여 志邨(시무라)의 서류를 정해진 날짜에 독촉하여 조사한 후에 바로 증명을 제출토록 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1910년 9월 일{음력 경술년 8월 일}

남부 회현방 회동 거주인 연명

鄭基旭	鄭選朝	鄭恒朝	鄭漢朝	鄭閻朝
鄭彰旭	鄭萬朝	鄭彥朝	鄭丙朝	鄭泳朝
鄭圭旭	鄭協朝	鄭相朝	鄭寅壽	鄭寅學
鄭寅奭	鄭寅興	鄭寅昇	鄭寅煥	鄭寅旭

347) 諭示: 관청 따위에서 국민을 타일러 가르침. 또는 그런 문서.

348) 訓飭: 훈령으로써 단단히 일러서 경계함.

28.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10)

鄭寅昉 鄭寅佑 鄭寅書 鄭寅祐 鄭翰謨
鄭翼謨 鄭允謨 鄭昶謨 鄭贊謨 鄭雨興
鄭永謨 鄭雨範 鄭彥謨 鄭恒謨 鄭鎮弘
鄭鎮九 鄭鎮世

통감자작 寺內正毅(테라우치 마사타케)³⁴⁹ 각하
再

증거서류는 동래부청에 있으므로 첨부하지 못합니다.

349) 寺內正毅(테라우치 마사타케): 1910년 5월부터는 제3대 한국통감이었고, 한일합방 이후부터 1916년 10월 14일까지 초대 조선총독을 지낸 자이다.

29. 자성대 소유에 관한 年高노인 확인서(1910)

29. 자성대 소유에 관한 年高노인 확인서(1910)

동래군 서하면 연지동 鄭寅祐
鄭元朝
鄭相朝

사실은 본면[부산면] 동천동 釜山員 소재 자성대는 950년 이래로 本人等の 시조묘산 화지산에 부속된 외안산³⁵⁰⁾ 三台峯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대대로 전하여 온 바, 이 달[11월] 20일 부윤께서 당해 땅[자성대]에 친심³⁵¹⁾ 조사시에 면동장³⁵²⁾은 本人等の 소유로 이미 알고 있음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으나 예로부터 대대로 전하여 왔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연로하신 노인들의 설명보다 좋은 것이 없으므로 이에 감히 우리러 아뢰오니 [年高老人] 各位께서는 살펴 헤아리신 후에 本人等の 소유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들으신 분은 한 분 한 분 날인하여 증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치 43년(1910)³⁵³⁾ 11월 22일
부산면 年高노인 僉座前

인증날인은 아래와 같음.³⁵⁴⁾

350) 김세렴의 해사록에 자성대(해사록에서는 부산성이라 표현)는 內案이며 절영도를 外案이라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기록 정도이다. <15면 해사록의 관련 기록 참조.>

351) 親審: 친히 심사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함.

352) 서하면 면장 손문식, 연지동 동장 박문훈, 범전동 동장 이태기, 양정동 동장 김재호, 부산면 범일동 동장 최군한, 동천동 동장 김택하 등 6인 명의의 응회 4년(1910) 2월 17일자 보고가 《동래선산기실》에 수록되어 있다.

353) 《동래선산기실》 원본의 四十■년에 두주 庚戌이 달려 있으므로 ■는 3인 것 같다.

354) 《동래선산기실》 원본의 如在는 如左의 오류인 것 같다.

29. 자성대 소유에 관한 年高노인 확인서(1910)

동천동 丁文有 年 72 ㉠	범이동 徐宇鎭 年 66 ㉠
朴根實 80 ㉠	沈璘澤 73 ㉠
丁禹益 65 ㉠	朴茂英 64 ㉠
白文星 61 ㉠	金正弼 59 ㉠
韓尙瑞 64 ㉠	수정동 白銀瑞 年 65 ㉠
姜弼老 60 ㉠	田光燁 69 ㉠
白南弼 58 ㉠	金聖濟 63 ㉠
朴周瑞 67 ㉠	朴相夏 60 ㉠
金干潤 61 ㉠	宋益明 62 ㉠
범일동 崔致敎 年 63 ㉠	좌천동 金龍瑞 年 73 ㉠
金英五 60 ㉠	王極淳 56 ㉠
李龍八 68 ㉠	辛泰彦 68 ㉠
李和春 66 ㉠	李昇雨 63 ㉠
金士重 73 ㉠	張德瑞 57 ㉠

附

경신년(1920) 4월 7일 향감독 相朝가 부산부에 들어가 帳簿를 열람하였다. 자성대의 소유권분쟁은 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서 裁決되어 완전히 우리 종중의 소유로 돌아왔다.

帳簿中 소재지, 지목, 면적은 아래와 같다.

부산부 범일동 590번지 산야 4632평

調定申告名義人 鄭基旭 외 28인

30. 화지산 山板(1911)

30. 화지산 山板(1911)

山板

揭示

一、토지의 표시

아래에 쓰여진 것과 같음.

부산부 서하면 연지동 票長員 渭字

松山면적 286,165평 5홉

四標

동: 鄭寅學畝, 文赫山, 金重浩畝, 鄭寅學畝, 崔敬文畝, 金在昊畑,³⁵⁵⁾ 도로, 李千如宅地, 鄭寅學畝, 盧芸壽畝, 金吉衡畝, 秋種燁畝, 金在文畝, 鄭寅學畝, 李光昱畝, 도로, 鄭寅學畝, 崔敬文宅地.

서: 도로, 鄭寅學畑, 李鍾晚山, 鄭寅圭畝, 張文守山, 辛萬根山, 張文守田, 鄭寅祐田, 禹錫元宅地, 張文守山, 鄭寅禧山, 崔時鳴畝.

남: 황무지, 국유지, 李日天山, 金德宗山, 金芸植畑, 개골창, 朴宗俊畝, 鄭寅學畝, 鄭寅學畝, 鄭寅祐田, 鄭寅學宅地.

북: 도로, 朴鉉弼畝, 孫圭秀畝, 文進哲畝, 李枝泰田, 金在昊畝, 李鍾晚山, 李瑞基山, 鄭寅灑山, 俞道先畝.

중앙: 계곡, 金尙俊畝, 도로, 鄭寅學畝.

二、신청자의 주소 성명

충북 충주군 소탄면 신촌 鄭基旭

충북 진천군 초평면 금한리 鄭閻朝

경성 남부 회동 98통 1호 鄭選朝

355)畑: 火田. 밭. 메마른 땅.

30. 화지산 山板(1911)

경성 중부 내상동 3통 3戶	鄭萬朝
경성 동부 정문동 19통 1호	鄭恒朝
경성 남부 창동 21통 4호	鄭彦朝
경기도 안성군 서리	鄭耆朝
경성 북부 사온동 40통 5호	鄭丙朝
경성 북부 전동 47통 3호	鄭泳朝
경성 남부 회동 88통 9호	鄭協朝
경성 북부 전동 47통 3호	鄭寅壽
경성 북부 관동 71통 8호	鄭寅爽
경성 북부 누동 52통 2호	鄭寅興
경성 남부 조동	鄭基旭
경성 중부 내상동 3통 2호	鄭寅書
충북 진천군 초평면 금한리	鄭寅普
경성 북부 누동 52통 3호	鄭雨興
경성 서부 유동 193통 3호	鄭鎭弘
경성 북부 팔각정 193통 13호	鄭在弼
부산부 동상면 반여동 3통 9호	鄭相朝
부산부 서하면 연지동 3통 6호	鄭寅祐
경성 남부 회동 88통 3호	

대표인 鄭寅學

三、신청 연월일

명치 44년(1911) 10월 28일

四、신청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명으로 신고함.

명치 44년(1911) 10월 28일

부산부

30. 화지산 山板(1911)

補記

위 揭示文은 증명을 신청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府에서 당시 규칙에 따라 대중이 볼 수 있는 곳에 60일간 공고한 것이다. 만기 후 당해 公告板 중에서 本件은 그 폐기한 것을 齋舍에서 수습하여 보관한 것이다. 그래서 경신년(1920) 正朝 행사시에 그것을 취하여 기록하였다.

상태봉·중태봉·하태봉은 모두 이 예에 따라 공고하였다. 하태봉(자성대)은 일찍이 일본인 志村太郎(시무라 타로)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증명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미 基旭 외 36인이 조선 총독 寺內正毅(테라우치 마사타케)에게 연명으로 청원하였으며, 명치 45년(1912, 음력³⁵⁶) 임자년 6월 그믐 雨興·允謨·鎭弘이 중증대표로 當地[부산부]에 가서 교섭하며 부산부윤 若松兎三郎(와카마쓰 우사부로)³⁵⁷에게 동래가록 중에 자성대가 확실히 우리 동래 정씨 소유임을 증거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제시해 보였다. {그때 동래군³⁵⁸은 폐지되어 부산부로 되어 있었으며 부에는 부윤을 두었다.} 자성대는 비록 그때 증명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 후 이루어 우리 동래정씨 소유로 귀정³⁵⁹되었다.

화지산과 상태봉·중태봉의 증명 신청은 대정원년(1912){음력 임자년} 8월 20일 새로 반포한 규칙의 서식에 따라 재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부산부청에서 다만 융희 4년(1910)에 제출한 지적신고 기재 명의인에 의거하여 증명 처리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前記

356) 《동래선산기실》 원본의 (月壬子六月晦日)은 (陰曆壬子六月晦日)의 오류로 보인다.

357) 若松兎三郎(와카마쓰 우사부로; 1869-1953): 일본인으로 1910년 병탄이후 1919년까지 부산부윤을 지낸 자이다.

358) 1895년 6월 23일에 동래군으로, 1896년에 동래부로, 1903년 동래군으로, 1906년에는 동래부로, 1910년 10월 1일에 부산부로 바뀌었다.

359) 歸正: 잘못되어 가던 일이 올바르게 됨.

30. 화지산 山板(1911)

한 基旭 외 36인 連名中 오직 選朝 · 萬朝 · 寅學 · 寅興 · 寅昇 5인이 증명 명의자가 되었다. {새로 반포한 규칙은 곧 명치 45년(1912) 4월 이후 시행 소유권보존증명 규칙이다. 명치 45년(1912) 8월 1일은 곧 대정원년이다.}

31. 위토신고 연명인(1911)

31. 위토신고 연명인(1911)

位土에 對한 土地申告 連名人

{명치 44년경(1911, 음력 신해년) 土地査定키 위하여 신고를 접수시킨 者}

이하 경중증

鄭寅學 {상속자 翰謨}

鄭基旭 {상속자 璉朝}

鄭選朝 {상속자 寅九}

鄭閻朝

鄭萬朝

鄭丙朝

鄭彥朝 {상속자 寅庚}

鄭寅爽 {상속자 元謨}

鄭雨興

鄭泳朝{대정 10년(1921) 1월 일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고 그의
諸氏가 공유자 명의 1명 삭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단, 동래
군 서면 전포리 소재 45번지 畓

1538평에 대하여.}

鄭寅昇

鄭允謨

鄭雨範

鄭鎭弘

이하 향중증

鄭寅祐

鄭相朝

鄭佑朝

鄭始奎 {상속자 贊朝}†

鄭基弼

鄭在福

鄭寅中

† 동지공과보(1920, 1974)에는 讚朝로 되어 있다.

32. 화지산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32. 화지산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

부산부 서하면 연지동 栗長員

渭字 西下面證明第三五号 壹番

一、松山(잡) 191,072평 (元 343,409평內)

잡四標 동 申請人畵 남 도로, 계곡 중앙 金尙俊 및 申請人畵
서 도로 북 朴鉉鼎畵

全府 全面 全洞 栗長員

渭字 西下面證明第三六号 壹番

一、松山(을) 95,093평 5홉 (元 343,409평內)

을四標 동 盧芸壽畵 남 황무지
서 金芸植田 북 도로, 계곡

토지가격 一金 5,723원 31전

등록세 一金 17원 17전

당사자 표시

경성 서부 태평동 70통 2호

소유자 鄭選朝

경성 서부 월궁동 36통 5호

소 鄭萬朝

경성 남부 회동 88통 3호

소 鄭寅學

경성 서부 창동 6통 2호

소 鄭寅興

경성 서부 장흥동 37통 7호

소 鄭寅昇

대정원년(1912) 8월 20일

위 대리인 겸 신청인 鄭寅學

釜山府 大正元年八月二十日
廳受附 第 壹 參 七 号

증명濟

부산부청

圖本記載 동래정씨 시조묘산 서하면 연지동 화지산

33. 상태봉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33. 상태봉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

부산부 서하면 부전동 花寺員

匡字 西下面證明第三三號 壹番

一、松山 13,243평 5홉

四標 동 金學秀田 남 도로
서 尹斗瞻田 북 梁燦駟田

토지가격 一金 657원 17전 5리

등록세 一金 1원 98전

당사자 표시

경성 서부 태평동 70통 2호

소유자 鄭選朝

경성 서부 월궁동 36통 5호

소 鄭萬朝

경성 남부 회동 88통 3호

소 鄭寅學

경성 서부 창동 6통 2호

소 鄭寅興

경성 서부 장흥동 37통 3호

소 鄭寅昇

대정원년(1912) 8월 20일

위 대리인 겸 신청인 鄭寅學

釜山府 大正元年八月二十日
廳受附 第一百十五號

증명濟

부산부청

圖本記載 동래정씨 시조묘산 서하면 연지동 화지산 부속 상태봉³⁶⁰⁾

360) 《동래선산기실》 원문의 三台峯은 上台峯의 오류인 것 같다.

34. 중대봉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34. 중대봉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

부산부 서하면 부전동 花寺員(元 부산면 범일동)

匡字 西下面證明第三四号 壹番

一、松山 6,595평 3합 5작

四標 동 路 남 李性守 堡
서 大川 북 金重浩 畵

토지가격 一金 659원 54전

등록세 一金 1원 98전

당사자 표시

경성 서부 태평동 70통 2호

소유자 鄭選朝

경성 서부 월궁동 36통 5호

소 鄭萬朝

경성 남부 회동 88통 3호

소 鄭寅學

경성 서부 창동 6통 2호

소 鄭寅興

경성 서부 장흥동 37통 7호

소 鄭寅昇

대정원년(1912) 8월 20일

위 대리인 겸 신청인 鄭寅學

釜山府 大正元年八月二十日
廳受附 第一百十六号

증명濟

부산부청

圖本記載 동래정씨 시조묘산 서하면 연지동 화지산 부속 중대봉

35. 하태봉(자성대)

35. 하태봉(자성대)

下台峯(子城臺)

부산부 부산면 동천동 釜山員

尹字

一、松山 5,329평 1흡 8작

四標	동 金敬伯田	남 도로
	서 黃斗玉宅地	북 朴春瑞宅地

토지가격 一金 2,664원 59전

무오년(1918) 정월 4일 圭煥이 화지산 鑛變 방어의 일로 재차 [화지산] 山下에 갔다. 그때 鎭弘이 마침 그 말은 바 일이 수산조합의 일이었기 때문에 내려와 있었는데 [부산]부윤 若松(와카마쓰)가 鎭弘을 상대로[鎭弘에게] 자성대를 공원화 할 것을 요청하였다. 鎭弘은 우리 大姓의 공유지에 관계된 것으로 혼자 판단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자성대는 원래 예전에 수목을 심었던 일이 있으며, 땅이 大道를 沿接하고 市場 길을 겸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심었던 나무들은 크게 자랄 수 없었으며 또한 말라죽어도 다시 보충하여 심는 자가 없었다. 圭煥이 무오년(1918) 봄에 當地[자성대]에 갔을 때 자성대 山下諸族 100여명이 소나무 5천 그루와 미루나무 3천 그루를 심었으며 소나무 5백 그루는 부산 부민동의 寅潤 종인이 기부한 것이며 기타는 묘목장에서 사들인 것이다. 植松 보호의 일은 당해 지역의 警署에 청원하였으며 또 당해 지역의 里長 및 市場 관리인에게 부탁하였다.

경신년(1920) 정월에 雨興이 동래선산 경감독으로 節享에 참여한 후 巡山하다가 이 산[자성대]에 이르렀는데 위에서 말한 식목이 차츰차츰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

36. 자성대 개간 관련(1913)

36. 자성대 개간 관련(1913)

釜山府釜山面東川洞子城臺各人起墾田調查而起墾費出給每年收賭
爲定 {대정 2년(1913) 계측}

一金	6원	白文星
一金	4원	申齋俊
一金	30원	金尙善
一金	1원	崔明瑞
一金	2원	金奉三
一金	1원 20전	姜文烈
一金	2원	金章翰
一金	2원	張先伊
一金	50전	安順明
一金	1원 20전	朴春華
一金	50전	朴全羅
一金	2원	金松岡
합계	52원 40전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土地査定簿謄本 {대정 4년(1915) 9월 15일}

토지소유자

경성 남부 회동 鄭寅學 외 28인

토지소재구역

동래군 서 면 전포리 · 부전리 · 범전리 · 연지리 · 초읍리 · 부
암리 · 양정리 · 대연리

동래군 동래면 거제리 · 반여리 · 여고리 · 석대리 · 회동리

동래군 좌이면 만덕리

동래군 북 면 부곡리 · 구서리

합 191필지

面名	里名	地番号	假地番	地目	面積	課稅價格
西面	田浦	19	801	畓	613	153、25
"	"	37	766	"	778	155、60
"	"	45	730	"	1,583	348、26
"	"	221	426	"	67	23、45
"	"	222	423	田	394	78、80
"	"	465	153	畓	403	
"	"	475	211	林	409	
"	"	473	210	田	435	32、62
"	"	476	212	"	288	21、60
"	"	477	213	林	299	
"	"	501	148	畓	381	
"	"	541	238	田	464	78、88
"	"	557	353	"	600	102、00
"	"	592	381	"	300	510、00
"	"	672	369	畓	1,710	513、00
"	釜田	18	412	"	389	105、03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西面	釜田	126	232	田	1,151	276、24
"	"	128	227	"	289	57、80
"	"	289	342	田	568	79、52
"	"	316	210	"	689	137、80
"	"	388	151	"	39	6、63
"	"	389	135	林	11,175	※상태봉
"	"	411	123	畚	666	133、20
"	"	475	67	"	128	32、00
"	"	476	68	林	3,427	※중태봉
"	"	477	41	岱	16	4、00
"	"	515	61-1	"	206	51、50
"	"	516	61-2	"	369	92、25
"	凡田	50	288	畚	1,559	514、47
"	"	55	310	"	1,013	303、90
"	"	60	330	"	833	224、91
"	"	75	324	"	234	58、50
"	"	76	199	"	139	34、75
"	"	78	197	"	75	20、25
"	"	100	193	"	464	139、20
"	"	107	163	"	141	49、45
"	"	205	247	"	691	152、02
"	"	346	86	"	796	262、68
"	蓮池	53	321	田	391	39、10
"	"	56	318	岱	228	27、36
"	"	62	233	畚	495	108、90
"	"	67	239	"	298	65、56
"	"	70	249	"	648	162、00
"	"	77	218	"	1302	351、54
"	"	77-2			67	
"	"	79	246	"	371	92、75
"	"	96	216	"	1002	270、54
"	"	98	203	"	742	200、34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西面	蓮池	353	32	〃	607	151、75
〃	〃	358	45	〃	333	66、60
〃	草邑	163	65	畚	560	151、20
〃	〃	170	76	〃	419	113、13
〃	〃	540	458	〃	420	126、00
〃	〃	541	457	〃	437	144、21
〃	〃	592	348	〃	657	216、81
〃	〃	606	341	〃	583	204、05
〃	釜岩	123	94	田	408	97、92
〃	楊亭	270	73	畚	736	125、12
〃	〃	287-1	1	田	34	2、55
〃	〃	290	4	林	84	
〃	〃	287-3		田	46	3、45
〃	〃	297-2	7	畚	483	96、60
〃	〃	305	26	〃	168	28、56
〃	〃	312	83	〃	567	113、40
〃	〃	376	92	〃	1,268	317、00
〃	〃	438-2	467	田	53	84
〃	〃	447	37	畚	817	163、40
〃	〃	454	5	〃	471	94、20
〃	〃	458	45-2	林	114	
〃	〃	459	45-1	畚	4,897	979、40
〃	〃	459-2			1,068	
〃	〃	460	57	〃	937	206、14
〃	〃	460-2			213	
〃	〃	462	59	林	400	
〃	〃	462-2			180	
〃	〃	465	49	畚	908	199、76
〃	〃	466	53	田	246	24、60
〃	〃	467	54	岱	171	20、52
〃	〃	468	52	畚	382	46、94
〃	〃	469	51	岱	683	81、96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西面	楊亭	471	64	畚	812	162、40
"	"	473	50	"	427	85、40
"	"	476	61	畚	752	150、40
"	"	478	55	"	198	43、56
"	"	286-1	14	田	45	3、37
東萊面	巨提	593	120	畚	228	
"	"	613	162	"	24	
"	"	684	51	田	73	
"	"	691	31	畚	886	
"	"	693-3	29	"	755	
"	"	760	25	"	2,270	
"	"	763	48	"	630	
"	"	1,220	726	"	460	
"	"	1,352	843	"	740	
"	"	89	153	田	300	
"	"	230	156	畚	305	
"	"	489	457	"	320	
"	"	546	507	"	380	
"	"	556	447	"	908	
"	"	280	566	"	811	
"	石埕	59	506	"	192	
"	"	61	508	"	393	
"	"	84	535	"	299	
"	回東	310	158	"	757	
左耳面	萬德	134	140	"	602	
"	"	167	128	"	664	
北面	釜谷	51	37	"	193	42、46
"	"	89	196	"	314	47、10
"	"	95	192	"	398	39、80
"	久瑞	76	811	"	1,228	27、16
"	"	586	140	"	120	42、00
"	"	771	437	"	1,121	168、15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西面	大淵	539	214	畚 墳墓地	814	
"	"	540	213	畚	351	
"	"	1,026	588	"	1,115	301、05
"	"	1,035	633	"	15	4、50

<원본 頭註 및 脚註>

※배경 분홍색 : 상태봉(서면 부전 389 林)과 중태봉(서면 부전 476 林)임.

※배경 누런색 : 분쟁지 을271호 또는 제271호임.

※배경 연록색 : 양정 287 田 1916년도 新作路가 중간에 지나가고 나머지는 287-1, 287-2, 287-3으로 세 조각으로 나누어졌음.

38. 자성대부속 田垡地 신고(정기옥 외 28인)

38. 자성대부속 田垡地 신고(정기옥 외 28인)

충북 음성군 지내면 대사동 鄭基旭 외 28인 名義申告

釜山府	지 번	지 목	면 적	課稅價額
子 城 垵 附 屬 垵 田 地	333	垵	52	62、40
	324	〃	54	40、80
	36	田	56	33、60
	591	垵	59	70、80
	592	田 現垵	85	51、00
	593	田	155	93、00
	596	〃 現垵	73	18、25
	599	垵	36	25、20
	59	林	4,632	

39. 신고서별지첨부 연명서(1917)

39. 신고서별지첨부 연명서(1917)

대정 6년(1917) 11월(정사년 10월) 산야신고령에 인한 화지산 갑·을 2구역 및 상태봉·중태봉 査定申告提出時의 연명서이며 신고서 별지로 첨부한 것이다.

申告書別紙添付連名書

住	所	資格	氏名
경기도	경성부 옥정1정목 49번지	지주	鄭寅學
경기도	경성부 적선동 83번지	지주	鄭萬朝
경기도	경성부 황금정1정목 45번지	지주	鄭寅興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38번지	지주	鄭寅昇
경기도	경성부 사직동 263번지	지주	鄭圭煥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속달리	지주	鄭世鎭
경기도	진위군 현덕면 ³⁶¹⁾ 황산리 66번지	지주	鄭雨興
경상남도	동래군 서면 연지리 16번지	지주	鄭寅祐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반여리 123번지	지주	鄭相朝
경기도	경성부 안국동 74번지	지주	鄭惠永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면 회동리 113번지	지주	鄭佑朝
경상남도	동래군 북면 구서리 617번지	지주	鄭寬朝
경상남도	동래군 북면 구서리 679번지	지주	鄭寅駿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82번지	지주	鄭鎭國

361) 현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이다.

40. 광폐(1917) 관련

40. 광폐(1917) 관련

광폐³⁶²⁾

삼가 아칩니다. 요즈음 가을 끝자락에 身體候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뜻은 다름이 아니옵고 귀문중 소유에 관계된 西面 화지산에 광물이 발견되었기에 금년 봄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더니 허가가 났습니다. 불원간 채굴하려고 현재 준비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당해 山主와 상의가 필요하여 이에 사람을 보내어 우러러 아뢰오니 아랫사람의 심정을 살피어 알아주신 후 아쉽거나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급히 왕림하시어 편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하여 鑛業上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餘敬具.³⁶³⁾

대정 6년(1917) 10월 26일

朴泳吉

鄭寅祐 좌하

362) 鑛弊: 광업의 제반 행정 업무와 관련된 폐단.

363) 편지 끝에 쓰는 의례적인 말로 '감사합니다' 정도로 보면 된다.

40. 광폐(1917) 관련

이번 달 22일³⁶⁴) 보내신 편지를 같은 달 24일³⁶⁵) 오전 8시에 잘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일을 당하고서 저희들 역시 더욱 두렵고 근심스럽습니다. 지난번 편지로 경종중에 알린 뜻을 朴泳吉에게 말해보니, 저들이 반드시 굴착할 기계를 먼저 갖추고 나에게 통지하고 기다린 후에 곧바로 들어올 터인즉 사태가 의심할 것이 없고 또한 먼 일이 아니기에 경종중에서 속히 대회를 열어 의논을 수렴하여 某日로 날짜를 지정하여 산하에 함께 모일 것을 8도에 통지하고 일제히 모여 어찌 어찌 하라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 일본인 1명이 이 곳 내부에 잠행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故로 산지기들[山直輩]로 하여금 그 자를 불러서 오게 한즉 44만 8천여 평의 山圖를 보여주었는데 그 圖本 아래에 대표인은 박영길이라 하고 또 買得이라 하여 필담³⁶⁶)한 일이 있기에 아래에 첨부된 필담 기록을 올려 보내나 이 사람은 필시 局外人일 따름입니다. 이로써 양측³⁶⁷)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도 계속 기체후 한결 같이 편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갖추지 못하고 아웁니다.

[1917년] 음력 9월 26일³⁶⁸) 오전 寅祐와 相朝.

경성부 육정1정목 40번지 鄭判書宅 入納 封皮
동래군 華山齋 鄭相朝 上書

364) 1917년 음력 9월 22일이며 양력은 1917년 11월 6일이다.

365) 1917년 음력 9월 24일이며 양력은 1917년 11월 8일이다.

366) 筆談: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글을 써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 일 또는 그 문답.

367) 諒燭: 다른 사람의 사정 따위를 헤아려서 살핌.

368) 양력은 1917년 11월 10일이다.

40. 광폐(1917) 관련

필답

문: 그대는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

답: 이 광산을 買約하여 실제 땅을 살피려 왔습니다.

문: 朴泳吉의 말 중에 그 승인 鑛主는 마산 柳町에 사는 磯田清造(이소다 키요스케)라 云云하는데 어찌 그 鑛主가 많은가?

답: 초량에 사는 李圭和와 朴氏 對 나는 매매 가계약 중입니다.

문: 몇월 달에 승인되는가?

답: 昨今 교섭으로 오늘 집에 가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墓山 소유자의 산을 분할하여 매매할 필요가 있는데 경성 어느 곳에 거주합니까? 그 후 총독부 광무과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득하고³⁶⁹⁾ 급히 채광할 것입니다.

문: 이 산은 한 사람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 동래정씨는 경향각지에 산재하며 萬명³⁷⁰⁾ 규모에 이른다. 그래서 한 두 사람으로 계약을 談辦할 수 없다. 각처에 통지한 것을 기다려 함께 한 자리에 모인 후 상의가 매우 잘 되어 매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賣渡하는 일은 우리 정씨에게 죽음을 맹세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답: 위 말은 법률을 모르는 말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買得의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日人은 곧 {측량사 겸 박제사} 田中喜策(다나카 기사쿠){居 부산부 幸町2丁目 20번지}이다.

369) 《동래선산기실》의 得護는 得獲의 오류가 아닌지 모르겠다.

370) 원본의 千萬은 옛 사람들의 숫자 표현방식으로 지금의 10,000,000과 다르다. 千보다 더 많은 萬이라는 뜻이다.

40. 광폐(1917) 관련

敬告³⁷¹⁾ {京任員이 화지산 부근처 종중에 보내는 發文 件}

동래군 서면 화지산이 우리 정씨의 시조 호장공의 塋域임은 일반으로 잘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산 全局에 대하여 마산 柳町 21번지 磯田清助(이소다 키요스케)와 부산 초량 294번지 대표자 朴泳吉이 金銀銅 품목의 광업허가를 득하여 곧 채굴하려 하는 바 이는 곧 천 년간 수호해 온 땅에 不意의 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후예된 자로서 憤이 피로 치솟고 恨이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지경에 이른 바에는 오로지 힘을 가지런히 모아 채굴 금지에 멈추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는 것만이 선영보존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씨 성을 가진 자들은 원통과 치욕으로 어찌 목숨보전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旬管과 鄉有司의 직책으로 있으면서 먼저 이를 경중중에 통지하였더니 圭煥·雨興 兩氏가 대표로 먼저 내려와 磯田(이소다)와 朴을 상대하여 먼저 교섭을 가졌고, 山下諸宗과 협력하여 대치중입니다. 전국 여러 문중에 京城 종약소에서 통지문을 보냈으나 화지산 근처의 여러 문에는 시급히 공지해야 하기에 따로 아뢰오니 종인 여러분께서는 돌려 보시고 주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채굴 착수시 또 의당 급히 아뢰겠으나 거리에 따른 지체가 예상됩니다.

정사년(1917) 10월 2일 동래군 서면 華山齋

동래정씨 시조산 향유사 相朝, 구관 寅祐, 경중중 대리인 雨興

371) 敬告: 삼가 아뢰입니다.

40. 광폐(1917) 관련

정사년(1917) 10월 1일 圭煥·雨興 對 磯田清助(이소다 키요스케)·朴泳吉 兩人 談辦 개요 {위 兩人은 화지산 재실에 도착하였음}

○磯田清助(이소다 키요스케)曰: 귀 山坂에 금광 인허를 득한 것은 미안하나 누구나 어디를 막론하고 광물의 발현만 좇아서 채굴인허를 꺾하는 것은 물론인즉 이를 싫어하지 않고 채광에 대하여 山主와 鑛主 사이에 상당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圭煥·雨興 答曰: 이 山坂에 관하여 중대한 점은 우리들의 시조 墳墓가 있어 천년 동안 수호하고 禁養하여 내려온 바이다. 따라서 山坂이 그 후손인 경향에 있는 10만 자손의 공동소유요 개인의 단독소유가 아닌즉 종중의 몇몇 개인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磯田(이소다)曰: 광업의 규례도 다 아시는 바이겠지만 鑛主가 되어서는 허가를 득하고 鑛稅를 납부하는 바인즉 채굴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私意³⁷²⁾로 쌍방의 계약을 이루지 못하면 부득불 관청에 의뢰하고 광업은 즉시 시작하겠다.

○圭煥曰: 우리들이 광업의 규례도 모르는 바 아니나 우리 쪽의 몇몇 개인이 설령 계약을 이루고 채광을 허락한다고 해도 효력이 발생치 아니하고 또 이 몇몇 개인은 衆族³⁷³⁾의 타격으로 생명을 보존치 못할 것이다.

○磯田(이소다)曰: 그러면 이미 많은 자손의 先山으로서 소중하므로 상호 분쟁이 거듭 생기면 大事의 방해가 적지 아니하여 나도 이런 苦念으로 광업을 그만둔다고 하면 손해가 적지 않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 鑛權을 귀 종중으로부터 買收하는 것이 어떤가?

○雨興曰: 鑛權을 賣買라 하면 그대는 금액 얼마를 요구하는가?

372) 私意: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마음.

373) 衆族: 여러 족인, 대다수 족인, 못 족인.

40. 광폐(1917) 관련

○磯田(이소다)曰: 이러한 사기³⁷⁴)로 買收하는 경우에 나도 많은 利慾을 두어서는 안 되고 단지 그간 實入한 손해비용이나 推尋하려 하니 3천원만 즉시 지불하면 賣渡하겠고 동래정씨 인구수가 10만인이라 하니 1인당 3전씩이면 용이할 줄로 생각한다.

○雨興曰: 이는 더욱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근래 他姓에도 여러 자손의 墓山에 광업관계가 있으면 이와 같이 買收하는 일이 있다는 說을 들었으나 이 買收가 廢鑛기 위함인즉 지금에 廢鑛이다가 다른 愚愚者³⁷⁵)가 있어 다시 청원서를 내어 인허를 득하면 우리 동래정씨가 또 買收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니 그런즉 이 땅은 마침내 각 협잡꾼들의 奇貨物이 되고 우리 동래정씨의 재산은 남김없이 모조리 잃게 될 것이니 이는 無制限한 일이 아닌가?

○磯田(이소다)曰: 우리(이소다와 박영길)와 정씨 사이 打協³⁷⁶)을 만들어 나갈 방침은 전무한 모양인즉 피차 분쟁이 있을지라도 관청에 의뢰하고 채굴을 진행하는 것만이 나의 사실이다.

○圭煥·雨興曰: 그대의 일은 그렇다 하겠으나 우리 동래정씨의 사실을 들어라. 우리들도 매우 두려운 생각 중에 있는 것은 정향 각처에 거주하는 여러 족인들이 次第 食량을 싸들고 모인다는 통지가 계속 들려오고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하여 채굴 장소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막을 것이라 한다.

374) 事機: 일이 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기틀.

375) 陰慾者: 음흉한 욕심꾸러기.

376) 妥協이 아닌지 모르겠다.

40. 광폐(1917) 관련

發文 {동래정씨 종약소장 鄭萬朝, 동래선산 경유사 鄭寅興}

동래군 화지산은 우리의 시조 호장공 묘소가 있는 산으로 이 화지산 전부에 대하여 부산부 초량에 사는 朴泳吉과 마산부 柳町에 사는 磯田清助(이소다 키요스케) 두 사람이 金銀銅 광업 허가를 득하여 곧 채굴하려고 합니다. 천여 년 동안 수호해 온 시조묘산에 이처럼 이전에 없던 변을 당하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경종중에서 圭煥과 雨興 두 족인을 특과하여 山下諸宗과 함께 협력하여 [저들과] 대치중인 故로 일의 중대함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 우선 통고하오며 만약 광업에 착수하는 때는 또 기일을 정하여 급히 알릴 것입니다. 조량³⁷⁷)한 후 정한 기일 내에 화지산 齋舍에 모여 죽음을 각오하고 일치된 힘으로 금지하여야 선영을 지킬 수 있으므로 이에 먼저 통고합니다.

대정 6년(1917) 11월 25일

377) 照諒: 형편이나 사정을 밝히어 앎. 잘 헤아림.

41. 화지산 성소기(정우범, 1918)

41. 화지산 성소기(정우범, 1918)

화지산 省掃記

우리 시조 호장공을 화지산에 장사지낸 지 이미 천여 년이며 자손이 참으로 번영하여 [선산]수호에 힘을 쓴 것이 수효가 많아서 손꼽아 다 셀 수 없으나 대략 든다면 그중 가장 드러난 것은 묘갈³⁷⁸⁾의 수립과 齋舍의 건립인데 그 역사가 유구하며 인조 임오년(1642)에 익헌공 太和께서 경상도관찰사로서 齋舍를 增修하고 僧徒를 모았으며, 숙종³⁷⁹⁾ 계미년(1703)에 동평위 載崙께서 지석을 묻었으며, 숙종 신사년(1701)에 밀양부사 是先께서 묘갈을 改豎하였고, 숙종 경자년(1720)에 본부백[동래부사] 亨益께서 望柱石을 세웠으며, 경종 갑진년(1724)에 지사 載岳, 장령 行五, 청도군수 河瑞께서 나의 6세조 참판공 彥儒와 함께 통문을 발송하여 재물을 거두어 화재가 난 齋舍를 重修하였다. 영조 임자년(1732)에 본부백[동래부사] 彥燮께서 祭田을 늘리고 묘의 남쪽 10여 步쯤에 묘비를 별도로 세웠으며, 참판 來周께서 임기교체로 이 부[동래부]에 부임하여 그 비문을 탁본하고 後識를 지어 이를 기렸으며,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을미년(1895) 前都憲³⁸⁰⁾ 寅學께서 본부백[동래부사] 재임시 祭田을 정리하여 바로 잡고 祭儀를 새로 고쳤으며, 지금의 경유사 참판 閔朝께서는 벌써 여러 해가 되었는데 신축년(1901)에 鐵道가 山局에 들이닥친 일 때문에 가서 대질하여 해결한 공이 있으며, 임자년(1912)에 本府尹[부산부 부

378) 여기서 묘갈은 碑와 礪을 지붕의 유무로 간단히 구분할 때 礪을 말하는 정도로, 1701년 감사공(휘 시선)이 고쳐 세운 묘표(礪)와 1732년 동래부사(휘 언섭)공이 세운 묘갈(碑)보다 앞선 것으로 <묘비이수사실>에 언급된 남봉공이 세운 비석(礪)과 만력 41년(1613, 광해군 5)에 다시 세우신 비석(礪)을 말한다.

379) 《동래선산기실》 원본의 孝宗은 肅宗의 오류이다.

380) 都憲: 대사헌.

41. 화지산 성소기(정우범, 1918)

윤³⁸¹⁾]이 잘못을 저질러 자성대를 국유로 인정한 것을 판사인 종형 雨興께서 주사 允謨, 국장 鎭弘과 함께 가서 부윤과 談辦하여 歸正³⁸²⁾하였으며, 정사년(1917) 겨울에 鑛慮³⁸³⁾가 있음을 듣고 종형께서 참위 圭煥과 함께 가서 鑛業者와 교섭한 바 있으며, 무오년(1918) 봄에 圭煥이 또 鑛慮를 預防하려 달려가 山下諸宗과 禁護에 協心한 것이 묘의 사초를 보충하고 비석의 이끼를 씻고 묘 앞의 길을 넓힌 것과 같이 많아서 더욱 칭송할 만하다. 불초는 일찍이 萊塋事³⁸⁴⁾에 대하여 조부 청석공(휘 圭成) 所輯 文字³⁸⁵⁾로 인하여 그 대략을 알 수 있었으며 또 종형과 諸宗의 내왕으로 인하여 상세히 들었으며, 또 혹은 宗會에서 萊塋에 관한 논의가 끝날 때쯤 그 논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화지산 묘소에] 성묘 한 번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다행히 이번 여름에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에 향유사 相朝와 寅祐와 함께 침소봉영³⁸⁶⁾하고 화수정에서 하룻밤 묵었다. 화수정은 곧 齋舍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며 諸宗이 회합하는 장소로 제공된다. 그래서 이름에는 그 까닭이 있다. 相朝와 寅祐 두 분 모두 선산에 일이 많은 날을 당하여 공로가 많은데 지나온 내력을 흥미진진하게 말씀하셔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회를 일으키게 하였는데, 더군다나 邱木은

381) 이때 부산부 부윤은 일본인 若松兎三郎(와카마쓰 우사부로)였다.

382) 歸正: 잘못되어 가던 일을 올바르게 함.

383) 《동래선산기실》에서 쓰인 鑛慮, 鑛變, 鑛弊 등의 표현은 모두 화지산 광산채굴의 저지와 관련된 것이다.

384) 萊塋事: 동래 화지산 선영의 일.

385) 2017년 1월 18일에 진행된 경매회사 코베이의 현장경매 '삶의흔적경매'에 “진사 정규성이 1881년에 15세조 직학공 이하 자손의 부인들의 팔고조의 가계를 기록한 筆寫記가 있는 《소원록》 1책과 1902년에 편집한 定稿本 《가장연보》 등 동래정씨 관련자료 2점”이 물품번호 196으로 출품된 바 있는데, 이들이 晴石公 所輯 文字의 일부인 것 같다. <144면 사진 참조.>

386) 瞻掃封塋: 묘소를 찾아뵙고 소분함.

41. 화지산 성소기(정우범, 1918)

老大하여 아름답리가 되어 落落하고 사방 들레는 더욱 알아 볼 수 없어 공경심이 배로 일어났다. 아, 호장공의 積德이 장구히 미치어 공의 묘소는 동방의 명묘 중 첫째요, 자손의 번성은 一國의 씨족 중 갑족이라. 묘역의 完美가 이와 같은 것이 당연하겠으나, 만약 京鄉諸宗이 힘을 합쳐 禁養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성대하도다! 침소봉영 할 때 하나의 기운이 통하여 흐르는 느낌을 억누를 수 없어 삼가 위와 같이 기록한다.

무오년(1918) 6월 일 28세 손 雨範³⁸⁷⁾ 謹記



▲ 가장본외 팔고조도(상), 가장누세연보(하)

387) 鄭雨範(1886-1934): 청석공(휘 圭歲)의 손자이며 청석공의 장손 鄭雨興과 사촌간이다. ※範은 範의 이체자이다.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先塋所係建物 {경신년(1920) 正朝 현재}

齋舍(영호암) 기와집[盖瓦]{순조 무자년(1828) 5월 基善氏 경상도관찰사 재
임시 중건: 距今 93년}

原體³⁸⁸⁾ 4칸 前後退 겹비

화수정 4칸 前退 겹비{신사년(1881) 화재로 인하여 중건: 距今 40년}³⁸⁹⁾

불전(대웅전) 3칸 前退 겹비

산령각 1칸

爐殿 3칸 前退 겹비

中門 1칸

방앗간[春舍] 2칸

곳간[庫舍] 2칸

목욕탕 兼 小中門 2칸

대문 1칸

화장실[厠] 1칸

祭堂³⁹⁰⁾ 기와집[盖瓦]{구 갑신년(1764) 건축 相朝의 고조 師玄 鄉有司時³⁹¹⁾;
을해년(1875) 또 중수 良淳 鄉有司時³⁹²⁾; 기미년(1919)
또 번와³⁹³⁾ 相朝 鄉有司時}

388) 항목 42의 新增에서 原體 정문에 현판 <華池山永護庵>이 걸려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原體는 현재 현판 <華山齋>가 걸린 지금의 화산재 재실 자리에 있던 옛 건물을 말하는 것 같다.

389) 현재의 화수정 건물은 1928년에 중건한 것이다. <부록 항목 10 花樹亭記 (정만조, 1930) 참조.>

390) 祭堂은 당시 추원당을 말한다.

391) 鄭師玄의 향유사 기간은 1733년 4월부터 1815년 7월까지이다. ※《화산재지》에 수록된 향유사안에 임기의 시작만 기록되어 있는데 후임 鄭乃和의 향유사 시작이 乙亥 月로만 되어 있어 몇월인지 알 수 없다. ※필자는 향유사안의 원본을 접하지 못하였다.

392) 鄭良淳의 향유사 기간은 1870년 10월부터 동년 11까지와 1872년 8월부터 1874년 8월까지이다. ※《화산재지》에 재임한 후임 鄭始昊의 향유사 시작이 甲戌八月이다.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原體³⁹⁴) 5칸 前後退 겸비 대청 3칸 前退 좌우온돌 각 1칸 半
西傍室 3칸 (祭堂直 거주)

대문 1칸

화장실[厠間] 1칸

東山直家 초가[草蓋] 3칸(소재 양정리 부속 하마정리)³⁹⁵)

西山直家 초가[草蓋] 4칸(소재 연지리, 경신년(1920) 봄 重建)

北山直家 초가[草蓋] 2칸(소재 초읍리, 무오년(1918) 겨울 新建)

393) 翻瓦: 기와를 걷어 내고 다시 이는 것.

394) 原體는 지금의 추원사 본체 자리에 있던 추원당 본체를 말한다.

395) 병진년(1916) 2월 일에 새로 지었다.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新增

영호암 대문현판

東華福地(橫書){기축년(1829) 늦은 봄 동래부사 金鑄의 글씨
이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396)

原體正門현판397)

華池山永護庵(橫書){기축년(1829) 늦은 봄 25대손 珖 書: 距
今 92년}398)

邊軒현판

花之寺(橫書){같은 때(1829) 金鑄의 글씨이지만 이름이 기록
되지 않았다.}399)

영호암내 화수정

退軒外현판

花樹亭(橫書草字){계묘년(1903) 5월 일

구관 27세손 寅祐

유사 26대손 元朝 개명 寬朝

弄毫 25세손 垠鎬}400)

房正門上현판

花樹亭(橫書楷字){知郡401) 泳朝}402)

제당 대청현판

追遠堂(橫書){계묘년(1903) 5월 일 垠鎬 書}403)

396) 이 현판은 현재 화산재 재실 대문 안쪽에 걸려 있다.

397) 추측상, 지금의 화산재에 걸려 있는 현판 <華山齋> 대신에 현판 <華池山永護庵>이 걸려 있었던 것 같다.

398) 이 현판은 현재 화지사 대웅전 측면에 걸려 있다.

399) 이 현판은 현재 화지사 대웅전 측면에 걸려 있다.

400) 이 현판은 현재 화수정 실내에 걸려 있다.

401) 知郡: 군수의 옛 명칭. ※세조 12년(1466년) 知郡에서 郡守로 고쳤다.

402) 이 현판은 경오년(1930) 鄭圭煥의 <花樹亭> 현판과 경오년(1930) 鄭世鎭의 <華菴亭> 현판과 함께 현재 화수정 건물 처마 아래에 걸려 있다.

403) 이 현판은 현재 화수정 실내에 걸려 있다.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 재실 대문 밖



▲ 재실 대문 안



▲ 화산재



▲ 화수정 [1928년 2월 17일 상량]



▲ 재실 요사 [1987년 3월 건립]



▲ 화수정 중문



▲ 수도원(요사) [1953년 9월 건립]



▲ 산신각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 대웅전(1차 개조) 측면



▲ 대웅전(2차 개조) 측면



◀▼ 화지사 옛 모습
 [출처: 종중사 반세기
 (정경조, 1982)] ※현판
 <화지산영호암>은 현
 재와 같이 건물 측면에
 걸려 있고 현판 <화지
 사>는 정면 현판 <대
 웅전> 옆에 걸려 있다.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 화지사 산신각 내
동래정씨 조상전



◀ 東萊鄭氏始祖戶長公尊靈位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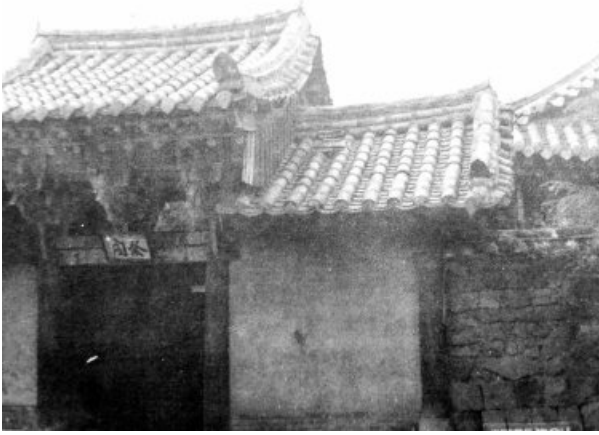
▲ 추원당 전경 [출처: 춘곡공파월담공후세보, 1996] ※즉보 출판 당시 사진이 아니고 그 이전(적어도 1987년 이전) 사진임.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 추원사 전경 ※동재와 경모문은 1987년에, 서재와 재직사는 1988년에 건립되었다.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 추원당 대문(東門)
[출처: 종중사 반세기
(정경조, 1982)]
※현판(현판1) <祭閣>이
걸려 있었다.



◀ 추원당 대문(東門)
※현판(현판2) <祭閣>이
걸려 있었다.



◀ 추원사 東門
※현판(현판2) <祭閣>은
현판 <感露門>으로 교체
되고 현판1의 <祭閣>과
현판2의 <祭閣>은 현재
화수정 실내에 걸려
있다. ※블럭 또는 토담
의 기존 담장을 1987년
자연석 호박돌을 사용하
여 개축하였다.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 추원사 感露門



▲ 추원사 感露門 [바깥쪽(좌), 안쪽(우)]



◀ 추원사 敬慕門
※1987년에 신축하여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 추원당 [1943년 중건, 2003년 7월에 헐렸음]



▲ 추원사 [2003년 8월 13일 착공, 2004년 12월 11일 완공, 2005년 12월 22일 준공식]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현판사진

※아래의 사진들은 현판의 크기가 같은 비율로 축소되지 않았음.

※제작 당시 처음 걸렸던 건물이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남아 있는 경우도 현판이 처음 걸렸던 위치에 걸려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花(=華)山樓(鄭雨興, 1930)



▲ 東華福地(金鑄, 1829)



▲ 華山齋(鄭薰謨)



▲ 如在室(鄭芝秀, 1930)



▲ 魚躍海中天[朱熹]



▲ 花樹亭(鄭垠鎬, 1903)



▲ 花樹亭(鄭泳朝)



▲ 華齋(=眉)亭(鄭世鎮, 1930)



▲ 花樹亭(鄭圭煥, 1930)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 花之寺(金鑄, 1829)



▲ 萬世菴



▲ 修道院



▲ 華池山永護庵(鄭玪, 1829)



▲ 祭閣



▲ 祭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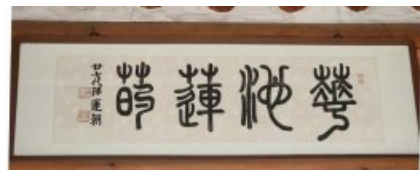
▲ 追遠堂(鄭垠鎬, 1903)



▲ 追遠堂(鄭潤謨, 1956)



▲ 追遠祠(鄭夏建, 2004)



▲ 華池蓮葯(鄭運朝)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 敬慕門(鄭載煥, 2004)



▲ 感露門(鄭載煥, 2004)



▲ 肅修齋(鄭載煥, 2004)



▲ 寧綏齋(鄭載煥,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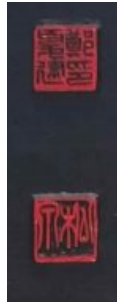
▲ 顯景門(鄭炳朝, 1997)
[1997년 4월 5일(한식) 현판 제막]



▲ 顯景門(鄭夏建, 2014)
[2014년 12월 22일(동지) 현판 제막]



雲樵 鄭炳朝(안산공파)



松泉 鄭夏建(창원공파)

43. 재사 기명

43. 재사 기명

新增

齋舍所置器皿 別座僧保管隨差任傳掌

鍤香爐(유향로) 1坐
 鍤香盒(유향합) 1坐
 鍤燭臺(유촉대) 1雙
 鍤方飯器(유방반기) 1坐
 鍤圓飯器(유원반기) 1坐
 鍤生湯器(유생탕기) 2坐
 鍤麵器(유면기) 2坐
 鍤退酒器(유퇴주기) 1坐
 鍤菜器(유채기) 2坐
 鍤造泡器(유조포기) 2坐
 鍤食鹽器(유식염기) 1坐
 鍤匙櫛器(유시접기) 1坐
 鍤圓器(유원기) 2坐
 鍤方器(유방기) 4坐
 鍤盞(유잔) 2坐
 鍤醬鍾子(유장종자) 1坐
 鍤蜜鍾子(유밀종자) 2坐
 鍤沉菜鍾子(유침채종자) 1坐
 鍤果器(유과기) 7坐
 鍤匙(유시) 2個
 鍤箸(유저) 2個
 이상 祭器
 山神祭樽及白壺各 1坐

鍤大櫛(유대접) 1件
 大酒樽(유주준) 3介
 煎鐵(전철) 1介
 告祀白壺(고사백호) 1坐
 鍤盆(유분) 1坐
 鍤常周鉢(유상주발) 100介
 구 38介
 신 62介 기미년(1919) 겨울 매입
 鍤匙(유시) 100介
 구 30介
 신 70介 기미년(1919) 겨울 매입
 食盤(유반) 100坐
 구 30坐
 신 70坐 기미년(1919) 봄 매입
 別盤(별반) 3坐
 小方盤(소방반) 50坐
 砂鍾鉢(사종발) 100介
 砂鍾子(사종자) 100介
 砂櫛子(사접자) 100介
 鑊釜(당부) 2坐
 食鼎(식정) 2坐
 小鼎(소정) 1坐
 醬甕(장옹) 3坐
 盆(분) 2坐

43. 재사 기명

醬甕盖(장옹개) 1立
 太菜盆(태채분) 1坐
 沙我白(사아구) 2坐
 木兒盤(목아반) 15立
 荷水桶(하수통) 2坐
 水桶(수통) 1坐
 新斗(신두) 1介
 新升(신승) 1介

木杵(목저) 2介
 竹雍是(죽옹시) 1介 聳水
 木函只(목함지) 1坐
 木櫃(목귀) 4坐
 草席(초석) 4立
 鐵爐(철로) 3坐
 鐵杵(철저) 1介
 木唾器(목타기) 6介



▲ 화수정에 보관중인 옛 器皿
 [2017년 8월 24일 촬영]

44. 제당 기명

44. 제당 기명

新增

祭堂所置器皿 堂直保管隨差任傳掌

祝板(축판) 1坐
 食鼎(식정) 1坐
 鎚釜(당부) 1坐
 煎鐵爐(전철로) 1坐
 煎鐵盖(전철개) 1坐
 布遮日(포차일) 1件
 食刀(식도) 2個
 甌(증) 1坐
 磨石(마석) 1立
 山神祭床(산신제상) 1坐

竹簣(죽궤) 2坐
 車子(차자) 1機 祭物運上
 木兒盤(목아반) 53立
 拜席(배석) 1立
 草長席(초장석) 5立 墓庭用
 搗口(도구) 1個
 刀板(도판) 1個
 漚桶(수통) 1坐
 牛白是(우구시) 1個

45. 제수 관련

45. [제수 관련]

祭堂直 담당 제수

餅(병)	都炙(도적)	截肉(절육)	煎肉(전육)	熟肉(숙육)
脯(포)	鱠(회)	塩[소금]	醢(해)	大魚(대어)
五湯(5탕)(肉3, 魚2)		魚煎(어전)		

別座僧 담당 제수

羹[탕국]	飯[메]	麵(면)	餅淸[편청]	佐飯(좌반)
造泡(조포)	醋[초장]	菜[나물]	淸醬[간장]	沉菜(침채)
造果(조과)	藥果(약과)	棗[대추]	栗[밤]	柿[감]
梨[배]	時果(시과) ⁴⁰⁴⁾	祭酒(제주) ⁴⁰⁵⁾	香燭(향촉)	

제수증감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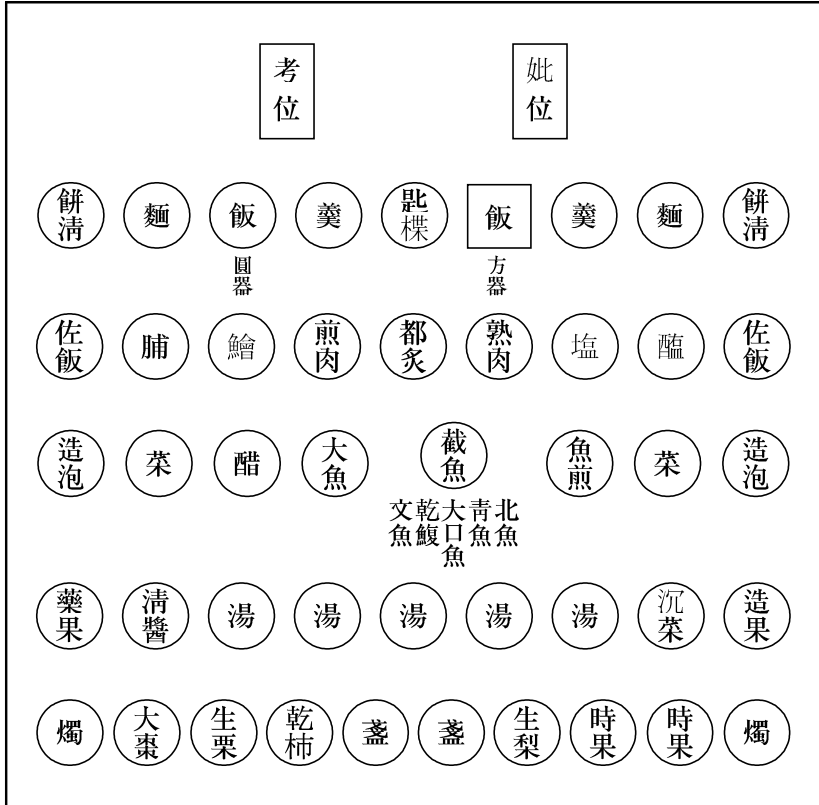
每年四節享 正朝寒食 端午秋夕 餅奠則但寒食秋夕兩節有之凡需亦有■豐設

404) 時果: 때에 따라 나오는 제철 과일.

405) 祭酒(제주): 제사에 쓰는 술. ※祭酒(재주): 제사 행사를 주관하고 술을 땅에 뿌리는 우두머리. 국학재주, 성균재주 등의 관직명이 있었음.

45. 제수 관련

제수 진설도



46. 축문식, 홀기

46. 축문식, 홀기

新增

祝文式

山神

維歲次庚申正月戊申朔日幼學鄭寬朝敢昭告于土地之神伏以前行陸軍憲兵參尉兼軍法會議判事鄭雨興恭修歲事于二十八代祖考安逸戶長府君之墓惟時保佑實賴神休敢以酒饌敬伸奠獻尙饗

유세차 경신 정월 무신삭일에 幼學 정관조는 감히 토지의 신께 아뢰옵니다. 前 行육군헌병참위 겸 군법회의판사 정우흥이 공손히 올해 제사를 28대조고 안일호장부군의 묘소에서 지내옵니다. 이에 보호됨은 실로 신의 아름다움에 의뢰한 것이오니, 감히 술과 음식으로 경건히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墓所

維歲次庚申正月戊申朔日二十八代孫前行陸軍憲兵參尉兼軍法會議判事雨興敢昭告于顯二十八代祖考安逸戶長府君之墓氣序流易歲律既更瞻掃封塋不勝感慕謹以清酌脯醢祇薦歲事尙饗

유세차 경신 정월 무신삭일에 28대손 前 行육군헌병참위 겸 군법회의판사 우흥이 감히 顯二十八代祖考安逸戶長府君의 묘에 아뢰옵니다. 계절이 순서대로 흘러 햇수가 이미 바뀌었사옵니다. 묘역을 쓸고 봉분을 우러러보니 흠모하는 정을 억누를 수 없사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笏記

{홀기는 원래 없었다. 경신년 正朝에 京祭官 雨興이 鄉理事 相朝 및 山下諸族과 더불어 협의하여 여러 향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홀기 규례를 취합하여 새로 마련하여 실행한다.}

46. 축문식, 흘기

讀唱句節

- 獻官執事及叅祭員墓庭序立(헌관집사급참제원묘정서립)
헌관, 집사 및 참제원은 묘정에 차례로 서시오.
- 執事者詣墓位前(집사자예묘위전)
집사자는 묘위 앞으로 나아가시오.
- 陳設(진설)
진설하시오.
- 謁者引初獻官詣墓位前(알자인초헌관예묘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안내하여 묘위 앞으로 나아가시오.
- 覘視陳設(첨시진설)
진설을 점검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안내를 받아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獻官以下皆再拜(헌관이하개재배)
헌관 이하 모두 두 번 절하시오.
-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알자인초헌관예관세위)
알자는 초헌관을 안내하여 손을 씻는 위치로 나아가시오.
- 盥漱洗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香案前(인예향안전)
안내를 받아 향로상 앞으로 나아가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올리시오.
- 執事者酌酒以爵授獻官獻官執爵注茅莎(집사자작주이작수헌관

46. 축문식, 흘기

헌관집작주모사)

집사자는 술을 따르고 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잔을 잡고 모사에다 부으시오.

○以爵授執事(이작수집사)

잔을 집사에게 주시오.

○執事者受奠于墓位前(집사자수전우묘위전)

집사자는 잔을 받아 묘위전에 드리시오.

○獻官俯伏(헌관부복)

헌관은 엎드리시오.

○興再拜(흥재배)

일어나 두 번 절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안내를 받아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行初獻禮(행초헌례)

초헌례를 행하겠습니다.

○謁者引初獻官詣墓位前(알자인초헌관에묘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안내하여 묘위전에 나아가가시오.

○北向跪(북향궐)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執事者酌酒(집사자작주)

집사자는 술을 따르시오.

○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執事(이작수헌관헌관집작수집사)

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잔을 잡고 집사에게 주시오.

○執事者受爵奠于墓位前(집사자수작전우묘위전)

집사자는 잔을 받아 묘위전에 드리시오.

46. 축문식, 흘기

- 祝東向跪(축동향궐)
축관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在位者皆俯伏(재위자개부복)
참제원 모두 엎드리시오.
- 讀祝文(독축문)
축문을 읽으시오.
- 俯伏(부복)
엎드리시오.
- 興(흥)
일어나시오.
- 獻官再拜(헌관재배)
헌관은 두 번 잘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안내를 받아 다시 제자리로 가시오.

- 行亞獻禮(행아헌례)
아헌례를 행하겠습니다.
-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알자인아헌관예관세)
알자는 아헌관을 안내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시오.
- 盥漱洗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墓位前(인예묘위전)
안내를 받아 묘위전에 나아가시오.
- 北向跪(북향궐)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執事者酌酒(집사자작주)

46. 축문식, 흘기

집사자는 술을 따르시오.

- 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執事(이작수헌관헌관집작수집사)
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잡은 잡고 집사에게 주시오.
- 執事者受爵奠于墓位前(집사자수작전우묘위전)
집사자는 잔을 받아 묘위전에 드리시오.
- 俯伏(부복)
엎드리시오.
- 興再拜(흥재배)
일어나 두 번 절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안내를 받아 다시 제자리로 가시오.
- 行終獻禮(행종헌례)
종헌례를 행하겠습니다.
- 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알자인종헌관에관세위)
알자는 종헌관을 안내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시오.
- 盥漱洗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墓位前(인에묘위전)
안내를 받아 묘위전에 나아가시오.
- 北向跪(북향궐)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執事者酌酒(집사자작주)
집사자는 술을 따르시오.
- 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執事(이작수헌관헌관집작수집사)
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잔을 잡고 집사에게 주시오.

46. 축문식, 흘기

○執事者受爵奠于墓位前(집사자수작전우묘위전)

집사자는 잔을 받아 묘위전에 드리시오.

○俯伏(부복)

엎드리시오.

○興再拜(흥재배)

일어나 두 번 절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안내를 받아 다시 제자리로 가시오.

●行添爵禮(행첨작례)

첨작례를 행하겠습니다.

○謁者引初獻官詣墓位前(알자인초헌관예묘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안내하여 묘위전에 나아가시오.

○北向跪(북향궐)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執事者酌酒(집사자작주)

집사자는 술을 따르시오.

○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執事(이작수헌관헌관집작수집사)

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잔을 잡고 집사에게 주시오.

○執事者添酒于盤盞(집사자첨주우반잔)

집사자는 반잔에 첨주하시오.

○俯伏(부복)

엎드리시오.

○興再拜(흥재배)

일어나 두 번 절하시오.

○引降復位(인강복위)

46. 축문식, 흘기

안내를 받아 다시 제자리로 가시오.

- 執事者啓飯盖正匙箸(집사자계반개정시저)

집사자는 메 뚜껑을 열고 손가락과 젓가락을 바로 놓으시오.

- 獻官以下皆俯伏(헌관이하개부복)

헌관 이하 모두 엎드리시오.

- 進茶(진다)

차를 올리시오.

- 肅埃小頃(숙사소경)

엄숙하게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시오.

- 執事者詣墓位前(집사자에묘위전)

집사자는 묘위전에 나아가시오.

- 闔飯盖落匙箸(합반개락시저)

메 뚜껑을 닫고 손가락과 젓가락을 내리시오.

- 謁者引初獻官詣墓位前(알자인초헌관에묘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안내하여 묘위전에 나아가시오.

- 西向跪(서향궐)

서쪽을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行飲福(행음복)

음복 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안내를 받아 다시 제자리로 가시오.

- 獻官及諸執事皆再拜(헌관급제집사개재배)

헌관과 여러 집사자는 모두 두 번 절하시오.

- 禮畢(예필)

예를 마칩니다.

47. 묘하사환임명(1920)

47. 묘하사환임명(1920)

新增

墓下使喚任名 경신년(1920) 正朝 현재 성명

齋舍 佛尊僧(불존승) 1인 宋大蓮

別座僧(별좌승) 1인 金仁五

廚監僧(주감승) 1인 李命守

負木僧(부목승) 1인 鄭贊朝

中央山直 { 山監僧(산감승) 1인 朴炳英

山直僧(산직승) 1인 金典旭

祭堂直(제당직) 1인 趙相弼

東山直(동산직) 1인 全甲祚

西山直(서산직) 1인 鄭相龍

南山直(남산직) 1인 崔文俊 馬飛峴에 있는데 自己家屋에 거주

北山直(북산직) 1인 李今玉

上台峰山直(상태봉산직) }
中台峰山直(중태봉산직) } 아울러 1인

下台峰_{子城臺}山直(하태봉자성대산직) 1인

48. 예하 및 요로(1920년 현황)

48. 예하 및 요로(1920년 현황)

新增

位土秋收穀中每年例下⁴⁰⁶⁾ 경신년(1920) 正朝 현황

租 15두 寒食秋夕節享餅米(한식·추석 절향 떡쌀)

租 35두

租 20두 鄉監督(향감독){15두로 전래되었으나 정사년(1917)부터 20두로 올
렸는데 지금이 4년째이다.}

租 15두 鄉甸管(향구관)

租 15두 別座僧(별좌승)

租 15두 負木(부목)

租 9석 180두 齋庵房中 1년비용{佛殿供享米, 사망승려기일제수, 객승접대,
節歲經過排用}

합계 租[벼] 13석 15두

牟[보리] 1석

406) 例下: 전례에 의한 지출.

48. 예하 및 요로(1920년 현황)

位土中料勞畝秩 경신년(1920) 正朝 현황

- 畝 8두락 鄉監督(향감독)
- 畝 6두락 祭堂直(제당직)
- 畝 10두락 佛尊(불존)
- 畝 5두락 別座(별좌)
- 畝 9두락 廚監(주감)
- 畝 15두락 負木(부목)
- 畝 7두락 內山直(내산직)
- 畝 7두락 內山監(내산감)
- 畝 7두락 東山直(동산직)
- 畝 10두락 西山直(서산직)
- 畝 6두락) 北山直(북산직)
- 田 8두락)
- 畝 6두락 內案山直(내안산직)
- 畝 2두 5승락 馬峴山直(마현산직)⁴⁰⁷⁾
- 畝 4두락 上台峰山直(상태봉산직)
- 畝 3두락 中台峰山直(중태봉산직)_{家屋建築}
- 畝 3두락 下台峰子城臺山直(하태봉자성대산직)
- 합계 畝 108두 5승락⁴⁰⁸⁾
- 田 8두락

407) 馬峴은 馬飛峴에서 飛자가 빠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408) 《동래선산기실》 원본에 합계 101두 5승락에서 108두 5승락으로 수정한 흔적이 이미 있다.

49. 음복례 의

49. 음복례 의

新增

飲福例

비가 내리면 祭堂에서 제사를 행하며 이 외에는 例에 따라 묘에서 음복한다. 각기 單床에 술이 차려지면 비록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도 한 잔 이외 여러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

祭官會集例數

正朝와 단오에는 대개 100인 이상 모이며, 한식과 추석에는 대개 200인 이상 모인다.

墓庭守嚴

비록 당연히 言論의 사실로 시비와 불평의 말을 행할 수 있지만 齋舍에서 행하고 墓庭에 올라가서는 결단코 행해서는 아니 된다. 혹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墓庭에서 쫓아낸다.

接待例

享事 전날 와서 유숙하거나 혹은 당일 이른 아침에 도착한 제관 및 常時 성묘차 내왕한 자손의 식사는 鄉任員이 僧徒를 임명하여 제공한다.

50. 위토전답 두락수 중간변경 내력 및 이정표

50. 위토전답 두락수 중간변경 내력 및 이정표

位土田畚斗落數中間變更來歷及釐正⁴⁰⁹⁾表

- 畚 21두락 이전부터 내려오던 위토임
- 畚 38두 5승락 6읍⁴¹⁰⁾ 수령의 봉급을 쪼개어 買置
- 畚 28두락 지난 임자년(1732)-계축년(1793) 間 종계금으로 買置
- 畚 112두락) 이 두 항목은 餘財 및 계축년(1793)-을미년(1895)까지
 畚 68두락) 100여년 間 추수곡의 저축으로 買置
- 畚 57두락 병자년(1876) 自枯松을 벌목하여 판매한 돈으로 買置

합 畚 325두락

위의 畚 內

- 7승락 경술년(1910) 경편철도⁴¹¹⁾ 편입 頭泥원
- 2두락 무오년(1918) 신작로 편입 소
- 1두락 경술년(1910) 경편철도 편입 栗長원
- 2두락 기미년(1919) 복사⁴¹²⁾ 栗長원
- 1두 5승락 무신년(1908) 水道 편입 福崇원
- 5두락 임자년(1912) 자성대 紛爭事 비용 田浦원
- 6두락 경술년(1910) 田浦원 20두락, 花池원 2두락, 小釜원 3
 두락 합 25두락을 放賣하고 19두락을 移買하고 또 田
 12두락을 買收時에 差減한 것임
- 5승락 大釜원 2두 5승락을 2두락으로 바르게 정리한 것임
- 11두락 요업회사에 賣渡 田浦원
- 1두락 기미년(1919) 복사 栗長원

409) 釐正: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410) 밀양·영해·선산·영덕·청도·동래이다. <부록 항목 3 정언섭공의 종계안 참조.>

411) 輕便鐵道: 궤도가 좁고 규모가 비교적 간단한 철도.

412) 覆沙: 모래가 밀려서 논밭같은 데 덮여 쌓임.

50. 위토전답 두락수 중간변경 내력 및 이정표

합 31두락 除합

이상 舊畝은 실제 293두 8승락임⁴¹³⁾

新畝 21두 5승락 內

17두 5승락 경신년(1920) 4월 移買

1두 5승락 禁松亭 新개간

5승락 禁松亭 및 下馬亭 新개간

1두락 祭堂前 新개간

1두락 中台峯邊 新개간

舊畝과 新畝의 합계 315두 3승락임⁴¹⁴⁾

舊田 101두락 內

3두락 釜田 成川

5두락 花池員田 갑진년 移買次 賣下

합 8두락 除합

이상 舊田은 실제 93두락임

新田 31두락 內

12두락 경신년 畝 25두락 放賣하여 畝 19두락 買收時 同買

9두락 갑진년 花池員 田 5두락 放賣하여 移買時 增加

5두락 田浦 2두락, 하마정 2두락, 상태봉 1두락 新墾

5두락 하태봉 임야에서 2두락, 3두락의 2區를 新墾

舊田과 新田의 합계 124두락임

신유년(1921) 8월 20일 連署捺印簿 있음

釐正人 경감독 鄭雨興

향감독 鄭亨朝

구 관 鄭寬朝

413) 324.5 - 30.7 = 293.8

414) 293.8 + 21.5 = 315.3

50. 위토전답 두락수 중간변경 내력 및 이정표

향간사 鄭珍謨
소 鄭光洙
전임향감독 鄭相朝
소 구 관 鄭寅祐

51. 화지산 상비문부 신마련건(1921)

51. 화지산 상비문부 신마련건(1921)

大正 10年 辛酉(1921) 8월 華山 常備文簿 新磨鍊件

- 一、山坂及位土帳簿(산관 및 위토 장부)
- 二、山坂及位土圖面簿(산관 및 위토 도면부)
- 三、祭器及其他備品簿(제기 및 기타 비품부)
- 四、各年度秋收簿(각 연도 추수부)
- 五、收入簿(수입부)
- 六、支出簿(지출부)
- 七、京鄉任員名簿(경향임원 명부)
- 八、非常事件簿(비상사건부)
- 九、參祭錄(참제록) 첫머리에 ‘自乙卯正朝(을묘년 正朝부터)’라고 씀
- 十、京鄉宗族着發簿(경향종족 착발부)
- 十一、往復書類綴(왕복서류철) 받는 서신은 原本을, 보내는 서신은 副本을 철합
- 十二、鄉宗會錄(향종회록)

위의 것은 경감독 雨興이 추석 享祀에 제관으로 내려 왔을 때 향임원 諸氏와 상의하여 작성하여 둔 것이다.

52. 종계안(정우흥, 1921)

52. 종계안(정우흥, 1921)

華山齋 宗禊案 序

대저 사람은 추원보본의 도리에서 지극함[極]을 쓰지 않는 바가 없으며 그 대의를 궁구함에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정성[誠]이고, 그 둘은 재물[財]이다. 진실로 정성이 없으면 비록 거대한 재물이 있더라도 능히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되고, 진실로 재물이 없으면 비록 타고난 정성이 있더라도 또한 그 정성을達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매양 한 사람의 힘으로 거대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어긋나기만 하여 어렵다. 그러므로 爲先保宗을 잘하는 가문에는 반드시 종계가 있다.

종계라는 것은 동족 무리의 힘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비유하면 작은 흙이 합해져 큰 태산이 이루어지고 가느다란 개천이 합해져 깊은 바다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는 길은 역시 그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닌즉 처음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도 자손된 자가 먼저 자신을 살찌우고자 그 재물을 유린한다면 종계의 설립은 역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華山[화지산]은 곧 선조 안일호장공의 묘소가 있는 곳이며 천여년간 香火가 끊이지 않았으며, 자손이 煊赫⁴¹⁵)하여 守護의 道가 갖추어졌다. 距今 189년 전 임자년(1732)에 彦燮씨가 동래 부사로서 화지산 山下에서 종계를 설립하고, 곧 來周씨가 이 부[동래부] 부사로 부임하여 이 종계에 參修⁴¹⁶)하였으니 이는 당시 禊憲⁴¹⁷)으로 분명히 살펴 볼 수 있는데 山下諸宗이 계속 이어

415) 煊赫: 걸출함, 저명함.

416) 參修: (종계에) 참여하고 (종계를) 다듬음.

417) 여기서 禊憲[禊憲]이라고 한 것은 《화산재지》의 후반부 ‘화지산선산수

52. 종계안(정우홍, 1921)

서 이것을[稷憲을] 엮어 만들 수 있었다. 또 距今 27년 전 을미년(1895)에 동래부사 寅學씨가 화수계를 계속하여 설립하였으니 앞뒤로 100여년간 종계금을 불려서 祭田을 늘리고 경비로 채워 쓴 것이 실로 많다.

오호라! 삼가 살피건대, 타인의 종계가 몇십년 정도로 짧은 것은 [역사가] 몇십년 정도여서 많아야 한 두 세대에 불과하며 우리 先祖山下의 이 계처럼 오래된 것이 없으니 先輩諸公의 功이 이처럼 대단하다. 그러나 세대가 점점 멀어져 일이 오랫동안 해이해진 것은 역시 이치로 볼 때 면하기 어렵다. 근래에 종계의 명분과 의리가 모두 민멸하여 不肖가 늘 [화지산] 山下를 왕래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이 때문에 개탄하던 중 기미년(1919)에 외람되게 京監督의 임무를 맡게 되어 경신년(1920) 正朝에 節享에 참여하고 서둘러 돌아왔다. 신유년(1921) 추석에 또 節享에 참여하여 음복을 마친 후 諸宗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오호라! 彦燮씨의 종계설립 시대를 가지고 논한다면, 자손이 公卿이 되어 조정에 가득 찼으며 또 본 도[경상도]의 관찰사⁴¹⁸)와 수령이 전후로 이어져 邱墓를 수호하는 일에 비록 이 종계가 없어도 遺憾스러운 마음이 없었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이 종계를 설립하여 宗族의 거둠과 邱墓의 수호를 꾀한 것은 필경 이 종계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세상을 보니 滄桑의 변화⁴¹⁹)가 있어 사람들에게 新亭의 느낌⁴²⁰)이 있고 자손들의 영화로움과 현달함이 예전

호절목집'에 들어 있는 東萊鄭氏宗稷(改修)(自稷長鄭彦燮設稷後繼續記名)과 같은 문적을 말한다.

418) 《동래선산기실》에는 方伯의 伯자가 누락되었다.

419) 滄桑之變: 큰 바다가 변하여 뽕나무밭이 되고, 뽕나무밭이 변하여 큰 바다가 된다는 말로, 세상의 변화가 매우 심함을 비유하는 말. 桑田碧海.

420) 新亭之感: 국운의 쇠퇴함을 탄식하는 감정.

52. 종계안(정우홍, 1921)

과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또 이 선영이 雄府巨港⁴²¹⁾ 사이에 處하고 있어 節享 외에 왕왕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거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특별 저축이 없으면 유지하기 어렵고 祭田秋獲으로 매 經用⁴²²⁾의 부족이 염려되어 다만 여기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特別貯蓄의 방법은 宗禋의 修舉⁴²³⁾만한 것이 없으며 신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종계안에 의존하되 확장하면 또한 일은 반으로 줄고 효과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諸宗이 함께 말하기를, “승낙합니다.” 하고는 또 덧붙이기를, “僉宗께 묻고 상의한 결과 그 의견이 이미 모두 같으므로 修禋의 일을 늦추지 말고 속히 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바로 그 날 종계안을 만들고 종계금을 모으고 舊憲을 참고하여 발라내어 [副] 新規를 완성하여 諸宗의 윤색을 청하였다. 또 諸宗의 손을 잡고 부탁하기를, “이 계안은 비록 경향이 함께 참여하지만 서울은 이미 거리가 멀어 협조하는 것에서 틀림없이 山下諸宗에게 뒤지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종계가 영구히 잘 성사되게 부탁하는 것은 실로 山下諸宗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서로서로 배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침내 잘못된 폐단이 없어지고 또 자선비기⁴²⁴⁾의 꾸지람을 부르지 않는다면 호장공 영령께서 반드시 말없는 도움을 내리시어 餘蔭이 곧 이를 것이며 종계안 中의 先輩諸公께서 또한 아득한 지하에서 웃음을 머금으실 것이다.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느낀 바를 권수⁴²⁵⁾에 써서 또한 스스로 경계할 뿐이다.

421) 雄府巨港: 팽창하는 도시 부산을 말한다.

422) 經用: 날마다 계속하여 일정하게 쓰는 비용.

423) 修舉: 잘 다스려서 좋은 성과를 올림.

424) 藉先肥己: 먼저 자신을 살찌우고자 재물을 유린함.

425) 여기서 卷首는 종계안의 서문을 말한다.

52. 종계안(정우홍, 1921)

신유년(1921) 8월 하한에

호장공⁴²⁶⁾ 28세손 雨興이 삼가 쓰다.

華山齋 宗禊 규칙

1. 본 계는 화산재 종계라고 칭한다.
2. 본 계의 사무소는 동래군 서면 양정리 화지산 동래정씨 안일호장공 묘소의 재실 화산재 內로 정한다.
3. 본 계의 목적은 貯蓄殖利하여 그 잉여로 안일호장공 산소의 일과 (안일)호장공 자손의 공통사업에 보용⁴²⁷⁾하는 것으로 정한다. 단, 位田收穫의 부족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4. 본 계의 계원은 말할 것도 없이 경향의 (안일)호장공 자손이면 모두 가입을 허락한다.
5. 계원의 출자금은 禮錢이라 칭하고 예전은 2원으로 정하고 예전 외 入禊金은 20전으로 정한다. 단, 예전과 입계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6. 계원 중 그 선조가 舊案에 참여 기록이 있는 자이면 繼入禊員이라 칭하고 그 선조가 舊案에 참여 기록이 없고 새로 들어오는 자이면 追入禊員이라 칭한다.
7. 계입계원의 예전은 1원으로 정하고 특이하게 표시한다.
8. 본 계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두는 것으로 정한다.
계장 1인, 부계장 1인, 掌財와 서기 각 1인, 상담역 약간인.
9. 임원선임 및 개선⁴²⁸⁾은 宗議의 협정을 따른다.
10. 계장은 禊務를 통할하고 또 부하 임원의 근무를 감독한다.

426) 호장공은 휘 문도공이며 여러 문헌에 보면 안일을 붙인 것도 있고 붙이지 않은 것도 한다. 심지어 한 건의 글 속에서도 혼재한다.

427) 補用: 부족한 것을 보태어 씀.

428) 改選: 다시 뽑음.

52. 종계안(정우홍, 1921)

11.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고 만약 계장 유고시 代辦⁴²⁹)한다.
12. 장재는 계장의 명을 받들어 계무를 총괄하고, 매년도 金錢收支 文簿와 裨員進退 상황을 계장에게 하나하나 보고한다.
13. 서기는 장재의 지휘를 받아 문부작성과 서류보관에 종사한다.
14. 상담역은 계장과 장재의 소집을 받들어 계무를 협의하되 상담역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그 의결안은 상담역의 연명서명을 요한다. 만약 연명서명이 없으면 무효로 한다.
15. 만약 중요한 사건이라서 계장과 장재의 소집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우면 상담역이 서로 소집하여 의결한 안을 계장과 장재에게 추인을 득하여도 무방하다.
16. 상담역은 감사의 권한을 겸하고 있어서 장재가 계장에게 보고하는 문부에 역시 연명서명을 요한다.
17. 임원은 일체무료이다. 단, 계의 상황과 일의 번거로움 정도에 따라 종의로 그 手當을 정한다.
18. 예전은 계 中の 자본금으로 만들고 입계금은 계 中 경비에 채워서 쓴다.
19. 장재는 예전의 납입에 따라 가장 가까운 은행 혹은 우체국에 즉시 예치하고 그 통장을 받아 보관한다. 200원 한정으로 상시 예치하며 2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면 방채⁴³⁰)하여 이자를 불린다. 단, 그 이자를 불리는 방법은 매번 대차가 있을 때마다 장재가 상담역과 협의한 후 반드시 완전한 방책을 가지고 시행한다.
20. 계 中の 문부는 아래와 같이 두는 것으로 정한다.

一、 化산재종계안 구계안 좌목과 절목 合附 작성된 것⁴³¹)

429) 化산재/화수정 전래 성책본 옛 종계안 《동래정씨화산재종계안(1921)》

의 辦^반이 《동래선산기실》에는 辦^반으로 되어 있다.

430) 放債: 여유 있는 돈을 남에게 빚으로 줌.

52. 종계안(정우홍, 1921)

一、화산재종계자금안 계원의 예전과 입계금 기입된 것

一、수입지출부

一、예전영수증인쇄건

21、종계자금안의 수입금액란 아래에 반드시 장재의 實印을 날인한다. 만약 이 실인이 없으면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2、예전을 납입한 계원은 반드시 장재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 뒷날 참고상 이 영수증이 없으면 납입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한다.

23、계원이 만약 종계안에 먼저 이름을 적어 넣고 즉시 예전을 납입하지 않아 한갓 숫자만 채우는 자(徒煩手數者)는 별도로 벌금을 물린다.

24、본 계 中の 문부는 일반 계원의 열람을 허락한다. 단, 열람을 요구한 자가 악의가 있으면 허락하지 않는다.

25、본 계의 公會는 매년 1 차례씩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장재는 그 기일을 미리 정하고 계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소집한다. 만약 장재가 해이하어 좃아가지 못하면 계장이 직접 한다.

26、매년 공회 때에 장재와 서기가 제출한 일반문부와 서류의 낭독통과는 공회의 승인을 요한다.

서기는 반드시 공회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출석인의 날인을 반드시 받아 비고로 삼는다.

27、位田收獲을 공용⁴³²⁾하고 남음이 있으면 반드시 본 계에 부가하여 이자를 불리고 당해 부가금액은 종계자금안에 별도의 난을 만들어 적고 향감독과 장재는 연명으로 서명한다.

431) 화산재/화수정 전래 성책본 옛 종계안 《동래정씨화산재종계안(1921)》에 東萊鄭氏華山齋宗禋案序, 華山齋宗禋規則, 舊禋案節目(정언섭, 1733), 舊禋案座目(266인), 新座目(197인)이 들어 있다.

432) 供用: 준비하여 두었다가 씌.

52. 종계안(정우홍, 1921)

28. 계원의 벌칙은 아래와 같이 정하여 행한다.

一、 예전과 입계금을 지정기간 내에 봉행하지 않은 자는 예전과 입계금 외 벌금 50전을 징수한다.

一、 계칙을 무시하고 사육만을 멋대로 부려 계금을 犯用한 자는 그 倍額을 징수한다.

一、 종구를 문란케 하고 族誼에 알력을 일으키는 자는 꾸짖어 훈계하고 만약 꾸짖어 훈계하였는데도 따르지 않는 자는 종계안에서 제명한다. 단, 제명시 예전의 반환은 불허한다.

29. 구종계안 절목 중 시의에 적절치 않은 것은 본 규칙과 宗議에 의거하여 폐지한다.

30. 미진한 조항은 종의의 임시 증산⁴³³⁾을 따른다.

31. 본 규칙은 신유년(1921)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⁴³⁴⁾

鄭雨興, 寅祐, 相朝, 佑朝, 寬朝, 亨朝, 寅錫, 寅駿, 光洙, 澄謨, 珍謨

同時에 雨興을 계장으로, 寅祐를 부계장으로, 相朝를 장재로 삼았고, 그 다음은 서기와 상담역 약간인으로 薦定하였으며,⁴³⁵⁾ 종계 절목과 종계원 좌목도 함께 마련하고 돈을 모았으니 이에 따라 이제 시작이다.

433) 增刪: 보태거나 깎는 것.

434) 《동래선산기실》의 조항 30과 31의 순서가 화산재/화수정 전래 성책본 옛 종계안 《동래정씨화산재종계안(1921)》에는 바뀌어져 있다.

435) 화산재/화수정 전래 성책본 옛 종계안 《동래정씨화산재종계안(1921)》의 華山齋宗禋任員錄에 의하면 書記에 鄭寅駿, 相談役에 鄭佑朝, 鄭寬朝, 鄭亨朝, 鄭寅錫, 鄭寅昶, 鄭光洙, 鄭澄謨(有故辞免), 鄭珍謨를 뽑았으며, 1934년 3월 13일 2회 총회시 補欠選舉에서 부계장에 鄭佑朝, 掌財에 鄭宰魯(但掌財一人加選), 相談役에 鄭寅鉞, 鄭寅旭, 鄭煥祐, 鄭寅翰, 鄭學律을 뽑았다.

52. 종계안(정우흥, 1921)



東萊鄭氏華山齋宗祿案序

夫人於遠遠報本之道無所不用極而究其大者則有二焉其一曰誠其二曰財苟其無誠則雖有巨財不能盡其道苟無其財則雖有天誠亦無以達其誠也然而每以一人之力愛巨大之財則憂慮乎其難故為先保宗之家必有宗祿宗祿者所以同眾力鳩眾財譬如合土壤之小成泰山之大合川流之細就河海之深也然而其竭則之道亦不以其誠則非徒有初之難終師



一查亂宗規軌驟族誼者加責戒若加責戒而不從者宗祿案除名但除名之時不許禮錢送付事

元舊祿案節目中不通時宜者依本則及宗議廢止事

辛本規則自辛酉八月壬子日施行事
壬未盡條項隨宗議臨時增刪事

華山齋宗祿任員錄

- 祿長 鄭雨興 仙
- 副祿長 鄭寅祐 仙
- 掌財 鄭相朝 仙
- 書記 鄭寅駿 仙
- 相談役 鄭佑朝 仙
- 鄭寬朝 仙
- 鄭亨朝 仙

▲ 종계안(정우흥, 1921)

53. 신매답 등기(1924)

53. 신매답 등기(1924)

新買畝 大正 13년 등기(갑자년, 1924)

반여리	130번지	畝 590평	舊 4두락
사동리	2번지	畝 415평	舊 2두락
사동리	4번지	畝 400평	舊 2두락
석대리	29번지	畝 602평	舊 3두락
석대리	65번지	畝 375평	舊 2두락
반여리	582번지	畝 84평	舊 5두락
반여리	608번지	畝 296평	舊 2두락
반여리	682번지	畝 209평	舊 1두락
반여리	1107번지	畝 176평	舊 1두락

합 畝 17두 5승락

위는 요업회사에 관 토지의 대토임

반여리 1179번 畝 472평 舊 3두락

위는 상업학교에 관 토지의 대토임

위 매수 등기자 명의

鄭萬朝 敬성부

鄭憲永 敬성부

鄭雨興 진위군

鄭相朝 동래군

鄭寅祐 동래군

鄭佑朝 동래군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화지산 선영 중년 연혁기

승정갑신후 89년⁴³⁶⁾ 임자년(1732) 동짓날에 동래부사로 재임 중인 22대손 彦燮⁴³⁷⁾이 山下諸宗과 함께 묘소 아래서 계를 조직하고 祭田을 늘렸으며⁴³⁸⁾ 돌을 다듬어 신도비⁴³⁹⁾를 세웠다. 그때 상유사⁴⁴⁰⁾는 師玄⁴⁴¹⁾이고 감역은 震僑⁴⁴²⁾였다.

그 후 기축년(1829) 4월 일에 경상도관찰사⁴⁴³⁾로 재임중인 25대손 基善이 재실인 花之寺 永護庵을 重修하였다.⁴⁴⁴⁾ 그때 유사는 有一⁴⁴⁵⁾이었다.

436) 원본의 “崇禎甲申後五十八年壬子”에서 58년은 89년의 오기이다. 화지산 묘갈을 보면 오기임이 분명하다.

437) 정언섭[1686(숙종 12)-1748(영조 24)]: 字는 公理이며 병신보(1716)를 修譜한 수와공(휘 필동)의 아들이다. □鄭欽之(13)-昌孫-价-啓咸-鎰-應期-洵-慶業-櫛-台壽-必東-彦燮(24)

438) 기록상으로 숙종 12년(1686)에 祭田을 하사받은 적이 있다. ※숙종 12년(갑자, 1686) 울산군수 載大가 남곡공(휘 知和)에게 글월을 올려 시조 호장공의 묘가 헐고 허술하니 자손된 도리로 죄스럽기 그지없음을 아뢰었다. 남곡공은 그 때 문장으로 載堊, 載崇, 載嵩, 助先, 是先과 깊이 의논한 다음에 상감께 아뢰어 선산을 다스리기 위해 해임시켜 주기를 빌었다. 상감은 남곡공이 늙고 병들었음을 염려하여 울산군수에게 명하여 묘를 다스리게 하고 祭田을 내려 주셨다. 이때 상감과 남곡공 사이의 문답기록이 전한다. <동래 정씨종보 8호 참조.>

439) 비석 자체에서 묘갈[篆額: 유명조선국동래정씨시조고려안일호장부군묘갈]이라고 하였지만 많은 종인들이 신도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신도비 [묘갈] 비문은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동래선산기실》에도 물론 실려 있다.

440) 上有司: 도유사의 다음가는 유사.

441) 34면 각주 129) 참조.

442) 34면 각주 128) 참조.

443) 원본의 本府觀察使는 동래부가 속한 도의 관찰사, 즉 경상도관찰사를 뜻한다.

444) 基善공이 찬한 永護庵揭板文인 <齋舍重修記>가 《동래선산기실》에 실려 있다.

445) 鄭有一(1794-1859): 공은 1828년에 계원으로 들어왔으며, 1828년 4월부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그 후⁴⁴⁶⁾ 정축년(1817)에 재실 北廊을 重修하였다. 그때 都監은 乃和⁴⁴⁷⁾이고 有司는 萊栢⁴⁴⁸⁾이고 別有司는 福世였다. 이 福世는 성금으로 100냥을 스스로 내어 비용에 보태었다.⁴⁴⁹⁾

그 후 갑술년(1874) 3월 일에 祭閣이 오래되어 낡고 상하였기에 山下諸宗이 의견을 수렴하여 京宗中에 보고하고 자고송⁴⁵⁰⁾ 중에서 내다 팔아 비용을 대고 옛 모습대로 重修하였다. 그때 鄉有司는 良淳⁴⁵¹⁾이고 都監은 始昊⁴⁵²⁾였다. 남은 돈으로 위토 57두 5승락의 논과 101두락의 밭을 사 두었다.

그 후 신묘년(1891) 齋室 北廊을 또 중수하였다. 都監은 始昊이고 有司는 義奎⁴⁵³⁾였다.

터 1835년 4월까지 향유사를 맡았다. □鄭先祚(3)-……-深(13)-觀-世徵-緇賢-琳壕-麟角-彥龍-嗣後-泰彬-致咸-興僑-萊仁-3자 乃驥-有-(26) [기미보(1919)에 첨사공파로 입보.]

446) 바로 앞의 항목과 연대순이 맞지 않다. ※이 글 전체적으로 볼 때, 연대순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447) 鄭乃和(1758-1823): 공은 1814년에 계원으로 들어왔으며, 1815년 ○월부터 1817년 10월까지 향유사를 맡았다. □鄭先祚(3)-……-深(13)-觀-世徵-緇賢-琳壕-麟角-彥龍-嗣後-泰彬-致咸-興僑-萊仁-1자 乃和(25) [기미보(1919)에 첨사공파로 입보.]

448) 鄭萊栢: 공은 1806년에 계원으로 들어왔으며, 1817년 10월부터 향유사를 맡았다.

449) 이 사실은 花樹亭所揭刻文에 전해오고 있으며 《동래선산기실》에도 실려 있다.

450) 自枯松: 말라 죽은 소나무.

451) 鄭良淳(1807-1877): 공은 1869년에 계원으로 들어왔으며, 1870년 10월 잠간 동안, 1872년 8월부터 1874년 8월까지 향유사를 맡았다. □鄭先祚(3)-……-沆(13)-信重-裕誼-文-厚豐-東榘-春孫-之成-斗-德逸-時昌-萬重-師玄-萊瑀-哲岷-良淳(28) [기미보(1919)에 교서랑공파로 입보.]

452) 鄭始昊(1823-1893): 공은 1875년에 계원으로 들어왔으며, 1874년 8월부터 1876년 8월까지 향유사를 맡았다. □鄭先祚(3)-……-深(13)-觀-世徵-緇賢-琳壕-麟角-彥龍-嗣後-泰彬-致咸-興僑-萊仁-乃和-存-始昊(27) [기미보(1919)에 첨사공파로 입보.]

453) 鄭義奎(1830-1894): 공은 1876년에 계원으로 들어왔으며, 1891년 8월부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그 후 신축년(1901) 10월 일에 범이 뜻밖에 사산⁴⁵⁴)에 울부짖었고 또 정문에 돌이 날아들기를 연달아 20여일 밤이었으나 山下 諸宗은 단지 서로 괴이하게 여겼을 뿐 무슨 조짐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때마침 경부철도 부설 인부들이 와서 中台峰을 굴착하는 중이었다. 종인들이 함께 가서 항거하였는데 그날 밤 삼경에 재실 北廊에 갑작스레 天火가 일어나 남은 것이라곤 잿더미뿐이었다. 이는 곧 천년 이래 一大 變怪였다. 그때 句管 寅祐⁴⁵⁵)와 鄉有司 寬朝⁴⁵⁶)는 놀라고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종인 寅五에게 화륜선(증기선)을 타고 상경하게 하였더니, 京宗中 역시 놀라서 京有司인 寅學이 종회를 크게 열어 한편으로는 철도국에 쟁송하고 한편으로는 閻朝와 耒朝를 대표로 뽑아서 내려 보내어 齋舍에 머물면서 부산 철도국에 쟁송하게 하였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쟁송하니 저들은 그 공사를 거두었다. 그동안 이미 파헤친 곳 75평과 반쯤 파헤친 곳 205평⁴⁵⁷)의 땅을 저들 철도회사 사람들이 지금까지 흙을 부어 옛 모습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 땅은 지금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뺨뺨이 들어서 있고, 재실 北廊은 원근의 諸宗人이 성금을

터 1893년 8월까지 향유사를 맡았다. □鄭先祚(3)-……-沆(13)-信重-裕誼-文-厚豊-東榘-春孫-之成-斗-德基-彦-恒周-載峻-萊心-起燁-義奎(28) [기미보(1919)에 교서랑공파로 입보.]

454) 四山: 四山局.

455) 鄭寅祐(1855-1932): 공은 1901년 12월부터 1921년 5월까지 구관을 맡았으며, 1925년 5월부터 1927년 5월까지 향이사를 맡았다. □鄭先祚(3)-……-深(13)-觀-世徵-緇賢-琳豪-麟角-彦龍-嗣後-泰彬-致成-興僑-萊仁-乃驥-有一-始民-進永-寅祐(29) [기미보(1919)에는 첨사공파로 입보.]

456) 鄭寬朝(1860-1944): 1901년 8월부터 1903년 8월까지 향유사를 맡았다. □鄭先祚(3)-……-沆(13)-信重-裕誼-文-厚豊-東榘-春孫-之成-斗-德基-彦-恒周-載峻-萊心-起燁-義奎-寬朝(29) [기미보(1919)에 교서랑공파로 입보.]

457) 《동래선산기실》에 실려 있는 鄭閻朝의 9인이 城主[동래부사]에게 올린 청원서와 그 題教에는 225평으로 되어 있다.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가져와 새롭게 중건하여⁴⁵⁸⁾ 花樹亭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후 정미년(1907)에 李弘植과 金建培 무리가 탁지부에 몰래 청원서를 낸 것이 받아들여져 이내 下台峯 자성대를 일본인 田中常次郎(다나카 죠오지로)⁴⁵⁹⁾에게 매도하고 이 자(다나카)는 秋吉富太郎(아키요시 도미타로)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이 자(아키요시)가 굴착하러 오려고 하였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로부터 시조묘의 외안산 三台峯 중 한 봉우리로 의미를 갖는 자성대를 방어하였다. [金建培 무리가] 탁지부에 연명으로 낸 청원서에 대한 題⁴⁶⁰⁾는 다음과 같다.

당해 鎭(부산진) 뒤의 자성대는 李弘植에게 이미⁴⁶¹⁾ 인허가 났으므로 그 외 [부산진의] 官廝와 그 터(公廳基址)만 인허함. 이 땅은 공유지 터와 관계되므로 개간하여 건물을 지으면 상당한 세금을 매겨 거두겠으며 만일 인허일로부터 1개년 이내에 착수치 못하거나 또는 외국인에게 사적으로 팔거나 양여하는 경우에는 本認許는 무효로 함.

이 題를 얻었을 그때 有司는 佑朝⁴⁶²⁾와 時權⁴⁶³⁾이었다. 鎭弘은

458) 원문의 運建은 重建의 오기인 것 같다.

459) 이 자는 경동철도주식회사의 사장을 지냈다.

460) 광무 10년 10월 6일자 金建培·元世燁의 請願에 대한 탁지부 題. ※題는 題音 또는 題辭라고 하는데 백성이 官府에 제출한 訴狀·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부에서 써주는 처분(판결문·처결문)이다.

461) 業已 또는 已業: 이미.

462) 鄭佑朝는 1905년 8월부터 1908년 8월까지 향유사를 맡았다.

463) 鄭時權(1844-1909): 공은 1895년 5월부터 1897년 8월까지, 또 1908년 8월부터 1909년 9월까지 향유사를 맡았다. □鄭先祚(3)-秋-命海-振成-孟-善黻-泰淑-順興-允耆-慶章-沆(13)-信重-裕誼-文-厚豐-東榘-春孫-之成-斗-德逸-時昌-萬重-后玄-萊淳-東安-錫燦-會演-時權(30) [기미보(1919)에는 교서탕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京宗中 대표로 내려와서 本府(동래부) 부윤과 교섭하였는데 당해 봉우리(하태봉)의 네 모퉁이에 표석을 세우고 나무를 심는 일은 그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 후 기유년(1909) 11월 일에 相朝⁴⁶⁴가 鄉有司 직책을 맡게 되어 句管인 寅祐와 함께 서울에 다녀왔다. 그 외 [鄉有司 직책을 맡은] 종인들은 모두 다 기록하지 못한다.

경술년(1910)년 8월 일에 이르러 本山(화지산)과 三台峯의 소유권 증명차 本山(화지산) 2구역 중 갑구역 191,072평, 을구역 95,093평 5홉, 상태봉 13,243평 5홉, 중태봉 6,595평 3홉 5작, 하태봉 5,329평 1홉 8작을 측량하였다.⁴⁶⁵ ■■■■■■■■■■ 若松兎三郎(와카마쓰 우사부로) ■■■■■■■■■■ 京宗中の 允謨, 雨興, 鎭弘이 내려와 여러 차례 관청과 교섭하고 允謨와 雨興은 다시 상경하였으며 鎭弘은 여러 날 있으면서 부청⁴⁶⁶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⁴⁶⁷ 그 즈음 총독부에서 鎭弘에게 전보를 쳐서 보냈기에 鎭弘

공파로 입보.]

464) 鄭相朝(1867-1877): 字는 聖贊이며 참봉을 지냈다. 1895년 정인학공의 종계안에 계원으로 들어 있으며, 1909년 11월부터 1919년 5월까지 향유사를 맡았으며, 1919년 5월부터 1921년 5월까지 향감독(향유사의 개칭)을 맡았으며, 1921년 정우흥공의 종계안에 掌財로 들어 있으며, 1923년 5월부터 1942년 2월까지 향이사(향감독의 개칭)를 맡았다. □鄭節(12)-子若-泓-齊賢-訥-社柄-炯-忠仁-斗-德逸-時昌-萬重-師玄-萊瑀-哲岷-吉淳-相朝(28) ※병술별보(간사 鄭師玄, 鄭得命, 鄭萊興: 1776년)의 계보에 의하면 공의 8대조(휘 斗)의 후손들은 호장공(휘 선조)파의 장파이지만 기미보(1919)에서 참의공파로 입보되었는데 필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한다. 鄭相朝는 1927년 참의공(휘 節)파보 간행에 幹事로 참여하였다.

465) 1홉[습]은 10분의 1평이며, 1작은 10분의 1홉이다.

466) 釜山府廳. ※1910년 10월 1일에 일제는 오랜 행정중심으로서의 위상과 정통성을 말살하고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부산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래부를 폐지하고 부산부로 개편하였으며 1914년 3월 1일에 기존의 부산부를 부산부와 동래군(부산부를 제외한 옛 동래부와 기장군 편입)으로 분리하였다.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은 각종 신청서류 처리를 鄭□□에게 위임하고 바로 밤에 상경하였다. 10여일 후까지 鄭□□가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相朝가 부청에 들어가 그 서류들을 살펴본즉 도면상에 대표 寅學氏의 이름이 잘려서 나가고[割去] 그 대신 □□의 이름으로 부청에 신청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자성대 문서를 가지고 도망간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였다. 하루는 두 번 京宗中에 전화로 알렸는데 京有司가 크게 놀라 允謨와 鎭弘을 바로 내려 보내어 한편으로는 釜山警署에 교섭하고 한편으로는 신문사에 알린 결과, □□가 목포항에 있다고 하였다. 그때는 하늘 가득 눈이 내려 내왕이 극히 어려웠다. 京鄉諸宗의 후원으로 本港(부산항)에 머물다가 相朝가 앞장서 출발하여 神濃川丸을 타고 하루 낮과 밤 걸려 목포항에 정박하였다. 농락의 명수 □□로부터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돌아왔다. 이는 先靈께서 말없이 도우심이 틀림없다. 다시 부청에 신청하였다.

임자년(1912) 8월 20일에 本山(화지산)과 상태봉과 중태봉은 이미 증명을 마쳤으나 유독 하태봉은 官有로 잡혀 있어 總督府山野査定申告令에 의해 곧 증명신청서가 제출되지 못하다가 대정 6년 정사년(1917) 10월에 우리 정씨종중 連名으로써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관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實地 조사가 있었고 기미년(1919) 10월 6일에 이르러 임야조사위원회로부터 裁決하여 자성대 역시 우리 종중의 소유로 되었다.

또 위토 중 67두락지는 齋僧과 山直 등의 급료로 쓰는데 빌려주었으나 舊結案(옛 토지대장)에는 이 67두락지가 寺畚으로 기록

467) 접수서류는 《동래선산지실》에 실려 있는데, 화지산 감구역 및 을구역, 상태봉, 중태봉 모두 소유자는 鄭選朝, 鄭萬朝, 鄭寅學, 鄭寅興, 鄭寅昇 공동 명의이며, 1912년 8월 20일에 鄭寅學이 대리인 겸 신청인이다.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되어 있었다. 기유년(1909)에 이르러 각 사찰의 토지·건물·재산 조사 때 실제 사실을 들어⁴⁶⁸⁾ 정씨문중 소유로 신고하였다. 뜻밖에도, 범어사 주지 吳惺月이 와서 말하기를, “花之寺의 舍宇·土地·器物 모두 사찰소유이고 結案에 있는 67두락지는 寺畝임이 분명합니다.”라 하며 이도⁴⁶⁹⁾할 속셈의 발언을 빠르게 하므로, 화지사의 내력을 일일이 설명한즉, 吳僧이 말하기를, “舍宇는 비록 이 정씨문중이 지었으나 이미 보시해 놓고는 어찌하여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까?”라 하였다. 답하기를, “본래 보시한 것이 아니라 선영을 수호하기 위하여 齋舍로 지은 것입니다.”라 하니 吳僧이 말하기를, “과연 先塋을 위했다면 어찌하여 ‘齋’라고 하지 않고 ‘寺’라고 합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재실 正門 위 편액은 ‘華池山永護庵’이며 楹문⁴⁷⁰⁾ 위는 ‘花之寺’라 칭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之寺는 본시 승려의 사찰이었으나 정씨의 先墓가 들어온 이후 사찰을 빼앗아 정씨 거처가 되었음을 환히 알 수 있습니다.”라 하였다. 이 역설은 듣는 자로 하여금 오장이 찢어지게 하였다. 자연히 증빙서류들이 신축년(1901) 화재시 잿더미 속에 묻혔으나 華池山守護節目 책자가 相朝의 가장⁴⁷¹⁾ 중에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리하여 달려가 가지고 와서 대질한즉 해당 절목에 이르기를 正門 위 편액 永護庵은 관찰사 基善공의 막비⁴⁷²⁾이던 25대손 珖의 친필이며, 楹문 위 편액 花之寺는 그때

468) 사실대로.

469) 移渡: 소유권을 옮김.

470) 挾門: 결문.

471) 家藏: 가문에서 소장해온 문적. ※鄭相朝의 고조는 鄭師玄으로 1733년 4월에 東萊華池山始祖墓守護宗契의 鄉有司를 맡았다.

472) 幕裨: 감사·유수·병사·수사·견외사신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 벼슬.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동래부사인 金鑑⁴⁷³⁾의 친필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살펴보면 건대 寺와 庵의 편액 이름은 모두 같은 날 쓰여진 것이다. 당신의 말이 어색하지 않는가? 우리 先塋은 1년에 4節祀를 올리는데 祭需의 마련은 齋僧과 祭堂直이 품목을 분장하지만 거행의 책무는 동일하다. 이와 같이 종일 설전하다 저쪽[吳僧]은 불복하고 돌아갔다.

며칠 되지 않아 本郡(동래군)의 군수 申泰建이 불려서 相朝가 군청에 나가 대질하게 되었다. 吳僧이 말하기를, “절에 있는 제사 기록 가운데 ‘僧之祭者三俗人祭者二’라는 것에서 俗祭에 논이 딸려 있는 것으로 보아 僧祭에 역시 논이 반드시 딸려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볼 때 그 논은 절의 소유입니다.”라 하였다. 이 말을 받아서 군수가 말하기를, “어떻게 僧祭가 俗祭가 될 수 있습니까?” [상조가] 대답하기를, “조선의 望族 가문의 先塋의 齋舍는 조용하고 한가로운 곳을 취하여 암자를 건립하고 승려를 두어 [의례를] 거행하는 것이 우리 성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타성에서도 이런 예는 많습니다. 당신이 오직 寺庵을 주장하는 것은 편액에 쓰인 명칭으로 인해 짐작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나는 자신있게 말하건대 僧祭의 이치는 그 僧이 수호에 힘쓰다 죽은 후에는 도울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옛 노고를 추념하여 本宗中의 財穀을 내놓고 제사를 올리는 것이며 俗祭의 이치는 祭堂直이 俗人에게 임무를 맡기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행에 힘쓰며 후손이 없는 자는 옛 노고를 특별히 생각하여 齋僧에게 일체의 祭祀를 시킵니다. 이는 후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문

473) 金鑑은 1827년 6월부터 1829년 5월까지 동래부사를 역임하였다. <승정원 일기 참조.> ※원문의 鑑은 鑑의 오기인데 《동래선산기실》의 先塋所係建物에는 鑑으로 바르게 되어 있다.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중은 후덕함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천여 년에 자손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흥망의 이치를 일개 승려가 논할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군수가 말하기를, “극히 옳습니다!”라 하였다. 吳僧 역시 수년간 이 분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高等土地調査委員會에서 세 차례 와서 나에게 진술서를 청하므로 상세히 갖춰 올렸다. 그 후 경신년(1920)에 비로소 옛 근거에 의해 [화지사의 토지·건물·재산이] 우리 종종 소유로 되었다.⁴⁷⁴⁾

그 후 정사년(1917) 7월 일에 초량에 사는 朴永吉⁴⁷⁵⁾이 일본인 磯田清助(이소다 키요스케)와 협모하여 本山(화지산) 局內 광산채굴승인⁴⁷⁶⁾의 내용증명을 종종에 우송하였다. 이에 京鄕은 놀라고 염려되어 힘을 합하여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京宗中 대표

474) 1990년에 비판에 새겨진 화지사 연혁은 다음과 같다.

唯我本寺는 海東各區요 麗朝古刹로서 確實한 年代는 未知으나 高麗初에 創建으로서 東萊鄭氏 始祖 文字 道字 爲先하는 寺刹이며 祖墓焚香으로 부처님 전에 往生極樂을 告祝하는 齋庵이다. 初創寺號는 萬歲庵으로서 一世二世至于 萬代有傳을 祈願하였고 二次寺號는 東萊鄭氏 本孫을 같이 守護하는 永護庵이라 稱하였다. 子孫이 興盛하고 文武諸賢이 우리나라 歷史에 功獻한 바 크다고 傳하여 오며 至今은 華池山 華池寺라 稱한다. 모두가 東萊鄭氏 始祖 先山 所有이다. 小納이 本寺에 管理僧으로 就任오기는 四十餘年 壬辰十月(一九五二年度)에 와서 宗中 都有司 鄭珍榮과 相議하여 癸巳年에 現 대화소 評 會長 金甲辰氏 母親 張氏 一心華의 施主로 得하여 修道院을 建立하였으며 己亥年에 사라호 태풍時 山神閣이 倒壞되어 宗中에서 白米五叭[五叭은 5가마]와 施主로서 再建하였으며 法堂寮舍修道院이 年高歲深하여 數次重修 佛事를 奉行하였으며 乙未年에 現 鐘閣을 많은 佛子가 同參하여 建立 打鐘式을 盛大히 奉行하였다. 今般 法堂山神閣鐘閣丹青石築階段佛事를 奉行함에 信徒會長 鄭淳種 處士의 念願으로 宗中과 宗人은 勿論이고 隣近 高僧大德 큰스님과 많은 佛子가 協助同參으로 圓滿回向하였음. 一九九〇年 庚午 四月 八日 華池寺 住持 楊清峰 溪生合掌

475) 항목 40(광폐관련)에는 朴永吉을 朴泳吉로 적었다.

476) 원문은 鑛白承認인데 鑛白의 精確한 뜻을 모르겠으나 광산채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圭煥과 雨興 두 사람을 내려 보내 박영길과 磯田(이소다) 두 사람과 교섭하고 언론에 사실을 말하고 따지면서 재실에 계속 머물렀다. 각 道와 郡의 族人들이 매일 모여들어 산하 거주 族人들과 함께 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산을 가득 메웠고 풍찬노숙하였다. 그 중에는 또 決死人들이 있었다. 그 위세는 늠름하여 매일 구경꾼 역시 수백 명에 달하였다. 本郡의 警署部長이 서너 차례 와서 해산하기를 권고하였으나 도무지 해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기를 한 달이 지나가자 박영길이라는 자는 비록 警官의 허락을 얻었지만 임의로 채굴할 수 없었다. 멀리서 온 종인들은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들어 조금씩 해산하여 돌아갔으며 다만 旬管과 有司는 집에 머물면서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 후 경신년(1920) 9월 일에, 저들이 鑛稅를 체납하였기에 郡으로부터 公賣公示를 부쳐와 저들이 地稅 279원을 납부하지 않은 일을 임시군수 한규복⁴⁷⁷⁾이 도청에 보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同 경신년(1920) 2월 일에 田圃里⁴⁷⁸⁾의 위토 11두락지 평수 1,538평을 부산요업주식회사에서 煉尾所 부지로 쓰고자 평당 3원 50전에 사겠다고 하여 京鄕의 문중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팔기로 하였다. 계약금 4,500원을 먼저 받고 잔금 1,040원 50전은 소유권을 넘긴 후 받는 것으로 증서를 썼다. 선봉금⁴⁷⁹⁾ 중 4,300원으로 대토답 17두 5승락지[17.5두락지] 땅⁴⁸⁰⁾을 샀는데, 우리쪽 공동

477) 韓圭復(1881-1967): 1918년 7월 1일 동래군수를 발령받아 1921년 2월 21일 충남 참여관으로 동래를 떠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478) 田圃는 田浦라고도 쓴다.

479) 先捧金: 먼저 받은 돈.

480) 반여리 130번지 답 590평(舊 4두락), 사동리 2번지 답 415평(舊 2두락), 사동리 4번지 답 400평(舊 2두락), 석태리 29번지 답 602평,(舊 3두락) 석태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소유 명의자 중 사망하거나 이주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저쪽 회사 연혁상 역시 이러저러한 사정이 많아 5, 6년간 지체하다보니 부비⁴⁸¹)의 발생이 적지 않았다. 을축년(1925) 2월에 이르러 영구히 저쪽 회사로 이전이 되어, 鑛弊防禦時 부채보상 공제금에서 잔금을 찾게 되었다.

신유년(1921) 3월 일에 釜田里의 논 450평을 경남도청에서 독립상업학교 부지로 편입하려고 평당 70전에 사겠다고 하여 京鄕의 宗中과 협의하여 팔고, 賣渡金 765원을 받아⁴⁸²) 대토답 3두락지⁴⁸³)를 240원에 사들이고 남은 돈은 재실 수리비에 쓰고 알렸다.

신유년(1921) 8월 일에 雨興이 京監督으로 추석 향사시 내려와 며칠 묵으면서 재실의 각종 문서와 장부를 전부 정리하고, 鄕任員 사무집행장부 10여 권을 비치하고,⁴⁸⁴) 山下諸宗과 협의하여 옛 종계안을 계속 이어 새 종계안을 작성하고, 계원모집과 자금수합의 일을 다시 정하여 기초를 놓았다.

리 65번지 답 375평(舊 2두락), 반여리 582번지 답 84평(舊 5승락), 반여리 608번지 답 296평(舊 2두락), 반여리 682번지 답 209평(舊 1두락), 반여리 1107번지 답 176평(舊 1두락). ※1924년 등기하였는바 등기자 명의는 鄭萬朝(京城府), 鄭惠永(京城府), 鄭雨興(振威郡), 鄭相朝(東萊郡), 鄭寅祐(東萊郡), 鄭佑朝(東萊郡)이다.

481) 浮費: 무슨 일을 하는 데 써서 없어지는 돈.

482) 이 금액은 처음 제시된 70전보다 배정도 비싸게 판 것이다.

483) 반여리 1179번지 답 472평(舊 3두락). ※1924년 등기하였는바 등기자 명의는 鄭萬朝(京城府), 鄭惠永(京城府), 鄭雨興(振威郡), 鄭相朝(東萊郡), 鄭寅祐(東萊郡), 鄭佑朝(東萊郡)이다.

484) 이때 비치한 장부는 《동래선산기실》의 <大正十年辛酉八月華山常備文簿新磨鍊件>에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다. 一 山坂及位土帳簿, 二 山坂及位土圖面簿, 三 祭器及其他備品簿, 四 各年度秋收簿, 五 收入簿, 六 支出簿, 七 京鄕任員名簿, 八 非常事件簿, 九 祭祭錄(首書自乙卯正朝), 十 京鄕宗族着發簿, 十一 往復書類綴(來信原本去信副本), 十二 鄕宗會錄.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병진년(1916) 2월 일에 禁松亭⁴⁸⁵⁾ 東山直의 집 3칸⁴⁸⁶⁾을 새로 지었다.

무오년(1918) 9월에 北山直의 집 2칸⁴⁸⁷⁾을 새로 지었다.

기미년(1919) 3월 일에 상·하 재실 전부 변화⁴⁸⁸⁾하여 一新하였다.

동년 5월 일에 山靈閣을 고쳐 지었다.

경신년(1920) 2월 일에 西山直의 집⁴⁸⁹⁾을 고쳐 지었다.

동년 6월 일에 相朝가 사임을 청하는 글을 종약소에 내고 돌아왔으며 亨朝가 임무를 대행하였다.

임술년(1922) 6월 일에 京宗中에서 鄉監督을 [鄉理事로] 개칭하여 3인 相朝·寅祐·珍謨를 [鄉理事로] 선정하였다.

그 후 갑자년(1924) 6월 일에 寅祐·珍謨가 임기가 만료되어 사퇴하고 또 鄉理事를 개칭하고⁴⁹⁰⁾ 相朝·仍在·寅錫이 선임되

485) 禁松亭에 관한 기록은 화산재지(1953) 42면에 있는 西亭公 항목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西亭公諱始昊

雖居遐鄉이나 才器英俊하야 東萊鄉校有司 安樂書院長 本郡座首 등을 歷任하고 甲戌[1874년임]에 先山鄉有司에 就任하야 先山守護와 宗土增佐[增置의 오식인 듯함. 재판본에는 增添으로 하였음]에 特히 誠意를 다하였으며 華池山 先山後巨坪洞所有山에 牛馬放牧과 兒塚 無主塚 등을 任意入葬하든바 士夫家 始祖先山至近地如斯放置를 遺憾으로 思하야 洞長及農廳長을 說服하고 當時權威者文尊位를 納得協力케 하야 面積十餘町步를 獲得한 後 馬阡山麓에 禁松亭이라 設標하고 松楸를 禁養하야 山局을 擴張하니 先山에 威儀가 一新하였고 此山谷을 至今稱爲禁松亭이라하다

壬辰亂後 始祖墓香火가 中斷하든 此際에 數十年間雖酒果之奠이라도 公家先代에서 奉祀를 繼續한 公이 有하다

486) 양정리 부속 하마정리에 있으며 초가[草蓋]이다.

487) 초읍리에 있으며 초가[草蓋]이다.

488) 飜瓦: 기와가 수명을 하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전체나 일부를 걷어 내고 다시 이는 것.

489) 연지리에 있으며 초가[草蓋] 4칸이다.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어 지금까지 사무를 보고 있다.

이 불초[相朝]가 不敏하여 근래 16년간 파란을 두루 겪고도 차
착⁴⁹¹⁾ 없이 마친 것은 참으로 先靈의 굵어 보살핌과 京鄉諸宗의
후원 덕분이다. 정성 쏟을 곳 없었으나 이제는 풍정낭식⁴⁹²⁾하여
다만 향불 피워 제사를 평온히 받드는 일 생각하니 私情之感을
억누르지 못하겠다. 다행히 雨興씨가 동래선산기실 一冊을 편성
하여 나에게 화지산 중년의 지나온 내력의 대강을 뽑아 기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에 감히 붓을 적셨으나 부끄러워 글이 지어지지
않는다.

을축년(1925) 9월 20일 동래군 화산재에서
향이사 相朝가 기록하다.

490) 자료를 찾지 못하여 어떤 이름으로 개칭하였는지 모르겠다.

491) 差錯: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

492) 風靜浪息: 창랑의 물에 배를 띄우니 파도가 그치고 바람이 고요함.

동래선산기실
원문

1. 서문(정우흥, 1920)

東萊先山記實 [序]

歲己未五月自宗約所舉雨興任東萊 先山京監督是前日京有司之改稱也不肖以無狀固辭雖不獲免亦不敢自居而是歲之臘底京鄉諸宗謂以宗約既定以京宗中一人必往參 先山節享而明年東萊正朝茶禮不可不使雨興往參書促日至不肖既不堪其重任而又辭其往參則近於有身遂於是臘念八從汽車抵山下庚申月正元朝與諸宗之會者七十餘人參享祀不肖執初獻之禮自京宗中往參者爲初獻官亦舊例然也祀罷入花樹亭與諸宗叙情話傍搜齋舍所存之揭字及其他文獻之可徵者繼錄 先山所有動不動產之保存與需用方法及其他要件而袖歸之更爲精寫且就東萊家錄中揀別萊瑩文字而傳謄迺逐類編次從他搜錄者亦附之成爲一冊名之曰東萊先山記實但家錄之所無而不肖之所錄者必附新增二字覽者其諒之

歲庚申二月日戶長公二十八世孫雨興謹記

2. 丘墓

丘墓 本文揀出於東萊家錄中桑梓錄而兩興
更爲調查或有正誤

安逸戶長東萊鄭公諱文道墓慶尙南道東萊郡西

面蓮池里華池山東萊古稱府子坐原

配位姓氏失傳合祔未攷而自古奠雙爵

墓表始立未考二十世孫密陽府使是先改豎有陰記

誌舊有與未攷十九世孫東平尉載崙燔磁

碑二十二世孫東萊府使彥燮立

謹按公諱在世系爲三世而表碣書以始祖以
先墓之有表識自公墓始也

東距杯山六七里山爲水營後主山

東南距荒嶺山四五里山峙於青龍外辰巽方

南距釜山鎮十里鎮後主峯名子城坵爲案山印砂

南西距東平面古縣治六七里

西距草邑蓮池二里許

西北距院堂谷一里許

北距金井山山城二十里卽來龍也復起爲水湧山距四五里

北東距府治十里而近輿地勝覽曰墓在縣西七里

華池山自彥陽高嶽山來金光行十里爲梁山鷺棲
山通度寺後山又四十里爲東萊界鹿蹄山又十里
爲鷄鳴山梵魚寺主峯又十里爲金井山皆石山也
又起伏三十里爲水湧山而平地過峽又五里行龍
起土脉作峯乃華池山而爲也字形局內青龍起峯

2. 丘墓

有石腦至內白虎而止內白虎歷過面前爲荒嶺山金連山盃山其下有水營外青龍起峯東邊爲府治案山外白虎自天柱峯西邊落脉爲白楊山雲水山下落爲嚴弓山九鳳山而過峽爲多大浦下有沒雲坵爲外明堂廣野有羅星名曰普理有二砂又有子城坵合爲三台內案絕影島外朝對馬島點點秀峰羅列遠外內堂水合襟穴前流到府治前轉湊水營左入于海海爲外堂水若鏡面穴長六十餘步裁穴於其端而補石爲階向南文明爲嶺南大也（先世事蹟）

沙峴向東萊退卸處也復起爲高大貴人形他處所未見以後水形峻平之嶺別無起伏卽出石木小峰石曜層出氣盛而流者幾三十里到溫井之上氣益旺別無長枝亂石散積如驟雨之狀山勢東橫委落爲溫井之主統脉則南而稍低行二三里又起秀木峰後半餘里退卸復起爲坐木峰後數三稍低而爲入穴之峰主脉龍虎皆自一峰而分枝自壬癸入脉三四十步微轉爲坎而落者幾七八十步而盡原形中平傾下倒穴傾峻墓在傾峻之半下稍短子坐午向內龍勢切近於身肩及中位微低而低於主原頭起而微抱似高於穴內龍之低者二三條居外而稍稍益低白虎有內虎稍遠於內龍而長流斜抱自白虎分枝爲次虎層低而抱當面復起峰而迴與內龍

2. 丘墓

頭合爲水口水破午地暫犯於丙然爲午也虎自此峰低而復作支向內而抱其後退卸爲平地即斗起峻山爲貴人形者一與貴人齊峰者二列立內龍頭之外甚近如抻其山復起回到左肩之外又起兩木形尖鋒於穴雖未見甚近衛立峙於水口與左外關峻峰合爲此而成者也外邊之虎自主原退行五里許分枝爲關峽峻山而流抱貼近於內白虎之外自申未地境盡於丁午地盡於野中海邊崖有一孤山即釜山鎮在於虎頭絕影對馬島立海中峻峰爲三台外案而三台微斜其遠十五里許島內海水越見丁午上山亦海島在巳丙午地而未見大抵此山自通度寺退卸之後爲大山行者幾四五十里東峽者二一則退卸之沙峴之前一則分脉於沙峴之後復起大貴人峰外支爲大山而抱在中脊峰七八里高於成穴處起峻峰而斷其內峽低而爲中山流衛即東萊主山也其主脉二三里與外峽齊西邊無近峽只有支引隔江金海之山爲峽到加德長於穴處而其去十五餘里也自太白山東行山脉盡於此五六百里皆以大山傳燮至彥陽之北尤極峻高至梁山東萊亦改壯盛去穴三十里大貴人之形罕有其比真南方之大地也但占穴稍似低下此穴雖低其上則內案稍低遠案却益露古人定穴必以近案爲要而不以低下爲嫌之意到處皆然（李懿信日記）

2. 丘墓

僕射公少從太守登華池山周覽山勢至一處自言曰若無辰方煞刀長巖可謂萬歲榮貴之地而天作之巖非人力可去嗟嘆不已僕射公聞之及戶長公卒葬于此地有雪消虎踞之異且辰方長巖忽爲雷震所破其後僕射公因事上京先訪前太守且告以故太守異之留處門下使之讀書未幾登文科委禽於高氏之門子孫蕃昌世多名碩豈非積德之致歟

{先世事蹟○按戶長公爲安逸則年過七十矣墓葬時僕射公長成可推也此所言爲禽高氏之非必謂登科始娶也記者蓋追言其始本也}

我 肅宗年間{此不載本文而以年條推之}有何人偷葬於墓後數尺地仍夷之十餘年人無覺者一日後孫時翊{居近邑者}宿墓下齋庵夢先祖告其故且言其狀甚悉遂心異之發書告在京諸宗且告于主守試掘之果得焉步數遠近埋葬服色皆如夢諭無毫髮差人莫不嗟異之{時翊年七十以丁酉卒東平尉公輓之而序言其事且言多公誠感祝公遐壽則蓋時翊既老而有此事也距丁酉似不遠}

崇禎壬午十八代孫翼憲公太和按節本道掃墳加土剏置齋庵募入僧徒又東自荒嶺山西至龜峰山山腰皆築石墻{按本文此下又言又於絕影島築墻牧馬以鎮山氣云云而絕影牧馬自古已久壬辰爲倭所掠崇禎癸酉復置牧場事載邑志公蓋修舉故事者也非於壬午剏置剏者故今不錄}

2. 丘墓

齋庵中被火災康熙十九年庚申重建庵旁有祭堂
天雨時行祀之所也後乾隆辛巳移建於西溪邊康
熙五十九年庚子二十一世孫本府使亨益立望柱
雍正十年壬子二十二世孫本府使彥燮備田土設
宗契{后孫之按道守邑者或加土或修改不能悉錄}

守護節享{享儀詳從先錄}等節付本府吏廳姓孫中有
京鄉有司有山直祭閣直齋菴僧以山下位田量定
斗數給付俾耕食守護

鄭氏先山{少司寇蘇斗山号月洲}

華蓋金爲祖委蛇帶水來中抽垂乳脉外護拱樓臺
門戶重重閉案朝面面開古來稱吉地無世乏人才
又

海山須上最高峰大地眞龍隱此中潮水多情朝曉
夕羣山有意擁西東委蛇形勢千軍陣平鋪明堂萬
馬容積德何人能占得從知福祿世無終

始祖鄭文道邑吏也有三子皆登文科墓在縣西七
里{見輿地勝覽東萊人物}與上使登釜山城城即倭人
所築孤峯斗起海口前對絕影島北望山麓有古墳
即鄭氏始祖塚此則內案而絕影島爲外案云{金東
溟世濂海槎錄}

到東萊鄭文道之墓墓之主脉自沙背峴退卸起大
貴人以後爲水形峻平之嶺別無起伏即出石木小

2. 丘墓

峰石曜層出山氣極旺盛而流者幾三十里自癸入脉者幾三四十步微轉爲坎而落者幾七八十步而盡原形中平傾下倒穴傾峻而盡墓在傾峻之半下稍短子坐午向水破午地而暫犯於內虎低而復作支向內而抱其後退卸爲平地即平起峻山爲貴人形者一與貴人高峰二野中海邊岸有一孤山即釜山鎮在虎之頭有一大島名絕影對立海中峻峰爲三台而朝立午地而爲案其島之內有海水越見島之外即大洋也去穴三十里大貴人之形必無其比真小國之第一也但點穴稍似低下傳云其上有對馬島島主墓云然鄭氏世爲小中華之宰相子孫甚繁盛島主雖主一島地甚狹其地所出豈敵我國宰相俸祿耶況爲蠻夷則是不如鄭氏之穴明矣又或傳云鄭氏貧甚大雪中負屍而行未定葬處哭於道傍有一老僧指曰彼谷之內有一無雪處宜葬之遂如其教而葬之云則鄭氏穴正也雖似低傾其上則內案稍遠案之脚益露古人定穴必以近案爲要而不以低下爲嫌之意到處皆然矣今人貪觀朝從定穴務高與古有異矣（雪心都會集）

補記

按以上金東溟海槎錄及雪心都會集東萊家錄所不載而但有休紙所錄之傳來者或王考暨先考在世時搜錄而未及傳贍者歟今并附錄於此以備後考

2. 丘墓

新增 墓所龍節及坐向

左旋乾亥龍丑艮回頭癸丑透迤壬坎轉身壬入首
子坐午向

戶長公住宅舊基

東萊郡西面栗北里{自墓所東距二里許現稱東萊西面蓮
山里}

3. 묘표(정시선, 1701)

東萊鄭氏始祖戶長鄭公之墓(表石前書)

公諱文道爲鄭氏始祖葬在東萊華池山子坐原而其上世無文可徵至我 孝宗大王時長湍松林山下有古墓毀而幽誌出乃禮部尙書文安公鄭沆墓也有曰其先東萊人考諱穆攝太府卿祖諱文道曾祖諱之遠皆爲本郡戶長沆年廿三以高麗 肅宗壬午登科卒于 仁宗丙辰卽宋之紹興六年沆三兄濟早卒漸澤皆以文章材幹有名于朝云公之年代此可槩見謹追記於表陰俾後有攷焉

皇明崇禎甲申後五十八年辛巳冬至日二十代孫
密陽府使是先改竪

謹按碑書始祖墓以墓道之始有然書以第三世戶長公諱則與譜系異或曰書以先祖墓如何

4. 묘지(정재륜, 1703)

有宋高麗國東萊戶長鄭公墓誌

府君諱文道乃東萊鄭氏始祖也墓在東萊華池山子坐原子孫綿綿今幾千年香火不絕而其上世無文可徵至我 孝宗大王時長湍松林山下有古墓毀而幽誌出乃高麗禮部尙書文安公鄭沆墓也有曰其先東萊人考諱穆攝太府卿祖諱文道曾祖諱之遠皆爲本郡戶長沆年廿三以 肅宗壬午登科卒于 仁宗丙辰卽宋之紹興六年沆三兄濟早卒漸刑部郎中御史雜端澤給事中太子贊善大夫皆以文章材幹有名于朝云府君年代此可槩見矣十九代孫載崙拜疏乞暇來省墳塋仍以誌墓之石埋于墓右府君內外子孫不知幾千人其冠冕榮顯者比踵于朝而它不書只詳吾之所自出者非惟不能數計而遍錄亦以成誌埋之者載崙故略倣蘇明允族譜引之意也府君長子穆穆三子澤澤長子典獄令子家子家二子詹事弼弼三子注簿同正椿老椿老五子檢校太子詹事崇崇子資贍副使之衡之衡長子藝文應教毗改名承源承源子判司僕寺事諧諧子結城縣監龜齡仕 世宗朝稱 本朝良吏龜齡三子直提學賜賜三子 成宗朝佐理功臣右叅贊翼惠公蘭宗蘭宗二子領議政文翼公光弼相中宗配享廟庭光弼四子江華府使福謙福謙一子左議政惟吉相 宣祖惟吉子左議政昌衍相 仁

4. 묘지(정재륜, 1703)

祖昌衍一子刑曹判書廣成廣成一子領議政翼憲
公太和相 仁祖 孝宗 顯宗配享 顯宗廟庭
次子左議政致和相 顯宗及今 上載崙以太和
之五子爲致和繼子尙 孝宗大王女淑靜公主封
東平尉
皇明崇禎甲申後六十年癸未九月 日埋

5. 묘갈(정언섭, 1732)

高麗東萊戶長公墓碣

世之譚氏族者皆以東萊之鄭爲世家大姓堪興家
又以華池鄭墓爲東國名墓云盖自勝國逮于 我
朝千有餘年之間封域宛然香火不絕子孫愈久綿
昌累公累卿國史家譜爛燁相望其始皆出於此墓
種德之報也噫根深則枝茂川豐則流遠此豈無所
本而然哉墓前舊有短碑歲久殘缺我 肅宗大王
三十七年辛巳二十代孫監司是先爲密陽府使時
伐石改豎略記其陰謹按其記曰公諱文道爲鄭氏
始祖葬在東萊華池山子坐原而其上世無文可徵
至我 孝宗大王時長湍松林山下有古墓毀而幽
誌出乃禮部尙書文安公鄭沆墓也有曰其先東萊
人考諱穆攝太府卿祖諱文道曾祖諱之遠皆爲本
郡戶長沆年廿三高麗 肅宗壬午登科卒于 仁
宗丙辰卽宋之紹興六年沆三兄濟早卒漸澤皆以
文章材幹有名于朝云嗚呼公之年代此可槩見而
獨其謹厚忠慤之德謙恭質儉之風宜其爲人家肇
始之祖爲後世子孫之法者闕而無傳郡志曰公以
縣吏老而家居每月朔聞吹角聲則以爲官長開衙
輒下庭拜伏其恭如此郡志又曰公歿而葬也行喪
至于此山適有雪消虎踞之異故就而葬之云至今
鄉里家閭皆知鄭戶長之名而指其墓曰鄭墓樵牧
不入丘木無恙地在南邊燹劫屢經而亦不敢犯逼

5. 묘갈(정언섭, 1732)

豈非公之積德厚善有以致是也歟按譜公之孫四人侍郎濟御史雜端漸子孫無傳沆卽幽誌所謂文安公也子孫亦無傳惟門下僉議贊成事給事中諱澤有名麗朝在 仁宗時以禮賓少卿奉使如金事載麗史公之子孫至贊成公尤益昌大至于今殆遍一國代出名公碩卿輔佐王室爲國世臣者不可盡錄大率以忠厚恭謹爲法其流風餘韻尙今不衰世稱鄭氏世傳之家範云彥燮世受 國恩獲蒙先蔭來守茲土瞻掃塋域不勝一氣流通之感遂與宗長密陽府使赫先通告於姓族之爲旁近邑宰者各割官俸增置祭田又與此鄉同宗修契於墓下以爲收宗族護丘墓之圖尙懼夫過此千百世之後陵谷易變表記難認卽墓階之南十許步治石而碣之記文則盡用表陰全文又以郡志所載徵信於後世見漏於表陰者略爲添錄至若墓前石儀太近簡樸宜在修改者亦不敢一一增新以取觀美者恐傷忠厚質儉之遺德也凡爲此墓之子孫者其敢有荒墜先德違棄家風者乎噫湧山如砥蓬海如瀆拱手以俟後人之來讀云爾

崇禎甲申後八十九年壬子二十二代孫通政大夫
東萊府使彥燮敬書 監役後孫震僑師玄¹⁾

1) 실제 묘갈 비석에는 “監役後孫幼學震僑師玄折衝金昌夏”로 되어 있다.

6. 묘갈후지(정래주, 1733년경)

始祖戶長公墓碣後識

記曰君子念始之者也又曰禮不忘其本矣始與本君子之所不可忽也東萊卽吾先始祖本貫之鄉而又有其衣冠之藏焉吾宗人鄭彥燮公理宰是府旣三年而通政人和以其暇致隆於先祖墓道增置祭田修墓下宗稷又立麗牲之石而自爲之文以歷舉先祖忠厚謙恭質儉之德使百代之下有所攷焉若公理者可謂念始者也不忘本者也庶幾乎追遠而民德歸厚矣公理追遠之孝如此而不能移而爲忠施之於爲國謀則非活孝也奚足尙哉東萊爲一路大關防而古有城而今頽圯歷數百年而名臣碩輔之來蒞者何恨皆有意於設築而未之果今公理一朝而剏新之其板築雉堞之殷井榦樓櫓之勤倉庾府庫之實屹然增重我南面之保障凡其政述卓卓可觀頽如此雖旣歸之後餘威振于殊俗遺化浹于窮邊所以流聲實於本貫之鄉者將與湧山蓬海同其久長此眞活孝也噫其可尙也已余代斲於斯每臨事有憤憤不及之嘆而尤有欽於其追遠之孝榻其碑文閣之兀上仍識數語于其左

東萊府使來周識 戶長公二十一代孫²⁾号東溪

2) 추가한 細註 '戶長公二十一代孫号東溪'에서 호장공 21대손이라 한 것은 오류이다. 東溪公은 동래정씨 22세로 호장공(휘 문도)의 20대손이다.

7. 보유

補遺

東萊府人物高麗鄭文道邑吏也有三子皆登科墓在縣西七里按公二子一顯四孫文科此錄有誤鄭沆穎悟好學中第官至禮部尙書翰林學士家無擔石之儲王歎曰三十年近待十一年承制其貧如是可嘉也諡文安鄭叙沆之子即鄭瓜亭鄭良生官至重大匡蓬原君本朝鄭矩良生之子登第官至議政府贊成諡靖節鄭欽之良生之孫登第官至刑曹判書諡文景鄭甲孫欽之子登第忠廉慷慨立朝有奇節官至議政府左參贊諡貞節鄭昌孫甲孫之弟再捷科第參佐翼翊戴佐理功臣歷事五朝三爲首相壽至八十六性恬簡不事產業 贈諡忠貞配享 成宗廟庭鄭蘭宗再捷科第參佐理功臣官至吏曹判書工草隸諡翼惠鄭佶昌孫之子登第官至議政府左議政有氣節識治體諡恭肅新增鄭光世擢魁科官至刑曹判書鄭忠樑光世之子登第官至承旨性廉簡○出輿地勝覽

鄭氏始祖爲戶長乃古時吏任之首猶漢之主吏也老休家居每聞邑宰開衙吹角輒下庭俯伏其恭且勤如是及沒子僕射公奉柩到華池山有虎踞雪消之異乃葬之其後冠冕蟬聯天與福地以蔭子孫豈偶然哉昔正考父三命益恭而聖子賢孫出於其裔戶長公律已恭謹而巨卿名公奕世相承報應之不爽如是矣 洪夢軒萬宗筆記

修撰公雍曾孫纘宗外孫承旨權文海撰東萊鄭氏始祖戶長公行蹟 族譜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악 외, 1724)

通文

東萊 始祖墓下本無墓奴又無子孫之居生者故自先世創建齋宮募入緇髡以爲禁樵牧供掃灑之地者殆至近千年之久而無弊守護矣不幸癸卯至月十七日偶然失火盡爲灰燼僧徒無庇身之所渙散之患當在目前將不免樵蘇之修灑靡托爲子孫者言念及此其所傷痛悶迫爲何如哉重建之舉在所不已亦不容少緩在京諸孫相會一處商確講定則其財力之浩大有非若干人所可辦出不獲已爲此發告而子孫中作宰處則隨其邑力之豐薄割其月俸之半俾當一隅之用有職名受祿人及家食不至貧乏者亦皆從優出物至於窮儒寒士隨力出助而其勝冠者雖父子兄弟同室亦皆逐名計數雖尺布分錢盡爲收合而外方一依京中例爲之而發文只憑譜牒所錄故先祖子孫其麗不億必不止此而漏於譜牒則不得通告至於庶派及降而至於編民不得家諭戶說而相其奉先之誠必不以貴賤有間在鄉諸宗雖在他境者聞見編告各其鄉定有司收合而畿甸海西關東湖西之近京者則送于京中磚石洞東平尉家修撰喪人處湖西之稍遠及湖南所居人則羅州靈巖南原三邑守宰處從附近隨便輸送嶺南所居人則送于金海承旨謫所以爲轉送之地而出物之際須勿以物少爲嫌不計多少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악 외, 1724)

隨力覓送則雖錢錢兩兩收合一而至於十十而至於百終歸於補用之地則庶無歉於奉先之道須諒此意必於正月晦二月望前輸送俾無未及狼狽之患幸甚

甲辰 景宗四年
雍正二年 正月初九日同宗出文

二十代孫 ³⁾	同知中樞府事	載岳
	軍資正	行五
二十一代孫	前郡守	習
	前營將	智
	繕工副正	鬪先
	金浦郡守	希先
	禁府都事	述先
	前牧使	赫先
	刑曹佐郎	潤先
	司僕判官	欽先
	敬陵叅奉	達先
二十二代孫	前縣監	河瑞
	前判官	亨晉
	進士	亨泰
	延安府使	錫圭

3) 이하 계대의 數字에 착오가 있다. 載岳, 行五는 동래정씨 2세 호장공(휘 문도)의 19대손이며 習, 智는 18대손이며 鬪先, 希先, 述先, 赫先, 潤先, 欽先, 達先은 20대손이며, 河瑞, 亨晉, 亨泰, 錫圭, 錫疇, 亨萬, 錫徵, 錫範, 錫慶, 亨復, 錫三은 21대손이며 履儉, 彥儒는 22대손이다.

8. 재실증건 통문(정재악 외, 1724)

戶曹佐郎	錫疇
進士	亨萬
前縣監	錫徵
童蒙教官	錫範
進士	錫慶
進士	亨復
南原府使	錫三
二十三代孫 進士	履儉
承文正字	彥儒

南原

鄭生員 德潤宅

富潤宅

今此通文只憑譜牒遠地存沒亦難的知或有見
漏則次次轉告或有下世人必有子孫一體傳示
甚幸

乙亥刊譜時南原宗人持來舊本示之故膽出
一本以備考覽

9. 철도부설 저지 배전 통문(정기회 외, 1901)

通文

東萊 始祖山所案山有鐵道相關今自京宗中派
送叅判闇朝議官者朝馳往幹事矣來往盤費不可
不自宗中辦出故隨其力排錢收斂並依左錄此回
付送以爲不日發行之地事

辛丑 大韓光武
五年 十一月二十七日門長基會

判書宅	基會		十元
承旨宅	學默	省達	十元
兵使宅	基默	安山	五元
判尹宅	基默	省達	五元
局長宅	恒朝	松亭	十元
主事宅	翰朝	松亭	二元
叅判宅	闇朝	成川宅	五元
沁判宅	選朝		二元
祀丞宅	肅朝	栗北	二元
崇參宅	宅朝	古邑	二元
承旨宅	寅星	<small>竹岩 追錄</small>	二元
叅判宅	寅學	鳳山宅	十元
承旨宅	寅錫	廣尹宅	二元
協辦宅	寅興		五元
直學宅	寅昇		五元
侍從宅	寅獻		五元
主事宅	寅復		二元

9. 철도부설 저지 배전 통문(정기회 외, 1901)

陰竹宅	基恒		十元
麻田衙中	喆朝		十元
靈巖衙中	寅國		十元
議官宅	圭成	安中	十元
課長宅			二元
清道宅	寅琥	長橋	十元
牙山宅	寅鎭		五元
叅奉宅	箕鎭		二元
叅尉宅	觀秀	安中	五元
技師宅	建謨		五元
稷山宅		全州宗人	五元

10. 종계안(정인학, 1895)

東萊鄭氏華池山宗稷案序(花樹稷)

夫木之繁衍者其本固水之長遠者其源深也我鄭之貫萊州者其麗不億實由於 始祖戶長公之積德餘蔭也邱墓在於府西華池山而昔我 九代祖左相碁洲公作宰本州守護之節靡不庸極 八代祖都尉公乞暇省掃埋誌頌德 七代祖守密陽時與本府伯彥燮氏同爲來省改豎墓碣增置祭田定界稍廣禁護成樣遂與諸宗修稷於 墓下 高祖晋州公 從祖叅議公皆以蔚山府使省掃時參入稷案亦多矯弊諸先公爲 先之誠于亦盛矣歲甲午冬不肖特蒙 恩除十二月二十二日來守是郡越乙未正朝始爲奠謁顧瞻左右參考古今則邱木無古稱之美祭田多今傳之誤碑文昭載而不泯稷案略存而無實追念 昔自不無感 先之命宗人寅祐煥奎色吏鍾綸往考 祭田釐正量案二卷一置京宗中一置鄉宗中又於五月五日奠謁后余補若干財仍與此鄉及近邑諸宗各下 名下錢二兩更爲修稷而以寅祐別定有司使之殖 於各派中每年寒食秋夕兩次稷會捧利取殖之意遂成節目於左以爲宗稷俾補守護之資蓋繼述 密陽公 胤設之意也凡我諸宗恪守無違永久遵行是所厚望噫 碁洲公蒞茲六朔遺愛載碑而以 伯氏陽坡公觀察使應避還朝余亦來守六個月未免經遞

10. 종계안(정인학, 1895)

政令無所施何前后月朔之相副也歸期在迫竟未
 參一番稷會以爲悵焉
 開國五百四年乙未五月五日二十七代孫嘉善大
 夫行東萊府使寅學謹書

座目

稷長府伯⁴⁾

鄭寅學{字景國 己亥生} 居京會洞

稷員⁵⁾

鄭琪瑀{字行彥 辛丑生} 居梁山小石

鄭學淳{字致彥 戊子生} 居機張熊川

鄭彙朝{字仁兼 壬辰生} 居東萊生民

鄭錫倫{字敬先 庚寅生} 居機張古村

鄭奎憲{ 壬辰生} 居機張古村

鄭寅錫{字國明 辛酉生} 居梁山小石

鄭時權{字和見 甲辰生} 居東萊盤如

鄭在鎭{字子九 癸巳生} 居機張古村

鄭璘杓{字明瑞 甲辰生} 居機張九七

鄭煥奎{字乃兼 丙午生} 居東萊田圃

鄭弼朝{字君烈 甲寅生} 居機張花田

4) 《화산재지》에는 稷長府伯에 鄭寅學과 鄭泳朝 2인으로 “鄭泳朝{字敬童(족보에는 章)} 居昌寧 癸卯(1903)秋莅任甲辰(1904)正朝追祭”이라 하였다.

5) 《화산재지》에는 계원에 鄭琪瑀와 鄭學淳 2인을 열거하고 “外五十一人記載畧”이라 하였다.

10. 종계안(정인학, 1895)

鄭寅祐{字子翼 乙卯生}	居東萊蓮池
鄭仁煥{字敬仲 乙卯生}	居梁山太石
鄭台諤{字子善 乙卯生}	居東萊美南
鄭寅華{字子賢 戊午生}	居東萊蓮池
鄭基鉉{字德亨 丁巳生}	居機張花田
鄭在寬{ 甲辰生}	居機張古村
鄭基永{字榮伯 己亥生}	居梁山本法
鄭基玉{字成八 丁未生}	居機張林基
鄭浩俊{字大允 庚申生}	居東萊孤峴
鄭相朝{字聖贊 丁卯生}	居東萊盤如
鄭祺周{字周瑞 庚子生}	居東萊鶴城
鄭基弘{字致彥 辛亥生}	居梁山永川
鄭仁杓{字■一 乙卯生}	居東萊龍湖
鄭煥哲{字元珍 庚申生}	居東萊盤如
鄭驥洙{字致明 丁巳生}	居梁山佳村
鄭圭午{字在仁 癸亥生}	居梁山小石
鄭鍾範{字德五 丁巳生}	居東萊石浦
鄭民浩{字殷五 庚子生}	居熊川邑
鄭寅斗{字太允 己巳生}	居東萊金山
鄭基泰{字德長 己未生}	居機張花田
鄭奉佐{字允汝 癸丑生}	居東萊東平
鄭魯賢{字琪玉 戊午生}	居東萊東平
鄭景浩{字子允 壬戌生}	居蔚山凡西

10. 종계안(정인학, 1895)

鄭箕杓{字箕一 戊午生}	居東萊石浦
鄭舜賢{字和玉 庚午生}	居東萊龍湖
鄭度彥{ 丁卯生}	居梁山佳村
鄭允周{ 癸酉生}	居機張立石
鄭相燁{字性賢 庚午生}	居機張熊川
鄭煥民{字太振 甲戌生}	居東萊盤如
鄭寅八{字聖瑞 壬寅生}	居東萊槐井
鄭謙東{ 乙丑生}	居東萊金山
鄭天宇{字魯詹 壬寅生}	居梁山北洞
鄭致漢{ 癸丑生}	居東萊後洞
鄭德華{字德五 甲寅生}	居梁山二洞
鄭憲奭{字乃益 庚申生}	居金海德島
鄭鍾綸{字明仲 庚戌生}	居東萊邑
鄭奎相{字性允 庚戌生}	居東萊瀛仙
鄭信苗{字允一 癸酉生}	居機張連花
鄭相翼	居東萊杜邱
鄭英奎{字琪瑞 癸丑生}	居東萊釜山
鄭有完{ 甲寅生}	居東萊邑
原	
<u>追</u> 叅6)	
鄭基燧{字致文 庚申生}	居東萊九瑞
鄭有圭{字大圭 庚申生}	居梁山蘇土
鄭奎錫{字周善 庚戌生}	居梁山小石

6) 《화산재지》에는 추참에 “鄭寬朝 外五十二人記載畧”이라 하였다.

10. 종계안(정인학, 1895)

稷錢收合秩⁷⁾

稷長錢^十兩

稷員五十三人各二兩

合元錢壹百拾六兩(又錢二兩追參來 合元錢壹百拾八兩)

分殖秩(每朔每兩三分式)

錢^{二十八}兩 鄭寅祐東萊蓮池(又錢二兩追參來合錢參拾兩)

錢^{二十二}兩 鄭相朝東萊盤如

錢^{二十二}兩 鄭鍾範東萊石浦

錢^{二十二}兩 鄭基鉉機張花田

錢^{二十二}兩 鄭寅錫梁山小石

節目

- 一、享需段寒食秋夕兩節日各七十五兩式排用而各處諸宗並爲來參事
- 一、正朝端午兩節日各二十兩式排用而單獻行事獻官一員執事二員外切勿廣參事
- 一、牟租稅看坪及捧上時切勿廣聚留宿有司者一二人來檢事
- 一、租一石鄉有司巡山糧米例下事
- 一、租一石別座僧秋捧時例下事
- 一、錢五兩租捧時例下事
- 一、錢五兩牟捧時例下事

7) 《화산재지》에는 아래의 점모 칸 속 숫자가 모두 갖은자로 되어 있다.

10. 종계안(정인학, 1895)

- 一、錢二兩五錢屠牛坦例給事
- 一、牟租稅捧中或有愆納者通奇于將廳趁爲督捧是矣若如是頑拒先爲改作指名書報于京有司宅事
- 一、松楸段如有犯斫者無論本孫與他姓小則自鄉宗中嚴治而或通奇于將廳甚者論報于京有司宅事
- 一、稷會段寒食秋夕兩次行會事
- 一、稷錢段每兩頭每朔三分利爲定而春秋行會時捧利仍殖事
- 一、四山禁養內若有偷葬隱避者鄉有司發通京中齋會呈單時稷長以下列名而先議于鄉武作使之入稟官家期於掘去事
- 一、四山內古塚數及大中松株數并載於成冊中而或有犯葬者及風落松者從收護信地一一報于京宗中而若隱匿不告則有司與該山直斷當刑配事
- 一、華池寺即齋宮也與他寺有異雜役一併勿侵而書員面主人收租米及牢令衙祿公須米名色與面任例給并爲革罷事
- 一、每年終下記冊子依例修上于正朝戶長便而盤纏一兩上下事
- 一、稷錢捧殖每年修成冊報于稷長宅成貼下來事

10. 종계안(정인학, 1895)

- 一、牟租稅看坪時及捧上時本邑首公兄依例并看檢而每年下記及稷錢修成冊時一體着名而來往路費計一年三兩上下事
- 一、本邑及他邑宗人 享事時外切勿留宿於齋室 京宗中或有來省路資勿爲舉論事
- 一、齋供醬鹽及窓戶紙房蘆席隨所入依例上下事
- 一、鄉有司若無頃舉行不必定菘限久任責成而有不可不改差事可堪之人列名報于京有司宅^以待處分事
- 一、未盡條件追後磨鍊事

稷長	押署	有司鄭相朝
	躡印	別有司鄭寅祐

追⁸⁾ 丁卯十月二十八日 契會時

鄭寅弼{字子明 乙未生}	居本鄉九瑞里
鄭修朝{字漢玉 壬申生}	居本邑南面中里
鄭龜朝{字士淑 甲戌生}	居本邑同面右里

以下八九名畧記

8) 이 追는 <<동래선산기실>>에는 나오지 않고 <<화산재지>>에 나온다.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乙未正月 日東萊華池山 位土田畚及齋寺畚 新正量案冊

舊畚秩

振字 西下面田浦員

二十一 畚五斗地 七負四束

二十二 畚六斗地 八負二束

纓字

三十四 畚三斗地 七負六束

兵字

三十一 畚三斗地 七負

三十六 畚二斗地 六負九束

濟字 花寺員

三十四 三夜味 畚四斗地 九負五束

車字 甫伊員

十九 一夜味 畚三斗地 十一負八束

夏字 花池員

三十 三夜味 畚六斗地 十九負四束內九負頃

邑字

二十 二夜味 畚三斗地 十一負九束

二十二 三夜味 畚三斗地 十二負四束內五負頃

二十三 五夜味 畚三斗地 九負三束內八負頃

四十三 一夜味 畚五斗地 十四負三束內八負頃

都字

二 二夜味 畚二斗五刀地 十負七束

十五 三夜味 畚三斗五刀地 十二負三束內八負三束頃

二十二 一夜味 畚一斗地 二負三束全頃

二十四 二夜味 畚五刀地 一負一束全頃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二十九	三夜味	畚五刀地	二負二束
三十	二夜味	畚五刀地	一負二束
四十七	一夜味	畚二斗地	七負七束
四十六	一夜味	畚三斗地	九負七束
糜字			
七十一	一夜味	畚二斗五刀地	八負八束
六十三	二夜味	畚二斗地	六負八束
六十四	二夜味	畚二斗地	八負三束
自字			
二十六	二夜味	畚四斗地	十九負七束 <small>內四負頗</small>
十三	一夜味	畚二斗地	五負九束
十四	三夜味	畚二斗地	四負三束
爵字			
三十八	五夜味	畚二斗地	九負七束
三十七	三夜味	畚二斗地	八負五束
雅字			
八十四	一夜味	畚二斗地	六負五束
八十八	二夜味	畚二斗地	七負八束
九十七	十夜味	畚二斗地	五負九束
堅字			
十四	二夜味	畚四斗地	十三負三束
二十八	一夜味	畚四斗地	十六負
西字			
三	一夜味	畚一斗地	二負五束
二字			
十五	三夜味	畚五斗地	二十負二束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二十五	五夜味	畚六斗地	二十一負七束
京字			
七	三夜味	畚二斗五刀地	七負一束
八	五夜味	畚五斗地	十九負
十	一夜味	畚一斗地	二負五束
面字			
十一	五夜味	畚五斗地	十四負一束內十負頃
渭字			
四十九	一夜味	畚二斗地	三負六束
五十	九夜味	畚五斗地	二十負四束
五十八	一夜味	畚五刀地	一負八束
五十九	五夜味	畚四斗地	十二負九束內十負頃
六十	二夜味	畚一斗五刀地	六負三束
六十二	三夜味	畚三斗地	九負一束
六十三	二夜味	畚三斗地	十負八束
六十四	五夜味	畚六斗地	二十二負內十負頃
六十五	五夜味	畚四斗地	十二負六束
據字			
十一	二夜味	畚二斗地	六負六束
十二	三夜味	畚三斗地	八負八束內四負頃
十三	三夜味	畚一斗地	二負三束
三十一	五夜味	畚三斗地	七負九束內三負頃
涇字			
六	三夜味	畚六斗地	十九負七束內五負頃
守字 西上面昌順員			
二	二夜味	畚四斗地	十一負三束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交字 石寺員

一百一 二夜味 畓五斗地 十九負二束

投字

七十六 九夜味 畓四斗地 十負五束

虧字 豆泥員

十七 八夜味 畓五斗地 二十三負五束內六負頃

二十二 二夜味 畓五斗地 二十四負二束內六負頃

三十六 七夜味 畓二斗地 十負三束

三十七 三夜味 畓一斗地 四負八束

四十四 十四夜味 畓五斗地 二十三負二束內七負頃

四十五 七夜味 畓五斗地 二十二負五束

四十六 四夜味 畓五斗地 二負一束

情字

十七 五夜味 畓二斗地 三負三束全頃

合畓壹百九十九斗五刀地

新畓秩 丙子三月 日新買

聽字 北面木坪員

二十二 二夜味 畓一斗九刀地 五負八束

二十七 一夜味 畓一刀地 五束

二十八 二夜味 畓二斗地 二負八束

因字

十一 一夜味 畓一斗地 二負五束

合五斗地元稅租六十斗 每兩頭六刀式

緣字

二十四 五夜味 畓六斗地 二十五負四束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元稅租六十斗

攝字

六十六 五夜味 畝二斗五刀地 八負三束

六十八 十夜味 畝一斗五刀地 五負二束

合四斗地元稅租四十斗

政字

一百三十八 一夜味 畝一斗地 一負八束

元稅租十斗

璧字 南村面生川員

七 四夜味 畝七斗五刀地 十四負四束

元稅租五十四斗

坐字 東上面票亦員

四十五 一夜味 畝六斗地 五負四束內一負頭

元稅租二十四斗

振字 東上面票亦員

九 十七夜味 畝二斗地 三負一束全頭

元稅租十二斗

十 七夜味 畝二斗地 四負六束

元稅租十二斗

世字 院旨員

二十八 一夜味 畝三斗地 九負

元稅租二十三斗四刀

侈字

四十 五夜味 畝十三斗地 三十九負一束

元稅租六十七斗八刀

涇字 馬守員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二十八 六夜味 畝六斗地 二十八負六束
元稅租七十二斗

殿字 萬德員

一百三 八夜味 畝四斗地 十負二束
元稅租四十斗

一百二十七 五夜味 畝二斗地 五負二束
元稅租二十斗

合畝五十七斗五刀地

合元稅租四百九十五斗五刀 近來隨年形收賭十
已上新舊合畝二百五十七斗地以

下畝六斗地	祭堂直
畝八斗地	東山直
畝十斗地	西山直
畝八斗五刀地	南山直
畝四斗地	北山直
畝十四斗地	禁松亭山直二名
畝三斗地	別座僧
畝四斗地	上羅山直
畝三斗地	下羅山直

合下畝六十斗五刀地舊畝中

實合畝一百九十六斗五刀地

新買田秩 丙子三月 日新買

高字 田浦員

十四 五等 田十斗地 三負一束
元稅牟六斗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陪字

三十七 三等 田十四斗地 十四負三束
元稅牟十二斗

三十二 三等 田十斗地 十二負
元稅牟十伍斗

輦字

八十八 三等 田十斗地 七負
元稅牟拾五斗

綺字 花寺員

十七 二等 田十五斗地 十四負五束內六負頃
元稅牟貳拾壹斗

回字

十二 五等 田八斗地 四負六束內三負六束頃
元稅牟貳拾斗

濟字

十二 三等 田二十五斗地 二十五負二束內十二負頃
元稅牟四拾貳斗

弱字

十六 三等 田四斗地 四負五束內三負五束頃
元稅牟六斗

夏字 花池員

四 三等 田五斗地 六負五束
元稅牟拾斗貳刀

渭字 栗長員

三十八 四等 田二斗地 三負六束全頃 四方松田 祭堂直例給
實合田壹百壹斗地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合元稅牟壹百四拾七斗貳刀

寺畝秩

富字 院旨員

四	三等一夜	畝六斗地	十八負六束
五	三等二夜	畝三斗地	十負一束
十	三等二夜	畝四斗地	十四負四束內四負頃

振字 田浦員

二十一	四等二夜	畝二斗地	二負八束
三十六	三等四夜	畝五斗地	十一負一束

邑字 花池員

四十	二等二夜	畝二斗地	五負三束
四十一	二等一夜	畝一斗地	二負四束
四十四	三等三夜	畝二斗地	六負三束

都字

三十七	四等三夜	畝二斗地	五負三束內三負三束頃
-----	------	------	------------

邨字 小釜員

三十	三等三夜	畝三斗地	九負八束
----	------	------	------

渭字 栗長員

三十七	四等十六夜	畝二斗地	三負三束全頃
三十九	四等十一夜	畝二斗地	五負六束全頃
四十一	四等五夜	畝一斗五刀地	四負全頃
四十二	四等九夜	畝三斗五刀地	八負八束全頃
四十六	三等十二夜	畝五斗地	十二負四束內十負頃
五十三	二等二夜	畝二斗地	五負四束
五十四	二等一夜	畝三斗地	九負八束
五十七	二等九夜	畝五斗地	二十負四束內二負九束頃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六十一 二等三夜 畚三斗地 十負五束

據字

一 三等五夜 畚一斗五刀地 四負七束

二 二等二夜 畚二斗五刀地 六負六束

二十九 三等二夜 畚三斗地 十負二束

五十六 二等四夜 畚四斗地 十五負三束內五負頃

涇字

一 二等二夜 畚 八束永陳

合畚六十八斗地以

下畚拾七斗地 負木僧例給

畚拾壹斗地 佛尊僧例給

合下畚貳拾八斗地

實合畚四拾斗地

合畚結八口五拾三負二束內

一口十三負七束頃

實結七口三十九負五束

合田結九十五負三束內

二十八負七束頃

實結六十六負六束

寺位

合畚結二口三負九束內

四十七負七束頃內八束永陳

實結一口五十六負二束

已上合田畚結十一口五十二負四束內

一結九拾負一束頃

實結九口六拾貳負三束

11. 신정양안(정인학 계장시, 1895)

使 押署
躡印

12. 송추 및 고층 적간기(정인학 계장시, 1895)

乙未五月 日華池山禁養松楸及所在古塚摘奸記

松楸秩

山所東便

中大松 二株

中松 一百三株

西便

大松 三株

中大松 四株

中松 八十五株

南便

大松 七株

中大松 一百十七株

中松 二百五十八株(以上齋閣直禁養)

北便

中松 一株

小中松 五株

齋舍後嶺

中大松 四株

小中松 四十九株

寺門外西嶺

中松 五株(以上齋僧禁護)

祭閣後

中松 十株

祭閣前

中松 五十五株(以上祭閣直禁護)

東山直禁護內

12. 송추 및 고층 적간기(정인학 계장시, 1895)

中松 一百十二株
西山直禁護內
中松 二十四株
南山直禁護內
大松 二株
中松 三十九株
北山直禁護內
中松 三株
禁松亭山直禁護內
中松 一百五十二株
小中松 一百二十三株
已上都合 一千一百六十三株內
大松 十二株
中大松 一百二十七株
中松 八百九十六株
小中松 一百二十八株
上羅山中松 二十二株
下羅山中穉松 不計幾百株

古塚秩
白虎嶺二塚 主金哥居本邑楊亭
又一塚 主文哥居本邑北面
西外嶺四塚 主萊機鄭派中
又二塚 主金哥居本邑沙上
外白虎嶺一塚 主朴哥居本邑美南
西山外嶺四塚 主李哥居本邑凡由

12. 송추 및 고총 적간기(정인학 계장시, 1895)

又二塚	主文哥居本邑沙上
又三塚	主金哥居釜山
又一塚	主鄭哥居本■■■
又二塚	主鄭哥居本邑凡由
又二塚	主鄭哥居本邑內
南山外燈二塚	主李哥居釜山
東山外燈一塚	鄭始牧母塚
又二塚	主孫哥居本邑內
靑龍外燈四塚	主宋哥居水營
又二塚	主孫哥居本邑內
又一塚	主萊機鄭派中
禁松亭三塚	主鄭哥居機張
又一塚	主鄭哥居本邑內
又一塚	主金哥居本邑內
已上都合四十一塚	
使	押署 躡印

補記 按以上松楸秩及古塚秩亦皆寅學氏宰東萊時調查者而其宗稷案序文中不爲舉語者抑右兩件調查在序文作成之後故歟覽者其勿以序文中不舉而致訝也 兩興書

13. 종계안(정기선, 1828)

{純祖二十八年戊子戶長公二十五世孫基善在慶尙監司時定此節目重修齋舍而此節目冊一件在於山下一件在於本孫家也此係東萊家錄之無記存故此得於其曾孫薰謨而贍之原本卽道印成帖}

新增 華池山 山所守護節目⁹⁾

華池山 山所守護凡節古者付之本府吏廳而伊時巡山日記及祭奠物種各樣文蹟尙此見存其恪勤奉行今猶可知夫何中年移屬於始族之居在境內者京師絕遠搢紳子孫旣不能種種省察歲月浸久冗禠苗裔一任其悠悠怠惰松楸則全局童濯射力則留貯匱竭守護享祀之節到底踈虞今於巡路歷省之時自不覺悚汗泚頹終不可仍循難慎任他置之故還復舊規以禁養典守等事全付吏廳而舉行諸條就遠節目中叅互時宜開列于左

戊子四月 日(開國四百三十七年 純祖二十八年)

一松楸禁養之節錢穀出納之事依古例付之吏廳四公兄同心協力恪勤舉行毋替前規期有來效爲齊

一四山直各定禁標使之逐日巡山而各其標內如有犯斫者該山直卽告吏廳輕則自吏廳懲治甚者告于官舍從重科治爲乎矣公兄與鄉有司每朔巡山摘奸時如有斫伐根株而不卽來告之該

9) ① 네모 칸의 글자는 《동래선산지실》의 청사진본 원문에는 수정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데 <1828종계안1>, <1828종계안2>, 《화산재지》에 의해 보충한 것임. ② 이중 밑줄 글자에 대해서는 번역문의 각주 참조.

13. 종계안(정기선, 1828)

山直自吏廳嚴治或汰去爲齊

一巡山形止四季朔四公兄馳告于京有司宅爲乎
矣如當宗中爲監司時則每朔末馳告于營門爲
齊

一歲入錢穀并付吏廳四節日祭需亦自吏廳依定
式器數進排享祀時宗人之來參者及遠地子孫
中經宿留連者供饋之資稅入租中分數劃給齋
僧使之需用而入下無或如前_前淆雜爲稱每歲末
錢穀用遺在下記修上于京有司宅而鄉有司着
署四公兄馳告爲齊

一宗稷員近年參入者數甚不少而所捧禮錢並歸
烏有_事當一一溯考而似涉煩瑣姑此安徐此後
段宗人之新入禮錢這這捧入於錢穀文書昭詳
懸錄無或遺漏之弊爲稱致簿等事亦依原節目
中定式施行爲齊

一宗稷設置之意本自鄭重而近來追入之人不無
冗雜之弊此後段必加慎重毋敢如前之地爲齊

一鄉有司段以墓下宗人中元鄉家子孫自京薦出
而無故則勿爲遞改爲齊

一祭閣直一名四山直四名羅_星山直二名合七名
案冊茲以改修正成帖以置日後若或有闕填代
則各其名下改付標爲齊

一契畝每秋_踏驗時公兄與鄉有司眼同看檢爲齊

一成出節目三件山直案三件一置吏廳一置齋舍

13. 종계안(정기선, 1828)

- 一置京宗中爲齊
- 一田案二件今茲改修正成帖一置吏廳一置京中
爲齊 舊田案置于齋舍
- 一未盡條件追後磨鍊爲齊

14. 4절일, 제수, 제기(정기선 계장시, 1828)

四節日 正朝 寒食 端午 秋夕

祭需 每節日

餅二器 米三斗豆一斗

麵二器 代錢二匁

餅菜二器 青泡代錢一匁

匙楪一坐

清二器 三合代錢三匁

飯二器 米三刀

羹二器 甘藷一條代錢二分

湯三器 鷄一首肉一斤
魚一尾 } 代錢六匁

炙一器 鷄一首肉四斤
魚二尾 } 代錢一兩

果四色 隨時用次代錢八匁

熟菜一器 代錢一匁

肉膾一器 肉二斤代錢三匁

醋醬一器 代錢三分

煎一器 魚肉鷄卵代錢一兩二匁

沉菜一器 代錢五分

脯一器 肉二斤半五條代錢三匁

食醢一器 代錢一匁

甘醬一器 代錢三分

佐飯一器 代錢一匁

切肉一器 明太十尾 大口二尾 廣魚一尾
文魚二條 全鮓三箇 } 代錢一兩

酒米三斗

麩子 代錢七匁

14. 4절일, 제수, 제기(정기선 계장시, 1828)

柴炭
油醬
眞末
鹽
各色具味

代錢三兩

已上

錢九兩九錢三分

米六斗三刀

豆一斗

山神祭需各種代錢三兩

米一斗五升

祭器秩

餅楪器二坐

糲器二坐

餅菜器二坐

匙楪一坐

清器二坐 新備

飯器二坐 具蓋

羹器二坐 具蓋新備

醬器一坐

匙二柄

盞二坐

箸二隅

新備

湯器三坐

炙器一坐

14. 4절일, 제수, 제기(정기선 계장시, 1828)

果器四坐
熟菜器一坐
膾器一坐
醋醬器一坐
煎器一坐
沉菜器一坐
脯器一坐
食醢器一坐
茶櫟二坐 新備
佐飯器一坐
切肉器一坐
香爐一坐
香盒一坐
燭臺一雙

15. 종계안(정기선, 1829) 추록

追錄

齋庵營建年紀久遠材瓦朽傷柱礎動頽半面已爲
傾覆僧徒殆無容接之道而守護從以踈虞諸宗之
齋悶已久而事巨力綿未能修改者亦有年矣去乙
酉咸興宗人鳩聚二百兩錢來致於數千里之外
山下宗人以此殖利欲待備足經始之地矣斂散之
際及多貽弊只捧本錢蕩蠲其殖添備三百兩且荷
本府城主金公鑾特助一百兩山下宗人成彥願納
一百兩合錢六百九十六兩六錢二分爲材瓦工役
之費使族裨玆往來經紀鄉有司有一色吏李重倓
始終幹役而公兄尹師嫻李思淳宋儒殷等亦皆盡
其誠力而主掌撤舊翺新凡四閱月而功告訖自製
重建記使玆書扁額 城主又書華之寺東華福地
等字及珠聯四句揭于內外門楣及柱面然後輪奐
一新焉茲錄其梗概以備後考營建時下記兩件成
帖一置吏廳一置京中

己丑六月 日

※ 밑줄 친 華之寺에 대해 원본 頭註에 “懸板本書卽花之寺”
라 하였다.

16. 재사중수기(정기선, 1829)

新增 齋舍重修記¹⁰⁾ 永護庵揭板文

華池山崛起渤海瀕尖秀若齒莖出水脩岡疊巘蕙
茝焉連嶂拱巒兒孫焉霞聳玉削傑然爲萊府之鎮
而小刹在山深處距數嶽崇四尺而封我
始祖戶長公衣履攸藏刹之剏爲守塋也我東之鄭
貫萊籍者疇非 公來若仍也而居塋下者勸禁護
之節造泡之需不于家而于香積其勢也然日月之
久風雨之所漂搖棟朽而欹桷歪而危砌倒豎瓦懸
注雁齒錯而魚鱗襍於是諸宗方謀完葺時宗人之
居關北者涉千里齋百錢請助其力宗中嘉其誠受
而藏之特其役鉅而力絀歷數年未就歲戊子余以
巡按之節享
始祖墓旣撤憩于寺序諸宗而議之進吏鄉之能幹
事者而主之經始於翌年正月月中旬粵二朔工告訖
以楹計者總一十規撫間架稍施損益敞豁則遜之
精緻則過之寮宇嶙峋軒楹齊整遂諏吉而落之雕
稅鏤栱合沓煜爚於松嵐翠密間緇徒瞻仰膜拜曰
茲刹之宜修而未修幾歲月矣天惠其便載完載美
諸宗又胥喜曰祭墓而不有齋舍如不祭吾儕經營
旣久輒因屈羸沮今揆日締架悉復旧規聚於斯齊
於斯若將吾之氣與 先祖優然相接豈非幸歟余
酌而言曰龍象眞詮云維大慈故媿普濟曰慈航證

10) 《동래선산기실》의 齋舍가 현판에는 齋寺로 되어 있다.

16. 재사중수기(정기선, 1829)

遍照曰慈燈視廣疇而共濡則曰慈雲曰慈水苟推其慈於衆之心而思所以仰事則孝不可勝用矣故弩目低眉金繩引路不過是恩重半偈解此則吾儒家追遠報本之義不待千念萬誦而一彈指頃驀然靈悟願勝侶弘宣方等恪守佳城蠲滌釜錡必誠必敬如吾躬將克紹勝因庸導冥福淨界長住法輪常圓又酌而言曰天地間未有有形而不歸於盡者況木以構質土以縫罅待人而遂其形者烏能無一毀而一成哉夫人之於祖先之業所宜顧諟勿替者有大焉者有重焉者孝謹不可墮也敦朴不可虧也詩禮不可不襲也拾是三者規規然惟室廬之肯焉則抑末也況於刹乎願諸宗勿以齋寺之重葺爲能盡堂構之責而蚤夜祇懼念念存無忝之心事事致如在之誠以是禊躬世世罔墜則安得不昌大乎遂書而揭諸楣以警法衆且爲吾宗萬子孫勗焉

己丑季春上澣觀察使基善記(二十五世孫)

17. 계판시(정업린, 1858)

日我東萊 始祖公平生恭儉儉深工雪消默佑仁
天澤巖雷感回造化功碑面四隈三拱白花心百日
二株紅羅星外案云何島絕影獻情緊補空
庵名永護有華山意在深長不在閑曾憶往三千恟
際尙書來幾百年間彫樑美矣開新跡金佛天然幻
古顏窺取其義文勢拙後人謂我浪吟還
黃枝嶝址問三尺小童知瘦竹叢巖裏流聞登口碑
崇禎紀元戊午孟夏全羅道金堤二十七世孫燁
璘謹稿

※ 밑줄 친 黃枝嶝에 대해 원본 頭註에 “黃枝嶝在東萊西面北栗¹¹⁾而戶長公旧基今稱蓮山洞”이라 하였다.

11) 北栗은 栗北의 오기인 것 같다. 선산기실의 丘墓 끝부분 新增에서 “戶長公住宅舊基 東萊郡西面栗北里(自墓所東距二里許現稱東萊西面蓮山里)”라 하였다.

18. 정복세 종인 성금 계각문(정내화, 1817)

○花樹亭所揭刻文

惟我齋宮卽爲守護 先營而設也先世諸宗廣置
田土宛構齋宮幾百年迄于茲矣年來後舍朽傷材
瓦剝落患迫傾頽諸宗會議經始改建而甲乙慘歎
之餘契無儲粟錢阻債路鳩財味方宗人福世輒出
百緡之銅倡始修改之役其餘不足物財除用契物
以完工役美哉斯人爲先之誠有足以觀感於來後
聊記顛末揭付齋壁云爾

歲丁丑孟冬宗稷首乃和謹誌(二十三世孫)

都監鄭乃和有司鄭萊柏別有司鄭福世

※ 밑줄 친 契는 현판에는 禊로 새겨져 있는데 契는 禊 또
는 稷로도 쓴다.

19. 계판시(정존일, 1855)

太古清風吹滿山千年景物一區閑雲生老柏蒼松
裏路入幽花細草間天勢圓如開鏡面峰形秀似對
仙顏庵僧禮佛時鳴磬驚起林禽任往還
積善行仁戶長公佳城全局自天工千年邱木森羅
地百世雲仍闕閱功衆水來朝江海碧羣峰環拱日
輪紅肅然起敬傳來說尙記雷巖指彼空

乙卯孟夏下澣二十四世孫存一{乃和之子}

20. 계판시 및 소서(정영조, 1904)

小序

茲州卽我氏族之鄉茲山亦我 先墓所在也余以
遐土孱孫猥蒙誤恩來莅茲州得拜 墓所感格之
至山輕海淺榮奠之日退而登斯亭亭是經火而重
新矣問諸宗族則曰壬寅冬日人鑿破中峰對案山
䟽溝治道于斯時也山君夜吼于 墓側花樹亭亦
失火怪且疑懼京鄉諸宗并力禁止彼人亦自負土
石而填完可見陟降之 靈警戒遠近而昔年卜吉
定兆之日有雪消虎踞之異載在家乘今日之亭火
虎吼亦豈非千載不異之驗乎其他事實前序備矣
不必疊床而四山花樹舊■維新略叙見聞如右且
附一律于左右云爾

名山 先墓萬千年拱揖孫峯采袖連芳麓孤庵禪
卓錫華池古洞陸生蓮竹符南國來何後梅閣北軒
宛侍前長記春秋花樹在小亭風月定無邊

光武八年甲辰仲春知州泳朝謹稿

嶠南勝地如將譜鄭氏名阡最可書{聞傳記入}

水營水使朴鼎和{戊寅年間}

21. 종계안後書(정우범, 1903)

新增 書東萊華池山宗稷案後

凡孝者百行之源衆美之所由起也是以子孫之於祖先生則致其養祭則致其敬有美則必述有德則必彰是孝之終也故曾子曰慎終追遠民德歸厚矣其可不慎且敬耶 始祖戶長公衣冠之藏在東萊華池山而我鄭之千百其派累公累卿趾美不絕以逮于今者咸本於此也在昔 肅宗癸未后孫東平尉諱載崙埋誌 肅宗辛巳后孫密陽府使是先氏改豎立短碣略記其陰又八十九年壬子后孫本府伯彥燮氏與宗長密陽宰赫先氏各割其捧增置祭田伐石豎碣自爲文以刻之又與山下諸宗設稷立憲以爲收宗族護邱墓之圖其尊祖敬宗之誠吁其盛矣未幾族祖東溪公諱來周瓜代是府之任而榻其碑文又爲識而贊之今 上乙未后孫寅學氏又宰是府乃與宗族復修舊稷遂爲文而序之其規例也凡祭田之錯湮者籍舊按而整正之邱木之多小及人塚之省發載新簿而別錄之於是乎享祀之儀禁護之道靡不畢舉焉嗚呼此誠仁人孝子之用心也追遠而不忘本紹先烈而有光者也伏惟我 王父篤於慕先老而不襄凡祖先遺光潛德之鬱而不彰文章著述之湮而未傳必博採收輯爲傳遠開后之計乃致書故栗山尙書借與宗文允容氏所輯東萊家錄而旣傳錄之又借是案于寅學氏傳贍一本

21. 종계안後書(정우범, 1903)

遂以是訓示諸小孫輩而提耳以孝悌敦睦之方甚勤且切不肖雖無狀及讀是案未嘗不三復恍若與
■萊諸宗合席講稷孝睦之心油然而生是知孝爲百行之源而民德之歸厚也惟我同宗君子之觀是帖者果能飭行于躬述先之美而敦宗之義相與勉之則非特爲吾宗之幸其有補於世教豈淺淺也哉小子既有感於 王父之慕先而重有愧於寅學氏之紹先謹摭數語以足之亦東溪叅判公作識之遺意也光武七年癸卯正月三日戶長公二十八代孫雨範謹書

22. 중태봉 훼손 관련 건(정은조 외, 1901)

恐敢伏以民等始祖山千年世守而案山中羅峰一面今因鐵道派門鑿破是乎所工役自十月二十日至今月十四日因鐵道院訓飭及株式會社主務人竹內綱電報現今停役是乎乃此峯本是石山與株式會社員圖形相考是乎則工事既成處七十五坪也工事未成處二百二十五坪也此半成處則自該社補築植木云云是乎乃當其半工役時所取難運石數千塊與既成處七十五坪石價依照鐵道工式即爲出給之地千萬伏祝

辛丑十二月十七日化民前特進官鄭闇朝

前議官 鄭耆朝

幼學 鄭元朝 幼學 鄭彙朝

鄭寅祐 鄭時權 鄭在旭 彥陽

鄭斗煥 梁山 鄭載赫 鄭仁杓 機張

城主 閣下

題教 已開鑿七十五坪地段價從當有政府處分半開役處二百二十五坪自該社補土植木約定則石材價難以舉論向事 二十二日

23. 하태봉 자성대 인허가 관련 건(1906)

光武十年十月六日金建培元世燁度支部請願
題 該鎮後子城臺는李弘植許에業已認許인
즉其外官舍與同基址만認許이되此地段은係
是公有之墟인즉其起墾建屋을隨호야相當호
稅金을調定收入이긋고若或認許日로부터一
個年以內에着手치못호는時又는外國人에私
賣或讓與호는境遇에는本認許는無效事

韓府尹報內部抄本 金建培等이以此認許狀
을日人田中常次郎과同事호다該鎮에來到호
야認許를受한公廳基址外에混城內를廣占호
라호며城外幾里를亦是認許內라稱하고標石
을立置함으로城內外鎮■■■■■■■■■■
야作호禁止호야此를因호야尙今一定歸決이
無호나本府尹到任後로度支部認可本狀에依
호야公廳基址만金建培等所有호公廳基址外
는雖一寸土라도官有民有를勿論호고金建培
에認許가안인줄노辦論決定호은事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請願書

住南署會賢坊鄭基旭等

本人等始祖墳墓가在於東萊華池山而有三峰羅列於前 ㄱ야如池字形故로名曰華池山也라年前鐵道敷設時에有毀鑿中峯之事 ㄱ야本人等이呈訴鐵道院 ㄱ니其時摠裁沈相薰이交涉日人에發訓該郡 ㄱ야自該會社로停其毀鑿 ㄱ고至有補土植木 ㄱ야以完其峯矣라釜山鎭衙後峯子城臺는亦其三峯之一也■디此峯在於海濱 ㄱ야潮水出入에恒有脫落之患故로以石環築이過於數仞 ㄱ야守護迥別而其後潮退成陸後에釜衙를自甌山移建於峯底이오나此峯之依舊爲鄭山은衆所共知矣라昨夏忽聞金建培爲名人이請願本府 ㄱ야認許釜山鎭舊衙基址이다가因釜山民呈訴 ㄱ야拔標木安帖云故로本人等이幸其不煩歸正 ㄱ야不爲舉呈이옵더니今又聞自本官으로因本部訓令 ㄱ야調查釜基之官有民有 ㄱ야方與居民相持而日人은此峯이亦入於買得中이라 ㄱ고將欲毀破墳海云 ㄱ니此峯이本非官有요確是民有는不待調查而明辦이어늘今焉或稱認許 ㄱ고或稱買得者가是豈成說이오며取閱金建培認許題旨則該鎭後子城臺는李弘植許에業已認許云 ㄱ니尤不勝訝惑萬萬이라本人等이自聞此報로罔知依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措^호야茲以齊聲仰籲^호오니調査하신後嚴訓該
府에卽爲釐正^호시와俾此先塋守護之地로依前
保護之地伏望

隆熙二年二月 日

前郡守鄭基旭	從二品鄭寅奭	正三品鄭寅旭
正二品鄭完默	從三品鄭翰謨	郡 守鄭肯朝
正三品鄭基鳳	郡 守鄭元謨	典 祀鄭丙朝
從一品鄭漢朝	郡 守鄭薰謨	從二品鄭寅昇
正三品鄭選朝	正三品鄭承謨	副贊議鄭恒議
前宣傳鄭圭善	主 事鄭允謨	郡 守鄭翰朝
主 事鄭燮朝	郡 守鄭瓚朝	主 事鄭寅煥
從二品鄭寅學	正三品鄭寅星	局 長鄭鎮弘
從二品鄭寅興	正三品鄭龜朝	幼 學鄭寅祐
主 事鄭寅昉	直 閣鄭萬朝	九 品鄭相朝
正三品鄭寅琥	前 令鄭彥朝	正三品鄭賢朝
前正言鄭玄謨	前議官鄭耆朝	前注書鄭寅五
從二品鄭恒朝	前叅尉鄭雨興	前郡守鄭寅獻
正三品鄭寅杓	正三品鄭肅朝	叅書官鄭寅韶
幼 學鄭佐朝	正三品鄭寅羲	

度支部大臣高永喜 閣下

度支令二〇二号

指令鄭基旭等

24.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08) 및 탁지부 지령

再昨年예李弘植請願을據호야子城臺에家
屋建築을認許호얏스나該地를一年內에趁
未着手호거나外國人에게賣渡호면無效之
意로指辦矣라今過三年에不爲建築호니該
許는自歸勿施니不必舉□事

隆熙二年三月三日

度支部 印

隆熙二年六月二十九日 起案謄本

大臣 山林局長 林務課長

次官 技師

25. 자성대 사유삼림 신고 건(농상공부 산림국, 1908)

私有森林届出에 件

京城南部好賢坊會洞

鄭選朝外四名

右는 鈴木事務官復命의 次第도有 ㅎ나尙其疑点
에對 ㅎ야는 更히 証憑書類를 提供케 ㅎ야 審査中
에 鄭氏가 本局에 出頭 ㅎ야 縷述 ㅎ마 逸逸同事務
官에게 此를 聽取 ㅎ 즉 本件 届出 ㅎ 森林은 實地及
書類에 徵 ㅎ야 私有森林이라云 ㅎ 온지라 右 認証
은 失當치안이 ㅎ을 信 ㅎ으로 于 茲關係書類를
添屬 ㅎ와 瀏覽 ㅎ심을 供 ㅎ

本年四月十四日에 森林法第十九條에 依 ㅎ야 地
籍報告書을 提出 ㅎ마 該報告書中에 慶尙南道東
萊府釜山面西部洞下台峰子城臺森面面積七千
四百三十三坪에對 ㅎ 証據가 不分明 ㅎ니 此에 關
ㅎ 一切의 憑據書類를 提出 ㅎ기 爲 ㅎ야 茲에 通知
ㅎ는 事

隆熙二年五月二十一日

農商工部山林局

鄭基旭等 座下

26. 화지산 및 삼태봉 소유자 확인 보고서(1910)

報告

本面所在東萊鄭氏始祖墓華池山及外案山上台
峯과中台峯과下台峯子城臺이京南部會賢坊八
十八統三戶鄭寅學의所有가的確無疑호옵기茲
에報告호오니 查照証明호심을伏望
隆熙四年二月十七日

西下面面長孫文植

蓮池洞洞長朴汶勳

凡田洞洞長李泰基

楊亭洞洞長金在昊

釜山面凡一洞洞長崔君漢

東川洞洞長金宅河

27. 자성대 산림 설명서(정인학 외, 1910)

山林說明書

民等始祖墓가在於府下華池山而案山三台峯이
 羅列於前호야下台子城臺가近於海濱에每患脫
 落故로民等先祖陽坡公이爲嶺伯時에環峯石築
 호야別般守護矣러니二百年前에釜山鎭衙를移
 建於此峰下호니鄭家之千年所有는自如이온바
 千萬意外에李弘植爲名者가此峰을誤認以官有
 地호고暗得認許於度支部云故로民等이申請於
 度支部호야質問其所以然則回指內에子城臺는
 業已認許於李弘植이건과于今三個年에尙未建
 屋호니該認許는自歸勿施니不必煩訴云云이옵
 고且測量圖形호고本府尹與該面洞長調查報告
 粘連호야地籍報告于農商工部後에自該府로派
 官更查호야已經處辦歸決이옵기証明繕給호시
 기爲호야前後證據書類를左開添付申請함

隆熙四年八月三日 鄭寅學 鄭允謨 鄭寅祐

鄭寅錫 鄭相朝 鄭昌禧

東萊府尹金彰漢 座下

左開

度支部請願指令一度

本府尹與面洞長調查報告謄本各一度

農商工部處辦謄本一度

28.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10)

請願書

東萊鄭氏始祖墓가在於慶尙南道東萊府華池山이온바其山の形體가如也字形호고案山上台峯中台峯下台峯子城臺合三峯이羅列於前而爲三點樣호야如池字形故로名曰華池山이라鄭家后孫繁衍호야此山守護가今爲千有餘年은卽一國의所共知也오至於子城臺호야는本人等先祖陽坡公이慮其峯之脫落호야以石環築함은非徒昭在家錄이라故老之口傳이膾炙이온바二百年前에釜山鎮官廳을移建於此峯下호고環鎮築城호야此峯이雖在■■■■■■■■鄭家之所有自如이거늘年前廢鎮後에李弘植爲名人이誤認以官有地호고建屋植木호意로得認許於度支部云故로本人等이請願于該府호야俾卽取消矣러니指令內에李弘植의게子城臺認許는今歸無效호니勿煩이라호고測量後地籍報告于農商工部즉自該部로派官調查호야確認以鄭家所有호고處辦歸決後에添付書類는還出給호指令이有호고日後에慮或有此等侵害호야立鄭氏所有票石於地界호고又爲請願於本府호야親行調查後에府尹與該面面一洞長이認証호意로各其調印호證書가有호야府下人民으로洞知케함은今爲四個年이라依證明法호야又欲出所有權證明호야申

28.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10)

請於本府矣러니府尹言內에雖知鄭家所有나子城臺에對호야日本人志邨太郎에異議가有호니待其志邨之書類提出호야調査後에告示証明爲言이나申請日于今爲四個月에屢度催促호되尙無自白호니其袒護志邨호야延拖時日에以觀動靜이明若觀火오以志邨事로言之라도東萊府主事三吉赫言內에志邨이今作京行而有書曰書類가在京城第호니當持來提出云矣러니又無消息故로悶其遲緩호야本人等이數次委往志邨家호야質問其有何書類則答이吾則買得子城臺於田中常次郎호고田中常次郎은買得於李弘植云故로本人等이不滿一笑호야更言曰所謂李弘植은是虛名而一自李弘植認許勿施後에田中이亦四年無言矣니何時賣君이며若然則何不提出於東萊府호고但沮戲吾家事乎君之所謂可據文蹟을卽爲示我호라志邨이初言書類가在於釜山理事廳云矣라가更言曰在於東京云호고不欲聞本人等說明호니其自知理屈이나嘗試生臆이洞然無疑오設或有李弘植認許狀이라도自度支部勿施之認許가有何效力乎아不足是非에仍爲歸來나証明出未이杳無期恨호니豈不悶迫乎잇가現今閣下가朝鮮人民財產保護의擔任호신諭示가不啻申復이거늘地方官은罔念人民財產關係之累

28. 자성대 회복 청원서(정기옥 외, 1910)

重^호고如是漫漶^함이不勝憤盍^호와茲以請願^호
오니 照亮^호신後訓飭于東萊府尹^호야志邨의
書類를定日督納調査後에卽出証明케^호심믈伏
望^함

明治四十參年九月 日{陰曆庚戌八月日}

住南部會賢坊會洞

鄭基旭	鄭選朝	鄭恒朝	鄭漢朝	鄭闇朝
鄭彰旭	鄭萬朝	鄭彥朝	鄭丙朝	鄭泳朝
鄭圭旭	鄭協朝	鄭相朝	鄭寅壽	鄭寅學
鄭寅爽	鄭寅興	鄭寅昇	鄭寅煥	鄭寅旭
鄭寅昉	鄭寅佑	鄭寅書	鄭寅祐	鄭翰謨
鄭翼謨	鄭允謨	鄭利謨	鄭贊謨	鄭雨興
鄭永謨	鄭雨範	鄭彥謨	鄭恒謨	鄭鎮弘
鄭鎮九	鄭鎮世			

統監子爵寺內正毅 閣下

再

証據書類는東萊府廳에在^호기로不得添付^함

29. 자성대 소유에 관한 年高노인 확인서(1910)

東萊郡西下面蓮池洞鄭寅祐

鄭元朝

鄭相朝

事實은本面東川洞釜山員所在子城臺는九百五十年來로本人等の始祖墓華池山에附屬된外案山三台峯中一이라于今相傳이온바本月二十日府尹께서該地에親審調査時面洞長은知己本人等の所有로實報이오나自古相傳이莫先於年老人에說明이온故로茲敢仰陳호오니各位照亮後에本人等の所有로確知確聞호신位디로捺印証憑호심을望함

明治四十■年十一月二十二日

釜山面年高老人 僉座前

認証捺印如左

東川洞丁文有年七十二 ①

朴根實 八十 ①

丁禹益 六十五 ①

白文星 六十一 ①

韓尙瑞 六十四 ①

姜弼老 六十 ①

白南弼 五十八 ①

朴周瑞 六十七 ①

29. 자성대 소유에 관한 年高노인 확인서(1910)

- 金千潤 六十一 ⑩
凡一洞崔致教年六十三 ⑩
金英五 六十 ⑩
李龍八 六十八 ⑩
李和春 六十六 ⑩
金士重 七十三 ⑩
凡二洞徐宇鎮年六十六 ⑩
沈璘澤 七十三 ⑩
朴茂英 六十四 ⑩
金正弼 五十九 ⑩
水晶洞白銀瑞年六十五 ⑩
田光燁 六十九 ⑩
金聖濟 六十三 ⑩
朴相夏 六十 ⑩
宋益明 六十二 ⑩
佐川洞金龍瑞年七十三 ⑩
王極淳 五十六 ⑩
辛泰彥 六十八 ⑩
李昇雨 六十三 ⑩
張德瑞 五十七 ⑩

附 庚申四月七日鄉監督相朝入于釜山府閱覽帳簿子城垣之所有權紛爭
其於總督府林野調查委員會裁決全歸以吾宗中所有也

帳簿中 所在地 地目 面積 如左
釜山府凡一洞五百九十番地 山野四千六百三十二坪
調定申告名義人 鄭基旭外二十八人

30. 화지산 山板(1911)

山板

揭示

一.土地ノ表示

左記ノ通

釜山府西下面蓮池洞票長員渭字

松山面積貳拾八萬六千壹百六十五坪五合

四標

東.鄭寅學畚文赫山金重浩畚鄭寅學畚崔敬文
畚金在吳畑道路李千如宅地鄭寅學畚盧芸壽
畚金吉衡畚秋種燁畚金在文畚鄭寅學畚李光
昱畚道路鄭寅學畚崔敬文宅地

西.道路鄭寅學畑李鍾晚山鄭寅圭畚張文守山
辛萬根山張文守田鄭寅祐田禹錫元宅地張文
守山鄭寅禧山崔時鳴畚

南.荒蕪地國有地李日天山金德宗山金芸植畑
溝渠朴宗俊畚鄭寅學畚鄭寅學畚鄭寅祐田鄭
寅學宅地

北.道路朴鉉弼畚孫圭秀畚文進哲畚李枝泰田
金在吳畚李鍾晚山李瑞基山鄭寅灑山俞道先
畚

中央.溪谷金尙俊畚道路鄭寅學畚

二.申請者ノ住所氏名

忠北忠州郡所呑面新村 鄭基旭

30. 화지산 山板(1911)

忠北鎭川郡草坪面琴閒里	鄭閔朝
京城南部會洞九十一統一戶	鄭選朝
京城中部內相洞三統二戶	鄭萬朝
京城東部旌門洞十九統一戶	鄭恒朝
京城南部倉洞二十一統四戶	鄭彥朝
京畿道安城郡西里	鄭耆朝
京城北部司醞洞四十統五戶	鄭丙朝
京城北部典洞四十七統三戶	鄭泳朝
京城南部會洞八十八統九戶	鄭協朝
京城北部典洞四十七統三戶	鄭寅壽
京城北部官洞七十一統八戶	鄭寅奭
京城北部樓洞五十二統二戶	鄭寅興
京城南部棗洞	鄭基旭
京城中部內相洞三統二戶	鄭寅書
忠北鎭川郡草坪面琴閒里	鄭寅普
京城北部樓洞五十二統三戶	鄭雨興
京城西部鎭洞百九十三統三戶	鄭鎭弘
京城北部八角亭百九十三統十三戶	鄭在弼
釜山府東上面盤如洞三統九戶	鄭相朝
釜山府西下面蓮池洞三統六戶	鄭寅祐
京城南部會洞八十八統三戶	

代表人 鄭寅學

三.申請ノ年月日

30. 화지산 山板(1911)

明治四十四年十月二十八日

四.申請者ハ該土地ノ所有者タルコトツ主張ス
ルニ依リ申請タル者ハ連ニ申告スヘ^レ

明治四十四年十月二十八日

釜山府

補記 右揭示文其於證明申請自府依當時規則六十日
公告于公衆所視處者而滿期後該公告板中本件
自齋舍收拾其廢棄而保管故庚申正朝行時記取
也

上台峯中台峯下台峯並依此例公告衣下台(子城
坵)則曾有日本人志村太郎之異議證明不得成立
矣既有基旭外三十六人之連名請願于朝鮮總督
寺內正毅明治四十五年 (月壬子六月晦日)雨興
允謨鎮弘以宗中代表往于當地交涉于釜山府尹
若松兔三郎提示東萊家錄中子城臺確實爲吾鄭
所有之證據事實也(伊時東萊郡廢而爲釜山府置府尹)

子城臺雖不得成立證明於伊時矣其後必乃以吾
鄭所有歸正也

(陰曆壬子)
華池山及上台中台證明申請大正元年八月二十
日依新頒規則書式再書提出矣自釜山府廳只依
隆熙四年提出地籍屆記載名義人證明處理云故
前記基旭外三十六人連名中但選朝萬朝寅學寅

30. 화지산 山板(1911)

興寅昇五人爲證明名義者(新頒規則即明治四十五年四月以後施行所有權保存證明規則也明治四十五年八月一日即大正元年也)

31. 위토신고 연명인(1911)

位土에對호土地申告連名人(明治四十四年頃(陰曆辛亥)土地查定키爲호야申告를受한者)

以下京宗中 鄭寅學{相續子翰謨}

鄭基旭{相續子璉朝}

鄭選朝{相續子寅九}

鄭闇朝

鄭萬朝

鄭丙朝

鄭彥朝{相續子寅庚}

鄭寅爽{相續子元謨}

鄭雨興

鄭泳朝{大正十年一月 日所有權拋棄書成立호고其外諸氏가共有者名義一名削除申請提出但東萊郡西面田圃里所在四五番畝一千五百三十八坪에對하야}

鄭寅昇

鄭允謨

鄭雨範

鄭鎮弘

以下鄉宗中 鄭寅祐

鄭相朝

鄭佑朝

鄭始奎{贊朝}

鄭基弼

鄭在福

鄭寅中

32. 화지산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

釜山府西下面蓮池洞栗長員

渭字

西下面證明第三五号壹番

一.松山(甲)十九萬一千〇七十二坪(元三十四万三千四百九坪內)

甲四標 東申請人畚 南道路溪谷 中央金尙俊
西道路 北朴鉉鼎畚 及申請人畚

全府 全面 全洞 栗長員

渭字

西下面證明第三六号壹番

一.松山(乙)九萬五千〇九十三坪五合(三十四万三千四百九坪內)

乙四標 東盧芸壽畚 南荒蕪地
西金芸植田 北道路溪谷

價格金五千七百二十三圓三十一錢

登錄稅金十七圓十七錢

當事者表示

京城西府太坪洞七十統二戶

所有者 鄭選朝

京城西部月宮洞三十六統五戶

全 鄭萬朝

京城南部會洞八十八統三戶

全 鄭寅學

京城西部倉洞六統二戶

全 鄭寅興

京城西部長興洞三十七統七戶

全 鄭寅昇

大正元年八月二十日

32. 화지산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右代理人兼申請人 鄭寅學

釜山府 大正元年八月二十日
廳受附 第 壹 參 七 号

証明濟

釜山府廳

圖本記載 東萊鄭氏始祖墓山西下面蓮池洞華池山

33. 삼태봉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

釜山府西下面釜田洞花寺員

匡字 西下面證明第三号壹番

一.松山壹萬三千二百四十三坪五合

四標 東金學秀田 南道路
西尹斗瞻田 北梁燦駟田

土地價格金六百五十七圓十七錢五厘

登錄稅 壹圓九十八錢

當事者表示

京城西部太坪洞七十統二戶

所有者 鄭選朝

京城西部月宮洞三十六統五戶

全 鄭萬朝

京城南部會洞八十八統三戶

全 鄭寅學

京城西部倉洞六統二戶

全 鄭寅興

京城西部長興洞三十七統三戶

全 鄭寅昇

大正元年八月二十日

右代理人兼申請人 鄭寅學

釜山府 大正元年八月二十日
廳受附 第百十五号

證明濟

釜山府廳

圖本記載 東萊鄭氏始祖墓山西下面蓮池洞華池山附屬三台峯

34. 중태봉 토지소유권보존증명신청(1912)

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

釜山府西下面釜田洞花寺員(元釜山面凡一洞)

匡字

西下面證明第三四号 壹番

一.松山六千五百九十五坪三合五勺

四標 東路 南李性守堡
西大川 北金重浩畚

土地價格金六百五十九圓五十四錢

登錄稅 壹圓九十八錢

當事者表示

京城西部太坪洞七十統二戶

所有者 鄭選朝

京城西部月宮洞三十六統五戶

全 鄭萬朝

京城南部會洞八十八統三戶

全 鄭寅學

京城西府倉洞六統二戶

全 鄭寅興

京城西部長興洞三十七統七戶

全 鄭寅昇

大正元年八月二十日

右代理人兼申請人 鄭寅學

釜山府 大正元年八月二十日
廳受附 第百十六号

證明濟

釜山府廳

圖本記載 東萊鄭氏始祖墓山西下面蓮池洞華池山附屬中台峯

35. 하태봉(자성대)

下台(子城臺)

釜山府釜山面釜田洞東川洞釜山員

尹字

一.松山五千三百二十九坪一合八勺

四標	東金敬伯田	南道路
	西黃斗玉宅地	北朴春瑞宅地

土地價格金貳千六百六十四圓五十九錢

戊午正月四日圭煥以華池山鑛變防禦事再次往山下伊時鎮弘適以其所幹水產組合事下來而自府尹若松對鎮弘請以子城臺爲公園鎮弘以地係大姓公有不可擅行之意爲答也

子城臺元有從前所種之樹木而地沿大道兼以市路故旣種者不能長長者亦枯損更無補植者矣圭煥戊午春往當地時同山下諸族百餘人植松五千本美柳三千本而松五百本則釜山富民洞寅潤宗之所寄附其他則自苗圃買入者也以植松保護事願于該地警署又付託于該地里長及市場管理人庚申正月雨興以東萊先山京監督往參節享後巡山至于此則右所植木稍有成蹟之希望也

36. 자성대 개간 관련(1913)

釜山府釜山面東川洞子城臺各人起墾田調查
而起墾費出給每年收賭爲定{大正二年癸丑}

金六圓 白文星

金四圓 申齋俊

金三十圓 金尙善

金一圓 崔明瑞

金二圓 金奉三

金一圓二十錢 姜文烈

金貳圓 金章翰

金貳圓 張先伊

金五十錢 安順明

金壹圓貳拾錢 朴春華

金五十錢 朴全羅

金二圓 金松岡

計五十二圓四十錢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土地查定簿謄本(大正四年九月十五日)

土地所有者

京城南部會洞鄭寅學外二十八人

土地所在區域

東萊郡西 面田浦里釜田里凡田里蓮池里草

邑里釜岩里楊亭里大淵里

全 郡東萊面巨提里盤如里余古里石垈里回

東里

全 郡左耳面萬德里

全 郡北 面釜谷里久瑞里

合一百九十一筆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面名	里名	地番号	假地番	地目	面積	課稅價格
西面	田浦	一九	八〇一	畓	六一三	一五三、二五
"	"	三七	七六六	"	七七八	一五五、六〇
"	"	四五	七三〇	"	一,五八三	三四八、二六
"	"	二二一	四二六	"	六七	二三、四五
"	"	二二二	四二三	田	三九四	七八、八〇
"	"	四六五	一五三	畓	四〇三	
"	"	四七五	二一一	林	四〇九	
"	"	四七三	二一〇	田	四三五	三二、六二
"	"	四七六	二一二	"	二八八	二一、六〇
"	"	四七七	二一三	林	二九九	
"	"	五〇一	一四八	畓	三八一	
"	"	五四一	二三八	田	四六四	七八、八八
"	"	五五七	三五三	"	六〇〇	一〇二、〇〇
"	"	五九二	三八一	"	三〇〇	五一〇、〇〇
"	"	六七二	三六九	畓	一,七一〇	五一三、〇〇
"	釜田	一八	四一二	"	三八九	一〇五、〇三
"	"	一二六	二三二	田	一,一五一	二七六、二四
"	"	一二八	二二七	"	二八九	五七、八〇
"	"	二八九	三四二	"	五六八	七九、五二
"	"	三一六	二一〇	"	六八九	一三七、八〇
"	"	三八八	一五一	"	三九	六、六三
"	"	三八九	一三五	林	一一,一七五	※上台峰
"	"	四一一	一二三	畓	六六六	一三三、二〇
"	"	四七五	六七	"	一二八	三二、〇〇
"	"	四七六	六八	林	三,四二七	※中台峰
"	"	四七七	四一	岱	一六	四、〇〇
"	"	五一五	六一一	"	二〇六	五一、五〇
"	"	五一六	六一二	"	三六九	九二、二五
"	凡田	五〇	二八八	畓	一,五五九	五一四、四七
"	"	五五	三一〇	"	一,〇一三	三〇三、九〇
"	"	六〇	三三〇	"	八三三	二二四、九一
"	"	七五	三二四	"	二三四	五八、五〇
"	"	七六	一九九	"	一三九	三四、七五
"	"	七八	一九七	"	七五	二〇、二五
"	"	一〇〇	一九三	"	四六四	一三九、二〇
"	"	一〇七	一六三	"	一四一	四九、四五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西面	凡田	二〇五	二四七	〃	六九一	一五二、〇二
〃	〃	三四六	八六	〃	七九六	二六二、六八
〃	蓮池	五三	三二一	田	三九一	三九、一〇
〃	〃	五六	三一八	岱	二二八	二七、三六
〃	〃	六二	二三三	畚	四九五	一〇八、九〇
〃	〃	六七	二三九	〃	二九八	六五、五六
〃	〃	七〇	二四九	〃	六四八	一六二、〇〇
〃	〃	七七	二一八	〃	一三〇二	三五五、五四
〃	〃	七七-二			六七	
〃	〃	七九	二四六	〃	三七一	九二、七五
〃	〃	九六	二一六	〃	一〇〇二	二七〇、五四
〃	〃	九八	二〇三	〃	七四二	二〇〇、三四
〃	〃	三五三	三二	〃	六〇七	一五一、七五
〃	〃	三五八	四五	〃	三三三	六六、六〇
〃	草邑	一六三	六五	〃	五六〇	一五一、二〇
〃	〃	一七〇	七六	〃	四一九	一一三、一三
〃	〃	五四〇	四五八	〃	四二〇	一二六、〇〇
〃	〃	五四一	四五七	〃	四三七	一四四、二一
〃	〃	五九二	三四八	〃	六五七	二一六、八一
〃	〃	六〇六	三四一	〃	五八三	二〇四、〇五
〃	釜岩	一二三	九四	田	四〇八	九七、九二
〃	楊亭	二七〇	七三	畚	七三六	一二五、一二
〃	〃	二八七-一	一	田	三四	二、五五
〃	〃	二九〇	四	林	八四	
〃	〃	二八七-三		田	四六	三、四五
〃	〃	二九七-二	七	畚	四八三	九六、六〇
〃	〃	三〇五	二六	〃	一六八	二八、五六
〃	〃	三一二	八三	〃	五六七	一一三、四〇
〃	〃	三七六	九二	〃	一,二六八	三一七、〇〇
〃	〃	四三八-二	四六七	田	五三	八四
〃	〃	四四七	三七	畚	八一七	一六三、四〇
〃	〃	四五四	五	〃	四七一	九四、二〇
〃	〃	四五八	四五-二	林	一一四	
〃	〃	四五九	四五-一	畚	四,八九七	九七九、四〇
〃	〃	四五九-二			一,〇六八	
〃	〃	四六〇	五七	〃	九三七	二〇六、一四
〃	〃	四六〇-二			二一三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西面	楊亭	四六二	五九	林	四〇〇	
"	"	四六二-二			一八〇	
"	"	四六五	四九	畚	九〇八	一九九、七六
"	"	四六六	五三	田	二四六	二四、六〇
"	"	四六七	五四	岱	一七一	二〇、五二
"	"	四六八	五二	畚	三八二	四六、九四
"	"	四六九	五一	岱	六八三	八一、九六
"	"	四七一	六四	畚	八一二	一六二、四〇
"	"	四七三	五〇	"	四二七	八五、四〇
"	"	四七六	六一	"	七五二	一五〇、四〇
"	"	四七八	五五	"	一九八	四三、五六
"	"	二八六一	一四	田	四五	三、三七
東萊面	巨提	五九三	一二〇	畚	二二八	
"	"	六一三	一六二	"	二四	
"	"	六八四	五一	田	七三	
"	"	六九一	三一	畚	八八六	
"	"	六九三-三	二九	"	七五五	
"	"	七六〇	二五	"	二,二七〇	
"	"	七六三	四八	"	六三〇	
"	"	一,二二〇	七二六	"	四六〇	
"	"	一,三五二	八四三	"	七四〇	
"	"	八九	一五三	田	三〇〇	
"	"	二三〇	一五六	畚	三〇五	
"	"	四八九	四五七	"	三二〇	
"	"	五四六	五〇七	"	三八〇	
"	"	五五六	四四七	"	九〇八	
"	"	二八〇	五六六	"	八一	
"	石埕	五九	五〇六	"	一九二	
"	"	六一	五〇八	"	三九三	
"	"	八四	五三五	"	二九九	
"	回東	三一〇	一五八	"	七五七	
左耳面	萬德	一三四	一四〇	"	六〇二	
"	"	一六七	一二八	"	六六四	
北面	釜谷	五一	三七	"	一九三	四二、四六
"	"	八九	一九六	"	三一四	四七、一〇
"	"	九五	一九二	"	三九八	三九、八〇
"	久瑞	七六	八一	"	一,二二八	二七、一六

37. 토지사정부 등본(1915)

北面	久瑞	五八六	一四〇	畓	一二〇	四二、〇〇
"	"	七七一	四三七	"	一,一二一	一六八、一五
西面	大淵	五三九	二一四	畓墳墓地	八一四	
西面	大淵	五四〇	二一三	畓	三五一	
"	"	一,〇二六	五八八	"	一,一一五	三〇一、〇五
"	"	一,〇三五	六三三	"	一五	四、五〇

<원본 頭註 및 脚註>

※배경 분홍색 : 上台峯(西面釜田三八九林), 中台峯(西面釜田四七六林)

※배경 황갈색 : 紛爭地 第二七一号

※배경 연록색 : 楊亭二八七田大正五年度以新作路中過餘分爲三片一一-二-三

38. 자성대부속 田垈地 신고(정기옥 외 28인)

忠北陰城郡枝內面大寺洞鄭基旭外二十八人名義申告

釜山府 子城垈附屬垈田地	地番号	地 目	面 積	課 稅 價 額
	三三三	垈	〇五二	六二、四〇
	三二四	〃	〇五四	四〇、八〇
	三六	田	〇五六	三三、六〇
	五九一	垈	〇五九	七〇、八〇
	五九二	田 現垈	〇八五	五一、〇〇
	五九三	田	一五五	九三、〇〇
	五九六	〃 現垈	〇七三	一八、二五
	五九九	垈	〇三六	二五、二〇
	五九	林	四,六三二	

39. 신고서별지첨부 연명서(1917)

大正六年十一月(丁巳十月)因山野申告令華池山
二區及上台峰中台峰查定申告提出時連名書申
告書以別紙添付也

申告書別紙添付連名書

住	所	資格	氏名
京畿道京城府旭町一丁目四十番地		地主	鄭寅學
京畿道京城府積善洞八十參番地		地主	鄭萬朝
京畿道京城府黃金町一丁目四十五番地		地主	鄭寅興
忠清北道沃川郡青山面白雲里三十八番地		地主	鄭寅昇
京畿道京城府社稷洞二百六十三番地		地主	鄭圭煥
京畿道水原郡半月面速達里		地主	鄭世鎭
京畿道振威郡玄德面黃山里六十六番地		地主	鄭雨興
慶尙南道東萊郡西面蓮池里十六番地		地主	鄭寅祐
慶尙南道東萊郡東萊面盤如里一二三番地		地主	鄭相朝
京畿道京城府安國洞七十四番地		地主	鄭憲永
慶尙南道東萊郡東萊面回東里一一三番地		地主	鄭佑朝
慶尙南道東萊郡北面久瑞里六一七番地		地主	鄭寬朝
慶尙南道東萊郡北面久瑞里六七九番地		地主	鄭寅駿
忠清北道沃川郡東二面赤下里一八二番地		地主	鄭鎭國

40. 광폐(1917) 관련

鑛弊

拜啓時下秋陽之際에 令體候健康 ㅎ심을祈하오
就事意無他오라 貴門所有에 係호는 西面華池山에
鑛物發見之致로 今春提願이러니 被蒙許可 ㅎ야
不遠間採掘次로 目下準備中인故로 不得已該山
主와 相議를 要키爲 ㅎ야 茲에 專人仰告 ㅎ오니 下
諒 ㅎ신後勿惜苦勞 ㅎ시고 至急枉駕 ㅎ셔 從便完
議 ㅎ와 鑛業上無碍之地 伏望耳餘敬具

大正六年十月二十六日

朴泳吉

鄭寅祐

座下

今二十二日下書同二十四日上午八点依到伏承
而至吾何生而當此難當之事 ㅎ야는 生等亦然爾
라 尤極悚悶이로소이다 前以書告于京宗中之意
로爲言于朴泳吉則想必彼輩가 鑿破할器械를 先
備 ㅎ야以俟我通知後에 卽爲入來 ㅎ터인즉事在
不疑요亦在不遠 ㅎ니自京宗中卽速大會收議 ㅎ
야指某日咸會于山下之意通知于八道 ㅎ야以爲
齊會處決若何若何且俄者日人一名이 潛行於焉
內疑点處故使山直輩로 執以招來則以四十四萬
八千餘坪山圖로 出示而其圖本下에 代表人은 朴
泳吉이라 ㅎ고且買得이라 ㅎ야其筆談 ㅎ事가有

40. 광폐(1917) 관련

호기左記上送호오나此人은必是局外人耳以此
諒燭之至餘伏祝氣體候一向萬安續后不備白
陰九月二十六日上午 寅祐相朝白

京城府旭町一丁目四十番地 鄭判書宅入納 封皮
東萊郡華■■■鄭相朝上書

筆談君之來此何事[問]此鑛山爲買約實地檢見次
來[答]朴泳吉言內其承認鑛主馬山柳町居磯
田清造云云則何其鑛主之多[問]草梁李圭和
及朴氏對我賣買假契約中[答]何月承認乎[問]
昨今交涉本日歸宅本契約締結依而此墓山
持主之山分割賣買在必要京城何處居住乎
而后總督府鑛務課出願使用許可得護急採
鑛[答]此山非一人所管我鄭散在京鄉各地千
萬人計則不可以一二人爲談辦契約第待通
知于各處共合一席後相議甚好至若賣買我
鄭誓死萬無賣渡之理矣何以處意耶[問]右言
不知法律之言也依法律買得遂行[答]

日人即{測量兼剝製師}田中喜策{居釜山府幸町二丁目二十番
地一一二}

40. 광폐(1917) 관련

敬告{自京任員發文于山在附近地宗中件}

東萊郡西面華池山이惟我鄭 始祖戶長公塋域
됨은一般으로知悉하시는바어이와此山全局에
對하야馬山柳町二十一番地磯田清助와釜山府
草梁二百九十四番地代表者朴泳吉이種類金銀
銅으로鑛業許可를得하야方欲採掘이온바以若
千年守護之地로遭此不意之變하니爲我同後裔
者孰不血憤骨恨哉아既至此境하야는專以齊力
禁採로限死不已라야先塋保有를可得萬一之道
요不然이면爲我鄭姓者之痛冤羞辱이豈望全生
이리요鄙等이在於句管及鄉有司之責하야先此
通知于京宗中矣러니圭煥雨興兩氏가爲先以代
表下來하야對磯田及朴而先經交涉하고與山下
諸宗으로協力相持이옵고諸處門中에自京城宗
約로作例通知이오나山在近邑은時急共知할바
이온故로茲에專告하오니伏願 僉宗位는輪覽
轉及하심을 望함

但其採掘을着手하는時는又當急告이오나距
離에關하遲滯가生할가預念함

丁巳十月初二日 東萊郡西面華山齋

東萊鄭氏始祖山鄉有司相朝

句 管寅祐

京宗中代理人雨興

40. 광폐(1917) 관련

丁巳十月初一日圭煥雨興對礮田淸助朴泳吉

兩人談辦概要(右兩人來着山下齋室)

礮田淸助曰貴山坂에 金鑛認許를 得호는 거슨 未安호는 나 何人이 何處를 勿論호고 鑛物의 發現만 隨호야 採掘認許를 圖호는 것은 勿論인 즉 此를 勿嫌호고 採鑛에 對호야 山主와 鑛主間 相當호는 契約을 締結호는 ㅎ음 ○圭煥雨興答曰 此山坂에 關호야는 重大호는 点이 吾等 始祖墳墓가 在호야 千年間 守護禁養호야 來호는 바이오 隨호야 山坂이 其後 孫된 京鄉 十萬子孫의 共同所有요 個人의 單獨所有가 아닌 즉 宗中 幾個人의 權利行使를 不得이다 ○礮田曰 鑛의 規例도 다아시 난바이 것거 單은 鑛主되야 서는 許可를 得호고 鑛稅를 納호는 바이 即 採掘 開始를 아니 치 못하고 私意로 兩方의 契約을 不得호면 不可 不官廳에 依賴호고 鑛業은 即히 開始호는 것노라 ○圭煥曰 吾等이 鑛業의 規例도 不知호는 바이 아니나 吾等 幾個人이 設令 契約을 成호고 採鑛을 許호는 디도 效力이 生치 아니호고 又는 此 幾個人은 衆族의 打擊으로 生命은 得全 치 못호는 거시다 ○礮田曰 然호면 旣以 多子孫 先山의 所重으로 互相爭詰이 疊出호야 서는 大事의 妨害가 不少호여 我도 此等의 苦念으로 鑛業을 停止라호면 損害가 不少호는 니 蔽一言호고 此鑛權을 貴宗中으로 부셔 買收

40. 광폐(1917) 관련

호는거시何如○雨興曰鑛權을賣買라호면君은
幾何金額이나要호것는나○磯田曰如斯호事機
로買收호는境遇에我도多大호利慾을置키不能
호고但這間實入호損害費用이나推尋호라호니
三千圓만即히支拂호면賣渡호것고鄭氏가京鄉
十萬人數라호니每人三錢式이면容易할줄로思
호노라○雨興曰此는尤極不行호者이다近來他
姓에도衆子孫墓山에鑛業關係가有호면如斯히
買收호는事가有호단說을聞호얏스나此買收가
廢鑛키爲흙인즉今에廢鑛이다가有他陰慾者호
야更爲出願得許호면吾鄭이又買치아니치못호
境遇이니然則此地는畢竟各挾雜輩의奇貨物되
고我鄭의財産은濫敗無餘될거시니此無制限호
事가아니가○磯田曰我等과鄭氏間打協做去호
方針은全無호貌樣인즉彼此爭詰이有호거라도
官廳에依賴호고採掘進行호는것만我的事實이
로다○圭煥雨興曰君의事는然호다호것스나我
鄭의事實을聞호라我等도大恐念中에在호거슨
京鄉各處所居諸族이次第裏糧來到호다는通知
가陸續來到이고年六十以上老人等이決死隊를
組織호야採掘之場에는抵死防止호다호다

40. 광폐(1917) 관련

發文 (東萊鄭氏宗約所長 鄭萬朝)
(東萊先山京有司 鄭寅興)

東萊郡華池山惟我 始祖戶長公墓山全部에對
하야釜山府草梁居朴泳吉과馬山府柳町居磯田
清助兩人이金銀銅鑛業許可를得하야即欲採掘
하니以若干餘年守護하는 始祖墓山에遭此無
前之變하니豈不痛恨哉아自京宗中으로特派圭
煥雨興兩族하야與山下諸宗으로協力相持中인
故로事係重大에不可泯默하야爲先通告하오며
若鑛業에着手하時는又當期日急通矣리니 照
諒後에屆期來會于華池山齋舍하야限死齊力禁
止하야得保先壠이爲可함으로茲先通告함

大正六年十一月二十五日

41. 화지산 성소기(정우범, 1918)

華池山省掃記

惟我 始祖戶長公之葬在於華池山已千餘年子孫寔繁且榮用力於守護者指不勝屈而畧舉其最著者墓碣之豎齋舍之建厥惟久矣而 仁祖壬午翼憲公太和以嶺伯增修齋舍募置僧徒 肅宗癸未東平尉載崙埋誌肅宗辛巳密陽府使是先改豎墓碣 肅宗庚子本府伯亨益立望柱石 景宗甲辰知事載岳掌令行五清道郡守河瑞與我六世祖叅判公彥儒發文鳩財重修齋舍之回祿者 英宗壬子本府伯彥燮增置祭田別立墓碑於墓之南十餘步叅判來周瓜代是府搨其碑文作識以贊之距今二十四年乙未前都憲寅學以本府伯釐正祭田修舉祭儀今在京有司亦有年辛丑叅判閻朝以鐵道之逼山局往質而有功壬子本府尹誤以子城臺認國有判事從兄雨興與主事允謨局長鎮弘往談辦於府尹而歸正丁巳冬聞有鑛慮從兄與叅尉圭煥往有所交涉於鑛業者戊午春圭煥又爲鑛慮之預防而赴與山下諸宗協心於禁護者多至若補墓莎洗碑莓增置墓前之路尤其可稱不肖嘗於萊塋事因 王考晴石公所輯文字而得其槩又因從兄及諸宗之來往而聞其詳且或於宗會嘗叅於萊塋議事之未然尙未及一省爲恨幸於今夏自日本歸路瞻掃封塋與鄉有司相朝及寅祐一宿於花樹亭

41. 화지산 성소기(정우범, 1918)

亭卽齋舍之一名爲供諸宗會合之所故名有其以
相朝寅祐俱有功於先山多事之日娓娓道經歷令
人興感況邱木老大可拱可抱者落落然四圍尤不
覺一倍敬止噫 戶長公積德攸暨 衣冠之藏爲
東方名墓之一子孫之繁爲一國氏族之甲宜其有
塋域之完美如是而若非京鄉諸宗之齊力禁養亦
安能至此偉歟盛哉瞻掃之際不勝一氣流通之感
謹記如右

戊午六月 日二十八世孫雨範謹記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先塋所係建物 庚申正朝現在

齋舍(永護庵) 盖瓦 {純祖戊子五月基善氏在道伯時重建
距今九十三年}

原體四間兼前後退

花樹亭四間兼前退 {辛巳因火災重建
距今四十年}

佛殿(大雄殿)三間兼前退

山靈閣一間

爐殿三間兼前退

中門一間

春舍二間

庫舍二間

沐浴湯兼小中門二間

大門一間

厠一間

祭堂 盖瓦 {旧甲申建築相朝高祖師玄鄉有司時,乙亥又重修
良淳鄉有司時,己未又翻瓦相朝鄉有司時}

原體五間兼前後退 大廳三間前退左右溫突
各一間半

西傍室三間 (祭堂直居住)

大門一間

厠間一間

東山直家 草盖 三間 {在楊亭里附屬下馬亭里}

西山直家 草盖 四間 {在蓮池里 庚申春重建}

北山直家 草盖 二間 {在草邑里 戊午冬新建}

42. 선영소계건물(1920년 正朝 현재) 및 현판

新增 永護庵 大門懸板

東華福地(橫書){己丑暮春東萊府使金鏞之書
而無記名}

原體正門懸板

華池山永護庵(橫書){己丑暮春二十五世孫 玆}
(距今九十二年)

邊軒懸板

花之寺(橫書){同時金鏞所書而無記名}

永護庵內花樹亭

退軒外懸板

花樹亭(橫書草字){歲癸卯五月日句管二十七世孫
寅祐有司二十六代孫元朝改名
寬朝弄毫二十五世孫垠鎬}

房正門上懸板

花樹亭(橫書楷字){知郡泳朝}

祭堂 大廳懸板

追遠堂(橫書){癸卯五月日垠鎬書}

43. 재사 기명

新增 齋舍所置器Ⅲ 別座僧保管隨差任傳掌

- 鍤香爐一坐
- 鍤香盒一坐
- 鍤燭臺一雙
- 鍤方飯器一坐
- 鍤圓飯器一坐
- 鍤生湯器二坐
- 鍤麵器二坐
- 鍤退酒器一坐
- 鍤菜器二坐
- 鍤造泡器二坐
- 鍤食鹽器一坐
- 鍤匙楪器一坐
- 鍤圓器二坐
- 鍤方器四坐
- 鍤蓋二坐
- 鍤醬鍾子一坐
- 鍤蜜鍾子二坐
- 鍤沉菜鍾子一坐
- 鍤果器七坐
- 鍤匙二個
- 鍤箸二個
- 已上祭器

43. 재사 기명

山神祭樽及白壺各一坐

鍤大樸一件

大酒樽三介

煎鐵一介

告祀白壺一坐

鍤盆一坐

鍤常周鉢一百介 旧三十八介
新六十二介 己未冬買

鍤匙一百介 旧三十介
新七十介 己未冬買

食盤一百坐 旧三十坐
新七十坐 己未春買

別盤三坐

小方盤五十坐

砂鍾鉢一百介

砂鍾子一百介

砂樸子一百介

鑄釜二坐

食鼎二坐

小鼎一坐

醬甕三坐

盆二坐

醬甕盖一立

太菜盆一坐

沙我白二坐

木兒盤十五立

43. 재사 기명

荷水桶二坐

水桶一坐

新斗一介

新升一介

木杵二介

竹雍是一介 聳水

木函只一坐

木櫃四坐

草席四立

鐵爐三坐

鐵杵一介

木唾器六介

44. 제당 기명

新增 祭堂所置器皿 堂直保管隨差任傳掌

祝板一坐

食鼎一坐

鐺釜一坐

煎鐵爐一坐

煎鐵盖一坐

布遮日一件

食刀二個

甌一坐

磨石一立

山神祭床一坐

竹簣二坐

車子一機 祭物運上

木兒盤五十三立

拜席一立

草長席五立 墓庭用

搗口一個

刀板一個

澆桶一坐

牛白是一個

45. 제수 관련

祭堂直擔任進拜祭需

餅	都炙	截肉	煎肉	熟肉
脯	鱠	塩	醢	大魚
五湯	魚 _三 肉 _三	魚煎		

別座僧擔任進拜祭需

羹	飯	麵	餅清	佐飯
造泡	醋	菜	清醬	沉菜
造果	藥果	棗	栗	柿
梨	時果	祭酒	香燭	

祭需增減例

每年四節享^{正朝寒食}_{端午秋夕}餅奠則但寒食秋夕兩節有之凡需亦有■豐設

45. 제수 관련

祭需陳設圖

考位				妣位				
餅清	麵	飯 <small>圓器</small>	羹	匙 楪	飯 <small>方器</small>	羹	麵	餅清
佐飯	脯	鱠	煎肉	都炙	熟肉	塩	醢	佐飯
造泡	菜	醋	大魚	截魚 <small>北魚 青魚 大口魚 乾魚 文魚</small>	魚煎	菜	造泡	
藥果	清醬	湯	湯	湯	湯	沉菜	造果	
燭	大棗	生栗	乾柿	盞	盞	時果	燭	

46. 축문식, 흘기

新增 祝文式

山神

維歲次庚申正月戊申朔日幼學鄭寬朝敢昭告于
土地之神伏以前行陸軍憲兵叅尉兼軍法會議判
事鄭雨興恭修歲事于二十八代祖考安逸戶長府
君之墓惟時保佑實賴 神休敢以酒饌敬伸奠獻
尚 饗

墓所

維歲次庚申正月戊申朔日二十八代孫前行陸軍
憲兵叅尉兼軍法會議判事雨興敢昭告于
顯二十八代祖考安逸戶長府君之墓氣序流易歲
律既更瞻掃封塋不勝感慕謹以清酌脯醢祇薦歲
事尚 饗

笏記 笏記元來無之庚申正朝京祭官雨興與鄉理事相朝
及山下諸族協議取諸鄉校所用笏記規例新爲摩練
實行

讀唱句節

獻官執事及叅祭員廟庭序立○執事者詣墓位前
○陳設○謁者引初獻官詣墓位前○覘視陳設○
引降復位○獻官以下皆再拜○謁者引初獻官詣
盥洗位○盥漱洗手○引詣香案前○跪○三上香
○執事者酌酒以爵授獻官獻官執爵注茅莎○以
爵授執事○執事者受奠于墓位前○獻官俯伏○
興再拜○引降復位

46. 축문식, 흘기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詣墓位前○北向跪○執事者酌酒
○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執事○執事者受爵奠
于墓位前○祝東向跪○在位者皆俯伏○讀祝文
○俯伏○興○獻官再拜○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盥漱洗手○引詣墓位
前○北向跪○執事者酌酒○以爵授獻官獻官執
爵授執事○執事者受爵奠于墓位前○俯伏○興
再拜○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盥漱洗手○引詣墓位
前○北向跪○執事者酌酒○以爵授獻官獻官執
爵授執事○執事者受爵奠于墓位前○俯伏○興
再拜○引降復位

行添爵禮

謁者引初獻官詣墓位前○北向跪○執事者酌酒
○以爵授獻官獻官執爵授執事○執事者添酒于
盤盞○俯伏○興再拜○引降復位○執事者啓飯
盖正匙箸○獻官以下皆俯伏○進茶○肅竢小頃
○執事者詣墓位前○闔飯盖落匙箸○謁者引初
獻官詣墓位前○西向跪○行飲福○引降復位○
獻官及諸執事皆再拜○禮畢

47. 묘하사환임명(1920)

新增 墓下使喚任名 庚申正朝現在姓名

齋舍 佛尊僧一人 宋大蓮

別座僧一人 金仁五

廚監僧一人 李命守

負木僧一人 鄭贊朝

中央山直 { 山監僧一人 朴炳英
山直僧一人 金典旭

祭堂直 一人 趙相弼

東山直 一人 全甲祚

西山直 一人 鄭相龍

南山直 一人 崔文俊 在馬飛峴 居自己家屋

北山直 一人 李今玉

上台峰山直 } 并 一人
中台峰山直 }

下台峰_{子城臺}山直 一人

48. 예하 및 요로(1920년 현황)

新增 位土秋收穀中每年例下 庚申正朝現況

租十五斗 寒食秋夕節享餅米

租三十五斗

租二十斗 鄉監督(來十五斗而自丁巳加二十斗今爲四年)

租十五斗 鄉甸管

租十五斗 別座僧

租十五斗 負木

租九石一百八十斗 齋庵房中一年費用(佛殿供享米,死亡僧侶忌日祭需,客僧接待,節歲經過排用)

合租十三石十五斗

牟一石

48. 예하 및 요로(1920년 현황)

位土中料勞畝秩 庚申正朝現況

畝八斗落	鄉監督
畝六斗落	祭堂直
畝十斗落	佛尊
畝五斗落	別座
畝九斗落	廚監
畝十五斗落	負木
畝七斗落	內山直
畝七斗落	內山監
畝七斗落	東山直
畝十斗落	西山直
畝六斗落	北山直
田八斗落	
畝六斗落	內案山直
畝二斗五升落	馬峴山直
畝四斗落	上台峰山直
畝三斗落	中台峰山直 {家屋建築}
畝三斗落	下台峰 _{子城臺} 山直
	八
合畝	一百一斗五升落
	田八斗落

49. 음복례 외

新增 飲福例

值雨天祭堂行祀以外依例自墓飲福各其單床進排酒則雖知飲者一杯以外不得疊飲爲規也

祭官會集例數

正朝端午盖百人以上會集寒食秋夕盖二百人以上會集也

墓庭守嚴

雖當然言論之事實其所是非不平之談行於齋舍墓庭參上之際斷不可行如或有之即使退庭也

接待例

享事前日來留或當日早朝來到祭官及常時省墓次來往子孫食事鄉任員差下于僧徒進供也

50. 위토전답 두락수 중간변경 내력 및 이정표

位土田畝斗落數中間變更來歷及釐正表

畝二十一斗落 自前所在
 畝三十八斗五升落 六邑守令割買置
 畝二十八斗落 曾往壬子癸丑間宗稷金中買置
 畝一百十二斗落 } 右兩項餘財及自癸丑至乙未一
 畝六十八斗落 } 百餘年間秋收穀貯蓄買置
 畝五十七斗落 丙子枯松伐木賣金買置

合畝三百二十五斗落

右畝內

七升落 庚戌年輕便鐵途編入 頭泥員
 二斗落 戊午年新作路編入 全
 一斗落 庚戌年輕便鐵途編入 栗長員
 二斗落 己未年覆沙 栗長員
 一斗五升落 戊申年水道編入 福崇員
 五斗落 壬子年子城臺紛爭事費用 田浦員
 六斗落 庚戌年田浦二十斗落花池二斗
 落小釜三斗落合二十五斗落放
 賣十九斗落移買又田十二斗落
 買收時差減者
 五升落 大釜二斗五升落以二斗落釐正者
 十一斗落 窯業會社賣渡 田浦員
 一斗落 己未覆沙 栗長員

合三十一斗落除

以上舊畝實二百九十三斗八升落

新畝二十一斗五升落內

50. 위토전답 두락수 중간변경 내력 및 이정표

十七斗五升落 庚申四月移買

一斗五升落 禁松亭新墾

五升落 禁松亭及下馬亭新墾

一斗落 祭堂前新墾

一斗落 中台峯邊新墾

舊新畝畝合計三百十五斗三升落也

舊田一百一斗落內

三斗落 釜田成川

五斗落 花池員田甲辰移買次賣下

合八斗落除

以上舊田實九十三斗落

新田三十一斗落內

十二斗落 庚申畝二十五斗落放賣畝十
九斗落買收時同買

九斗落 甲辰花池員田五斗落放賣移買時
增加

五斗落 田浦二斗落下馬亭二斗落上台峯
一斗落新墾

五斗落 下台峯林中二斗三斗二區新墾

舊新田合計一百二十四斗落也

辛酉八月二十日 有連署捺印簿

釐正人 京監督 鄭雨興

鄉監督 鄭亨朝

句 管 鄭寬朝

鄉幹事 鄭珍謨

50. 위토전답 두락수 중간변경 내력 및 이정표

全 鄭光洙
前任鄉監督 鄭相朝
全 句 管 鄭寅祐

51. 화지산 상비문부 신마련건(1921)

大正十年辛酉八月華山常備文簿新磨鍊件

- 一 山坂及位土帳簿
- 二 山坂及位土圖面簿
- 三 祭器及其他備品簿
- 四 各年度秋收簿
- 五 收入簿
- 六 支出簿
- 七 京鄉任員名簿
- 八 非常事件簿
- 九 叅祭錄 首書自乙卯正朝
- 十 京鄉宗族着發簿
- 十一 往復書類綴 來信原本去信副本
- 十二 鄉宗會錄

右京監督兩興以秋夕享祀時祭官下往時與鄉任
員諸氏相議作置

52. 종계안(정우홍, 1921)

華山齋宗禋案序¹²⁾

夫人於追遠報本之道無所不用極而究其大者則有二焉其一曰誠其二曰財苟無其誠則雖有巨財不能盡其道苟無其財則雖有天誠亦無以達其誠也然而每以一人之力聚巨大之財則憂憂乎其難故爲先保宗之家必有宗禋宗禋者所以同衆力鳩衆財譬如土壤之小而成泰山之大合川流之細而就河海之深也然其鳩財之道亦不以其誠則非徒有初之難終歸於爲子孫者藉先肥己之資宗禋之設亦難乎難哉惟茲華山卽 先祖安逸戶長公衣冠之藏而千有餘年之間香火不絕子孫烜赫守護之道備矣距今百八十九年前壬子彥燮氏以萊伯設宗禋於山下未幾來周氏代莅是府叅修是禋當時禋憲斑斑可考山下諸宗能踵而修之又距今二十七年前乙未萊伯寅學氏繼設花樹禋前後百有餘年之間用禋金之所殖者增置祭田補用經費者實多嗚呼竊觀人家之宗禋少則幾十年多不過一二世而未有如我 先祖山下是禋之永遠先輩諸公之功於斯爲大然而世代漸遠事久懈弛亦理所難免挽近以來宗禋之名義歸於俱泯不肖常往來山下未嘗不以是慨恨于中己未歲猥被京監督之任庚申正朝叅節享忽忽而返辛酉秋夕又叅節

12) 契는 稷, 禋로도 쓰는데 모두 같은 뜻이다. ※ 밑줄 친 글자는 화수정/화산재 소장 성책본 《동래정씨화산재종계안(1921)》과 대조하여 추가한 것이다.

52. 종계안(정우홍, 1921)

享既飲福訖仍執諸宗之手而告之曰嗚呼以彥雙氏設禋時代論之子孫之曰公曰卿布滿朝廷且爲本道方伯守令者前後相望其於守護之節雖無是禋宜若可以無憾而猶尙有是禋之設以爲收宗族護邱墓之圖竟賴是禋者亦云不少況今世閱滄桑之變人有新亭之感子孫之榮顯不可與前日同論且此

先塋處於雄府巨港之間節享之外往往有不虞之事動生巨費則非有特別貯蓄難以維持而祭田秋獲每有不足於山下經用之慮則不可徒賴於此然則特別貯蓄之道莫如宗禋之修舉而不必新設仍舊案而擴之則不亦事半而功倍乎諸宗國曰諾又申之曰既詢謀僉同則修禋之舉宜亟不宜緩乃於即日修禋案鳩禋金參考舊憲另成新規以請諸宗之潤色禋案既成又執諸宗之手而托之曰是禋之案雖有京鄉共參而京既距遠協助之道必後於山下諸宗至於始終此禋永久玉成則實山下諸宗之責也倍相勉勵無至有初無終之弊又無招藉先肥己之責則

戶長公之靈必垂默佑餘蔭立至而禋案中先輩諸公亦將含笑於冥冥之中矣豈不盛哉遂書所感於卷首亦以自警云爾

辛酉八月下澣

52. 종계안(정우홍, 1921)

戶長公二十八世孫雨興 謹書

華山齋宗禊規則

- 一本禊稱以華山齋宗禊事
- 二本禊事務所定於東萊郡西面楊亭里華池山東萊鄭氏安逸戶長公墓所之齋室華山齋內事
- 三本禊目的定以貯蓄殖利折其剩餘補用於安逸戶長公山所事及戶長公子孫共通事業而但位田收穫不足之外勿許事
- 四本禊員勿論京鄉凡爲戶長公子孫者一併許入事
- 五禊員出資金稱以禮錢而禮錢以貳圓爲定禮錢外入禊金二十錢爲定事
但禮錢及入禊金一時納入事
- 六禊員中有其先世之舊案參錄者則稱以繼入禊員無其先世之舊案參錄而新入者稱以追入禊員事
- 七繼入禊員之禮錢定以壹圓以示特異事
- 八本禊任員如左定置事
禊長一人副禊長一人掌財書記各一人相談役若干人
- 九任員選任及改選隨宗議協定事
- 十禊長統轄禊務且監督部下任員之勤情事

52. 종계안(정우홍, 1921)

- 十一副禋長補佐禋長若禋長有故則代辦事
- 十二掌財承禋長之命總攬禋務每年度金錢收支文簿及禋員進退狀況一一報告于禋長事
- 十三書記承掌財之指揮從事於文簿作成書類保管事
- 十四相談役承禋長及掌財之招集協議禋務以相談役之過半數議決事但其議決案要相談役之連署若無連署則無效事
- 十五若係重要事件難待禋長及掌財之招集則相談役互相招集以其所議決案得追認於禋長及掌財无妨事
- 十六相談役兼監查之權掌財之報告禋長文簿亦要其連署事
- 十七任員一切無料而但隨禋況及事煩程度以宗議定其手當事
- 十八禮錢作禋中之資本金入禋金充用於禋中經費事
- 十九掌財隨禮錢之入即爲預置於最近之銀行或郵局受其通帳保管而限二百圓常時預置二百圓超過之額則放債殖利事
但其殖利方法每隨其貸借時掌財與相談役協議後必以完全之策施行事
- 二十禋中文簿如左定置事

52. 종계안(정우홍, 1921)

- 一 華山齋宗禊案 舊禊案座目及節目合附
作成者
- 一 華山齋宗禊資金案 禊員禮錢及入禊金
記入者
- 一 收入支出簿
- 一 禮錢領領收證印刷件
- 二十一 宗禊資金案收入金額欄下則必捺掌財之實印
事若無此實印則不以收入認定事
- 二十二 禮錢納入之禊員必求領收證於掌財以爲保管
而日後參考上無此領收證則不以納入認定事
- 二十三 禊員若先着名於宗禊案而不即納入禮錢徒煩
手數者別有罰金事
- 二十四 本禊中文簿許一般禊員閱覽事但求閱覽者有
惡意則勿許事
- 二十五 本禊公會每年一次式爲定而掌財預定其期日
報告禊長得其承認後招集事若掌財懈不趨行
則禊長直行事
- 二十六 每年公會時掌財及書記提出一般文簿及書類
朗讀通過要公會之承認事
書記必詳錄公會之顛末要出席員之捺印以爲
備考事
- 二十七 位田收穫供用有餘則必附加於本禊以爲殖利
而該附加之額作別欄於宗禊資金案而鄉監督

52. 종계안(정우흥, 1921)

及掌財連署事

二十八 禊員罰則如左定行事

一 禮錢及入禊金指定期間內趨不奉行者則禮錢及入禊金外罰金五十錢徵收事

一 無視禊則恣行已愆犯用禊金者徵其倍額事

一 紊亂宗規軋轢族誼者加責戒若加責戒而不從者宗禊案除名但除名之時不許禮錢返付事

二十九 舊禊案節目中不適時宜者依本則及宗議廢止事

三十 未盡條項隨宗議臨時增刪事

三十一 本規則自辛酉八月二十二日施行事

鄭雨興

寅祐

相朝

佑朝

寬朝

亨朝

寅錫

寅駿

光洙

溼謨

珍謨

52. 종계안(정우흥, 1921)

同時以雨興爲禊長以寅祐爲副禊長以相朝爲掌
財其次書記及相談役若干人薦定而禊節目及禊
員座目並爲磨鍊集金從而始作也

53. 신매답 등기(1924)

新買畝 大正十三年登記(甲子)

盤如里	一三〇番	畝五百九十坪	舊四斗落
四東里	二番	畝四百十五坪	舊二斗落
四東里	四番	畝四百坪	舊二斗落
石垵里	二九番	畝六百二坪	舊三斗落
石垵里	六五番	畝三百七十五坪	舊二斗落
盤如里	五八二番	畝八十四坪	舊五斗落
盤如里	六〇八番	畝二百九十六坪	舊二斗落
盤如里	六八二番	畝二百〇九坪	舊一斗落
盤如里	一一〇七番	畝一百七十六坪	舊一斗落
合畝十七斗五升落			

右窯業會社所賣代土

盤如里	一一七九番	畝四百七十二坪	舊三斗落
-----	-------	---------	------

右商業學校所賣代土

右買受登記者名義

- 鄭萬朝 京城府
- 鄭憲永 京城府
- 鄭雨興 振威郡
- 鄭相朝 東萊郡
- 鄭寅祐 東萊郡
- 鄭佑朝 東萊郡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華池山先塋中年沿革記

崇禎甲申後五十八年壬子冬至日二十二代孫彥變爲本府使時與山下諸宗修楔墓下增置祭田治石而豎神道碑其時上有司則師玄監役震僑其後己丑四月日二十五代孫基善爲本府觀察使時重修齋室花之寺永護庵其時有司則有一其後丁丑齋室北廊重修其時都監則乃和有司萊栢別有司福世同福世誠錢一百兩自納補費其後甲戌三月日祭閣年久朽傷故山下諸宗收議論告京宗中自枯松中發賣資之而依舊重修其時鄉有司則良淳都監則始昊以所餘錢位畚五十七斗五升地田百一斗地買置其後辛卯年齋室北廊又復重修都監則始昊有司義奎其後辛丑十月日山君無端嘯吼於四山或投石於正大門連達二十餘夜不知山下諸宗只相怪疑不覺何兆時適京釜鐵道施設人來鑿中台峰也諸宗並往拒之而其夜三更齋室北廊天火猝發所餘者灰土而已此乃千年以來一大怪也其時句管寅祐有司寬朝驚懼不已使宗人寅五搭輪船上京則京宗中亦驚動京有司寅學大設宗會一邊爭訟于鐵道局一邊擇定代表閭朝耆朝下來留齋舍爭訟于釜山鐵道局如是者爲一朔彼乃撤役其間已開處七十五坪半開處二百五坪之地彼鐵道會社之人依舊還補土尙今其地尙今完全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松楸密立成樣焉齋室北廊因遠近諸宗誠錢來助一新通建名曰花樹亭○其後丁未李弘植金建培輩下台峯子城臺暗出請願于度支部冒承許旨仍以賣渡于日本人田中常次郎該人更賣渡于秋吉富太郎欲來鑿破故京鄉并力拒之而自來始祖墓外案三台峯中一峯之意聯名請願于度支部其題云(該鎮後子城臺는李弘植許業已認許인즉其外官舍與基地만認許이되此地段은係是公有地墟인즉其起墾建屋을隨호야相當호稅金을調定收入이겟고若或認許日로부터一介年以內에着手치 못호거나又外國人에게私賣或讓與호난境遇에난本認許는無效로흐)以此得題伊時有司則佑朝且時權也鎮弘以京宗代表로下來交涉于本府尹而該峯四隅立表石植木事猶未決其後己酉十一月日相朝任鄉有司之責句管寅祐並力以赴京事而其外諸宗盡未載錄矣○至庚戌八月日本山及三台峯所有權証明次測量本山二區域分界(甲)十九萬一千○七十二坪(乙)九萬五千○九十三坪五合上台峰一萬三千二百四十三坪五合中台峰六千五百九十五坪三合五勺下台峰五千三百二十九坪一合八勺■●●●●●●●若松兔三郎■●●●●●●●京宗中允謨雨興鎮弘下來屢次交涉于官廳而允謨雨興還爲上去鎮弘累日申請于府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廳之際適因總督府電招鎮弘各樣申請書類委任於鄭□□仍夜上去矣十餘日後同□□不知去處相朝入■府廳覓其書類則圖面上代表寅學氏名割去以□□名記之申請于府廳就中子城臺文簿袖持逃去人莫知其所向一日兩電京宗中則京有司大驚允謨鎮弘即爲下來一邊交涉于釜山警署一邊通知于新聞社則□□云在於木浦港也而時則積雪滿天通涉極難京鄉諸宗後援次留於本港相朝挺身發向搭神濃川丸一晝夜泊于木浦而籠絡之手□□所持所在書類奪取而還此莫非 先靈之默佑也更爲申請于府廳矣壬子八月二十日本山及上中台■既濟証明然獨下台峰以官有之致姑未出証然依總督府山野查定申告令而大正六年丁巳十月以吾鄭宗中連名申告書提出矣自官廳屢查實地至己未十月六日自林野調查委員會爲裁決子城臺亦爲吾宗中所有也○且位土中六十七斗地齋僧且山直等料賴中借給而舊結案上称錄寺畚至己酉年各寺刹土地建物財產調查時以鄭氏門中所有舉實申告矣非意梵魚寺住持僧吳惺月來言花之寺舍宇土地器物皆寺之所有也結案上稱爲寺畚六十七斗落昭然寺畚也移渡之意發言爲促故本寺來歷壹壹說明則吳僧曰舍宇雖是鄭氏所建既已惠施則那有還返之理哉答曰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本非惠施爲護先塋而所建齋舍吳僧曰果爲先塋何不爲齋而稱寺乎又曰齋室正門上額華池山永護庵挾門上稱花之寺觀此則■之寺本是僧寺而入鄭氏先墓以後奪寺爲鄭氏所居昭然可知質此抑說使聞者五臟摧裂自証憑書類辛丑年火災時沒入于灰土中而何宰相朝之家藏有華山守護節目冊子故跋涉袖持對質則該節目云正門上額永護庵觀察使基善幕裨二十五代孫玆親筆挾門上花之寺其時東萊府使金璿親筆也以此觀之寺與庵扁額目皆同日也汝言不爲抑乎我先塋年享四節而祭需之設齋僧與祭堂直有分掌科目之舉行之責同一矣如是終日舌戰彼乃不服而去矣不幾日本郡守申泰建招喚故相朝出庭對質之場吳僧曰寺中祭記中僧之祭者三俗人祭者二則俗人祭者其入畚可知僧之祭亦必入畚以此觀之畚則寺中所有也執此爲言之場郡守亦曰僧祭或可有之俗祭何答曰朝鮮望族家先塋齋舍取其靜閑建以佛庵置僧侶舉行非止吾姓他家恒多是例汝之但持寺庵稱之扁額而爲言料吾無所畏也僧祭之理其僧勤於守護亡後無佐故爲念舊勞捐以本宗中財穀祭之者也俗祭之理祭堂直則使俗人任之此人勞於舉行老死而無後者特念舊勞使齋僧一切祭之此非厚意而何吾門多有厚德故至今千有餘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年子孫昌大不可興沒理一箇僧所可論也郡守曰甚可甚可吳僧亦無若而退如是紛爭屢年自高等土地調查委員會三次來到請我陳述書故詳細備呈矣其後庚申始乃依舊爲吾宗中所有也○其後丁巳年七月日草梁居朴永吉協謀日本人磯田清助以本山局內鑛白承認之意內容証明郵送于宗中故京鄉驚懼并力而斥之京宗中代表圭煥兩興二員下來與朴也及磯田兩人交涉言論爭詰事實留連於齋室各道郡諸族每日來會與山下居族至爲千餘人而遍滿山隴風餐露宿就中又有決死人等其勢凜然每日傍觀者亦不數百人本郡警署部長以解散之意三四次來勸頓無解意如是者至月餘朴也雖得警官許諾不能任意採掘這間費金浩大故遠地來宗稍稍解往但留句管有司第觀其變也其後庚申九月日以彼等之鑛稅滯納自郡付公賣公示其臨時郡守韓圭復地稅金二百七十九圓彼等之不納事報于道廳而許可取消也○同庚申二月日田圃員所在位土拾壹斗地坪數壹千五百三十八坪釜山窯業株式會社煉尾次敷地所用每坪三圓五十錢願買京鄉共同協議放賣契約金四千五百圓先自領受殘金壹千○四十圓五十錢所有權移轉後出給之意成証先捧金中代土畚十七斗落五升地價金四千三百圓買受以我共同所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有人名義中或死亡或移住文簿節次多有層折彼會社之沿革亦多左右遲滯爲五六年間而浮費之生不小至乙丑二月永爲移轉于彼社推尋殘金之抵用於鑛弊防禦時負債報償○辛酉三月日釜田員畚四百五十坪自慶南道廳爲道立商業學校基地編入每坪七十錢願買故京鄉宗中協議賣渡金七百六十五圓受取代土畚三斗落價金二百四十圓買受殘金移報于齋室修理費○辛酉八月日雨興以京監督秋夕享事時下來留連■齋室各樣文簿全部整理鄉任員事務執行帳簿十餘卷備置與山下諸宗協議舊宗契事繼續成案契員募集資金收合事更定基礎○丙辰二月日禁松亭東山直屋子三間新建戊午九月北山直屋子二間新建己未三月日上下齋室全部一新翻瓦同五月日山靈閣改建庚申二月日西山直屋子改建同六月日相朝辭單子宗約所違歸而享朝代任矣壬戌六月日自京宗中改稱鄉監督而選定三人相朝寅祐珍謨其後甲子六月日寅祐珍謨滿期辭退又改稱鄉理事相朝仍在寅錫被選至今視務耳以若不肖不敏邇來十六年間備經波瀾而了無差錯者寔由 先靈之降鑑及京鄉諸宗之後援也嗚悃無地而今焉風靜浪息只思香火 穩奉不勝私情之感幸雨興氏編成東萊先山記實一冊中托余以同山中年大綱

54. 화지산 선영 연혁기(정상조, 1925)

之經歷史抄記故敢茲沾筆愧不成文爾

乙丑九月二十日東萊郡華山齋

鄉理事相朝記

부록

동래선산기실 미수록 자료

동래선산기실이 완성된 시점까지 몇몇 선산 관련
누락자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몇몇 관련자료
들을 포함하고 있다.

부록 1. 시조묘 제전 하사시 문답기록

1. 시조묘 祭田을 하사할 제 문답기록¹⁾

○숙종 12년(서기 1686) 공(知和)의 나이 73세라. 울산군수 載大가 공에게 글월을 올려 시조 호장공의 묘가 헐고 허술하니 자손된 도리로 죄스럽기 그지 없음을 아뢰었다. 공은 그 때 門長으로 載岱 載嵩 載崙 助先 是先과 의논한 다음에 상감께 아뢰어 선산을 다스리기 위해 사면을 빌었다. 상감은 공이 늙고 병들었음을 깊이 염려하여 울산군수에게 명하여 묘를 다스리게 하고 祭田을 내려 주셨다.

○강희 24년 2월 27일 상감 앞에서 중추부사 鄭知和가 아뢰기를 지금 울산군수 鄭載大로부터 들은 바, 신의 시조 호장공의 묘가 오래 손질하지 못하여 묘는 허술해지고 숲은 거칠게 되었다 하오니 자손된 도리에 죄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말하고 늙은 신이 자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벼슬을 그만두고 가기를 빌었다. 상감이 말씀하시기를 경의 자손된 가룩한 뜻은 가상하나 몸은 늙고 병이 걸드니 사람을 시켜 治山함이 어쩡소 하니 공이 다시 아뢰어 하늘이 사람을 내실 제, 나라 위해 충성을 다하고 효도함에 힘을 다함이 바른 길이니 어찌 몸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선산이 헐고 상함을 내버려 두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 상감이 느끼어 말이 없다가 말씀하시기를 과인에게 생각이 있으니 공은 물러가지 말라 하고, 禮曹에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판부사 정공의 집안은 대대로 훌륭한데 7세 8인이 모두 나라에 이바지한 공이 크며 덕망이 무거움은 모두 공의 시조인 호장공의 음덕이라. 울산군수에게 영을 내려 두터이 치산케 하고 특히 제전을 내려 길이 분향케 하라 하시다.

1) 이 번역문은 동래정씨종보 8호(1968년 6월 1일)에 실린 것이다.

부록 1. 시조묘 제전 하사시 문답기록

[원문]

乙丑肅宗十二年公年七十三歲 蔚山郡守載大書上于公始祖戶長公之墓傷而孫之道悚懼不忍公以其時門長與載岱載嵩載崙助先是先熟議奏于上乞辭治山上深慮公之老病命蔚山郡守治墓乃賜墓山祭田

始祖戶長公墓山祭田下賜時奏答記

康熙二十四年乙丑二月二十七日 有筵臣中樞府事鄭知和奏于上曰今爲蔚山郡守鄭載大所傳則臣之始祖戶長公之墓年久不修墓傷林廢爲孫之道不勝恐懼云云老臣爲人之後孫於心悚懼不知處身乞辭缺治上曰卿之爲先赤心可賞然身老扶病奈何使人治山可也公復奏曰天降生民爲國盡忠孝當竭力爲綱言人之道也何以身老病弱不顧先山缺傷乎伏乞允許上乃感悟良久曰寡人有志卿勿辭命禮曹教曰判府事鄭公之家甲於世族承承七世八人棄朝勳業至大德望甚重皆出於公之始祖戶長公之陰德則令蔚山郡守厚之治山特賜墓山祭田永奉香

부록 2. 화지산 선산수호절목집 서(정인철, 1953)

2. 화지산 선산수호절목집 서(정인철, 1953)

華池山 先山守護節目集²⁾ 序

화지산은 우리 동래정씨의 시조 안일호장공(휘 문도)의 묘소가 있는 땅이다. 천여년 동안香火가 끊이지 않았고 후세자손이 이처럼 번성하였으되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여러 전란을 겪으면서 고증할 문헌이 전하지 않고 近古로부터 수호절목 및 宗稷錄 등 약간의 문적이 보존될 뿐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距今 222년 전 임자년(1732)에 彥燮씨가 동래부사 때에 묘정에 제액과 비문을 써서 신도비를 세우셨으며 山下宗人과 協力하시어 花樹稷를 창설하시고 稷金을 모아서 位土增置와 守護禁養 등의 대책을 세우셨고, 그 후 距今 186년 전 무자년(1828)에 基善씨가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巡路歷省³⁾하시어 선산수호절목을 제정하고 성책하여 齋舍에 보관하게 하시고 祭器와 祭需 종목 및 祭儀 절차를 증보개정하시며 시조 묘정에서 花樹宴을 크게 여시니 先山의 영광과 종족의 친목이 이때에 융성하였다. 또 距今 59년 전 을미년(1895)에 寅學씨가 동래부사로 오셔서 山下宗人과 協力하여 宗稷를 책신하고 규약을 수정하시고 성실한 宗人을 택하여 宗稷金을 분배하여 이자를 불리게 하여 위선사업에 성의를 경주하였으니 부임 6개월만에 교체되어 돌아하시고, 距今 33년 전 신유년(1921)에 경감독 雨興씨가 享祀 참석차 여러

2) 華池山先山守護節目集은 《華山齋誌》(초판, 서 정낙필, 1953)에 수록되어 있다. 《華山齋誌》(초판)는 전반부 華山齋開錄(서 鄭寅書, 서 鄭升模)과 후반부 華池山先山守護節目集(서 鄭寅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반부 절목집은 동래정씨종계절목(계장 정언섭씨종계안 一冊), 화지산산소수호절목(정기선씨제정절목 一冊), 동래정씨화지산종계안(계장 정인학씨개수안 一冊), 동래정씨화산재종계안(계장 정우홍[씨]개수안 一冊), 동래정씨종계안(개수) (自稷長 鄭彥燮[氏]設稷後繼續記名 一冊), 향유사안 一冊이 수록되어 있다.

3) 巡路歷省: 순시하는 길에 들러서 성묘함.

부록 2. 화지산 선산수호절목집 서(정인철, 1953)

번 先山下에 도착하시어 宗人들과 더불어 세대에 부합하는 宗稷規約을 起案하여 실시하였으나 후대로 내려올수록 성의가 해이해져 宗稷規約은 유명무실하여 그럭저럭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⁴⁾

슬프도다! 전래위토와 羅星山 대부분이 부산도시로 편입된 후 일부는 군용지로 일부는 철도용지로 強賣를 당하고 그 여분은 추후 放賣하여 이 代金を 收合하여 機張面 용천리 만화리 등지⁵⁾에 토지를 買入하여 위토를 전에 비해 넓혔든바 시절이 불리하여 秋收穀 공출이라는 학정으로 인하여 종토수입이 도리어 감소하였고, 을유년(1945) 8·15 해방 후에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자 위토는 완전히 잃게 되는 것으로 거의 될 즈음에 山下理事 珍榮씨와 庚三씨 두 종인의 苦心勞力으로 위토로 수백 두락을 농지분배권역에서 구출하여⁶⁾ 이 위토의 추수로써 今後 4절향사 비용은 족히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니 奉先香火에 다행한 일이다.

지나간 일을 회상하니 감개무량하다. 그 중 역대제현의 위선공적을 흠모하여 이 책을 集成하오나, 오늘날 사방 들레에 유택하던 先山局內 산록은 날로 민둥산으로 변하되 세상이 어지럽고 풍속이 허물어져 주야 盜伐로 남은 松楸도 禁養의 대책이 없으니 그 후손된 자는 누구인들 한심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잘 것 없는 不肖는 앞서서 부질없이 탄식만 하고 있음에 슬프고 분하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순수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先塋의 光華에 다시 빛을 비추실 宗族의 배출을 바라고 기다리며 쏟아지

4) 《화산재지》의 悠悠到命은 悠悠到命의 오식이 아닌지 모르겠다.

5) 동래군 기장면 만화리와 동래군 일광면 용천리이다. ※1914년 4월 1일 부산부를 부산부와 동래군으로 분할하였는데 이때 기장군이 폐지되고 동래군에 흡수되었다.

6) 전언에 의하면, 그 후에도 당시 경작인들의 지속적인 소유권 주장 소송이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데 鄭運朝 변호사의 공로가 컸다고 한다.

부록 2. 화지산 선산수호절목집 서(정인철, 1953)

는 눈물에 붓을 놓는다.

단기 4286년(1953) 계사년 2월 寒食節에
호장공⁷⁾ 27대손 鄭寅哲이 삼가 쓰다.

[원문]

華池山 先山守護節目集序

華池山은惟我萊鄭氏之 始祖安逸戶長公衣冠幽藏之地也 | 라以來千有餘年間に香火不絶하고後世子孫이如斯蕃盛하되歷世久遠에兵燹을屢經하야文考無傳하고近古로부터守護節目及宗稷錄等若干의文籍이保存될뿐이다

謹按距今二百二十二年前壬子에彦燮氏萊伯時廟廷에神道碑를題文改豎하고山下宗人과協力하사花樹稷菴設하고稷金을鳩集하야位土增置와守護禁養等策을建하신後距今百八十六年前戊子基善氏奉道道伯으로巡路歷省하사先山守護節目을製定成册하야齋舍에保管케하고祭器와祭需種目及祭儀節次를增補改定하시며始祖墓庭에서花樹宴을大開하시니先山の榮光과宗族의親睦이於斯爲盛矣 | 라

又距今五十九年前乙未寅學氏萊伯으로來하사山下宗人과協力하야宗稷를刷新하고規約을修正하고誠實한宗人을擇하야宗稷金을分配殖利케하야爲先事業에誠意를傾注하였으니莅任六朔에替還하고距今三十三年前辛酉에京監督兩興氏以祭祀次로屢到先山下하사宗人으로서더부러世態에符合하는宗稷規約을起案實施하였으나世降誠弛하야有名無實로悠悠到命令矣라

噫라! 傳來位土及羅星山大部分이釜山都市로編入된後一部軍用地一

7) 《동래선산기실》 전체에 대체로 그렇듯이, 여기서 호장공은 3세 휘 선조공이 아니고 2세 휘 문도공이다.

부록 2. 화지산 선산수호절목집 서(정인철, 1953)

部鐵道用地로強賣를當하고其餘分은追後放賣하여此代金を收合하여
機張面龍川萬化里等地에土地를買入하여位土를比前廣置하였든바時
不利號로秋收穀供出이라는苛政으로因하여宗土收入이도로여減少하
였고乙酉八、一五解放後에農地改革法이實施되자位土는殆히烏有에
歸하는此際에山下理事珍榮庚三兩宗의苦心勞力으로位土로數百斗落을
農地分配圈에서救出하여此位土秋收로써今後四節享祀費는足히計劃
한다하니奉先香火에有幸矣라

回想往事에感慨無量中歷代諸賢의爲先功蹟을贊美欽慕하여此書を集
成하오나現今先山局內山麓은四圍潤然에日加童濯하되世亂俗敗하여
晝夜盜伐로殘餘松楸도禁養이無策하니爲其子孫者孰不寒心이리요然
而如不肖之碌碌者는坐視空歎에悲憤愧悚하여純心至誠으로光復先塋
之光華하실宗族의輩出을待望하며揮淚停筆焉이라

檀紀四二八六年癸巳二月寒食節

戶長公二十七代孫 鄭寅哲 謹書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3. 종계안(정언섭, 1733)

계축년(1733) 4월 일 동래정씨종계 절목

- 一、이 계의 설립취지는 丘墓를 수호하고 宗族을 화목하게 하는데 있다. 이를 전하여 오래도록 쇠퇴하지 않게 하려면 결코 실속 없이 결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각자 스스로 삼가고 힘써서 永久遵奉⁸⁾을 기약할 일이다.
- 一、계의 재물은 官에서 주는 帖下로 하되 主管은 계원 중에서 신중하고 후덕한 사람을 택해서 유사로 정하여 責立⁹⁾하게 할 일이다.
- 一、돈은 흠어지기 쉽지만 모으기 어려운 재물이다. 계원의 빈부와 賢愚가 만 가지로 같지 않으니 계원에게 分給하는 일 역시 확고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契任이 풍흉에 따라 시절에 맞추어 달리 바꾸고 잘 헤아려서 알맞게 처리하여 영구히 지킬 일이다.
- 一、현재 가입된 계원 외 參契한 종인이 만일 나중에 가입을 원하면 原稷員이 舍席하여 의논수렴을 거쳐 가입을 허락하며 묘역 內 禁火禁松 등의 사항 역시 같이 힘을 합하여 遂行할 일이다.
- 一、四時節日에 契任은 期日 전에 재실에 도착하여 쓰이는 제수를 헤아려 祭田의 수입으로 각별히 정밀하게 준비하여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제수를 올리고 宗人이 모두 모여 祭祀를 도울 일이다.
- 一、京中參稷之宅에 만일 부모의 喪事 소식이 있으면 별도로 종인을 보내어 조문하고 겸하여 賻儀하고, 慶事가 있으면 역시 助

8) 永久遵奉: 정성스런 마음으로 영구히 지킴.

9) 責立: 책임지고 필요한 인원이나 물품 따위를 차출해 냄.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物을 보내어 情誼를 잊지 않을 일이다.

一、甫伊山은 곧 [화지산] 山所 외명당인 羅星砂로 본래부터 별 거승이었고 나날이 붕괴되고 있다. 관가에서 그 수호를 진심으로 걱정하여 이미 松楸를 심고 또 山直을 정하여 永久禁伐케 하였으나,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은 때를 당하여 稷人이 혹 끝에 가서 게을러지는 폐단[終怠之弊]에 빠진 것을 다시 빠져 나오게 한 후에도 허술해지는 폐단[虛疎之端]을 역시 미리 헤아릴 수 없으므로 契物으로써 數斗地의 논을 매입하여 山直에게 劃給하고 山下에 거주하여 전심으로 수호하게 할 일이다.

一、契任이 만약 節祀時 所用 및 기타 用下를 빙자하여 私心を 함부로 하여 지나친 지출을 하면 계원은 모두 모여 징수하고 그 리하여 駸遽하고 즉시 서한으로 보고할 일이다.

一、契會時 말씨가 공손하지 못하거나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업신여기면 공론에 따라 내쫓을 일이다.

一、제사 봉행으로 모였을 때 몸가짐을 삼가지 않고 예의를 잃고 시끄럽게 떠드는 자는 이름을 삭제하여 계에서 퇴출한 후 급히 보고할 일이다.

一、묘답은 이전부터 세를 거두는 것이 단지 21斗地로 보잘것없다. 신해년(1731)에 자손 중 本道[경상도] 內 밀양·영해·선산·영덕·청도·동래 등 6읍의 수령을 하는 분들이 각기 財力을 내어 12斗 5升落을 매입하였으며, 임자년(1732) 종계설립 후에 54斗地를 사들여 도합 85斗 3升落이다.¹⁰⁾ 그 중 28斗落

10) $21 + 12.5 + 54 = 87.5$. ※《동래선산기실》의 位土田畚斗落中間變更來歷及釐正表에 보면 “畚二十一斗落 自前所在；畚三十八斗五升落 六邑守令割買置；畚二十八斗落 曾往壬子癸丑間宗稷金中買置”라 하였다. $21 + 38.5 + 28 = 87.5$.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은 宗契錢으로 매입하여 모두 官府 貼下이다. 田畚文券¹¹⁾은 墓菴에 두고 田案¹²⁾은 하나는 宗契¹³⁾에 두고 하나는 墓菴에 두고 하나는 壯洞 鄭東萊宅에 두어 뒷날 고찰에 대비토록 할 일이다.

- 一、畚穀의 수입은 아무리 豊凶을 당하더라도 1년에 대략 25,6(이십오륙)石¹⁴⁾을 거둘 수 있다. 四名日¹⁵⁾ 祭需를 약간 덜어 내어 精潔하게 마련하며 이 외는 함부로 허비하지 말 일이다.
- 一、田畚에서 거두어 들인 곡물은 用下한 수량이 사소하여 남아 있는 수량이 매우 많다. 절대 이짓돈으로 지급하지 말고 그 남은 곡식은 매년 祭畚을 增買할 일이다.
- 一、매년 말 畚穀 所出의 실수량과 用下하고 남아 있는 수량 및 增買 문서를 수정하여 壯洞 경유사 댁에 통보할 일이다.
- 一、문서는 商驛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여 그 왕래편으로 보내되 여비는 1냥으로 제한하여 用下할 일이다.
- 一、물론 京外 자손 중 추가로 가입하고자 하면 禮錢 10냥에 가입을 허락할 일이다.

11) 田畚文券: 토지매매문서.

12) 田案: 量案이라고도 부르며 오늘날의 토지대장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여기서는 해당 토지들에 대한 사본을 발급 받아 성책한 것을 말한다.

13) 여기서 宗契는 종계사무소 또는 향유사댁을 말하는 것 같다.

14) 화산재/화수정 전래 성책본 옛 종계안 《동래정씨종계안(1733)》[이것을 <1733종계안1>이라 칭하겠음]과 《동래정씨화산재종계안(1921)》에 수록된 구종계안[이것을 <1733종계안2>라 칭하겠음]에는 捌拾伍陸石으로 적혀 있고 八의 갖은자 捌이 二의 갖은자 貳로 고쳐져 있는데 《화산재지》에는 이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15) 四名日은 정조·단오·추석·동지를 말하기도 하고 정조·한식·단오·추석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인 것 같다. ※鄭基善공의 종계안(1829)에 四節日을 정조·한식·단오·추석이라 명시하였다.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구계안 좌목¹⁶⁾

연번	성명	입계년도		화산재지 誤脫字
1	鄭彥燮	계축(1733)入	時在東萊府使	
2	鄭來周	계축(1733)入	時在東萊府使	來用
3	鄭時英	계축(1733)入 ¹⁷⁾		
4	鄭載純	계축(1733)入		누락
5	鄭載瑞	계축(1733)入		
6	鄭載泰	계축(1733)入		載春
7	鄭師玄	계축(1733)入		
8	鄭世玄	계축(1733)入		
9	鄭邦佑	계축(1733)入		
10	鄭汝僑	계축(1733)入		
11	鄭 瑗	계축(1733)入		
12	鄭載重	계축(1733)入		
13	鄭元相	계축(1733)入		
14	鄭而和	계축(1733)入	杜敏-而和-興邦	
15	鄭完哲	계축(1733)入		
16	鄭錫康	계축(1733)入		
17	鄭晚興	계축(1733)入	개명晚立 ¹⁸⁾	
18	鄭晚成	계축(1733)入	개명晚奉 ¹⁹⁾	萬立
19	鄭亨復	기미(1739)入	時在東萊府使	
20	鄭再僑	기미(1739)入		再復
21	鄭履儉	임술(1742)入	時在東萊府使	
22	鄭 瑋	임술(1742)繼入		壬戌入
23	鄭 暹	계해(1743)入		
24	鄭義僑	계해(1743)入		
25	鄭希僑	갑자(1744)繼入	時英子	

16) 《화산재지》(1953)에 수록된 정언섭공의 <계축(1733)사월일동래정씨증계절목>에 수록되어 있는 이 좌목은 화산재/화수정 전래 성책본 옛 증계안 《동래정씨화산재증계안(1921)》에 수록되어 있는 <1733증계안2>의 舊稷案座目과 동일하다.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26	鄭邦儒	갑자(1744)繼入	개명 ²⁰⁾	那儒
27	鄭有興	갑자(1744)繼入	載泰子	有興
28	鄭載協	을축(1745)入		
29	鄭德興	병인(1746)入		
30	鄭達星	병인(1746)入		
31	鄭萊興	정묘(1747)入		
32	鄭春碩	무진(1748)入		
33	鄭興邦	임신(1752)繼入	而和子	興那
34	鄭萊孝	경진(1760)繼入	希僑子	
35	鄭得命	경진(1760)繼入	晚興子	
36	鄭晚淳	임오(1762)入	時在東萊府使	壬申
37	鄭萊湖	갑신(1764)繼入	世玄子 ²¹⁾	
38	鄭萊成	갑신(1764)繼入	而僑子	
39	鄭益儉	무자(1768)入	時在宜寧縣監	
40	鄭世康	기축(1769)繼入	晚成子	
41	鄭存中	갑오(1774)入	時在密陽府使	在中
42	鄭萊成	을미(1775)繼入		乙丑
43	鄭德崙	정유(1777)繼入		丁酉 [▽] 入
44	鄭萊瑜	정유(1777)繼入		
45	鄭東閔	무술(1778)入	時在開寧縣監	
46	鄭德淳	신축(1781)入		
47	鄭萊鶴	신축(1781)入		
48	鄭萊仁	임인(1782)繼入		壬寅 [▽] 入
49	鄭東驥	계묘(1783)入	時在昌寧縣監	
50	鄭彥衡	갑진(1784)入	時在昌原府使	
51	鄭選	을사(1785)入	時在慶州營將	
52	鄭有臣	을사(1785)入 ²²⁾		
53	鄭周翊	을사(1785)入 ²³⁾		
54	鄭載健	을사(1785)入	時在府幕 ²⁴⁾	
55	鄭東佑	을사(1785)入		
56	鄭再興	을사(1785)入 ²⁵⁾		
57	鄭萊胤	을사(1785)入 ²⁶⁾	有興子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58	鄭萊昌	을사(1785)入		
59	鄭重僑	을사(1785)入		
60	鄭 玠	병오(1786)繼入	時在巡幕	
61	鄭華淳	무신(1788)入	時在星州牧使	
62	鄭大容	신해(1791)入	時在慶尙監司	
63	鄭時雄	신해(1791)繼入		
64	鄭秀三	임자(1792)入		
65	鄭東協	계축(1793)入	時在蔚山府使	
66	鄭 璋	계축(1793)繼入	[昌原府使彥衡子] 時在慶州營將	
67	鄭再賢	을묘(1795)繼入		乙丑
68	鄭東觀	을축(1805)入	時在安東府使	
69	鄭有淳	병인(1806)入	時在山淸縣監	
70	鄭萊栢	병인(1806)入		
71	鄭國台	정묘(1806)繼入		周台, 丙寅繼入
72	鄭萊淳	정묘(1807)入		
73	鄭世彥	무진(1808)入		
74	鄭賢大	무진(1808)入		
75	鄭萊馥	무진(1808)入		
76	鄭得權	기사(1809)入		己丑
77	鄭福世	신미(1811)入		世福
78	鄭聖雄	신미(1811)繼入	[世康子]	
79	鄭雨龍	신미(1811)入		
80	鄭乃和	갑술(1814)繼入	萊仁子 [居]老圃	
81	鄭魯彥	을해(1815)入		
82	鄭元容	병자(1816)入	時在承旨	
83	鄭應澤	정축(1817)繼入	[時英曾孫]	
84	鄭福榮	정축(1817)繼入		
85	鄭國賢	정축(1817)入		周賢, 癸丑
86	鄭德垢	정축(1817)入		
87	鄭碩壽	기묘(1819)入	개명錫璨	
88	鄭慶春	기묘(1819)入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89	鄭是容	경진(1820)入	時在大邱判官	
90	鄭基直	경진(1820)繼入	監司大容子 時在宜寧縣監	
91	鄭儀大	경진(1820)入		
92	鄭奎祥	경진(1820)入		
93	鄭東煥	신사(1821)入	時在慈仁縣監	
94	鄭萊綱	계미(1823)繼入	再僑子	
95	鄭起彦	계미(1823)繼入		
96	鄭成雲	계미(1823)入		
97	鄭岨東	갑신(1824)入		
98	鄭光益	갑신(1824)繼入		
99	鄭昌謙	을유(1825)入		
100	鄭彦裕	병술(1826)入	時在府幕	
101	鄭宅淳	병술(1826)入		
102	鄭基植	정해(1827)入	時在宜寧縣監	
103	鄭基善	무자(1828)入	時在慶尙監司	
104	鄭泰東	무자(1828)繼入	昌原府使彦衡孫 時在河東府使	
105	鄭文郁	무자(1828)入		
106	鄭采煥	무자(1828)繼入		戊子▼入
107	鄭仁興	무자(1828)入		
108	鄭志浩	무자(1828)入		
109	鄭有一	무자(1828)繼入	萊仁孫	戊子▼入
110	鄭存一	무자(1828)繼入	乃和子 [居]老圃	戊子▼入
111	鄭志養	무자(1828)入		戊子繼入
112	鄭道潤	기축(1829)入		
113	鄭道彦	기축(1829)入		
114	鄭碩俊	기축(1829)入		
115	鄭守福	경인(1830)入		
116	鄭聖默	경인(1830)入		
117	鄭東龜	신묘(1831)入	時在密陽府使	
118	鄭興潤	신묘(1831)入		
119	鄭彦臣	신묘(1831)繼入		辛卯▼入
120	鄭國隣	신묘(1831)入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121	鄭禮容	임진(1832)入	時在慶州府尹	
122	鄭自權	임진(1832)入		白權
123	鄭春東	임진(1832)入		
124	鄭華國	계사(1833)繼入		
125	鄭守德	계사(1833)繼入		
126	鄭喜愚	병신(1836)入		
127	鄭英周	정유(1837)入		
128	鄭碩坤	정유(1837)繼入		
129	鄭始容	무술(1838)入	時在大丘判官	
130	鄭應淳	기해(1839)繼入	時英曾孫	
131	鄭叡朝	신축(1841)繼入	監司大容孫 時在慶州府尹	
132	鄭以大	신축(1841)入	개명大興	
133	鄭德興	신축(1841)入		
134	鄭仁燮	신축(1841)入		
135	鄭孟臣	신축(1841)入		
136	鄭聖臣	임인(1842)繼入		
137	鄭命順	임인(1842)入		누락
138	鄭仁坤	임인(1842)入	개명東翰	
139	鄭三龍	임인(1842)入		
140	鄭甲俊	임인(1842)入		
141	鄭大根	임인(1842)入		
142	鄭弼福	임인(1842)入		
143	鄭大仁	임인(1842)入		
144	鄭仁煥	계묘(1843)繼入		
145	鄭富命	계묘(1843)入		癸卯繼入
146	鄭雲河	계묘(1843)入		癸卯繼入
147	鄭乃敬	갑진(1844)繼入		
148	鄭潤和	갑진(1844)繼入	萊綱子	
149	鄭碩坤	갑진(1844)繼入		
150	鄭國柱	을사(1845)入		
151	鄭有泰	을사(1845)入		
152	鄭在哲	을사(1845)入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153	鄭愚容	병오(1846)入	時在義興縣監	
154	鄭允容	병오(1846)繼入	山淸縣監有淳孫 時在密陽府使	
155	鄭興元	정미(1847)繼入		
156	鄭昌淳	정미(1847)繼入	萊栢子	
157	鄭成彦	경술(1850)入		
158	鄭必魯	경술(1850)繼入		
159	鄭翰振	경술(1850)入		庚戌繼入
160	鄭東守	신해(1851)入		
161	鄭始潤	신해(1851)繼入	東佑孫	
162	鄭敏國	신해(1851)入		
163	鄭斗命	신해(1851)入		
164	鄭始弘	신해(1851)繼入	應澤孫	
165	鄭碩魯	임자(1852)繼入	萊瑜孫 [居]盤如	
166	鄭成煥	임자(1852)入		
167	鄭就逸	임자(1852)入		
168	鄭光錫	계축(1853)繼入		
169	鄭泰永	계축(1853)入		癸丑繼入
170	鄭昌珪	갑인(1855)入		
171	鄭老容	을묘(1855)繼入	山淸縣監有淳孫 時在密陽府使	
172	鄭學裕	을묘(1855)入	時在長水察訪	
173	鄭武成	병진(1856)入		
174	鄭在容	기미(1859)入	時在金海府使	載容
175	鄭寬淳	기미(1859)繼入		
176	鄭祥殷	기미(1859)入		
177	鄭斗滿	기미(1859)入 ²⁷⁾		
178	鄭英奎	기미(1859)入		
179	鄭祺演	경신(1860)繼入	萊淳曾孫 ²⁸⁾ [居]盤如	萊淳▼孫
180	鄭守演	기미(1859)入	萊淳曾孫 ²⁹⁾ [居]盤如	萊淳▼孫
181	鄭善容	신유(1861)入	時在多大僉使	
182	鄭厚坤	신유(1861)繼入		
183	鄭始民	신유(1861)繼入	有一子 [居]蓮池	
184	鄭始牧	임술(1862)繼入	存一子	壬戌▼入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185	鄭 桓	계해(1863)繼入	山淸縣監有淳子 時在慶州營將	
186	鄭桓周	갑자(1864)入		
187	鄭重錄	갑자(1864)繼入		重祿
188	鄭大翊	을축(1865)繼入		
189	鄭憲朝	병인(1866)繼入	監司基善子 時在大邱判官	丙午繼入
190	鄭 塾	무진(1868)入	時在興海郡守	
191	鄭始崙	무진(1868)繼入	震僑四代孫	
192	鄭德一	무진(1868)繼入	應澤子	
193	鄭仁八	기사(1869)入		
194	鄭良淳	기사(1869)繼入	師玄曾孫 [居]盤如	
195	鄭東伯	기사(1869)繼入	國台孫	
196	鄭學周	경오(1870)繼入		
197	鄭始徹	경오(1870)繼入		
198	鄭進旭	경오(1870)繼入		
199	鄭錫權	신미(1871)入		
200	鄭會演	신미(1871)繼入	萊淳曾孫 ³⁰⁾ [居]盤如	萊淳孫
201	鄭貴成	신미(1871)入		
202	鄭琪俊	신미(1871)入		
203	鄭時宗	신미(1871)入		
204	鄭裕福	신미(1871)入		
205	鄭秉一	신미(1871)繼入 ³¹⁾	乃敬子	
206	鄭命祿	신미(1871)繼入		
207	鄭華俊	신미(1871)入		辛未繼入
208	鄭陽會	임신(1872)繼入		
209	鄭光憲	임신(1872)入		壬申繼入
210	鄭在鎭	계유(1873)入		
211	鄭基大	을해(1875)繼入	大丘判官始容子 時在蔚山府使	
212	鄭錫周	을해(1875)入		
213	鄭和一	을해(1875)入 ³²⁾		
214	鄭弼周	을해(1875)繼入		
215	鄭智權	을해(1875)繼入	祺演子 [居]盤如	
216	鄭始昊	을해(1875)繼入	存一子 [居]蓮池	在一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217	鄭吉淳	을해(1875)繼入	師玄曾孫 [居]盤如	
218	鄭大一	을해(1875)繼入	應澤子	
219	鄭桓璇	을해(1875)入		
220	鄭翻朝	병자(1876)繼入	密陽府使存中曾孫 時在金海府使	存中 [▼] 孫
221	鄭義奎	병자(1876)繼入	[居]九世	
222	鄭熙杓	병자(1876)繼入		丙子 [▼] 入
223	鄭基厦	병자(1876)入		
224	鄭樹璟	병자(1876)入		
225	鄭喜龍	병자(1876)入		
226	鄭致奎	병자(1876)繼入		
227	鄭仁善	무인(1878)繼入		
228	鄭雯烈	기묘(1879)繼入		
229	鄭仁昊	기묘(1879)繼入		
230	鄭泰福	기묘(1879)入		己卯繼入
231	鄭德禧	경진(1880)繼入		
232	鄭仁翰	신사(1881)入		
233	鄭大連	신사(1881)入		
234	鄭寬一	갑신(1884)繼入	應澤子	
235	鄭始佺	병술(1886)繼入	存一子	
236	鄭連重	병술(1886)入		
237	鄭化德	기축(1889)繼入		
238	鄭英佑	기축(1889)入		己丑繼入
239	鄭奉佐	기축(1889)入		己丑繼入
240	鄭箕杓	기축(1889)繼入	東翰孫	
241	鄭時華	기축(1889)繼入		
242	鄭宇權	기축(1889)繼入	守演子 [居]盤如	
243	鄭載淳	기축(1889)入		載純
244	鄭斗必	기축(1889)繼入		
245	鄭永祚	기축(1889)繼入		
246	鄭聖八	기축(1889)繼入		
247	鄭喆元	기축(1889)繼入		
248	鄭祺周	경인(1890)入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249	鄭憲圭	신묘(1891)繼入	
250	鄭祥祚	신묘(1891)繼入	
251	鄭浩俊	임진(1892)入	
252	鄭浩賢	임진(1892)入	
253	鄭局千	임진(1892)繼入	
254	鄭局芳	임진(1892)入	
255	鄭敬五	임진(1892)繼入	桓周子
256	鄭錫俊	임진(1892)繼入	
257	鄭英元	계사(1893)繼入	仁奎子 改名英朝
258	鄭有寬	계사(1893)入	
259	鄭基元	임진(1892)繼入 ³³⁾	仁奎子 改名貞朝
260	鄭德允	계사(1893)繼入	
261	鄭寅守	계사(1893)入	
262	鄭基永	계사(1893)繼入	
263	鄭寅栻	계사(1893)入	
264	鄭漢守	갑오(1894)入	
265	鄭寅學	을미(1895)繼入	蔚山府使東協玄孫 時在東萊府使
266	鄭泳朝	갑진(1904)入	時在東萊郡守

- 17) 병술별보(1766)에 호장공(3세 휘 선조)파이나 기미보(1919)에는 동지공(12세 휘 진)파라는 이름으로 호장공(3세 휘 선조)의 형인 복야공(3세 휘 목) 후손파로 입보되었다. □鄭先祚(3)-秋-命海-振成-孟-善黈-泰淑-順興-允耆-慶章-深(13)-觀-世徵-緇賢-琳濠-麟角-彥龍-嗣哲-智彬-時英(22)
- 18) 병술별보(1766) 12장에 보면, 晩立 아래에 ‘改名’이라 하였는데 晩立이 개명된 이름으로 보인다. 즉 晩興 → 晩立. 晩立의 방주에 “東萊築城時納物助役賞加折衝享年六十六乾隆十五年五月初四日卒 墓在東萊草峴山坤坐原”이라 하였다. ※鄭晩立의 아들 鄭得命은 병술별보(1766)의 간사자 3인 중 한 사람이다.
- 19) 증계안(1733) 1의 가필 ‘改名萬立’과 《화산재지》의 ‘改名萬立’은 ‘改名晩奉’의 오류인 것 같다. 병술별보(1766) 12장에 보면, 晩奉 아래에 ‘改名晩成’(晩奉은 晩成을 개명한 이름임, 즉 晩成 → 晩奉)이라 하고 방주에 “東萊築城時納物助役賞加折衝享年六十九乾隆二十二年四月十五日卒 墓在蓮池左邊子坐原”이라 하였다.
- 20) 國龍에서 邦儒로 개명.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추가 주석 (아래의 성명 앞 숫자는 앞 표의 연번임.)

- 5 鄭載瑞: 장관청선생안에 千摠으로, 별기위선생안에 百摠과 正으로 나온다.
- 20 鄭再僑: 별기위선생안에 領과 領下로 나온다.
- 24 鄭義僑: 장관청선생안에 把摠으로, 별군관청선생안에 兵房으로, 교련청선생안에 敎鍊官으로, 별기위선생안에 正으로 나온다.
- 32 鄭春碩: 장관청선생안에 哨官으로, 교련청선생안에 敎鍊官으로, 별기위선생안에 領下로 나온다.
- 42 鄭萊成: 장관청선생안에 哨官으로, 교련청선생안에 敎鍊官으로, 별기위선생안에 領下로 나온다.
- 94 鄭萊綱: 장관청선생안에 中軍과 千摠으로, 별군관청선생안에 行首로, 수첩청선생안에 別將으로 나온다.
- 195 鄭東伯: 장관청선생안에 哨官으로, 별군관청선생안에 帶率軍官으로, 교련청선생안에 敎鍊官으로, 별기위선생안에 領下로 나온다.
- 196 鄭學周: 장관청선생안에 哨官으로, 수첩청선생안에 百摠으로 나온다.
- 227 鄭仁善: 장관청선생안에 哨官으로 나온다.

-
- 21) 종계안의 萊湖와 족보의 萊瑚가 동일인일 경우 萊湖는 世玄의 아들이다.
 - 22) <1733종계안1>에는 '乙酉孟秋追入 居全州'로 되어 있다.
 - 23) <1733종계안1>에는 '癸卯八月追入'으로 되어 있다.
 - 24) <1733종계안1>에는 또 '居萬頃 時居全州'라 하였다.
 - 25) <1733종계안1>에는 癸卯九月繼入이다.
 - 26) <1733종계안1>에는 癸卯九月繼入이다.
 - 27) <1733종계안1>에는 壬子落漏追入이라 하였다.
 - 28) 종계안 원본의 두주가필 萊淳孫은 오류이다.
 - 29) 종계안 원본의 두주가필 萊淳孫은 오류이다.
 - 30) 종계안 원본의 두주가필 萊淳孫은 오류이며, 또 辛未入도 오류인데 내용상 辛未繼入이 맞다.
 - 31) <1733종계안1>에는 丁卯繼入追錄으로 되어 있다.
 - 32) <1733종계안1>에는 乙亥繼入으로 되어 있다.
 - 33) <1733종계안1>에는 癸巳正月日追入으로 되어 있다.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계해년(1743) 4월 일 追成節目³⁴⁾

- 一、 서울에 사는 자손이 또한 이 계에 참여함은 성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 본부의 수령으로 와서 叅錄하면 그 길이 매우 좁아서³⁵⁾ 중단하기 쉬우니, 차후에는 道内の 고을원이 된 자는 직접 와서 성묘하고 追入을 원하는 자는 모두 허락하고 墓下의 凡事는 향유사와 往復 상의할 것.
- 一、 원래 契憲에 京中 계원의 부모 喪事가 있으면 종인을 보내어 조문하고 겸하여 賻物을 보내고 하고 慶事가 있으면 또한 助物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京中 계원이 점점 많아져서 만약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두루 미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 차후에는 京契員의 집 四喪³⁶⁾에 단지 돈 10냥을 초과하지 않게 賻物을 보내고 宗人이 조문하는 일과 慶事助物은 除減할 것.
- 一、 鄉契員의 10냥 禮錢 역시 지나치게 많아서 궁핍한 집에서 돈 10냥을 變通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자손된 자가 이것에 구애되어 가입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다면 도리상 몹시 미안하여, 차후에는 줄여서 5냥으로 할 것.
- 一、 남의 집 墳山의 養木處에 入葬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래 《경국대전》에 실려 있으며 산소 局內를 살펴볼 때 호장공(휘 문도) 묘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타인의 무덤이 많은 것은 매우 부당한데 전에 이미 있는 무덤은 비록 파낼 수 없으나 繼葬하는 것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차후에는 만일 繼葬을 부탁하고 다시 入葬하는 자가 있으면 재실의 僮人이 유사에게 통지하여 즉시 관에 신고하여 禁斷할 것.

34) 이 追成節目은 <1733종계안1>에 들어 있고 <1733종계안2>에는 없다.

35) 其路甚狹: 정해진 임기로 오래 부임할 수 없어서.

36) 四喪: 부모와 본인 및 처의 喪事.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무진년(1748) 5월 일 追成節目³⁷⁾

- 一、 지난 계해년(1743) 추성절목 내 本邑에 進入하는 계원의 禮錢은 5냥으로 내린다고 하였는데 그 뒤로 願入者가 많으므로 이러한 일이 그치지 않으면 장차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분란을 면할 수 없기에 도리어 先墓의 계 때문에 불효를 저지르게 되어, 지금 이후 본래 정한 10냥으로 되돌리니 영구히 한도를 내리지 말 것.

계미년(1763) 11월 일 追成節目³⁸⁾

- 一、 최초 절목 중 원래 없었으나 해가 갈수록 齋僧에게 劃給한다는 조항이 생겼으며 지금 劃給하면 과다한 것 같으니 만약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장차 반드시 견디지 못하여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후부터 날짜를 정하여 秋捧하고 창고는 자물쇠를 채워 봉하며 풍년이면 매월 쌀 一石씩 出給하고 흉년이면 2개월에 一石씩 出給하되 1년치 쌀을 미리 한번에 出給하면 僧人 역시 처음에는 넉넉하나 나중에는 모자라게 되는 근심이 없지 않을 것이다. 上有司는 달마다 직접 와서 곳간의 문을 열고 出用出給하여 영구히 지켜 나간다.
- 一、 최초 절목 중 每年末에 京中에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역시 앞으로도 始勤終怠³⁹⁾로 수호에 소홀해질 것이다. 지금 이후부터 오로지 최초 절목에 의하여 年末 문서는 京中參

37) 이 追成節目은 <1733종계안1>에 들어 있고 <1733종계안2>에는 없다.

38) 이 追成節目은 <1733종계안1>에 들어 있고 <1733종계안2>에는 없다.

39) 始勤終怠: 처음에는 부지런했다가 끝에 가서는 게을러짐.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契宅에 보내어 相考케하고 왕래는 始終如一케 한다. 서울로 나드는 僧人의 여비는 1인당 3냥씩 쳐서 지급하되 혹 僧人에게 有故가 있어서 보낼 수 없으면 上京하는 戶吏便으로 부쳐 보낸다.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계축년 (1793) 4월 일 宗契畚秩⁴⁰⁾

邑內 城要員 雨字

제9번지 3등답 2夜 3負 1束

申嚴員 雲字

제18번지 2등답 2夜 9負 8束 합 52負 9束

제19번지 2등답 10夜 27負 2束 15두지 本主 邑內居 鄭再僑

제20번지 2등답 1夜 7負 2束

제21번지 2등답 3夜 5負 6束

西面 余古員 惻字

제55번지 2등답 2夜 12負 4束 5두지 本主 西面居 文命昌

豆尼山員 移字

제25번지 2등답 2夜 5負 6束

제26번지 3등답 4夜 5負 8束 4두지 本主 西面居 鄭師玄

華池員 觀字

제15번지 3등답 2夜 10負 6束

제16번지 3등답 3夜 9負 6束 합 20負 6束

제17번지 3등답 2夜 4束 4두지 本主 齋宮僧 元湜

이상 畚 97負 3束 28두지

元錢文 100냥 및 利文 21냥 8전 內

99냥 畚價지금

留在錢文 22냥 8전

유사 鄭師玄

40) 이 宗契畚秩은 <1733종계안1>에 들어 있고 <1733종계안2>에는 없다.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계축년(1793) 4월 일 祭鑪器置付記⁴¹⁾

식기	2立俱盖	兼匙筋 前備上
잔	2坐俱台	
숯대	1雙	
향로		
향합		
大貼	5立	합 3竹 1立 중량 16斤 9兩 辛酉備上
貼匙	1竹	
小周發	1竹 1立	
麵周發	2立	
鍾子	3立	
餅盤	2立	합 6立 중량 16斤 癸亥新備
果盤	2立	
炙盤	1立	
脯肉盤	1立	
차일	1部	甲寅備上
주전자	1部	庚辰自契備上
차일	1部	
		副有司 鄭 (수결)
		上有司 鄭 (수결)

41) 이 祭鑪器置付記는 <1733종계안1>에 들어 있고 <1733종계안2>에는 없다.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 종계안(정언섭, 1733): 펼친 첫째 면



▲ 종계안(정언섭, 1733): 펼친 마지막 면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화산재지 수록 원문]⁴²⁾

癸丑四月日東萊鄭氏宗稷節目⁴³⁾

- 一 此稷之設意는在護丘墓睦宗族이니傳之久而不替則決不可虛假文具⁴⁴⁾而止이며各自⁴⁵⁾惕勵하야期於永久遵⁴⁶⁾奉할事
- 一 契資는自官帖下而主管⁴⁷⁾則契員中擇其謹厚者定爲하고有司⁴⁸⁾使之責立事
- 一 錢者는易散難聚之財也⁴⁹⁾ }라契員之貧富及賢愚가有萬不同하니分給契員亦非堅固⁵⁰⁾之道라契任이隨其豐歉하니與時轉質量宜하야料理永久遵行事
- 一 契員現入者外來參宗人이如有隨後願入者則原契員合席收議許入而塋域內禁火禁松等節를亦爲同力遂行할事⁵¹⁾
- 一 四時節日에稷任은前期來到齋⁵²⁾宮하야量其祭需⁵³⁾所入을以⁵⁴⁾

42) 《화산재지》에는 현토되어 있으나(이두식 현토에 한글 현토가 중복된 부분도 있음) <1733종계안1>과 <1733종계안2>에는 물론 현토되어 있지 않다.
 43) <1733종계안1>에는 稷가 契로 되어 있다. ※契, 稷, 禊 모두 같은 뜻이다.
 44) 具가 《화산재지》에는 누락되었다.
 45) 自가 《화산재지》에는 누락되었다.
 46) 遵이 《화산재지》에는 尊으로 誤植되었다.
 47) 管이 《화산재지》에는 長으로 誤植되었다.
 48) 司가 《화산재지》에는 定으로 誤植되었다.
 49) <1733종계안1>에는 ‘...之財也而契員之...’로 而가 있으나 <1733종계안2>에는 而가 없다. 《화산재지》에 수록된 것은 후자의 것과 동일하다.
 50) 固가 《화산재지》에는 누락되었다.
 51) 이 조항은 <1733종계안1>과 <1733종계안2>가 다르다. 《화산재지》에 수록된 것은 후자의 것과 동일하다. <1733종계안1>에는 다음과 같다.
 契員外墓下菴僧雖愚賤云與他凡僧有異凡契物料理時契任與菴僧眼同責立而塋域內禁火禁伐等事亦爲同力舉行事
 52) 齋가 《화산재지》에는 이체자 齊로 되어 있다.
 53) 需가 《화산재지》에는 齊로 誤植되었다.
 54) <1733종계안1>에는 이 바로 다음에 其가 있으나 <1733종계안2>와 《화산재지》에는 其가 없다.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祭田⁵⁵⁾所收로格別精備하야盡誠薦苾而宗人이咸聚하야以⁵⁶⁾爲助祭할事

- 一 京中參稷之宅에如有聞大故⁵⁷⁾則別使宗人致吊而兼翰賻儀하고有慶事則亦爲賚⁵⁸⁾送助物하야以爲⁵⁹⁾不忘之誼할事
- 一 甫伊山乃山所外明堂羅星砂也 | 라本自濯濯日就崩頽矣 | 라官家軫念護衛之道하야旣植松楸且定山直하야以爲永久禁伐之道而當此人心不古之日에稷人이或不無終忘之弊則回轍⁶⁰⁾後虛疎之端을亦不可預料이니以契物買數斗地畝⁶¹⁾劃給山直하고居於山下하야使之專心守護할事
- 一 契任은若以節祀時⁶²⁾所用及其他用下를憑籍하고逞私少有濫下者면契員은咸聚徵捧仍爲駭適하고仍⁶³⁾即馳書告稟할事
- 一 契會時에言辭不恭하고以少凌長則從公論하야損徒할事
- 一 行祀時聚會⁶⁴⁾之際에如有行身不謹하고喧譁失儀者則永爲割名出契後亦爲馳告할事
- 一 墓畝은自前收稅者가只是二十一斗地에零星甚矣라辛亥에子孫中本道內作宰諸人密陽寧海善山盈德清道東萊等六邑이各出財力하

55) <1733증계안1>에는 祭田이 其祭田으로 되어 있다.

56) 以가 <화산재지>에는 而로 誤植되었다.

57) <1733증계안1>에는 如聞有大故이나 <1733증계안2>와 <화산재지>에는 如有聞大故이다.

58) 賚가 <화산재지>에는 賚로 誤植되었다.

59) <1733증계안1>에는 爲가 寓로 되어 있다. ※以寓不忘之誼: 잊지 않으려는 情誼를 붙이다.

60) <1733증계안1>에는 轍이 轍으로 되어 있다. ※回轍, 返轍, 回轍, 返轍 등으로 쓰인다.

61) <1733증계안1>에는 畝數斗地로 되어 있다.

62) <화산재지>에는 時가 누락되었다.

63) <1733증계안2>의 仍이 <화산재지>에는 乃로 誤植되었다. <1733증계안1>에는 仍이 因으로 되어 있다.

64) 會가 <화산재지>에는 食으로 誤植되었다.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야買得十二⁶⁵⁾斗五升落壬子에宗契設立後에加買⁶⁶⁾五拾肆斗地
하니都合捌拾五斗參升落而其中貳拾八斗落則以宗契錢買得하야
皆官府貼下也 | 라田畓文券은置於墓菴田案은一置宗契一置墓菴
一置壯洞鄭東萊宅하야以備後考할事

- 一 畓穀所入은雖值豐凶而一年大約可收捌⁶⁷⁾拾五六石四名日祭需
를從畧除出하야精潔措⁶⁸⁾備爲⁶⁹⁾하며此外無得濫費할事
- 一 田畓所入穀物은用下之數些少而餘在之數甚多나切勿給利而其餘
穀은逐年增買祭畓할事
- 一 每年歲末畓穀⁷⁰⁾所出實數用下留在數及增買文書를修正하야通報
於壯洞京有司宅할事
- 一 文書付送於商驛可信人往來便⁷¹⁾하되路費는限一兩用下할事
- 一 無論京外子孫中有追入者則禮錢拾兩許入할事

65) 十二가 《화산재지》에는 二十으로 誤植되었다. <1733종계안1>에는 拾貳
으로 되어 있고, <1733종계안2>에도 拾貳로 되어 있기는 있는데 이는 貳拾
으로 잘못 쓰고 貳 오른쪽 바로 위에 작은 동그라미 표시하고 拾 오른쪽 바
로 옆에 上 표시로 수정된 것이다.

66) 買가 《화산재지》에는 置로 誤植되었다.

67) <1733종계안1>에 捌이 貳로 수정된 흔적이 있다.

68) 措가 《화산재지》에는 拱으로 誤植되었다.

69) 爲⁶⁹⁾가 《화산재지》에는 爲彌로 되어 있다. ※爲⁶⁹⁾, 爲彌: 하며.

70) 《화산재지》에는 畓穀이 누락되었다.

71) <1733종계안1>에는 便 다음에 이두문의 토씨 爲乎矣가 있다. ※爲乎矣의
뜻은 '하되'이다.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舊稷案座目 ※이 좌목은 <1733증계안2>에 들어 있는 구계안 좌목이다.

鄭彥燮	癸丑入	時在東萊府使	鄭萊興	丁卯入	
鄭來周	"	時在東萊府使	鄭春碩	戊辰入	
鄭時英	"		鄭興邦	壬申繼入	
鄭載純	"		鄭萊孝	庚辰繼入	
鄭載瑞	"		鄭得命	"	
鄭載泰	"		鄭晚淳	壬午入	時在東萊府使
鄭師玄	"		鄭萊湖	甲申繼入	
鄭世玄	"		鄭萊成	"	
鄭邦佑	"		鄭益儉	戊子入	時在宜寧縣監
鄭汝僑	"		鄭世康	己丑繼入	
鄭 瑗	"		鄭存中	甲午入	時在密陽府使
鄭載重	"		鄭萊成	乙未繼入	
鄭元相	"		鄭德崙	丁酉繼入	
鄭而和	"		鄭萊瑜	"	
鄭完哲	"		鄭東閔	戊戌入	時在開寧縣監
鄭錫康	"		鄭德淳	辛丑入	
鄭晚興	"	改名晚立	鄭萊鶴	辛丑入	
鄭晚成	"	改名晚奉	鄭萊仁	壬寅繼入	
鄭亨復	己未入	時在東萊府使	鄭東驥	癸卯入	時在昌寧縣監
鄭再僑	"		鄭彥衡	甲辰入	時在昌原府使
鄭履儉	壬戌入	時在東萊府使	鄭 選	乙巳入	時在慶州營將
鄭 璋	壬戌繼入		鄭有臣	乙酉入	
鄭 暹	癸亥入		鄭周翊	癸卯入	
鄭義僑	"		鄭載健	乙巳入	時在府幕
鄭希僑	甲子繼入		鄭東佑	"	
鄭邦儒	"	改名	鄭再興	乙巳繼入	
鄭有興	"		鄭萊胤	癸卯繼入	
鄭載協	乙丑入		鄭萊昌	乙巳入	
鄭德興	丙寅入		鄭重僑	乙巳入	
鄭達星	"		鄭 玪	丙午繼入	時在巡幕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鄭華淳 戊申入 時在星州牧使
 鄭大容 辛亥入 時在慶尙監司
 鄭時雄 辛亥繼入
 鄭載純 癸丑入
 鄭秀三 壬子入
 鄭東協 癸丑入 時在蔚山府使
 鄭 瑋 癸丑繼入 時在慶州營將
 鄭再賢 乙卯繼入
 鄭東觀 乙丑入 時在安東府使
 鄭有淳 丙寅入 時在山清縣監
 鄭萊栢 " "
 鄭國台 丙寅繼入
 鄭萊淳 丁卯入
 鄭世彥 戊辰入
 鄭賢大 " "
 鄭萊馥 " "
 鄭得權 己巳入
 鄭福世 辛未入
 鄭聖雄 辛未繼入
 鄭雨龍 辛未入
 鄭乃和 甲戌繼入 萊仁子
 鄭魯彥 乙亥入
 鄭元容 丙子入 時在承旨
 鄭應澤 丁丑繼入
 鄭福榮 " "
 鄭國賢 丁丑入
 鄭德垢 " "
 鄭碩壽 己卯入 改名錫臻
 鄭慶春 " "
 鄭是容 庚辰入 時在大邱判官
 鄭基直 庚辰繼入 監司大容子
 時在宜寧縣監

鄭儀大 庚辰入
 鄭奎祥 " "
 鄭東煥 辛巳入 時在慈仁縣監
 鄭萊綱 癸未繼入
 鄭起彥 " "
 鄭成雲 " "
 鄭岬東 甲申入
 鄭光益 甲申繼入
 鄭昌謙 乙酉入
 鄭彥裕 丙戌入 時在幕府
 鄭宅淳 丙戌入
 鄭基植 丁亥入 時在宜寧縣監
 鄭基善 戊子入 時在慶尙監司
 鄭泰東 戊子繼入 時在河東府使
 鄭文郁 戊子入
 鄭采煥 戊子繼入
 鄭仁興 戊子入
 鄭志浩 " "
 鄭有一 戊子繼入
 鄭存一 " "
 鄭志養 戊子入
 鄭道潤 己丑入
 鄭道彥 " "
 鄭碩俊 " "
 鄭守福 庚寅入
 鄭聖默 " "
 鄭東龜 辛卯入 時在密陽府使
 鄭興潤 " "
 鄭彥臣 辛卯繼入
 鄭國璘 辛卯入
 鄭禮容 壬辰入 時在慶州府尹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鄭自權	"	
鄭春東	"	
鄭華國	癸巳繼入	
鄭守德	"	
鄭喜愚	丙申入	
鄭英周	丁酉入	
鄭碩坤	丁酉繼入	
鄭始容	戊戌入	時在大邱判官
鄭應淳	己亥繼入	
鄭寂朝	辛丑繼入	監司大容孫 時在慶州府尹
鄭以大	辛丑入	改名大興
鄭德興	辛丑入	
鄭仁燮	"	
鄭孟臣	"	
鄭聖臣	壬寅繼入	
鄭命順	壬寅入	
鄭仁坤	壬寅入	改名東翰
鄭三龍	"	
鄭甲俊	"	
鄭大根	"	
鄭弼福	"	
鄭大仁	壬寅入	
鄭仁煥	癸卯繼入	
鄭富命	癸卯入	
鄭雲河	"	
鄭乃敬	甲辰繼入	
鄭潤和	"	
鄭碩坤	甲辰入	
鄭國柱	乙巳入	
鄭有泰	"	
鄭在哲	"	
鄭愚容	丙午入	時在義興縣監
鄭允容	丙午繼入	山淸縣監有淳孫 時在密陽府使
鄭興元	丁未繼入	
鄭昌淳	"	
鄭成彥	庚戌入	
鄭必魯	庚戌繼入	
鄭翰振	庚戌入	
鄭東守	辛亥入	
鄭始潤	辛亥繼入	
鄭敏國	辛亥入	
鄭斗命	"	
鄭始弘	辛亥繼入	
鄭碩魯	壬子繼入	
鄭成煥	壬子入	
鄭就逸	"	
鄭光錫	癸丑繼入	
鄭泰永	癸丑入	
鄭昌珪	甲寅入	
鄭老容	乙卯繼入	時在密陽府使
鄭學裕	乙卯入	時在長水察訪
鄭武成	丙辰入	
鄭在容	己未入	時在金海府使
鄭寬淳	己未繼入	
鄭祥殷	己未入	
鄭斗滿	"	
鄭英奎	"	
鄭祺演	庚申繼入	萊淳曾孫
鄭守演	"	萊淳曾孫
鄭善容	辛酉入	時在多大僉使
鄭厚坤	辛酉繼入	
鄭始民	"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鄭始牧 壬戌繼入
 鄭 桓 癸亥繼入 山淸縣監有淳子
 時在慶州營將
 鄭桓周 甲子入
 鄭重錄 甲子繼入
 鄭大翊 乙丑繼入
 鄭憲朝 丙寅繼入 監司基善子
 時在大邱判官
 鄭 塾 戊辰入 時在興海郡守
 鄭始崙 戊辰繼入
 鄭德一 " "
 鄭仁八 己巳入
 鄭良淳 己巳繼入 師玄曾孫
 鄭東伯 己巳繼入
 鄭學周 庚午繼入
 鄭始徹 " "
 鄭進旭 " "
 鄭錫權 辛未入
 鄭會演 辛未繼入 萊淳曾孫
 鄭貴成 辛未入
 鄭琪俊 " "
 鄭時宗 " "
 鄭裕福 " "
 鄭秉一 辛未繼入
 鄭命祿 辛未繼入
 鄭華俊 辛未入
 鄭暘會 壬申繼入
 鄭光憲 壬申入
 鄭在鎭 癸酉入
 鄭基大 乙亥繼入 時在蔚山府使
 鄭錫周 乙亥入
 鄭和一 " "
 鄭弼周 乙亥繼入

鄭智權 乙亥繼入 祺演子
 鄭始昊 乙亥繼入 存一子
 鄭吉淳 乙亥繼入 師玄曾孫
 鄭大一 乙亥繼入
 鄭桓璇 乙亥入
 鄭翻朝 丙子繼入 密陽府使存中曾孫
 時在金海府使
 鄭義奎 丙子繼入
 鄭熙杓 丙子繼入
 鄭基厦 " "
 鄭樹璟 " "
 鄭喜龍 " "
 鄭致奎 丙子繼入
 鄭仁善 戊寅繼入
 鄭雯烈 己卯繼入
 鄭仁昊 " "
 鄭泰福 己卯入
 鄭德禧 庚辰繼入
 鄭仁翰 辛巳入
 鄭大連 " "
 鄭寬一 甲申繼入
 鄭始侄 丙戌繼入
 鄭連重 丙戌入
 鄭化德 己丑繼入
 鄭英佑 己丑入
 鄭奉佐 " "
 鄭箕杓 " "
 鄭時華 " "
 鄭宇權 " "
 鄭載淳 己丑入
 鄭斗必 己丑繼入
 鄭永祚 " "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鄭聖八 " "
 鄭喆元 " "
 鄭祺周 庚寅入
 鄭憲圭 辛卯繼入
 鄭祥祚 " "
 鄭浩俊 壬辰入
 鄭浩賢 壬辰入
 鄭局千 壬辰繼入
 鄭局芳 " "
 鄭敬五 " "
 鄭錫俊 " "

鄭英元 癸巳繼入 改名英朝
 鄭有寬 癸巳入
 鄭基元 壬辰繼入 改名貞朝
 鄭德允 癸巳繼入
 鄭寅守 癸巳入
 鄭基永 癸巳繼入
 鄭寅棧 癸巳入
 鄭漢守 甲午入
 鄭寅學 乙未繼入 蔚山府使東協玄孫
 時在東萊府使
 鄭泳朝 甲辰入 時在東萊郡守

座目 ※이 좌목은 <1733증계안1>에 들어 있는 좌목이다.

府使 鄭彥燮
 府使 鄭來周 癸丑 追入
 府使 鄭亨復 己未元朝 追入
 府使 鄭履儉 壬戌冬 追入
 府使 鄭晚淳 壬午冬 追入
 宜寧縣監 鄭益儉 戊子秋 追入
 密陽府使 鄭存中 甲午春 追入
 開寧縣監 鄭東閔 戊戌季春 追入
 昌寧縣監 鄭東驥 癸卯至月 追入
 昌原府使 鄭彥衡 甲辰九月 追入
 慶州營將 鄭選 乙巳四月 追入
 星州牧使 鄭華淳 戊申三月 追入

鄭時英
 鄭載瑞
 鄭載泰
 鄭師玄
 鄭世玄

鄭邦佑
 鄭汝僑
 鄭瑗
 鄭載重
 鄭元相
 鄭而和
 鄭完哲
 鄭錫康
 鄭晚興 改名晚立
 鄭晚成 改名晚奉
 鄭再僑 己未正月 追入
 鄭瑋 壬戌二月 繼入
 鄭暹 癸亥四月 追入
 鄭義僑 癸亥四月 追入
 鄭希僑 甲子九月 繼入
 鄭邦儒 甲子十月 繼入 改名
 鄭有興 甲子十月 繼入
 鄭載協 乙丑正月 追入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鄭德興 丙寅正月 追入
 鄭達星 丙寅九月 追入
 鄭萊興 丁卯二月 追入
 鄭春碩 戊辰三月 追入
 鄭興邦 壬申二月 繼入
 鄭萊孝 庚辰八月 繼入
 鄭得命 庚辰八月 繼入
 鄭萊湖 甲申三月 繼入
 鄭萊成 甲申三月 繼入
 鄭世康 己丑五月 繼入
 鄭萊成 乙未閏十月 繼入
 鄭德崙 丁酉二月 繼入

鄭萊瑜 丁酉八月 繼入
 鄭德淳 辛丑八月 追入
 鄭萊鶴 辛丑八月 追入
 鄭萊仁 壬寅八月 日 繼入
 幼學 鄭有臣 乙酉孟秋 追入
 居全州
 鄭周翊 癸卯八月 日 追入
 鄭重僑 癸卯八月 日 追入
 鄭萊胤 癸卯九月 日 繼入
 幼學 鄭載健 乙巳正朝 追入
 居萬頃 時居全州
 鄭再興 乙巳三月 日 繼入

癸亥四月 日 追成節目⁷²⁾

- 一 京居子孫之亦⁷³⁾ 參此稷有⁷⁴⁾ 誠有意見而只今來守本府者 參錄則其路甚狹하야 易致間斷하니 此後則作宰道內하면 躬來省掃⁷⁵⁾ 而有願追入者는 並許之하고 墓下凡事는 鄉有司 往復相議할事
- 一 元契憲有京中契員이 有大故則宗人 致吊兼輸賻物하고 有慶事면 亦送助物之語 而京中契員이 漸多하야 若無定限則似難遍及하니 此後則京契員家於四喪⁷⁶⁾ 只送賻物而無過錢拾兩하고 宗人致吊一款 及慶事助物 除減할事
- 一 鄉契員之拾兩禮錢이 亦⁷⁷⁾ 似過多하니 窮家拾兩錢을 未易辦⁷⁸⁾ 得

72) 이 追成節目은 <1733종계안1>에 들어 있고 <1733종계안2>에는 없다.

73) 亦이 <화산재지>에는 누락되었다.

74) <1733종계안1>에는 有가 없다.

75) 掃가 <화산재지>에는 歸로 誤植되었다.

76) 喪이 <화산재지>에는 表로 誤植되었다.

77) 亦이 <화산재지>에는 누락되었다.

78) 辦이 <화산재지>에는 辨으로 誤植되었다.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하야爲子孫者⁷⁹⁾가爲此所拘에欲入不得則道理에殊未安하니此後則減爲伍兩할事

- 一 人家墳山養木處이勿許他人入葬은自是⁸⁰⁾ 國典⁸¹⁾而 山所圖局內距 墓不遠之地에他塚이累累事는甚不當하니曾前已有之塚은雖不可堀去나其所繼葬者는不可不⁸²⁾禁이니此後에如或托以繼葬하고更有入葬者則齋宮僧人이通于有司하야即爲告官禁斷할事

戊辰五月 日追成節目⁸³⁾

- 一 去癸亥追節目內本邑進入之員禮錢은降⁸⁴⁾下爲伍兩 | 라自後願入者多⁸⁵⁾是乎所若此不已則將未免人多紛亂하야反致不孝於 先壙之契是乎等自今以後還陞本定拾兩而永勿降⁸⁶⁾限할事

癸未十一月 日追成節目⁸⁷⁾

- 一 初節目中元無逐年劃給齋僧之憲而今以劃給이면 似爲過多하니若無定限則將必有不得支堪而有始無終之弊矣니自今以後로는定日秋捧而鎖⁸⁸⁾封其庫하고豐年則每朔租⁸⁹⁾一石式出給是遣凶年則二朔一石式出給爲乎矣一年條⁹⁰⁾租預爲一併⁹¹⁾出給則僧人亦不

79) 子孫者가 《화산재지》에는 子有로 誤植되었다.

80) 是가 《화산재지》에는 足으로 誤植되었다.

81) 典이 《화산재지》에는 興으로 誤植되었다.

82) 不이 《화산재지》에는 누락되었다.

83) 이 追成節目은 <1733종계안1>에 들어 있고 <1733종계안2>에는 없다.

84) 降이 《화산재지》에는 諱로 誤植되었다.

85) 頻多가 《화산재지》에는 多로 頻이 누락되었다.

86) 降이 《화산재지》에는 淨으로 誤植되었다.

87) 이 追成節目은 <1733종계안1>에 들어 있고 <1733종계안2>에는 없다.

88) 鎖가 《화산재지》에는 領으로 誤植되었다.

89) 租가 《화산재지》에는 祖로 誤植되었다.

90) 條가 《화산재지》에는 누락되었다.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無先裕後歎⁹²⁾之患矣 | 니上有司逐朔親往⁹³⁾開庫出用出給하야
永久遵行焉하다

- 一 初節目中有每年歲末에 文書修送于京中之憲而今亦闕焉하니亦將
有始勤終怠貽하야疎於守護之端矣 | 라自今以後一依初⁹⁴⁾節目⁹⁵⁾
하야歲末文書修送于⁹⁶⁾京中叅契宅하야以爲相考케 하고往來始終
如一而京往僧路資는每名⁹⁷⁾三兩式計給爲乎矣或有僧人有故而
不得送往則上京戶吏便付送할事

癸丑四月 日宗契畚秩⁹⁸⁾

邑內城要員兩字

第九 三等畚二夜三負一束

中嚴員雲字

第十八 二等畚二夜九負八束

第十九 二等畚十夜二十七負二束

第二十 二等畚一夜七負二束

第二十一 二等畚三夜五負六束

合伍拾二負玖束

拾五斗地本土邑內居 鄭再僑

西而余古矣測字

第五十五 二等畚二夜十二負四束 伍斗地本土西面居 文命昌

豆尼山員移字

91) 併이 《화산재지》에는 俸으로 誤植되었다.

92) 歎이 《화산재지》에는 歎으로 誤植되었다.

93) 往이 《화산재지》에는 누락되었다.

94) 初가 《화산재지》에는 和로 誤植되었다.

95) 目이 《화산재지》에는 日로 誤植되었다.

96) 《화산재지》에 于 바로 다음에 矣가 삽입되었는데 이는 誤植이다.

97) 名이 《화산재지》에는 石으로 誤植되었다.

98) 이 宗契畚秩은 <1733종계안1>에 들어 있고 <1733종계안2>에는 없다.

부록 3. 종계안(정언섭, 1733)

第二十五 二等畚二夜五負六束
第二十六 三等畚四夜五負八束) 肆斗地本主西面居 鄭師玄

華池員觀字

第十五 三等畚二夜十負六束
第十六 三等畚三夜九負六束
第十七 三等畚二夜四束) 合貳拾負六〇束
肆斗地本主齋宮僧元湜

已上畚九十柒負參束 貳拾捌斗地
元錢文壹百兩及利文貳拾壹兩捌錢內
玖拾玖兩畚價給下
留在錢文貳拾貳兩捌錢

有司 鄭師玄

癸亥四月 日祭鑿器置付記⁹⁹⁾

食器貳立俱盖
盞俱台貳坐
燭臺壹雙
香爐
香盒
六貼五立
貼匙壹竹
小周鉢壹竹壹立
麵周鉢貳立
鍾子三立) 兼匙筋
前備上
合參竹壹立重拾陸斤玖兩辛酉備上

99) 이 祭鑿器置付記는 <1733종계안1>에 들어 있고 <1733종계안2>에는 없다.

부록 3. 증계안(정언섭, 1733)

餅盤貳立	}	合陸立重拾六斤 癸亥新備
果盤貳立		
炙盤貳立		
脯肉盤貳立		

遮日壹部 甲寅備上

酒煎子	}	一部 庚辰自契備上
遮日		

副有司 鄭 (수결)

上有司 鄭 (수결)

부록 4. 계속기명

4. 계속기명

東萊鄭氏宗稷(改修)

自稷長鄭彥燮設稷以後繼續記名 一冊

東萊鄭氏宗稷案 戊子(1828) 4月 日 修正

1	東萊府使 鄭彥燮	癸丑(1733)入	
2	東萊府使 鄭來周	癸丑(1733)入	
3	東萊府使 鄭亨復	己未(1739)入	
4	東萊府使 鄭履儉	壬戌(1742)入	
5	東萊府使 鄭晚淳	壬午(1762)入	
6	宜寧縣監 鄭益儉	戊子(1768)入	
7	密陽府使 鄭存中	甲午(1774)入	
8	開寧縣監 鄭東閔	戊戌(1778)入	
9	昌寧縣監 鄭東驥	癸卯(1783)入 [†]	
10	昌原 [†] 府使 鄭彥衡	甲辰(1784)入	
11	慶州營將 鄭 選	乙巳(1785)入	
12	星州牧使 鄭華淳 [†]	戊申(1788)入	
13	慶尙監司 鄭大容	辛亥(1791)入	
14	蔚山府使 鄭東協	癸丑(1793)入	玄孫寅學乙未(1895)繼入
15	慶州營將 鄭 瑋	癸丑(1793)繼入	昌原府使彥衡子
16	安東府使 鄭東觀	乙丑(1805)入	
17	山淸縣監 鄭有淳	丙寅(1806)入	
18	承 旨 鄭元容	丙子(1816)入	
19	大丘判官 鄭是容	庚辰(1820)入	
20	宜寧縣監 鄭基直 [▶]	庚辰(1820)繼入	監司大容子
21	慈仁縣監 鄭東煥	辛巳(1821)入	
22	宜寧縣監 鄭基植	丁亥(1827)入	
23	慶尙監司 鄭基善	戊子(1828)入	
24	河東府使 鄭泰東	戊子(1828)繼入	
25	密陽府使 鄭東龜	辛卯(1831)入	
26	慶州府尹 鄭禮容	壬辰(1832)入	
27	大丘判官 鄭始容	戊戌(1838)入	

부록 4. 계속기명

28	慶州府尹	鄭取朝	辛丑(1841)繼入	監司大容孫
29	義興縣監	鄭愚容	丙午(1846)入	
30	密陽府使	鄭允容	丙午(1846)繼入	山淸縣監有淳孫
31	密陽府使	鄭老容	乙卯(1855)繼入	允容弟
32	長水察訪	鄭學裕	乙卯(1855)入	
33	金海府使	鄭在容	己未(1859)入	
34	多大僉使	鄭善容	辛酉(1861)入	
35	慶州營將	鄭桓	癸亥(1863)繼入	山淸縣監有淳子
36	大邱判官	鄭憲朝	丙寅(1866)繼入	監司基善子
37	興海郡守	鄭塾	戊辰(1868)入	
38	蔚山府使	鄭基大	乙亥(1875)繼入	戊戌大邱判官[始容]之子
39	金海府使	鄭翻朝	丙子(1876)繼入	甲午密陽府使[存中]曾孫
40	東萊府使	鄭寅學	乙未(1895)繼入	癸丑蔚山府使[東協]玄孫
41	東萊郡守	鄭泳朝	甲辰(1904)正朝新入	

† 《화산재지》에서 밑줄 글자 “縣監 鄭東驥 癸卯入 昌原”이 누락되었다.

‡ 鄭華淳: 《화산재지》의 鄭萊淳은 鄭華淳의 오식이다. ※星州牧邑誌 宦蹟에 “鄭華淳丙午(1786)春自南原移拜己酉(1789)夏移晉州”라 하였다.

‣ 鄭基直: 《화산재지》의 鄭基植은 鄭基直의 오식이다. ※宜春誌 官案에 “鄭基直戊寅(1818)赴任癸未(1823)京遞”라 하였다.

1	幼學	鄭時英	癸丑(1733)入
2		鄭載純	癸丑(1733)入
3		鄭載瑞	癸丑(1733)入
4		鄭載泰	癸丑(1733)入
5		鄭師玄	癸丑(1733)入
6		鄭世玄	癸丑(1733)入
7		鄭邦佑	癸丑(1733)入

《화산재지》에는 鄭時英 종인부터 鄭邦佑 종인까지 적고 “外二百四十六名 (실은 245명임)記載 畧 有 追入記名中”이라 하였는데 아래는 생략한 나머지 245명과 追入記名中에 있는 11인이다.

8		鄭汝僑	
9		鄭瑗	

부록 4. 계속기명

10	鄭載重	
11	鄭元相	
12	鄭而和	
13	鄭完哲	
14	鄭錫康	
15	鄭晚興	개명 晚立
16	鄭晚成	改名 晚奉
17	鄭再僑	己未(1739)入
18	鄭 璋	壬戌(1742)繼入
19	鄭 暹	癸亥(1743)入
20	鄭義僑	癸亥(1743)入
21	鄭希僑	甲子(1744)繼入
22	鄭邦儒	甲子(1744)繼入
23	鄭有興	甲子(1744)繼入
24	鄭載協	乙丑(1745)入
25	鄭德興	丙寅(1746)入
26	鄭達星	丙寅(1746)入
27	鄭萊興	丁卯(1747)入
28	鄭春碩	戊辰(1748)入
29	鄭興邦	壬申(1752)繼入
30	鄭萊孝	庚辰(1760)繼入
31	鄭得命	庚辰(1760)繼入
32	鄭萊湖	甲申(1764)繼入
33	鄭萊成	甲申(1764)繼入
34	鄭世康	己丑(1769)繼入
35	鄭萊成	乙未(1775)繼入
36	鄭德崙	丁酉(1777)繼入
37	鄭萊瑜	丁酉(1777)繼入
38	鄭德淳	辛丑(1781)入
39	鄭萊鶴	辛丑(1781)入
40	鄭萊仁	壬寅(1782)繼入
41	鄭有臣	乙酉入

부록 4. 계속기명

42	鄭周翊		
43	鄭載健	乙巳(1785)以府幕入	
44	鄭東佑		
45	鄭再興		
46	鄭萊胤		
47	鄭萊昌		
48	鄭重僑		
49	鄭 玆	丙午(1786)以巡幕繼入	
50	鄭時雄	辛亥(1791)繼入	
51	鄭秀三	壬子(1792)入	
52	鄭再賢	乙卯(1795)繼入	
53	鄭萊栢	丙寅(1806)入	
54	鄭國台	丁卯(1807)繼入	
55	鄭萊淳	丁卯(1807)入	
56	鄭世彥	戊辰(1808)入	
57	鄭賢大	戊辰(1808)入	
58	鄭萊馥	戊辰(1808)入	
59	鄭得權	己巳(1809)入	
60	鄭福世	辛未(1811)入	
61	鄭聖雄	辛未(1811)繼入	
62	鄭雨龍	辛未(1811)入	
63	鄭乃和	甲戌(1814)繼入	
64	鄭魯彥	乙亥(1815)入	
65	鄭應澤	丁丑(1817)繼入	
66	鄭福榮	丁丑(1817)繼入	
67	鄭國賢	丁丑(1817)入	
68	鄭德垢	丁丑(1817)入	
69	鄭碩壽	己卯(1819)入	개명 錫璨
70	鄭慶春	己卯(1819)入	
71	鄭儀大	庚辰(1820)入	
72	鄭奎祥	庚辰(1820)入	
73	鄭萊綱	癸未(1823)繼入	

부록 4. 계속기명

74	鄭起彥	癸未(1823)繼入	
75	鄭成雲	癸未(1823)入	
76	鄭嶠東	甲申(1824)入	
77	鄭光益	甲申(1824)繼入	
78	鄭昌謙	乙酉(1825)入	
79	鄭彥裕	丙戌(1826)以府幕入	
80	鄭宅淳	丙戌(1826)入	
81	鄭文郁	戊子(1828)入	
82	鄭采煥	戊子(1828)繼入	
83	鄭仁興	戊子(1828)入	
84	鄭志浩	戊子(1828)入	
85	鄭有一	戊子(1828)繼入	
86	鄭存一	戊子(1828)繼入	
87	鄭志養	戊子(1828)入	
88	鄭道潤	己丑(1829)入	
89	鄭道彥	己丑(1829)入	
90	鄭碩俊	己丑(1829)入	
91	鄭守福	庚寅(1830)入	
92	鄭聖默	庚寅(1830)入	
93	鄭興潤	辛卯(1831)入	
94	鄭彥臣	辛卯(1831)繼入	
95	鄭國旻	辛卯(1831)入	
96	鄭自權	壬辰(1832)入	
97	鄭春東	壬辰(1832)入	
98	鄭華國	癸巳(1833)繼入	
99	鄭守德	癸巳(1833)繼入	
100	鄭喜愚	丙申(1836)入	
101	鄭英周	丁酉(1837)入	
102	鄭碩坤	丁酉(1837)繼入	
103	鄭應淳	己亥(1839)繼入	
104	鄭以大	辛丑(1841)入	개명 大興
105	鄭德興	辛丑(1841)入	

부록 4. 계속기명

106	鄭仁燮	辛丑(1841)入	
107	鄭孟臣	辛丑(1841)入	
108	鄭聖臣	壬寅(1842)繼入	
109	鄭命順	壬寅(1842)入	
110	鄭仁坤	壬寅(1842)入	개명 東翰
111	鄭三龍	壬寅(1842)入	
112	鄭甲俊	壬寅(1842)入	
113	鄭大根	壬寅(1842)入	
114	鄭弼福	壬寅(1842)入	
115	鄭大仁	壬寅(1842)入	
116	鄭仁煥	癸卯(1843)繼入	
117	鄭富命	癸卯(1843)入	
118	鄭雲河	癸卯(1843)入	
119	鄭乃敬	甲辰(1844)繼入	
120	鄭潤和	甲辰(1844)繼入	
121	鄭碩坤	甲辰(1844)入	
122	鄭國柱	乙巳(1845)入	
123	鄭有泰	乙巳(1845)入	
124	鄭在哲	乙巳(1845)入	
125	鄭興元	丁未(1847)繼入	
126	鄭昌淳	丁未(1847)繼入	
127	鄭成彥	庚戌(1850)入	
128	鄭必魯	庚戌(1850)繼入	
129	鄭翰振	庚戌(1850)入	
130	鄭東守	辛亥(1851)入	
131	鄭始潤	辛亥(1851)繼入	
132	鄭敏國	辛亥(1851)入	
133	鄭斗命	辛亥(1851)入	
134	鄭始弘	辛亥(1851)繼入	
135	鄭碩魯	壬子(1852)繼入	
136	鄭成煥	壬子(1852)入	
137	鄭就逸	壬子(1852)入	

부록 4. 계속기명

138	鄭光錫	癸丑(1853)繼入
139	鄭泰永	癸丑(1853)入
140	鄭昌珪	甲寅(1855) 2月日入
141	鄭武成	丙辰(1856)入
142	鄭寬淳	己未(1859)繼入
143	鄭祥殷	己未(1859)入
144	鄭斗滿	壬子(1852)落漏追入
145	鄭英奎	己未(1859)入
146	鄭祺演	庚申(1860)繼入
147	鄭守演	繼入
148	鄭厚坤	辛酉(1861)繼入
149	鄭始民	辛酉(1861)繼入
150	鄭始牧	壬戌(1862)繼入
151	鄭桓周	甲子(1864)入
152	鄭重錄	甲子(1864)繼入
153	鄭大翊	乙丑(1865)繼入
154	鄭始崙	戊辰(1868)繼入
155	鄭德一	戊辰(1868)繼入
156	鄭仁八	己巳(1869)入
157	鄭良淳	己巳(1869)繼入
158	鄭東伯	己巳(1869)繼入
159	鄭學周	庚午(1870)繼入
160	鄭始徹	庚午(1870)繼入
161	鄭進旭	庚午(1870)繼入
162	鄭錫權	辛未(1871)入
163	鄭會演	辛未(1871)繼入
164	鄭貴成	辛未(1871)入
165	鄭琪俊	辛未(1871)入
166	鄭時宗	辛未(1871)入
167	鄭裕福	辛未(1871)入
168	鄭秉一	丁卯(1867)繼入追錄
169	鄭命祿	辛未(1871)繼入

부록 4. 계속기명

170	鄭華俊	辛未(1871)入
171	鄭暘會	壬申(1872)繼入
172	鄭光憲	壬申(1872)追入
173	鄭在鎭	癸酉(1873)追入
174	鄭錫周	乙亥(1875)追入
175	鄭和一	乙亥(1875)繼入
176	鄭弼周	乙亥(1875)繼入
177	鄭智權	乙亥(1875)繼入
178	鄭始昊	乙亥(1875)繼入
179	鄭吉淳	乙亥(1875)繼入
180	鄭大一	乙亥(1875)繼入
181	鄭桓璇	乙亥(1875)追入
182	鄭義奎	丙子(1876)繼入
183	鄭熙杓	丙子(1876)繼入
184	鄭基厦	丙子(1876)入
185	鄭樹璟	丙子(1876)入
186	鄭喜龍	丙子(1876)入
187	鄭致奎	丙子(1876)繼入
188	鄭仁善	戊寅(1878)繼入
189	鄭雯烈	己卯(1879)繼入
190	鄭仁昊	己卯(1879)繼入
191	鄭泰福	己卯(1879) 10月入
192	鄭德禧	庚辰(1880)繼入
193	鄭仁翰	辛巳(1881) 3月入
194	鄭大連	辛巳(1881) 11月入
195	鄭寬一	甲申(1884) 8月繼入
196	鄭始侄	丙戌(1886) 8月繼入
197	鄭連重	丙戌(1886) 8月入
198	鄭化德	己丑(1889) 5月繼入
199	鄭英佑	己丑(1889) 5月入
200	鄭奉佐	己丑(1889) 11月入
201	鄭箕杓	己丑(1889) 11月繼入

부록 4. 계속기명

202	鄭時華	己丑(1889) 11月繼入
203	鄭宇權	己丑(1889) 11月繼入
204	鄭載淳	己丑(1889) 11月追入
205	鄭斗必	己丑(1889) 11月繼入
206	鄭永祚	己丑(1889) 11月繼入
207	鄭聖八	己丑(1889) 11月繼入
208	鄭喆元	己丑(1889) 11月繼入
209	鄭祺周	庚寅(1890) 7月追入
210	鄭憲圭	辛卯(1891) 7月繼入
211	鄭祥祚	辛卯(1891) 7月繼入
212	鄭浩俊	壬辰(1892) 3月追入
213	鄭浩賢	同月追入
214	鄭局千	壬辰(1892) 10月繼入
215	鄭局芳	同年月追入
216	鄭敬五	同年月繼入
217	鄭錫俊	同年月繼入
218	鄭英元	癸巳(1893) 1月日繼入
219	鄭有寬	同月日追入
220	鄭基元	同月日追入
221	鄭德允	同月日繼入
222	鄭寅守	2月 日追入
223	鄭基永	癸巳(1893) 10月日繼入
224	鄭寅杓	同年月日追入
225	鄭漢守	甲午(1894) 2月追入
226	鄭佑朝	
227	鄭寅祐	
228	鄭寅錫	
229	鄭縉朝	
230	鄭寬朝	
231	鄭相朝	上同日
232	鄭侯朝	
233	鄭惟朝	

부록 4. 계속기명

234	鄭煥溶	
235	鄭煥生	
236	鄭璟浩	
237	鄭寅昶	
238	鄭寅圭	乙未(1895) 2月 日
239	鄭煥哲	
240	鄭煥祐	
241	鄭寅灝	
242	鄭寅旭	
243	鄭致福	
244	鄭寅駿	
245	鄭寅玉	
246	鄭華朝	
247	鄭光洙	
248	鄭寅權	
249	鄭福根	
250	鄭殷周	甲子(1924) 2月 日
251	鄭寅逸	
252	鄭康謨	

戊子八月日宗稷案新備正		
1	鄭錫俊	戊子 8月日入
2	鄭春道	戊子 8月日繼入
3	鄭慶五	戊子 8月日入
4	鄭憲奎	戊子 8月日入
5	鄭尙坤	己丑 2月日入
6	鄭在龍	己丑 2月日入
7	鄭周生	己丑 2月日入
8	鄭祺周	己丑 9月日入
9	鄭榮奎	己丑 9月日繼入
10	鄭九十	庚寅 6月日繼入
11	鄭有完	庚寅 6月日追入

부록 4. 계속기명



▲ 종계안(정기선, 1828): 펼친 첫째 면



▲ 종계안(정기선, 1828): 펼친 둘째 면

부록 5. 향유사안

5. 향유사안

東萊華池山始祖墓守護鄉有司案

鄭震僑	임자(1732)	10월 일		동래	미남
鄭師玄	계축(1733)	4월 일		"	반여
鄭乃和	을해(1815)	월 일		"	연지
鄭萊栢	정축(1817)	10월 일		"	전포
鄭有一	무자(1828)	4월 일		"	연지
鄭存一	을미(1835)	6월 일		"	"
鄭錫璨	무신(1848)	7월 일		"	반여
鄭必魯	경술(1850)	8월 일		"	"
鄭應淳	임자(1852)	8월 일		"	전포
鄭錫璘 ¹⁰⁰⁾	갑인(1854)	5월 일	再任	"	반여
鄭始民	을묘(1855)	5월 일		"	연지
鄭仁旭	정사(1857)	8월 일		"	전포
鄭在演	기미(1859)	6월 일		"	반여
鄭始牧	임술(1862)	5월 일		"	연지
鄭祺演	갑자(1864)	11월 일		"	반여
鄭秉一	병인(1866)	8월 일		"	老 ¹⁰¹⁾
鄭始崙	무진(1868)	8월 일		"	미남
鄭良淳	경오(1870)	10월 일	再任	"	반여
鄭德一	경오(1870)	11월 일		"	화촌
鄭良淳	임신(1872)	8월 일	再任	"	반여
鄭始昊	갑술(1874)	8월 일		"	양정
鄭錫周	병자(1876)	8월 일		"	전포

100) 鄭錫璘의 璘은 璨의 오식으로 보인다.

101) 《화산재지》에 둘째 글자가 인쇄되지 않았는데 老是 老圃인 것 같다.

부록 5. 향유사안

鄭德禧	무인(1878)	8월 일		동래 미남
鄭寬一	경진(1880)	8월 일		" "
鄭曾演	임오(1882)	8월 일		" 반여
鄭始佺	갑신(1884)	8월 일	再任	" 전포
鄭昌淳	정해(1887)	8월 일		" 반여
鄭萊俊	무자(1888)	8월 일		" 석포
鄭琪浩	을축(1889)	8월 일		" 전포
鄭義奎	신묘(1891)	8월 일		" 구세 구서
鄭煥奎	계축(1893)	8월 일		" 전포
鄭時權	을미(1895)	5월 일		" 반여
鄭彙朝	정유(1897)	8월 일		" 邑生民 ¹⁰²⁾
鄭勳朝	기해(1899)	8월 일		" 연지
鄭寬朝	신축(1901)	8월 일		" 구세 구서
句管				
鄭寅祐	신축(1901)	12월 일	新定	" 연지
鄉有司				
鄭始奎	계묘(1903)	8월 일		" 미남
鄭佑朝	을사(1905)	8월 일		" 회동 ¹⁰³⁾
鄭時權	무신(1908)	8월 일	再任	" 반여
鄭相朝	기유(1909)	11월 일		" "
鄉監督及句管 ¹⁰⁴⁾				

102) 邑生民은 읍에 사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읍은 동래읍을 뜻한다.

103) 《화산재지》의 ‘東 四東’은 ‘東萊 回東’의 오류이다. ※항목 39와 부록 항목 8에 鄭佑朝의 거주지는 동래군 동래면 회동(回東)으로 나온다.

104) 《화산재지》의 원주: 大正八年六月一日(己未五月 日)京城宗約所宗會鄉有司名稱記以監督鄉任員一切新選定(기미년(1919) 5월 일 경성 종약소 종회

부록 5. 향유사안

鄭相朝	기미(1919)	5월 일	鄉監督	동래	반여
鄭寅祐	기미(1919)	5월 일	旬管	"	연지
鄭亨朝	신유(1921)	5월 일	鄉監督	"	구철
鄭寬朝	신유(1921)	5월 일	旬管	"	구서
鄉理事 ¹⁰⁵⁾					
鄭相朝	계해(1923)	5월 일		"	반여
鄭珍謨	계해(1923)	5월 일		"	전포
鄭相朝	을축(1925)	5월 일	再任	"	반여
鄭寅祐	을축(1925)	5월 일		"	연지
鄭相朝	정묘(1927)	5월 일	再任	"	반여
鄭寅錫	정묘(1927)	5월 일		"	연지
鄭相朝	기사(1929)	5월 일	再任	"	반여
鄭寅錫	기사(1929)	5월 일	"	"	연지
鄭相朝	신미(1931)	5월 일	"	"	반여
鄭寅錫	신미(1931)	5월 일	"	"	연지
鄭相朝	계유(1933)	5월 일	"	"	반여
鄭珍榮	계유(1933)	8월 일		"	범곡
鄭珍榮	임오(1942)	2월 일	昇任	"	"
鄭鎭奎	임오(1942)	2월 일		"	연지
鄭潤謨	임오(1942)	2월 일	齋監 ¹⁰⁶⁾ 有司	"	임기
鄭珍榮	무자(1948)	10월 일	再任	"	범곡

에서 향유사 명칭을 향감독으로 고치고 향임원 일체를 새로 선정했음.)

105) 《화산재지》의 원주: 京城宗約所宗會決意鄉監督名稱以鄉理事改定旬管廢止鄉理事二人設置(경성 종약소 종회 결의에서 향유사 명칭을 향이사로 개정하고 구관을 폐지하고 향이사 2인을 설치했음.)

106) 《화산재지》의 齋監의 齋는 齋의 이체자이다. ※추원당증건기(鄭潤謨, 1956) 현판에는 齋監으로 나온다.

부록 5. 향유사안

鄭庚三	무자(1948) 10월 일		부산시 양정
鄭潤謨	무자(1948) 10월 일	齋監有司 再	동래 임기
鄭光洙	신유(1921) 6월 일	句管 1953년 4월 일 추록	부산시 석포

부록 6. 중태봉 삼척사 단자(정기회 외, 1902) 및 철도원 훈령

6. 중태봉 森鑿事 단자(정기회 외, 1902) 및 철도원 훈령

임인년(1902) 2월 1일

중태봉 森鑿事 경종중 연합 단자 등본

단자

南署¹⁰⁷⁾ 회현방 회동에 거주하는 前판서 鄭基會 본인 등의 시조 묘소가 동래부 화지산에 있사온바 안산 중태봉 一面이 철도 新掘坑으로 지금 이미 松楸를 베어내고 山中을 鑿破하였습니다. 이 땅이 만약 鐵道의 직선화 토목공사에 1할 5푼이 定界 이내에 들어간다면 兩國 交際上에 있을 불편함이 염려스럽습니다. 심지어 新開波는 비록 확정된 경계를 退步시키더라도 容有基地입니다. 또한 건축법에 위반됨이 있는 것도 아니거늘 도대체 어찌하여 本國 용달회사 임원이 오로지 그 이익만을 꾀합니까? 民有物의 固有權을 묻지 아니하고 그리도 쉽게 鑿破함으로써 근 천년동안 대대로 지켜온 땅을 하루 아침에 毀敗¹⁰⁸⁾하였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주식회사로 말하자면 導洞水道를 낮은 땅 아래로 開鑿하는 것이 마땅히 비용이 적게 들고 일이 간단하거늘 도리어 산을 鑿破하오니 그 계획은 오로지 土石을 취하여 쓰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용달회사로 말하자면 民有物의 보호는 생각하지 않고 籍外人¹⁰⁹⁾의 권력을 좇아 중간에서 잇속을 노려 농락하고 鉗制하여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사오니 바라옵건대 헤아려 살피신 후 新掘坑 확정지를 산 바깥 평지로 물러나게 정하여 이 산을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당해 회사에 훈칙을 내려 鐵道公式에 따

107) 1396년 4월에 漢城府 행정구역을 5部(東部·西部·南部·北部·中部)로 나누었으며 1894년 갑오경장 때 5部를 5署로 고쳤다. 1911년 4월 1일 5署를 다시 5部로 고쳤다.

108) 毀敗: 훼손. ※敗: 험다. 부서다.

109) 籍外人: 외국인으로 일본인을 말한다.

부록 6. 증태봉 삼척사 단자(정기회 외, 1902) 및 철도원 훈령

라 징계하여 勤行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무 6년(1902) 1월 일

前판서 鄭基會
 前승지 鄭學默
 前판윤 鄭完默
 前병사 鄭周默
 前군수 鄭基旭
 前영장 鄭玄基
 前군수 鄭基鳳
 前주사 鄭基璜
 前감역 鄭揆朝
 진 관 鄭漢朝
 前군수 鄭寅壽
 前참판 鄭寅學
 前시어 鄭彰朝
 前참봉 鄭彦朝
 前부사 鄭學
 前의관 鄭永朝
 前군수 鄭圭赫
 참 봉 鄭元謨

前군수 鄭選朝
 前도사 鄭瓚朝
 前사승 鄭蔭朝
 국 장 鄭恒弘
 주 사 鄭翰朝
 前군수 鄭朝
 前참판 鄭閻朝
 前참봉 鄭宅朝
 前첨사 鄭龜朝
 前현령 鄭謹朝
 특진관 鄭寅昇
 前군수 鄭寅國
 前의관 鄭耆朝
 前군수 鄭肯朝
 前판관 鄭昇朝
 참 위 鄭圭朝
 前첨사 鄭圭瓚
 前참봉 鄭薰謨

철도원 총재 합하

題辭

단자에 의하여 훈령을 발급함.

1월 7일

부록 6. 증태봉 삼척사 단자(정기회 외, 1902) 및 철도원 훈령

훈령 第 號

현금 貴府[동래부]의 경내에 경부철도 공사를 시작하는 중에 동래정씨 선영의 안산 中峯을 처음에는 선로가 직접 犯하지는 않았으나 부질없이 新開波門의 鑿破에 이르렀기에 정씨문중이 원통함을 호소하여 되돌리니 이것이 어찌 事端이 아니겠는가? 당해 지형을 摘奸하여 보고하고, 당해 철도주식회사 事務人과 상의하여 도랑[개천, 渠]의 新波門을 다시 측량하여 開鑿하고, 당해 안산 中峯¹¹⁰⁾의 鑿破를 범하지 말 것이며 조그마한 소송이라도 없게 하고 또 당해 擔負工役會社 인원에게 申勅¹¹¹⁾함이 옳음으로 이에 훈령을 발급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시압.

광무 6년(1902) 1월 8일

철도원 총재 심상훈

동래감리 겸 철도감무원 현명운¹¹²⁾은 이 훈령을 받들어 조사하여 이에 조회¹¹³⁾ 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 용달회사에 훈칙을 알려 당해 안산 中峯의 공사는 즉시 정지시키고, 波門을 다시 측량하여 開鑿地를 반드시 조회자 철도주식회사에 이르게 할 것.

화지산재실 役所 收錢유사 鄭與朝

鄭寅州

鄭圭瑛

광무 6년(1902) 2월 1일

110) 문서 원문의 峯은 峯의 뜻도 가지고 있다.

111) 申勅: 단단이 타일러서 경계함.

112) 玄明運(1843-1902): 본관은 천녕이며 譯科출신이다. 동래부윤을 역임하던 중 부 관사에서 죽었다.

113) 照會: ① 어떠한 사항이나 내용이 맞는지 관계되는 기관 등에 알아보는 일. ② 무엇을 알아보기나 알리기 위하여 공문을 보냄. 또는 그 공문.

부록 6. 중태봉 삼척사 단자(정기회 외, 1902) 및 철도원 훈령



▲ 중태봉 森鑿事 경증중 연합 단자 등본 및 철도원 훈령

[원문]¹¹⁴⁾

壬寅二月一日

中台峯森鑿事京宗中聯合單子謄本
單子

南署會賢坊會洞居前判書鄭基會本人
等의始祖墳墓가東萊府華池山에在하은바
案山中峰一面이鐵道新掘坑의入하와今已
松楸를斫伐하고山中을鑿破하얏사오이此地
段니若入於鐵道直線之土工一濶五分定界以內
則兩國交際上에恐或有難便이어나와至於新
開波하난雖退步劃界라도容有基地오亦
非有違於建築法也어날夫何本國用達會社
任員니但計其利오不問民有物之固有權
하고無難鑿下近千年世守之地를一朝毀敗하
오니豈不傷痛乎아가以株式會社로言之라도
導洞水道를就地之低下開鑿니宜乎費省役
簡니어날乃反爲鑿山하오니其計가專在於以
土以石하야欲爲取用也오以用達會社로言之

114) 필사본 문서의 소장자는 鄭海植으로 화지산재실 役所 收錢유사 鄭圭瑛의 증손자이다.

부록 6. 중태봉 삼척사 단자(정기희 외, 1902) 및 철도원 훈령

라도不念民有物保護之意하고徒籍外人之權力하나從中射利하나籠絡鉗制하나竟至此境하오니伏望

商查後新掘坑劃定地를退定于山外平地하나無犯此山케하오시고訓飭放該社하나一依鐵道公式하나以懲勤行之地千萬伏望

光武六年一月 日

前判書鄭基會
 前承旨鄭學默
 前判尹鄭完默
 前兵使鄭周默
 前郡守鄭基旭
 前營將鄭玄基
 前郡守鄭基鳳
 前主事鄭基璜
 前監役鄭揆朝
 進官鄭漢朝
 前郡守鄭寅壽
 前叅判鄭寅學
 前侍御鄭彰朝
 前叅奉鄭彥朝
 前府使鄭學
 前議官鄭永朝
 前郡守鄭圭赫
 叅奉鄭元謨

前郡守鄭選朝
 前都事鄭瓚朝
 前祀丞鄭萐朝
 局長鄭恒弘
 主事鄭翰朝
 前郡守鄭朝
 前叅判鄭閻朝
 前叅奉鄭宅朝
 前僉使鄭龜朝
 前縣令鄭謹朝
 特進官鄭寅昇
 前郡守鄭寅國
 前議官鄭耆朝
 前郡守鄭肯朝
 前判官鄭昇朝
 叅尉鄭圭朝
 前僉使鄭圭瓚
 前叅奉鄭薰謨

부록 6. 증태봉 삼척사 단자(정기회 외, 1902) 및 철도원 훈령

鐵道院總裁閣下

題依單發訓할事

一月七日

訓令第 號

現令貴府境內京釜鐵道始役中東萊鄭氏先
塋案山中峯이初非線絡路之直犯이徒爲新
開波門而致此鑿破하야鄭氏呼冤이還至하니是
何事端耶오該地形을摘奸報來이고與該鐵道株
式會社事務人으로相議하냐渠之新波門을更
爲測量開鑿하고該案山中峯을勿爲犯鑿하
야無至頗訴케하고且申勅於該擔負工役會社人員
하미何하기로茲以訓令하니此를依하야施行하미爲可

光武六年一月八日

鐵道院總裁 沈相薰

東萊監理兼鐵道監務員玄明運奉此查茲庸照
會到即自貴知勅於用達會社하냐該案山中
峯工役은即爲停撤하고波門을更爲測量
하고開鑿之地須至照會者

一鐵道株式會社

華池山齋室役所收錢有司鄭與朝

鄭寅州

鄭圭瑛

光武六年二月一日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동래정씨 동래선산 수호규칙

東萊鄭氏宗約所는 本所 규칙 제3조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래군 서면 연지리 화자산 선산수호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칙은 선조 호장공 산소의 수호사무를 목적으로 하고 수호사무소는 山下의 齋舍로 한다.

제2조 수호사무소는 선산에 관한 일반 動不動產의 보존관리¹¹⁵⁾를 완전히 하며 수입지출을 공평히 함을 本旨로 한다.

제3조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종약소에서 이를 총지휘하고 이 처리의 목적을 완전히 하기 위하여 경향 임원을 둔다.

제2장 임원의 조직 및 임면

제4조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 一、 경감독 1인
- 一、 경간사 2인
- 一、 향감독 1인
- 一、 향구관 1인

제5조 임원의 선정 및 解免은 종약소에서 의결로 이를 행한다.

제6조 경감독 및 간사는 경성 혹은 경성 부근에 거주하는 후손 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 향감독 및 구관은 先山下에 거주하는 후손 중에서 선정한다.

115) 원문은 '保管'이다.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제8조 임원의 임기는 만 2개년으로 정하되 특별사유가 아니면 만기후 계속하여 재임할 수 없고¹¹⁶⁾ 만약 임무수행이 불가능한¹¹⁷⁾ 특별사고가 있어 辭免을 원하거나 제28조와 本所규칙 제38조의 범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解免한다.¹¹⁸⁾

제3장 임원의 직무 및 권한

제9조 경감독은 종약소의 지휘를 받아 경간사와 협의하여 일체 사무를 관리하며 선산에 관한 중요 官私證券을 보관하고 일반임원을 지휘감독하고 종약소에 대하여는 향임원으로부터 처리상 보고가 있을 때는 이를 [종약소에] 전보¹¹⁹⁾하고 질품¹²⁰⁾이 있을 때는 중요사항은 선품후처¹²¹⁾하고 미세사항은 得當¹²²⁾히 선처후보¹²³⁾하되 종약소에서 이를 不得當한 줄로 인정할 때는 무효로 한다.¹²⁴⁾

제10조 경간사는 경감독을 보좌하여 사무에 종사한다.

제11조 향감독 및 구관은 경감독의 지휘를 받아 山下 일체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며 일주간에 한 바퀴씩 산림을 순시하여 산직과 齋直의 勤惰實否를 監査하고 경감독에 대하여 所掌事務의 처리 件마다 보고하며 의심나는 일 또는 중요

116) 원문은 '再選舉함을不得하고'이다.

117) 원문은 '在任不能호'이다.

118) 원문은 '解免함을得호'이다.

119) 轉報: 하급기관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다시 상급기관에 알리는 것.

120) 質稟: 할 일을 상관에게 물어 봄.

121) 先稟後處: 물어 본 후 처리함.

122) 得當: 이치에 맞아 아주 마땅함.

123) 先處後報: 처리한 후 보고함.

124) 원문은 '호도有호'이다.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사항은 質稟하여 隨答處理할 수 있다.¹²⁵⁾ 이에 위반된 처리는 무효로 한다.

제12조 경감독이 그 직무집행 당시 有故한 경우에는 그 간사 중에서 임시대리를 지정하고 그 사유를 종약소에 분명하게 알리며 향감독과 구관 사이에 有故가 있을 때는 상호 대리한다.

제13조 향감독은 경감독에 대한 일반보고 또는 질품을 행할 때는 향구관과 連署한다.

제14조 1년 1회(음 4월 10일)씩 山下 또는 부근에 거주하는 후손 중 老少間 해사인¹²⁶⁾을 불러 모아 종회를 열고 이미 처리된 사항을 포고하며 장래 처리할 일을 협의하되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5조 경감독과 향감독 사이에 서류 수발부를 비치하며 발송서류는 반드시 副本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後考에 대비한다.

제4장 향사 및 접대비와 여비

제16조 享祀儀節은 前例에 의한다.

제17조 享祀時 헌관이 遠地로부터 와서 참석하는 때는 왕래 여비 및 접대비를 지불한다.

단, 헌관 외 원지로부터 와서 참석하거나 평상시 성묘차 내왕하는 자손에 대하여는 숙박을 허락하되 齋舍에서 무단으로 광일유연¹²⁷⁾하는 것은 불허한다.¹²⁸⁾

제18조 경임원이나 종약소 파견인과 향임원이 緊重한 사실로 말

125) 원문은 ‘흠이可흠’이다.

126) 解事人: 관청에 근무하며 일을 잘 아는 사람.

127) 曠日留連: 하는 일이 없이 여러 날을 머무름.

128) 원문은 ‘不得케흠’이다.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미암은 경향간 내왕 여비는 實額으로 지급한다.

제5장 재정의 수지

제19조 매년 추수(陰 10월 그믐 內) 때에는 향감독은 구관과 공동으로 실행하며 종약소는 경감독과 상의하여 가감자¹²⁹⁾ 1인을 파견하여 이를 감시하고 당해 곡포¹³⁰⁾ 수납의 완결과 동시에 齋舍 窠간에 적치하여 봉쇄하고 열쇠는 향감독이 보관하고 당해 곡포의 秋收記는¹³¹⁾ 제21조의 예에 의하여 시행케 하며 需用에 인하여 開庫할 때는 반드시 임원이 會同하여 실행한다.

제20조 향감독은 향구관과 협의하여 일반 수용 금액을 위의 곡포 중에서 流用하되 경감독의 指定이 없으면 천편¹³²⁾할 수 없다.¹³³⁾

제21조 향감독은 前條 需用 文簿 3통을 향구관과 하나하나 자세히 連署로 작성하여 경감독에게 제출한 후 경감독은 이를 査閱하여 종약소에 通過하고 同 文簿 1통은 종약소에, 1통은 경감독에게 보존케 하고 1통은 종약소에서 검열후 날인 반송하여 향감독이 보존케 한다.

제22조 위의 곡포 中으로서 需用에 관하여 작전용하¹³⁴⁾된 餘額과 기타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1년간 應用準備金으로 하

129) 可堪者: 맡은 일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사람.

130) 穀包: 곡식 담은 부대.

131) 원문은 '秋收訖'이나 東萊鄭氏禮泉五先山守護規則(대정 8년(1919) 6월 1일, 동래정씨종약소)을 참고하면 '秋收記'의 오류로 여겨진다.

132) 擅便: 마음대로 처단함. 擅斷.

133) 원문은 '擅便함을不得'이다.

134) 作錢用下: 곡식이나 물건을 팔아서 비용을 씀. ※作錢用下된 餘額: 곡식이나 물건을 팔아 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액.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여 향임원이 聯署하여 부근 우편소나 혹은 은행에 저금하고 그 사항을 자세히 하여 당해 통장을 경감독에게 송치하여 보관케 한다.

단, 혹 영쇄¹³⁵⁾한 금액(10원 이내)이 생긴 경우에는 향감독이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임시 應用하고 이 사항도 경감독에게 분명하게 제보한다.

제23조 宗族中 위토 소작을 허락할 때는 5두락을 초과할 수 없고¹³⁶⁾ 소작료 징수는 타인과 같이 하되 징수기한을 경과할 때는 소작권을 환수한다.

단, 山下宗族은 山直, 齋直 등의 경작지 외에 잉여부분이 있지 않으면 위토의 소작을 허락하지 않는다.¹³⁷⁾

제24조 先山用의 필요한 재정을 1년간 지출하고 잉여가 있을 때는 별도로 이를 저축하여 선산불우¹³⁸⁾의 쓰임과 또는 중중 공익에 제공하며, 저축 방법은 임원이 聯署하여 은행이나 혹은 우편소나 종약소 임시지정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당해 저금통장은 종약소에 보관한다.

제25조 松楸에 관하여 지엽전벌¹³⁹⁾ 혹은 치수간벌¹⁴⁰⁾ 혹은 풍락목벌채¹⁴¹⁾의 大要가 있어 종약소 의결을 득한 때는 제19조 상단, 제21조, 제24조의 예를 준용한다.

제26조 경감독의 통신 또는 서류작성 경비를 매년 10원씩 지불하

135) 零瑣: 자질구레한 것.

136) 원문은 '五斗落에超過를不得호고'이다.

137) 원문은 '許함을不得함'이다.

138) 先山不虞: 선산에 관련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

139) 枝葉剪伐: 가지치기.

140) 稚樹間伐: 어린나무 간벌.

141) 風落木伐採: 바람에 쓰러진 나무의 벌채.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되 경감독은 收支簿를 작성 비치하고 연말에 결산하여 부족이 생기면 더 청구하고 잉여가 있으면 명년 이월금으로 기입하되 제21조 鄉文簿 통과할 時도 하나로 작성해서 종약소에 제출하며 만기 임무교체시 잉여액이 있으면 文簿와 동일하게 引渡한다.

제6장 임원의 수당

제27조 경임원은 우선에는 마련하지 않고 향임원은 당분간 舊例에 의한다.

제7장 벌칙

제28조 임원이 범죄가 있을 때는 종약소는 아래의 벌칙을 施用한다.

- 一、 추수에 대하여 범죄가 있을 때는 그 수량에 상당한 時價 2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케 한다.
- 二、 松楸를 베거나 또는 潛賣함이 있을 때는 실물 가격 외 대송 1주 10원, 중송 1주 5원, 치송 1주 1원의 금액을 배상케 한다.
- 三、 임원 中 재정에 관한 부정행위를 상호은닉하다가 걸으므로 드러난 경우에는 감독은 은닉액 3배 이상, 기타 임원은 2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케 한다.
- 四、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는 책유¹⁴²⁾를 가하되 책유에 따르지 않을 때는 遞任케 한다.¹⁴³⁾
- 五、 임원이 상호간 무단히 경찰¹⁴⁴⁾함이 있을 때는 또한 前項

142) 責諭: 문책.

143) 원문은 '遞任케 함도有함'이다.

144) 傾軋: 질투하는 마음으로 간계를 부려 모함함.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에 준한다.

제8장 인장의 종별 및 그 사용

제29조 임원의 인장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 一、東萊鄭氏東萊先山守護京監督之章
- 二、東萊鄭氏東萊先山守護鄉監督之章

경감독과 향감독 이외 임원은 각기 實印을 사용하고 경감독과 향감독 역시 實印을 사용한 아래에 前項의 인장을 사용하여도 된다.¹⁴⁵⁾

제30조 先山에 관한 일체서류에 당해 임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장 부칙

제31조 본 규칙은 대정 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 규칙에 별단규정이 없는 것은 종전 관례에 의거하고 미진한 조항은 추후 증감한다.

제33조 본 규칙 시행 후 위반함이 있을 때는 벌칙을 가하되 이에 불복하는 자는 사법관의 재결을 구할 수 있다.

제34조 종약소 또는 종약소장의 인감과 본 규칙 제29조의 인감은 종약소와 山下齋舍와 경감독 보관의 規則書에 첨부하여 서류 접수시마다 이를 비교 대조함을 요한다.

제35조 경감독과 향감독은 만기 체임시 인장과 文簿를 신임자와 인제인수를 행하되 이를 종약소에 聯署報告한다.

제36조 본 규칙은 종약소 및 山下齋舍에 1통씩 보관하고 기타 임원이 각기 1통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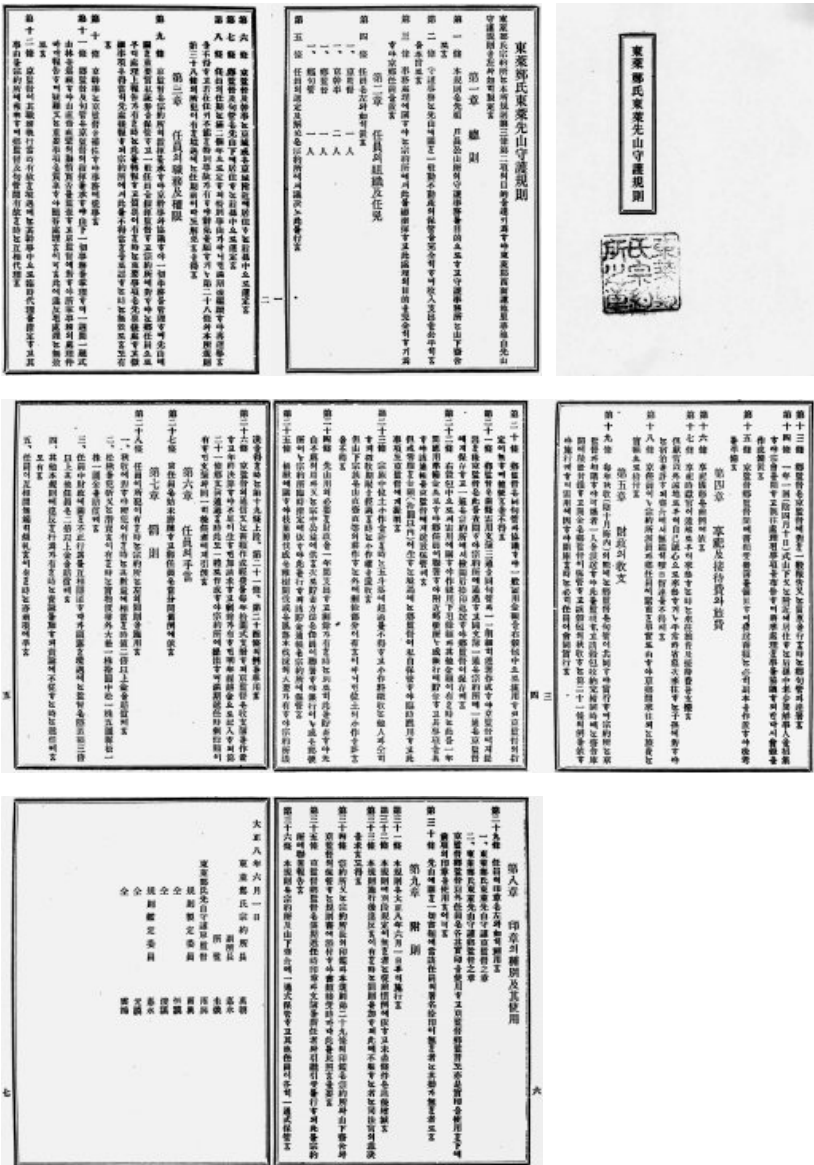
145) 원문은 '使用함이可함'이다.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대정 8년(1919) 6월 1일

東萊鄭氏宗約所長	萬朝
副所長	憲永
所監	圭煥
東萊鄭氏先山守護京監督	雨興
規則製定委員	雨興
全	恒謨
全	浚謨
規則鑑定委員	憲永
全	元謨
全	雲鴻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중약소, 1919)



▲ 동래정씨 동래선산 수호규칙(1919)

[원문]

東萊鄭氏東萊先山守護規則

東萊鄭氏宗約所는 본所規則第三條第二項의目的을達키爲호야東萊郡西面蓮池里華池山先山守護規則을左와如히製定함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規則은先祖 戶長公山所의守護事務를目的으로호고守護事務所는山下齋舍로함

第二條 守護事務所는先山에關호一般動不動産의保管을完全히호며收入支出을公平히함을本旨로함

第三條 事務處理에關호야는宗約所에서此를總指揮호고此處理의目的을完全히호기爲호야京鄉任員을置함

第二章 任員의組織及任免

第四條 任員은左와如히置함

- 一、京監督 一人
- 一、京幹事 二人
- 一、鄉監督 一人
- 一、鄉句管 一人

第五條 任員의 選定及解免은宗約所에서議決호此를行함

第六條 京監督及幹事는京城或은京城附近에居住호는后孫中으로選定함

第七條 鄉監督及句管은先山下에居住호는后孫中으로選定함

第八條 任員의任期는滿二個年으로定호되特別事由가아니면滿期後繼續호야再選舉함을不得호고若在任키不能호特別事故가有호야辭免을願호거는第二十八條와本所規則第三十八條의所犯이有호境遇에는任期前이라도解免함을得함

第三章 任員의職務及權限

第九條 京監督은宗約所의指揮를承호야京幹事와協議호야一切事務를管理호며先山에關호重要官私証券을保管호고一般任員을指揮監督호고宗約所에對호야는鄉任員으로부터處理上報告가有호는時는此를轉報호고質稟이有호는時는重要事項은先稟後處호고微細事項은得當히先處後報호되宗約所에서此를不得當호줄로認호는時는無效로함도有호

第十條 京幹事는京監督을補佐호야事務에從事호

第十一條 鄉監督及句管은京監督의指揮를承호야山下一切事務를掌理호며一週間一廻式山林을巡視호야山直齋直輩의勤惰實否를監査호고京監督에對호야所掌事務의處理件마다報告호며疑難又는重要事項은質稟호야隨答處理함이可호此에違反된處理는無效로함

第十二條 京監督이其職務執行當時有故호境遇에는其幹事中으로臨時代理를指定호고其事由를宗約所에報明호며鄉監督及句管間有故호는時는相互代理호

第十三條 鄉監督은京監督에對호一般報告又는質稟을行호時는鄉句管과連署호

第十四條 一年一回(陰四月十日)式山下又는附近에居住호는后孫中老少間解事人을招集호야宗會를開호고既往處理된事項을布告호며將來處理호事를協議호되만다시會錄을作成備置호

第十五條 京監督鄉監督間에書類受發簿를備置호며發送書類는必히副本을作置호야後考를準備호

第四章 享祀及接待費와旅費

第十六條 享祀儀節은前例에依호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第十七條 享祀時獻官이遠地로부터來參ᄃᆞ는時는往來旅費及接待費를 支撥ᄃᆞᄃ

但獻官以外遠地로부터來參ᄃᆞ거는平常時省墓次來往ᄃᆞ는子孫에對ᄃᆞ야는宿泊을許ᄃᆞ되齋舍에서無端히曠日留連을不得케ᄃᆞᄃ

第十八條 京任員이는宗約所派員과鄉任員이緊重ᄃᆞ事實로由ᄃᆞ야京鄉間來往되는旅費는實額으로給付ᄃᆞᄃ

第五章 財政의收支

第十九條 每年秋收(陰十月晦內)의際에는鄉監督은句管이共同ᄃᆞ야實行ᄃᆞ며宗約所는京監督과相議ᄃᆞ야可堪者一人을派送ᄃᆞ야此를監視ᄃᆞ고該穀包收納完結同時에는齋舍庫間에積置封鎖ᄃᆞ고開金은鄉監督이保管ᄃᆞ고該穀包的秋收ᄃᆞ는第二十一條의例를依ᄃᆞ야施行케ᄃᆞ며需用에因ᄃᆞ야開庫ᄃᆞᄃ時는必히任員이會同實行ᄃᆞᄃ

第二十條 鄉監督은同句管과協議ᄃᆞ야一般需用金額을右穀包中으로流用ᄃᆞ되京監督의指定이無ᄃᆞ며擅便ᄃᆞᄃ을不得ᄃᆞᄃ

第二十一條 鄉監督은前條需用文簿三通을同句管과一一明細히連署作成ᄃᆞ야京監督에게提出ᄃᆞᄃ後京監督은此를查閱ᄃᆞ야宗約所에通過ᄃᆞ고同文簿一通은宗約所에一通은京監督에게保存ᄃᆞ고一通은宗約所에서檢閱後捺印返送ᄃᆞ야鄉監督이保存케ᄃᆞᄃ

第二十二條 右穀包中으로서需用에關ᄃᆞ야作錢用下된餘額과其他金額이有ᄃᆞ는時는此를一年間應用準備金으로ᄃᆞ야鄉任員이聯署ᄃᆞ야附近郵便所는或銀行에貯金ᄃᆞ고其事項을具ᄃᆞ야該通帳을京監督에게送致保管케ᄃᆞᄃ
但或零瑣ᄃᆞᄃ金額(十圓以內)이生ᄃᆞᄃ境遇에는鄉監督이私自保管ᄃᆞ야臨時應用ᄃᆞ고此事項도京監督에게提明ᄃᆞᄃ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第二十三條 宗族中位土小作을許할時는五斗落에超過를不得호고
小作料徵收는他人과소히호되徵收期限을經過할時는小作權
을還收함

但山下宗族은山直齋直等の耕作호는外에剩餘部分이有함이아
니면位土의小作을許함을不得함

第二十四條 先山用의必要한財政을一年間支出호고剩餘가有할時
는別로此를貯蓄호야先山不虞의用과又는宗中公益에供할次
로貯蓄方法은任員이聯署호야銀行이느或은郵便所이느宗約所
臨時指定에依호야此를行호되該貯金通帳은宗約所에保管함

第二十五條 松楸에關호야枝葉剪伐或은稚樹間伐或은風落木伐採
의大要가有호야宗約所議決을得할時는第十九條上段、第二十
一條、第二十四條의例를準用함

第二十六條 京監督의通信又는書類作成經費를每年十圓式支撥호
되京監督은收支簿를作置호고年終決算호야不足이生호면加請
求호고剩餘가有호면明年繰越金으로記入호되第二十一條鄉文
簿通過할時도一體로作成호야宗約所에提出호며滿期遞任時剩
餘額이有호면文簿와同一히後任者에게引渡함

第六章 任員의手當

第二十七條 京任員은姑不磨練호고鄉任員은當分間舊例에依함

第七章 罰則

第二十八條 任員이所犯이有할時는宗約所는左의罰則을施用함

- 一、 秋收에對호야所犯이有할時는其數量에相當할時值二倍以上
金을賠償케함
- 二、 松楸를犯斫又는潛賣함이有할時는實物價格外大松一株十
圓中松一株五圓穉松一株一圓金을賠償케함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 三、 任員中財政에關호不正行爲를相互隱匿호다가顯露한境遇에는監督은隱匿額三倍以上其他任員은二倍以上金を賠償케호
- 四、 其他本規則에違反호行爲가有호時는責諭를加호되責諭에不從호는時는遞任케호도有호
- 五、 任員이相互間無端히傾軋함이有호時는亦前項에準호

第八章 印章의種別及其使用

第二十九條 任員의印章은左와如히刻用호

- 一、 東萊鄭氏東萊先山守護京監督之章
 - 二、 東萊鄭氏東萊先山守護鄉監督之章
- 京監督鄉監督以外任員은各其實印을使用호고京監督鄉監督亦是實印을使用호下에前項의印章을使用함이可호

第三十條 先山에關호一切書類에當該任員의署名捺印이無호者는其効가無호者로호

第九章 附則

第三十一條 本規則은大正八年六月一日부터施行호

第三十二條 本規則에別段規定이無호者는從前慣例에依호고未盡條件은追後增減호

第三十三條 本規則施行後違反함이有호時는罰則을加호되此에不服호는者는司法官의裁決을求호도得호

第三十四條 宗約所又는宗約所長의印鑑과本規則第二十九條의印鑑은宗約所와山下齋舍와京監督의保管호는規則書에添付호야書類接受時마다此를比照호을要호

第三十五條 京監督鄉監督은滿期遞任時印章과文簿를新任者와引繼引受를行호되此를宗約所에聯署報告호

부록 7. 동래선산 수호규칙(종약소, 1919)

第三十六條 本規則은宗約所及山下齋舍에一通式保管호고其他任
員이各히一通式保管함

大正八年六月一日

東萊鄭氏宗約所長	萬朝
副所長	惠永
所監	圭煥
東萊鄭氏先山守護京監督	雨興
規則製定委員	雨興
全	恒謨
全	浚謨
規則鑑定委員	惠永
全	元謨
全	雲鴻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8. 동래정씨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화산재/화수정 소장 성책본 동래정씨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에 수록된 新座目이다. 표에서 글자 테두리에 사각형과 원으로 표시한 것은 이름, 자, 생년, 거주지 등을 여러 족보(갑인보(1674), 병술별보(1766), 참의공파보(1927, 1955, 1972, 1998), 안산공파보(1859, 1949, 2012), 동지공파보(1920, 1974, 2001), 호장공파보(2005), 기유보(序정인권, 跋정해진))와 비교하여 보충한 것으로 참고용이다. 족보와 증계안의 오탈자, 소속파의 이동으로 인한 이름과 자의 변경 등 복잡한 요소가 많다.

新座目		大正十年(1921)辛酉月繼續舊案 ㉔: 전서공파 ㉕: 설학재공파 ㉖: 문정공파 ㉗: 참의공파 ㉘: 회은공파 ㉙: 봉곡공파 ㉚: 동지공파 ㉛: 수찬공파 ㉜: 직제학공파 ㉝: 대호군공파 ㉞: 호장공파 *봉곡공(휘介保)			
1	鄭雨興	字致夙 戊寅生 判事京畿道評 議員	辛酉八月 追入	진위군 현덕면 황산리	㉔ 圭成孫
2	鄭寅祐	字子翼 乙卯生 直員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연지리	㉕ ㉚ 始民孫
3	鄭寅錫	字子賢 戊午生 主事	同時 繼入	동래군 철마면 이곡리	㉕ ㉚ 同上
4	鄭佑朝	字仁汝 己未生	同時 繼入	동래군 동래면 회동리	㉕ ㉚ 始吳子
5	鄭寬朝	字致文 庚申生 參奉	同時 繼入	동래군 북면 구서리	㉕ ㉚ 義奎子
6	入祭金 不入故削	字文淑 辛酉生	同時 繼入	동래군 철마면 구철리	
7	鄭相朝	字聖贊 丁卯生 參奉	同時 繼入	동래군 동래면 반여리	㉕ ㉚ 吉淳子
8	鄭惟朝	字德文 甲戌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양정리	㉕ ㉚ 義奎子
9	鄭寅駿	字子弘 己卯生	同時 追入	동래군 북면 구서리	㉕ ㉚ 興朝子
10	鄭基弼	字玉汝 丁未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대연리	㉕ ㉚ 英奎子
11	鄭光洙	字瑞翼 丁亥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대연리	㉕ ㉚ 碩坤玄孫
12	鄭澄謨	字宰瑞 乙未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양정리	㉕ ㉚ 始民曾孫
13	鄭珍謨	字泰吉 戊戌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전포리	㉔ 文郁玄孫 ¹⁴⁶⁾
14	鄭圭煥	參尉	同時 追入	경성 사직동 263	㉔ 哲默子
15	入祭金 不入故削		同時 追入	경성 서대문정 1정목 101	
16	鄭昌洙	王辰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대연리	㉕ ㉚ 碩坤玄孫 ¹⁴⁷⁾
17	鄭運淙	字泰福 庚寅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대연리	㉕ ㉚ 敬五敬淵子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18	鄭明守	庚辰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대연리	③⑤ 箕杓子
19	鄭錫洙	戊戌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대연리	③⑤ 基弼孫
20	鄭浩珍	戊戌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대연리	③⑤ 惠孫 憲朝孫
21	鄭寅圭	字子卿 丁卯生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연지리	③⑤ 始民孫
22	入叅金 不入故削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전포리	
23	鄭京守	京秀 字英吉 辛卯生 仁浩孫	同時 繼入	동래군 서면 대연리	③⑤ 仁昊孫
24	鄭寅潤	字忠一 己未生 字春日 戊午生	辛酉九月 日繼入	부산부 부민리	④ 得命孫 ¹⁴⁸⁾ 秀立子
25	鄭寅贊	字周善 壬戌生	同時 繼入	부산부 부민리	④ 秀立子
26	鄭薰謨	字虞絃 戊辰生	繼入	경성 충신동 1번지	④ 基善曾孫
27	鄭圭弼	字承玉 辛未生	追入	경성 수송동 27번지	
28	鄭濟永	字夏亨 己未生 字夏衡 庚申生	壬戌正月 初一日追入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④ 鎭植子
29	鄭相魯	字南一 庚寅生	全時 追入	동래군 동래면 칠산동	
30	鄭綱朝	字慶瑞 辛亥生 敬瑞	全時 繼入	동래군 기장면 당사리	③⑤ 在哲子
31	鄭寅權 ¹⁴⁹⁾	字在允 庚午生	全日 追入	동래군 서면 부암리	
32	入叅金 不入故削	字士玉 丁丑生	全時 追入	양산군 동면 석산리	
33	鄭聖培	字允瑞 庚申生	全時 繼入	동래군 서면 전포리	昌淳孫 ¹⁵⁰⁾
34	鄭華朝	字益汝 乙丑生	全時 繼入	소군 소면 양정리	③⑤ 始昊子
35	鄭宰龍	字子彦 甲子生	全時 追入	소군 서면 대연리	③⑤ 國弼子
36	鄭相玟	字致一 己卯生	全時 追入	소군 소면 연지리	
37	鄭雨範	字致疇 丙戌生	全時 追入	진위군 현덕면 황산리	④ 雨興從弟
38	鄭寅旭	字子衡 甲戌生 子洪	全時 繼入	동래군 서면 양정리	③⑤ 始昊孫
39	鄭相朝	字錫汝 壬申生	全時 繼入	소	③⑤ 始昊子
40	鄭在植	字在顯 辛酉生	壬戌正月 日追入	부산부 초장정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41	鄭昌鉉	字孝文 甲午生	壬戌三月十一日追入	고령군 덕곡면 오로곡	④ 斗鉉子
42	鄭琦恢	字雲現 癸未生	全日 追入	김해군 진례면 담안리	④ 樹頤子
43	鄭昌朝	字亨旭 甲申生	全日 繼入	울산군 하북면 지내리 有臣高孫	④ 秉鎬子
44	鄭煥瑢	字仁珍 丁巳生	全日 繼入	동래군 동래면 반여리	④⑧ 在演孫
45	鄭聖福 ¹⁵¹⁾	字潤七 己亥生	全日 繼入	동래군 서면 전포리	
46	鄭有完 ¹⁵²⁾	字完瑞 甲寅生	全日 追入	부산부 초량동	
47	鄭旭鉉	字聖天 丙戌生	全日 追入	김해군 가락면 대사리	
48	鄭鳳鉉	字文賢 壬辰生	全日 追入	김해군 상동면 목방리	
49	鄭寅鍍	字順明 壬戌生	全日 追入	동래군 철마면 구칠리	④⑤ 光善子
50	鄭商準	字君玉 庚午生	全日 追入	울산군 은양면 대운리	④ 澤周子
51	鄭寅斗	字國甫 丁巳生 國寶	同五月五日追入	전북 김제군 백구면 월봉리	④ 壽英子
52	鄭斗謨	字惺淑 己卯生	全日 追入	양산군 양산면 남부동	
53	鄭龜朝	字士淑 甲戌生	全日 繼入	동래군 남면 우리	④ 富命孫
55	鄭相根 ¹⁵³⁾	字周伯 辛未生	全日 追入	울산군 범서면 천상리	
55	鄭永禧	字泰仲 戊寅生	全日 追入	밀양군 초동면 반월리	
56	鄭琪守 ¹⁵⁴⁾	字國彦 己丑生	壬戌五月五日追入	동래군 서면 연지리	④ 錫淳子
57	鄭致善	字子吉 癸亥生	全日 繼入	동래군 북면 구서리	福世曾孫
58	鄭寅昶	字子允 乙丑生 子閔	全日 繼入	동래군 서면 연지리	④⑤ 始牧孫
59	鄭甲柱	字景榮 壬申生	全日 追入	경산군 자인면 신관리	④ 斗益子
60	鄭榮柱	字極榮 壬辰生	全日 追入	全	④ 斗錫子
61	鄭文駿	字而遠 甲辰生	全日 追入	全	④ 光柱子
62	鄭順鎭	字昌順 壬午生	全日 追入	全 全 동부리	
63	鄭恒謨	正三品前贊議 字汝兒 戊辰生	壬戌八月追入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④ 實昶子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64	鄭寅和	字聖弼 庚申生 改名寅尙	壬戌八月 追入	밀양군 부북면 舞薺리	
65	鄭寅翰	字子洪 己卯生	壬戌八月 十五日繼入	동래군 동래면 원리	⑤⑥ 始弘孫
66	鄭源赫	字尙洪 辛巳生	壬戌八月 十五日追入	동래군 서면 대연리	⑤⑥ 明徹子
67	鄭大琦	字聖極 甲戌生	壬戌八月 十五日追入	청도군 대성면 대현상동	⑧ 致完子
68	鄭憲永	字景一 乙亥生	壬戌八月 十五日追入	경성부 안국동 74번지	⑧ 致興子
69	鄭娃 ¹⁵⁵⁾	字致倫 甲戌生	壬戌八月 十五日追入	동래군 서면 연지리	⑧ 太休系子
70	鄭參駿	字善國 丙子生	壬戌八月 十八日追入	동래군 서면 초읍리	
71	鄭興駿	字??國 己卯生	壬戌八月 十八日追入	동래군 북면 화정리	
72	鄭燧 ¹⁵⁶⁾	字致先 辛卯生	壬戌八月 十八日追入	동래군 서면 연지리	⑧ 城休子
73	鄭鎮漢 ¹⁵⁷⁾	字敬雲 庚寅生	壬戌十月二 十一日追入	문경군 산양면 신전리	
74	鄭玫守	字和瑞 甲寅生	癸亥正月 二日追入	동래군 서면 전포리	⑤⑥ 璋系子
75	鄭潤祐	字應玉 癸酉生	癸亥十一月 十一日追入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⑧ 明鎮子
76	鄭秀玟	字應玟 己未生	甲子正月 一日追入	성주군 용두면 문명리	⑧ 潤佑子
77	鄭珍榮	字德七 己丑生	甲子正月 一日繼入	동래군 철마면 고촌리	⑧ 在鎮子周鉉子
78	鄭鳳植	辛丑生	甲子三月 三日追入	양산군 상북면 左森리	
79	鄭建模	字可範 丙寅生	甲子八月十 五日追入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⑧ 翼煥子
80	鄭寅相	字亨貞 癸未生	乙丑四月 十五日追入	울산군 응촌면 곡천리	
81	鄭煥祐	字太安 乙亥生	乙丑四月 十五日繼入	동래군 승관면 대전리	⑤⑥ 字權子
82	鄭景恢	字明淑 壬申生 鄭煥恢	丙寅二月二 十四日繼入	김해군 이북면 명동리	⑧ 樹璟子
83	鄭致鎮	字士用 丙子生	丙寅二月二 十四日追入	밀양군 밀양면 신촌	
84	鄭寅淳	字應玉 丁巳生	丁卯三月 五日繼入	本군 기장면 당사리	萊興后孫
85	鄭寅奎	字敬文 辛未生	丁卯三月 五日追入	전북 김제군 용지면 송산리	⑧ 泰榮子
86	鄭寅漢	字相淑 戊寅生	全日 追入	양산군 응상면 삼호리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87	鄭基富	字英旭 辛未生	全日 追入	창원군 응동면 두동리	
88	鄭士朝	字斗汝 庚午生	丁卯四月二十五日繼入	동래군 서면 양정리	⑤(동) 始昊子
89	鄭鳳朝	字奉克 庚辰生 字明淑 號逢谷	丁卯四月二十五日繼入	동래군 남면 우리	⑤(동) 富命孫
90	鄭寅嫻	字應祥 甲子生	全日 繼入	동래군 기장면 당사리	萊興曾孫
91	鄭洪朝	字義彥 丁巳生 宜彥	全日 追入	동래군 북면 구서리	⑤(합) 銓奎子
92	鄭致周	字贊敬 壬子生	全日 追入	동래군 동래면 거인리	⑤(동) 大鋪子
93	鄭成哲	字童蒙 丙辰生	同年五月五日追入	동래군 서면 부전리	
94	鄭潤玄	字曰謙 戊午生	同年五月五日追入	통영군 용남면 장문리	⑤(선) 義鏞子
95	鄭鎮瑛	字基範 戊寅生	上同 追入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⑤(선) 龍謨系子
96	鄭樹寅	字君瑞 庚申生 辛酉	上同 追入	울산군 범서면 천상리	⑤(선) 潤翰系子
97	鄭昌朝	字 乙未生	丁卯八月十五日追入	부산부 범일동	
98	鄭泰堉	生丙子 字聖範	辛未九月七日追參	성주군 벽진면 자산	⑤(선) 達倫子
99	鄭寅俊	生己卯 字子善	癸酉五月五日追參	동래군 사상면 주례	
100	鄭寅夏	生癸亥 字道亨	甲戌二月二十三日追入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⑤(선) 海朝子
101	鄭容億	生戊午 字應祥	甲戌二月二十三日追入	달성군 다사면 문양동	⑤(선) 鳳來子
102	鄭文奎	生乙丑 字星集	上同	上同	⑤(선) 容九子
103	鄭炯培	生乙未 字判得	甲戌八月十五日追入	전북 김제군 만경면 만경리 현주소 부산부 초량정	⑤(선) 壽談子
104	鄭東連	戊戌生 字順南	甲戌八月十五日追入	전북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현주소 부산부 초량정	
105	鄭宰魯	癸酉生 字性洪	乙亥三月十三日繼入	동래군 서면 대연리	⑤(동) 基弼子
106	鄭和福	鄭化福 癸未生 字 辛巳生	上同 全	동래군 동래읍 여고리	⑤(동) 致周系子
107	鄭學律	丁亥生 字	上同 全	부산부 남부민정	⑤(선) 寅贊子
108	鄭鎮奎	乙巳生	上同	동래군 서면 연지리	⑤(동) 寅祐孫
109	鄭鎮元	丁巳生	丙子三月日繼入	부산부 남부민정	⑤(선) 寅潤孫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110	鄭演謨	字右書 致瑞 丁亥生	上同	부산부 연지리	寅錫子
111	鄭寅平	鄭寅珪 字子極 乙亥生	上同	부산부 연지리	始牧孫
112	鄭樹賢	字順見 壬午生	丁丑二月二十五日	함안군 가야면 말산리	潤協子
113	鄭龍甲	字積昊 己亥生	全	회양군 사동면 泥橋리	
114	鄭辰明	字信弼 壬辰生	全 繼入	기장면 당사리	
115	鄭壽聃	字老卿 壬子生	全 繼入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鳳凰子
116	鄭宗植	字 戊子生	丁丑三月十八日 追入	황해도 안악읍 소천리	
117	鄭學永	鄭鶴永 字景悅 壬申生	戊寅十二月十八日 追入	경성부 안국정	教興子
118	鄭寅昉	字正汝 己卯生	同 繼入	경성부 성북정	元容曾孫
119	鄭杓鉉	字武卿 丙子生	己卯二月十七日 追入	울산군 상북면 양등리	仁淳子
120	鄭寅成	字文伯 甲子生	己卯二月十七日 繼入	양산군 상북면 대석리	世彦曾孫
121	鄭昌植	字潤元 庚寅生	"	성주군 벽진면 자산동	泰壽子
122	鄭秀昌	字季文 辛巳生	"	천안군 성거면 문덕리	麟水子
123	鄭泳謨	字榮舜 壬辰生	"	김해군 하동면 대감리	
124	鄭岐守	字 乙未生	"	경주군 경주읍 노동리	
125	鄭達之	字 乙巳生	戊寅十二月初十日	울산군 삼남면 신화리	
126	鄭宰績	字水洪 守洪 癸未生	己卯三月十三日 追入	부산부 대연리 석포	弼子
127	鄭禧朝	字永和 乙丑生	"	동래 온천장	基奎子
128	鄭雲龍	字仲鴻 癸酉生	己卯十一月十三日 追入	경기도 안성읍 서리	完鑣子
129	鄭寅洙	字海亭 癸巳生	庚辰二月二十九日 繼入	김해군 하동면 예안	浩賢子
130	鄭敬謨	字珠伯 丁亥生	庚辰二月二十九日 追入	부산부 수정정	仁權子
131	鄭旭宙	乙未生	庚辰二月二十九日 追入	창원군 창원면 북동리	鏞洙子
132	鄭相敎	字允直 丙寅生	庚辰二月二十九日 追入	밀양군 초동면 오방리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133	鄭元謨	字君善 乙酉生	庚辰二月二十九日 追入	양산군 북면 석계리	④ 寅國子
134	鄭寅洪	字禹範 丁酉生	庚辰二月二十九日	양산군 상북면 소노리	④ 有奎子
135	鄭之仁	字元善 癸酉生	庚辰二月二十九日	칠곡군 지천면 연곡	④ 信鑑子
136	鄭之麟	字孔修 戊寅生	庚辰二月二十九日	칠곡군 지천면 연곡	④ 宗鑑子
137	鄭元杓	字道序 戊子生	庚辰二月二十九日	上同	④ 之洪子
138	鄭在宗	字仁玉 丁酉生	庚辰二月二十九日	달성군 공산면 연경동	④ 圭煥系子
139	鄭相鉉	字性贊 庚午生	辛巳三月十八日	동래군 원리	
140	鄭寅逸	字子玉 壬辰生	辛巳三月十八日	부산부 양정	④ ④ 東朝子
141	鄭鎭熙	字元翼 辛巳生	壬午三月十八日	부산부 연지리	④ ④ 珪謨子
142	鄭化植	字 丁亥生	癸未三月十八日	동래읍 수안동	
143	鄭寅華	字春在 戊寅生	癸未五月五日	전남 순천군 송광면 월산리	④ 學朝子
144	鄭寅洙	字周善 庚辰生	丙戌三月二十日	동래군 북면 금양리	④ ④ 道鍾子
145	鄭薰謨	字子仁 丁丑生	全	소군 철마면 구칠리	④ ④ 寅燦子
146	鄭昌謨	字春伯 戊子生	全	소	④ ④ 寅壽子
147	鄭學龍	字德賢 壬寅生	全	동래읍 반여리	④ ④ 憲演子
148	鄭壽準	字雲谷 乙巳生	全	소 운봉리	④ ④ 銀錫子
149	鄭球朝	字俊一 壬戌生	全	소 금사리	④ ④ 始麟子
150	鄭英謨	字和瑞 甲辰生	全	소 연지리	④ ④ 寅圭子
151	鄭臣謨	字致吉 丙辰生	全	부산부 초읍리	④ ④ 寅平繼 寅平子
152	鄭寅千	字子有 庚寅生	全	동래읍 회룡리	④ ④ 佑朝繼 佑朝子
153	鄭開東	字雲瑞 丙戌生	全	소군 철마면 고촌	④ 珙龍系子
154	鄭仁宅	字 丁酉生	全	소군 철마면 고촌	④ 周鉉孫
155	鄭奉善	字 己酉生	全	부산부 초읍리	④ ④ 致福子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156	鄭進燁	鄭晉澤 字進澤 庚戌生	全	소 석포리	③⑤ 宰教孫
157	鄭潤謨	字鎮泰 敬魯 丁亥生	全	동래군 철마면 임기	③ 琪玉子
158	鄭翰泳	字自益 乙巳生	丁亥春	상주군 모동면 덕곡리	
159	鄭奎浩	字德三 丙申生	全	달성군 유가면 봉동 467번지	③ 曠恢子
160	鄭完謨	乙卯生	全	경성시 홍제동 330의 174	
161	鄭鎮龍	字善玉 庚寅生	全	동래군 북면 구서리	③④ 煥龍子
162	鄭翔鎭	字文裕 己卯生	全	부산부 석포리	③⑤ 命德子
163	鄭辰圭	字 辛丑生	戊子春	부산부 다대리	③ 東學子
164	鄭益周	字士益 壬午生	全	부산부 영도	③ 尙朝子
165	鄭道謨	字碩明 甲申生	全	동래군 승관면 매학리	③⑤ 寅東子
166	鄭基五	字仁壽 丙寅生	全	동래군 구포면 만덕리	
167	鄭相業	字福彦 辛巳生	全	부산부 양정리	③⑤ 錫喆子
168	鄭煥鳳	字賢珍 己巳生	全	부산부 반여리	③④ 綵權子
169	鄭德生	辛巳生		동래군 철마면 고촌	③ 在鎭子 ¹⁵⁸⁾
170	鄭汶朝	字文五 庚寅生		소 所	③ 錫俊子
171	鄭德榮	甲午生		소 所	
172	鄭學朝	字春汝 癸未生	庚寅春	미남	③⑤ 始淵子
173	鄭且朝	字和汝 壬辰生	全	"	③⑤ 始淵子
174	鄭寅弼	字子和 庚寅生	全	"	③⑤ 德一曾孫
175	鄭昶謨	字成淑 癸未生	全	양산 물금면 가촌	③ 寅洽子
176	鄭三龍	庚戌生	全	철마면 입석	③⑤ 泰基子
177	鄭元善	字子仁 戊戌生	壬辰十二月 八日	고령군 덕곡 만하	③ 奎讓子
178	鄭採恢	字國五 己酉生	全	소	③ 秀友子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179	鄭華	字子重 己亥生	癸巳追入	칠곡군 동명면 송산동	④ 壽殷子
180	鄭和守	字旭鉉 丙申生	" 繼入	동래군 일광면 용천리	④⑤ 景朝子
181	鄭萬守	字俊鉉 丁未生	" "	"	④⑤ 景朝子
182	鄭閔守	字世鉉 庚戌生	" "	"	④⑤ 景朝子
183	鄭命守	字伯鉉 甲寅生	" "	"	④⑤ 景朝子
184	鄭邦恢	字致天 壬戌子	丁酉追入	합천군 가야면 가천동	④ 秀致子
185	鄭重鉉	字元和 丁亥生	丁酉追入	고령군 덕곡면 만하동	④ 奎玉子
186	鄭奎台	字克吾 壬戌生	丁酉追入	고령군 덕곡면 만하동	④ 建恢子
187	鄭龜鉉	字錫九 壬戌子	丁酉追入	고령군 고령면 저전동	④ 奎映子
188	鄭秀岩	字致俊 壬戌生	丁酉追入	경산군 경산읍 삼북동	④ 潤轍子
189	鄭景恢	字明德 丙午生	丁酉追入	달성군 구지면 창동	④ 秀倫子
190	鄭璟奎	字季見 壬寅生	丁酉追入	부산시 연산동	④ 容泰子
191	鄭亨植 ¹⁵⁹⁾	字仁雨 壬午生	丁酉追入	청도군 화양면 삼신	
192	鄭庚三	字敬瑞 庚子生	丁酉繼入	부산 양정동	④⑤ 寅旭子
193	鄭乃皞	字祥淑 壬辰生	庚子追入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④ 東勳子
194	鄭瓚	字乃卿 丙申生	庚子追入	상주군 화북면 상오리	④ 完謨子
195	鄭之和	字性初 辛丑生	庚子追入	칠곡군 지천면 연호동	④ 甲鍊子
196	鄭昌錫	字大顯 辛丑生	庚子追入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④ 圭祥子
197	鄭永秀	壬戌生	戊申追入	서울 삼청동 157의 64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 146) 기유보() □鄭光佐(15, 안산공)-世謙-4자 惟祥-紹衍-廣緒-永和-行敏-時麟(22, 초휘 致宗)-星鳳-壽根-萊彬-仁旭(己酉九月十九日生室南原梁氏父以源)-有周-聖祿: 일통보(1935) □鄭賜(13)-蘭宗-光佐-世謙-3자 惟祉-承衍-廣鳳-善和-東昱-致賢(22)-星奉-壽根-萊彬-文彥(配南原梁氏以源女)-有周-聖祿-學龍-珍謨: 안산공과보(1859) □鄭光佐-世謙-3자 惟祉-承衍(후손 미기록): 世謙-4자 惟祥-紹衍-廣緒-永和-行敏(아들 萬龍(초휘 時龍), 萬鳳(초휘 時鳳): 時麟 없음): 안산공과보(2012) □鄭光佐-世謙-3자 惟祉-承衍-廣鳳-善和(초휘 善文)-東昱(초휘 昱)-致賢(후손 미기록)
- 147) 동지공과보(1974)에는 석근의 현손이 아니라 석근의 4촌 영준의 증손이다. □鄭玩-觀-世誼-文賢-厚豐-東榘-龍孫-興文-義昌-德福-春世-弘日-承漢-閑-致伯-次郁-成雲-英俊-東弼-宰鳳-昌洙(32)
- 148) 鄭得命은 병술별보에는 호장공(휘 선조)의 후손으로 나온다.
- 149) 동지공과보(1974) □鄭琛-觀-世徵-緇賢-琳坊-麟定-思禮-弼參-益瑞-東臣-熙哲-基祐-東業(字在允 庚午生)
- 150) 기유보() □鄭光佐(15, 안산공)-世謙-4자 惟祥-紹衍-廣緒-永和-行敏(21)-時麟-星鳳-壽根-萊栢-昌淳: 일통보(1935) □鄭光佐-世謙-3자 惟祉-承衍-廣鳳-善和-東昱-致賢-星奉-壽根-萊栢-昌淳
- 151) 기유보() 卷之五 9장 □鄭光佐(15, 안산공)-世謙-4자 惟祥-紹衍-廣緒-永和-行敏(21)-時麟-星鳳-壽根-萊彬-仁旭-有周-聖福: 일통보(1935) 卷之七 133장 □鄭光佐-世謙-3자 惟祉-承衍-廣鳳-善和-東昱-致賢-星奉-壽根-萊彬-文彥-有周-聖福
- 152) 1854년 12월 24일생이며 高祖는 東彬, 祖는 仁國, 父는 道律이다. 釜山府 鄉校掌議 有司 書院有司를 역임하였다. <조선신사대동보> 참조. 장관청선생안에 把摠과 哨官으로, 수첩청선생안에 百摠으로 나온다. <조선후기 동래의 무청선생안과 무임 총람>(손숙경, 이훈상,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참조.
- 153) 봉천군과보(2004) □鄭弘業-憲-承烈-灑龍-之夏-光震-榮澤-致節-豫重-大濟-師錫-孝曾-泰復-1자 相寅(字周伯 庚申生), 2자 相益(字周允 辛未生) ※ 봉천군과보에 거주지는 울주군 범서면 상천리로 일치함.
- 154) 일통보(1935) 하계 94장 □鄭子若-泓-齊賢-訥-祉柄-爛-忠演-璧-乃貞-淡碩-正萬-重旭-千東[참의공과보(1955)에 壬東]-錫淳-琪守(字, 生年 미기록) ※기미보(1919), 참의공과보(1927)에 忠演 자손 미기록.
- 155) 일통보(1935) 하계 102장 □鄭子順-潔-有義-瑋-希勛-誼(병신보(1716), 기미보(1919), 참의공과보(1927)에 誼 자손 미기록)-之常-敏(참의공과보(1955, 1972)에 敏 자손 미기록)-二壽-燁-昌芳-址-鎮暉-潤-太休-계자 桂(생부 城休)
- 156) 일통보(1935) 하계 102장 □鄭子順-潔-有義-瑋-希勛-誼(병신보(1716), 기

부록 8. 화산재증계안(정우흥, 1921)의 신좌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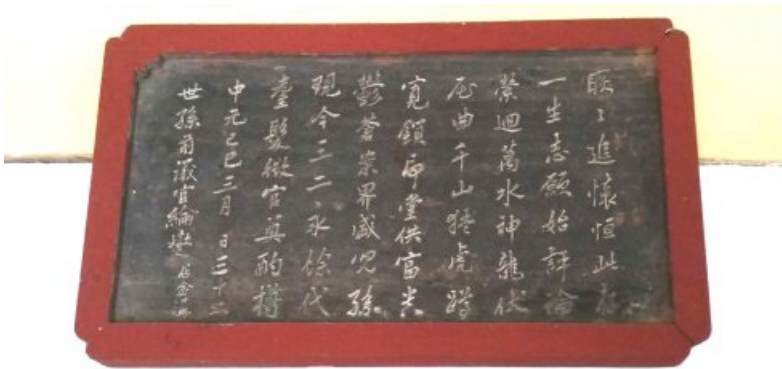
-
- 미보(1919), 참의공과보(1927)에 誼 자손 미기록)-之常-敏(참의공과보(1955, 1972)에 敏 자손 미기록)-二壽-燁-昌芳-址-鎭暉-潤-城休-燧
- 157) 낙빈공과보(2010) □鄭雍(수찬공)-復周-渙-계자 允奇-元忠-沚(낙빈공)-榮開-嫻-계자 斗宗-珣-重岱-必敬-亨國-光默-圭應-元錫-寅九-述謨-鎭漢(字 景欽 庚寅生) ※거주지와 생년은 일치하지만 字에 차이가 있음.
- 158) 신좌목(77번)의 珍榮이 在鎭의 아들이므로 在鎭의 아들인 德生(辛巳生)은 致榮(辛巳生)과 동일인이다.
- 159) 봉천군과보(정국현, 1959) □鄭善卿-種-仁耘(봉천군)-瑛-弘業-思-承勳-怡-萬生-繼仁-東碩-彌榮-德秀-聖彬-權一-克老-致奭-漢福-亨植(字春瑞 壬午生) ※거주지와 생년은 일치하지만 字에 차이가 있음.

부록 9. 계관시(정윤섭, 1929)

9. 계관시(정윤섭, 1929)

耿耿追懷恒此存	간절한 추원의 마음 항상 있었건만
一生志願始評論	일생의 소원 이제 비로소 評論하네
縈廻萬水神龍伏	휘도는 萬水에 神龍이 엮드려 있고
屈曲千山猛虎蹲	굴곡진 千山에 猛虎가 쭈그려 있네
寬鎖明堂供富貴 ¹⁶⁰⁾	關鎖한 明堂은 富貴를 베풀어 주고
鬱蒼案界盛兒孫	鬱蒼한 案山은 자손들 번성케 하네
現今三二永餘代	지금 이삼년 남은 일생을 보내면서
耄髮微官奠酌樽	백발의 微官은 술잔에 술을 따르네

中元己巳¹⁶¹⁾ 3월 일 32세손 前議官 綸燮¹⁶²⁾ {居金溝}



▲ 계관시(정윤섭, 1929) [2017년 8월 현재 화수정 실내에 걸려 있다.]

160) 寬鎖는 關鎖의 오류로 보인다. ※청룡과 백호가 좌우에서 서로 끝 부분을 맞잡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감싸안아 물이 빠지는 곳이 좁아진 상태를 關鎖라고 한다. 배 한 척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關鎖이면 매우 길하다고 한다.

161) 中元己巳는 1929년이다.

162) 鄭綸燮(1855. 6. 2-1929. 7. 14): 司果, 금구군 세무주사, 가선대부 중추원 의관, 대한협회 금구지회 평의원, 금구군 사립보통학교장 등을 지냈다. □鄭 綱(11)-暹-興嗣-坤-泰-之-節-仁誠-渙-大隨-乾福-春-運益-產履-鍾-爾吉-俊 昌-載漢-錫修-來祥-鶴表-恒淳-達祿-綸燮(33)

부록 10. 화수정기(정만조, 1930)

10. 화수정기(정만조, 1930)

花樹亭記

우리 시조 안일공¹⁶³)의 塋域이 동래 화지산에 있고 자손 대대로 文獻을 이어왔고 고관대작이 끊이지 않고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칭하기를 우리 동방의 望族 중에서 [동래정씨가] 으뜸이라 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900여년 [塋域을] 수호하여 桑梓松栢이 울창하게 사방을 둘렀으며 祭器 갖추고 향불 피워 제사지내는 일이 계속되어 풍수지리가들은 매양 이 묘소를 가리키며 길지로 언제나 먼저 손꼽는다. 이 묘소는 우리 家乘에 雪消虎踞之異가 일어났던 곳으로 또한 실려 있는데 사람들이 안일공의 修德의 報應을 鄭氏들이 받는다고 여긴다.

대개 우리 시조께서 謹慎을 규범으로 세우시고 忠孝를 가문에 전하셨고 자손들은 또한 대대로 先訓을 지켜 감히 실추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자손들의 변성함이 외 덩굴처럼 면면히 멀리가지 이어졌고 집안이 빛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묘소 근처에 옛날에 절을 건립하였는데 度僧이 山林을 護養하고 供饋하느라 준마가 이리 저리 뛰듯이 바빴다. [그래서] 전적으로 緇徒에게 맡기고 절 뒤에 하나의 작은 정자를 두고 화수정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節享을 받드는 행사시에 왔던 모든 展省者들은 모두 이 곳에서 쉬고 묵었다. 근래에 배편과 차편으로 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 추울 때 구들방 실내에 다 잘 수 없었다. 이에 여러 종인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지금 있는 재산으로 墓地를 적절히 잘 계승할 수 있는데 어찌 [정자를] 새롭고 크게 짓지 않습니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웁습니다.” 하였다. 不肖가 종약소

163) 여기서 시조 안일공은 안일호장공 휘 회문이 아니라 안일호장공 휘 문도를 뜻한다.

부록 10. 화수정기(정만조, 1930)

소장을 맡고 있기에 나에게 의결하라는 것을 받아들여 내가 말하기를, “아, 우리 정씨가 전성기를 누리는 때이지만 이 협소한 정자를 고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검토하면 오래가고 사치스러우면 쉽게 이웁니다. 이것이 선조의 덕을 잘 계승하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옛것을 그대로 씀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衆意는 참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 무진년(1928) 2월에 집이 지어졌는데 시작한지 여덟 달만에 공사가 끝났다. 무릇 약간의 기둥들은 폐사에서 잘라 왔으며 부지런한 속인을 뽑아 각기 힘써야 할 바를 관리하게 하였더니 여러 종인이 편하게 여겼다.

하루는 여러 종인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기문을 지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본래 병이 있어 억지로 할 수 없었으나, 일찍이 家法을 징신한 바¹⁶⁴)가 있어 후손들을 위해 경계하는 글을 짓기에 충분하다 하여, 그 때문에 마침내 사양하지 못하고 글을 써서 걸어 둔다.

경오년(1930) 小春¹⁶⁵)

26세손 전 가선대부 규장각부제학 萬朝 근찬

공사감독 통정대부 전 참위 圭煥

조사 종약소이사 世鎭¹⁶⁶)

설계 통정대부 전 판사 雨興

감역 전 참봉 相朝

同 전 주사 寅錫

164) 조부 수암공 정윤용이 편집한 필사본 동래정씨가록을 보정하여 1919년에 출판한 일을 말하는 것 같다.

165) 小春: 음력 10월의 별칭.

166) 鄭世鎭(1888-1951): 동래부원군(휘 난중)의 종손이다. ※1928년 북야공지석 발현 당시의 통문(이 통문은 완담지(1993)에 소개되어 있음)에 보면 종약소 회계 겸 상무이사를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록 10. 화수정기(정만조, 1930)



▲ 화수정기(鄭萬朝, 1930) [2017년 8월 현재 화수정 실내에 걸려 있다.]

[원문]

花樹亭記

我始祖安逸公塋域在東萊之花池山而子孫代承文獻簪纓不絕世稱我東望族之最今守護九百年餘桑梓松栢鬱然成圍籩豆牲香比昔無替爲形家之說者每指佳城吉地輒先數是墓我家乘亦載雪消虎踞之異人以爲鄭氏修德之報應云蓋我始祖謹慎立規忠孝傳家而子孫亦克世守先訓罔敢或墜所以致有瓜瓞綿遠門闈赫焉者非耶墓傍舊建寺度僧護養山林供饋駿奔專責緇徒寺後寘一小亭扁以花樹凡節享將事時來展省者咸於茲歇泊焉以近日舟車之便來者愈衆寒不可炕於是諸宗議曰有貲財之可繼墓地之適宜盍新而大之皆曰可以不肖爲宗約之長將聽余以決余曰噫吾鄭全盛之時而不改是亭之狹陋何也夫儉則可久侈則易凋此吾門所以善繼先德也無寧仍舊貫之爲宜耶然衆意固不可遏第成之迺於戊辰二月而始八月而功告訖凡若干楹廢寺制而擇俗人之勤恁者各掌所務諸宗便之日諸宗致書屬余爲記余固病不可強而曾所徵信於家法者足爲來許之誠故遂不辭而書揭焉

庚午小春二十六世孫前嘉善大夫奎章閣副提學萬朝謹撰

工事監督通政大夫前參尉圭煥

調查 宗約所理事 世鎭

부록 10. 화수정기(정만조, 1930)

設計通政大夫前判事	雨興
監役前參奉	相朝
同 前主事	寅錫

부록 11. 추원당증건기(정윤모, 1956)

11. 추원당증건기(정윤모, 1956)

추원당 증건기

우리 시조 호장부군의 묘가 동래군 서쪽 화지산에 있는데 지금 900여년이 되었다. 예전에 만세암이 있었는데 僧徒들에게 그곳에서 살게 하여 묘소를 수호할 계책으로 삼았다. 만세암의 서쪽에 화산재가 있는데 자손들이 齋宿¹⁶⁷⁾하는 곳이며 만세암의 동쪽에 화수정이 있는데 자손들이 늘 모이는 곳이며 묘소의 측면에 추원당이 있는데 四時 祭祀를 올리는 곳이다.

세월이 오래되어 추원당도 낡아 거의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宗議가 크게 일어나 나에게 齋監을 맡겨 重建의 계획을 세우게 하였다. 신사년(1941) 봄에 공사를 시작하여 3년 걸쳐 준공하였다. 추원당 규모는 총 5架이며 대부분 단청하였고 門樓는 3칸으로 또한 그와 같이 단청하였으며, 中門 안쪽에 供祭之寮¹⁶⁸⁾를 지으니 東三間과 西三間이 合一하였으며,¹⁶⁹⁾ 옛 그대로 편역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미 일을 벌인 처지이므로 묘소를 改蒔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리하여 묘의 왼쪽¹⁷⁰⁾에 山神祭石을 설치하고 화수정의 아래에 연못을 만들고 또 추원당의 서쪽에 始祖의 둘째 아들 先祚의 祭壇을 쌓고 만세암의 대웅전을 고쳤다. 그 후 계사년(1953) 가을 9월에 또 만세암 앞에 修道院을 지었다.

요컨대 일은 크고 힘은 미약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간역을 맡은 사람은 후손 世鎭¹⁷¹⁾과 珍榮¹⁷²⁾으로 나에게 함께 한 일을

167) 재숙: 예전에, 제관이 재소에서 밤을 지내는 일을 이르던 말.

168) 供祭之寮는 428면과 429면 평면도와 전경도의 甲附 건물을 말한다.

169) 428면과 429면 평면도와 전경도의 大門은 동삼간이고 甲附는 서삼간으로 3칸이 일치한다는 뜻이다.

170) 묘 앞에서 묘를 바라볼 때는 오른쪽으로 묘의 동쪽 위쪽이다.

부록 11. 추원당증건기(정윤모, 1956)

기록하기를 요청하였다. 나 역시 시행하는 일의 말단에 참석하여 협조하였으나 다만 자손으로서 祖先을 위한 마당에 무슨 記文까지 필요하겠는가, 혹여 내 노력을 빛나게 하려는 의도에 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부모를 버리고 군주를 무시하여 급속히 컴컴한 암흑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더구나 識者들이 이를 개탄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즉 추원의 뜻을 설하여 우리 종족의 후손들에게 보이는 것이 옳다.

먼 조상은 사람들이 쉽게 잊고 소홀히 하는데 먼 조상이 없으면 가까운 조상이 없는 법이다. 부모처럼 가까운 조상은 없고 祖先처럼 먼 조상은 없으니, 진실로 가까운 조상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먼 조상에서 온 것이 아니겠는가? 부족한대로 스스로 힘쓰는 것으로 또 후손들에게 권면하는 바이다.

단기 4289년(1956) 병신년 7월 일

28세손 潤謨가 손을 씻고 삼가 기록한다.



▲ 추원당증건기(鄭潤謨, 1956) [2017년 8월 현재 화수정 실내에 걸려 있다.]

171) 鄭世鎮(1888-1951): 동래부원군(휘 난종)의 종손이다. 종약소 회계 겸 상무이사를 지냈다.

172) 鄭珍榮(1889-1959): 전서공(휘 규)의 후손이다. 1933년 8월부터 1942년 2월까지 선산수호 鄕理事를 지냈고, 1948년 10월에 鄕理事에 재임되었다.

부록 11. 추원당중건기(정윤모, 1956)

[원문]

追遠堂重建記

惟我

始祖戶長府君之墓在東萊郡西華池山至今九百餘年矣舊有萬世庵俾僧徒居之爲其守護之策也庵之西有華山齋爲子孫齋宿之所也庵之東有花樹亭爲子孫恒會之所也墓之側有追遠堂四時供祭之所也歲久堂老殆不可以支於是宗議峻發委余齋監爲重建之計始役於辛巳春粵三年竣功堂之制凡五架而槩丹牖門樓三間而丹牖亦如之中門內築供祭之寮東三間西三間合而仍舊貫扁之于是僉曰既有事之地不可不改莎于墓因以設山神祭石于墓之左濬池于亭之下又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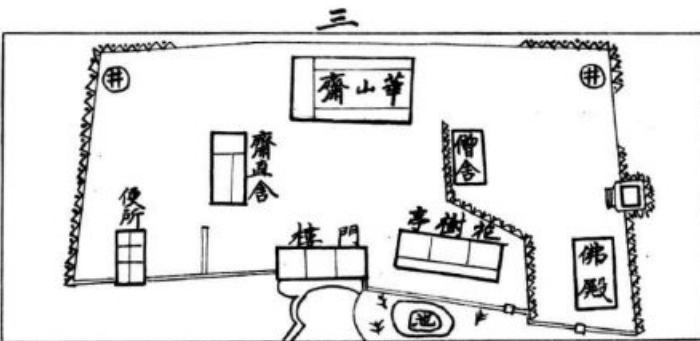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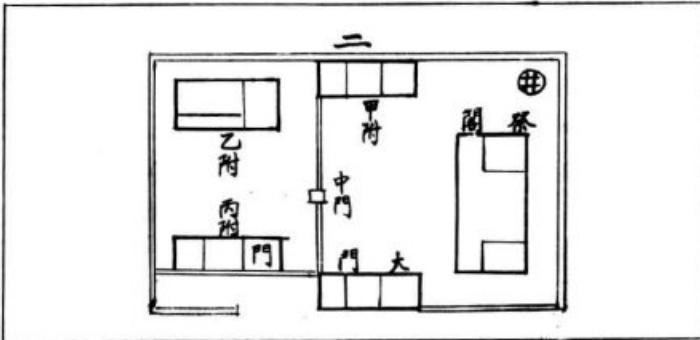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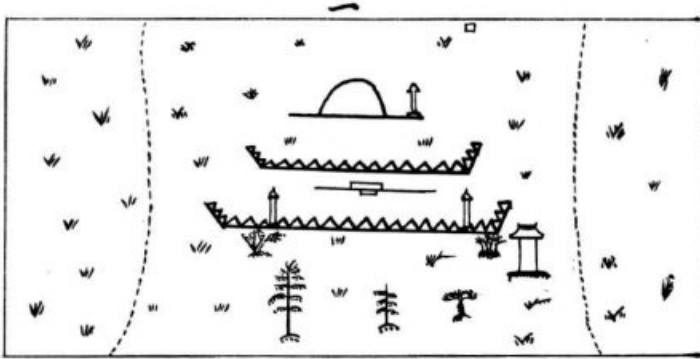
始祖仲嗣先祚之祭壇于堂之西改築庵之大雄殿其後癸巳秋九月又述修道院于庵前要之事巨力綿而始終幹役者後孫世鎮珍榮也要余記共事余亦參聽其措施之末而第惟子孫爲祖先之地何待於記乎無或近於耀其賢勞¹⁷³⁾耶曰不然此世何世遺親後君之說駸駸然入於長夜者而況爲有識者之所慨歎久矣然則爲說追遠之義示于吾宗後生可乎夫遠者人所易忘而忽之者也蓋無遠則無近而近莫如父母遠莫如祖先苟思近之原則非自遠者歟聊

以自勵又勸後人云檀紀四二八九年歲丙申七月 日

二十八世孫潤謨盥手謹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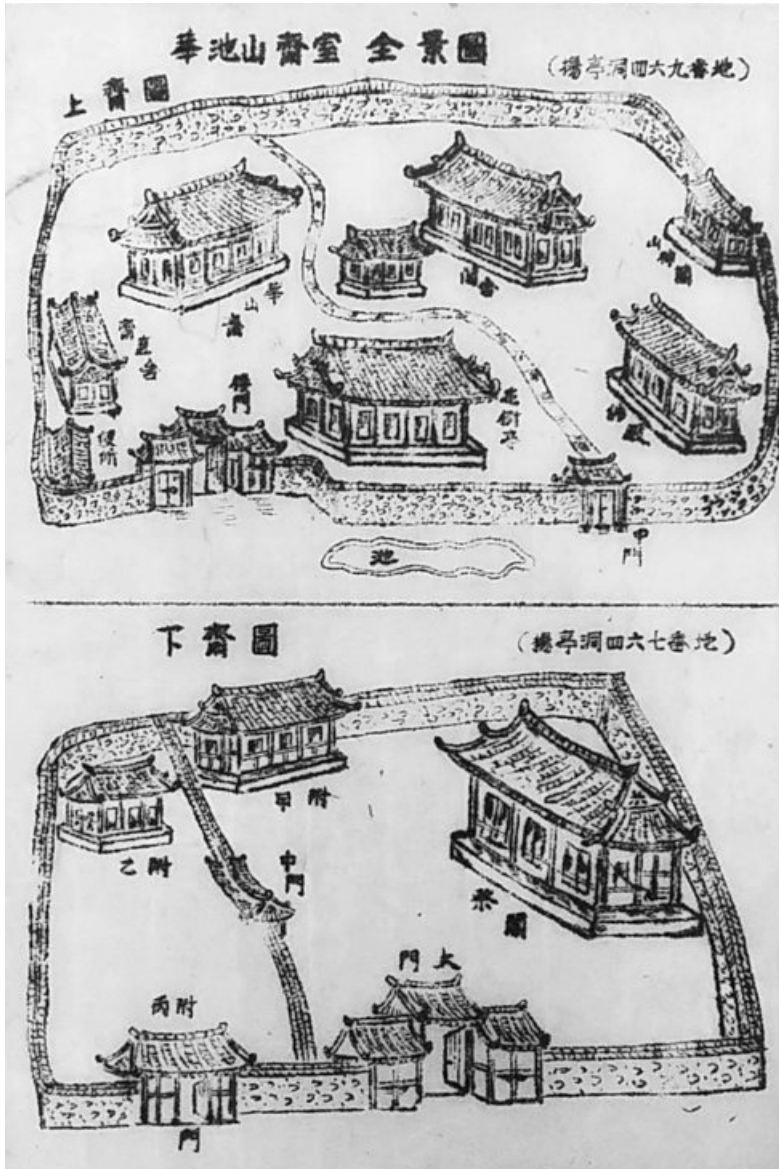
173) 賢勞: 賢勞의 오류인 것 같다.

부록 11. 추원당중건기(정윤모, 1956)



▲ 화지산 호장공 휘 문도 묘소 및 재실 평면도 [출처: 동래정씨문경공파 세보(1971); 동래정씨세보(정절공2자(휘倭)경력공2자(휘儀)합보)(1956)]

부록 11. 추원당증건기(정윤모,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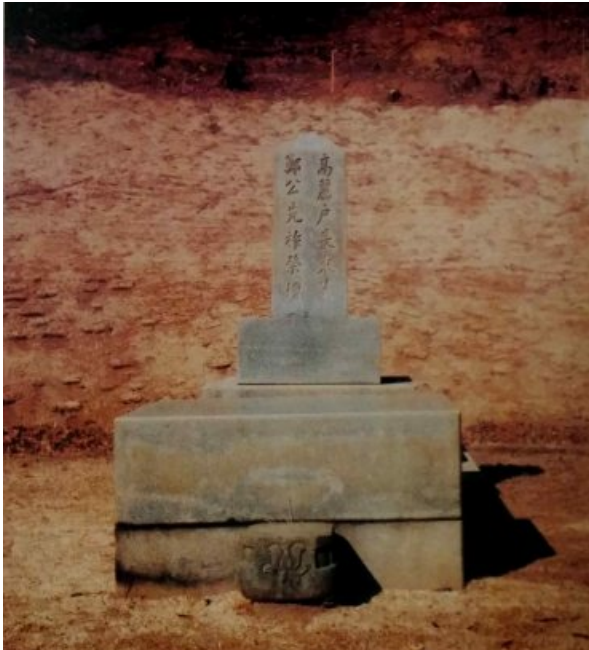


▲ 화지산 재실 전경도 [출처: 동래정씨참의공파보(1955)]

부록 11. 추원당증건기(정윤모, 1956)



▲ 추원당증건기(鄭潤謨, 1956)에 언급된 山神祭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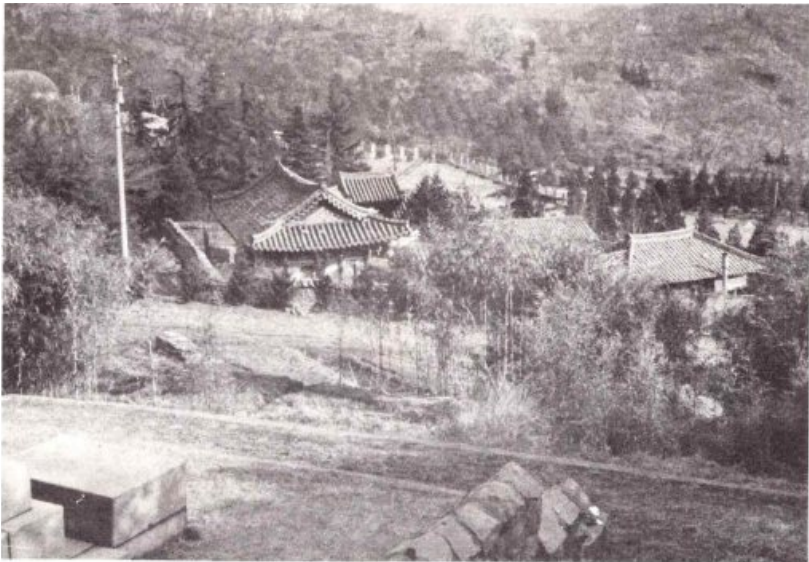


▲ 추원당증건기(鄭潤謨, 1956)에 언급된 始祖仲嗣先祚之祭壇

부록 11. 추원당증건기(정윤모,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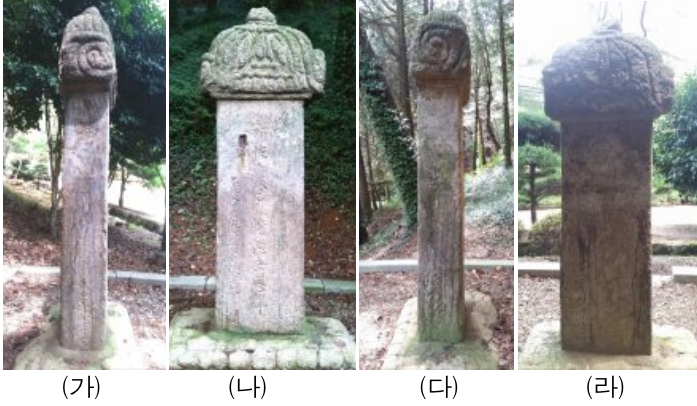
▲ 高麗戶長東萊鄭公先祚祭壇 [출처: 종중사 반세기(정경조, 1982)]



▲ 高麗戶長東萊鄭公先祚祭壇쪽에서 바라본 추원당 모습 [출처: 상동]

부록 12. 부사정공청덕거사비

12. 부사정공치화청덕거사비



부록 12. 부사정공청덕거사비



府使鄭公致和清德去思碑

乙未五月九日九代孫行府使寅學建閣

再移建都監寅祐
鄉有司相朝

▲ 再移建한 府使鄭公致和清德去思碑 [2017년 8월 24일 촬영] ※부분 확대 사진은 (가), (나), (다)의 글자부분이다. ※建閣이라는 표현은 水使金公體乾清善碑(현소재: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수영사적공원)와 府使李公彙寧清德善政碑(현소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등에도 나오는데 비각을 세웠다는 뜻인지 비석 자체만을 세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鄭致和공은 1642년 3월부터 1642년 8월까지 동래부사를 역임하였다.

부록 13. 묘비이수사실(1975)

13. 묘비이수사실(1975)

서기 1975년(을묘년) 청명날 자손들의 염원이었던 안일호장(安逸戶長)공 묘소의 사초를 봉행하기로 하고 경내에 묻혔든 비석을 살펴보니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되는 공의 16대손 남봉공(諱芝衍)께서 세우셨든 깨여진 비석(세우신 연대는 알 수 없음)과 만력41년(서기 1613년 이조 광해주 5년 계축년)에 다시 세우신 비석(세우신 분은 알 수 없음)과 승정갑신후 58년(서기 1701년 이조 19대왕 숙종 27년 신사년)에 공의 20대손 감사공(諱是先)이 밀양부사로 계실 때에 고쳐 세우신 비석 등 세 가지의 비석이 있는 바 이 모두가 표면에는 “동래정씨시조호장정문도지묘(東萊鄭氏始祖戶長鄭文道之墓)”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감사공이 고쳐 세우신 비석에는 뒷면에 음기까지 새겨져 있기로 보첩과 선대 문헌을 상고하여 보니 감사공께서 세우신 사실은 기록되어 있으나 그 외 두 가지 비석에 대하여는 하등의 기록이 없어 고증의 자료가 없으므로 이 자리에는 감사공께서 고쳐 세우신 비석과 이제까지 묘 앞에 세워졌든 29대손 진영씨가 고쳐 세운 비석을 음기의 잘못된 점을 고쳐서 함께 옮겨 세웠으며 기록에 확실치 않은 두 가지 비석은 이 자리 뒤쪽에 다시 묻었기로¹⁷⁴⁾ 이 모든 사실과 경위를 후일을 위하여 간단히 기술하는 바입니다.

1975년 4월 6일 (음력 을묘 2월 25일)

동래정씨종약소장

공의 29대손 존수¹⁷⁵⁾ 근거

174) 묻혔던 두 가지 비석을 다시 묻기 전에 사진 자료를 남겼는지 알 수 없다.

175) 鄭存秀(1910-1993): 호는 계암(溪巖·倅巖)이다. 창원공 13대손인 청석공(휘 圭成)의 증손으로 雨興공의 계자이며 생부는 雨憲이다. 판사, 국회의원(3대, 4대), 종약소 소장을 지냈다.

부록 13. 묘비이수사실(1975)



▲ 옮겨 세운 두 묘비(1701년 묘비와 1955년 묘비)와 묘비이수사실 기록판(안내판) [2004년 촬영]

부록 13. 묘비이수사실(1975)

○1955년에 묘 바깥 옆에 세워졌던 묘갈¹⁷⁶⁾

東萊鄭氏始祖戶長文道之墓 <제1면(앞면)>

主董東萊鄭氏宗約所所長東萊郡守慶浩副所長準謨昇謨潤謨常務庚三寅弼敬來 <제2면(옆면)>

先祖戶長府君墓碣改豎文

府君諱文道東萊人高麗安逸戶長事行載神道碑考諱之遠戊辰春發見榮陽公長湍墓誌石文云郡長子穆朝散大夫檢校禮賓卿行攝太府卿賜紫金魚袋榮陽公先祚戶長孫濟以吏術就仕衛尉主簿通判靈光郡漸衛尉主簿同正澤雜織署丞沆禮部(비석의 府는 部の 오각임)尙書諡文安舊有碣苔蝕不可識埋于墓西後孫右議政芝衍爲本道觀察使時改豎又爲風雨所泐後孫監事是先宰密陽時改豎又歲久殘缺二十九世孫 <제3면(뒷면)>

珍榮以林塘相國惟吉公所撰乙未二卷大譜宗孫得男之後裔累歲奉祀之餘尤不勝慕出私力而謹改豎時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乙未七月清秋也 <제4면(옆면)> ※네모칸의 글자는 쪼아서 지워져 있음.

동래정씨 시조 호장 휘 문도의 묘

主董 동래정씨종약소 소장 동래군수 경호, 부소장 준모·승모·윤모, 상무 경삼·인필·경래

선조¹⁷⁷⁾ 호장부군 묘갈을 바꾸어 세우는 글

부군의 휘는 文道이며 동래 사람이다. 고려 때 안일호장을 지냈는데 事行은 신도비¹⁷⁸⁾에 실려 있다.考的 휘는 之遠이다. 무진년

176) 이 비석은 <묘비이수사실>에 기록되어 있듯이 감사공(휘 시선)이 세운 묘표와 함께 옮겨 세워져 있다.

177) 묘갈의 앞면에는 ‘東萊鄭氏始祖戶長文道之墓’라고 한 것은 옛 묘표/묘갈(지연공 수립, 시선공 수립, 언섭공 수립)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며 묘갈 음기에서 ‘先祖戶長府君墓碣改豎文’이라고 한 것은 1955년 무렵에는 시조는 회문공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문도공에 대하여 始祖 대신 先祖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先祖가 始祖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부록 13. 묘비이수사실(1975)

(1928) 봄에 형양공의 장단 묘지석이 발견되었는데 誌文에 “[호장공은] 군장이었으며 아들 목(穆)은 조산대부 검교예빈경 행섭 태부경으로 자금어대를 하사받았다. 선조(先祖) 호장공¹⁷⁹의 손자 濟는 이술로써 벼슬에 올라 위위주부 영광군 통판이었으며 漸은 위위주부동정이었으며 澤은 잡직서승이었으며 沆은 예부상서로 시호는 문안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예전에 묘갈이 있었는데 돌이끼에 부식되어 글자를 식별할 수 없어 묘 서쪽에 묻고 후손 우의정 지연이 본도의 관찰사 시절¹⁸⁰에 바꾸어 세웠다. 또 풍우에 마멸되어 후손 감사 시선이 밀양부사 시절¹⁸¹에 바꾸어 세웠다. 또 세월이 오래되어 잔결되어 29세손 진영¹⁸²이 (임당상공 유길 소찬 을미대보 2권에 나와 있는¹⁸³) 종손 득남의 후예로서

178) 정언섭공이 찬한 묘갈을 말한다.

179) 원문 先祚: (비문에서 신도비라고 말한) 묘갈과 장단의 두 지석에는 先祚공에 대한 언급이 없다. 비문을 쓰면서 郡長子穆(군장의 아들 목)을 써놓고 長子 穆(말아들 목)을 적은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次子先祚를 次子 표현 없이 先祚로 적었는지, 아니면 先祖戶長孫濟(비문 첫머리처럼 先祖 호장공 휘 문도의 손자 濟)에서 先祖를 先祚로 잘못 적었는지 알 수 없다.

180) 경상도 선성안에 보면, 정지연의 관찰사 재임기간은 1578년 10월-1579년 5월이다.

181) 묘표에 ‘皇明崇禎甲申後五十八年辛巳[1701년(숙종 27)]冬至日二十代孫密陽府使是先改豎’라 하였다.

182) 전서공(휘 규)의 후손으로 호장공(휘 문도)의 29대손(=세손)이다. 1933년 8월부터 1942년 2월까지 화지선산수호 鄉理事를 지냈고, 1948년 10월에 鄉理事에 재임되었다. □규(12)-길명-시첨-완-기중-유신-여양-성복-사림-得男(21)-시진-준삼-희주-대교-瑞龍-思福(27)-系孫(28)-계자 允壹(29)-周鉉(30)-珍榮(31) ※기미보(1919)와 일통보(1935)에는 允壹이 思福(27)의 계자로 28세지만 이들 족보에 允壹의 생부는 思福의 五從姪 化善(28)으로 世數가 일치하지 않았다. 전서공과보(1984)에는 允壹은 思福(27)의 계손으로 수정되어 29세로 되었고, 전서공과보(2013)에는 允壹은 思福(27)의 아들 系孫(28)의 계자로 수정되었다. ※전서공과보(2013)에 思福이 恩福으로 바뀌어져 있다.

183) 밑줄 부분은 비석에 쏘아서 지워져 있는데 실은 “임당상공 유길 소찬”을 지웠어야 한다.

부록 13. 묘비이수사실(1975)

해마다 제사를 받드는 나머지 더욱 그 사모하는 감회를 이기지 못하고 사재를 내어¹⁸⁴⁾ 삼가 교체하여 세우니 때는 단기 4288년(서기 1955년) 을미년 7월 맑은 가을날¹⁸⁵⁾이다.

184) 밑줄 친 이 부분은 비석에 쪼아서 지워져 있다.

185) 단기 4288년(서기 1955년) 음력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양력 8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부록 14. 하마비와 하마비 유래비

14. 하마비와 하마비 유래비

○1993년도 하마비 이설 및 내력비 제막

다음은 동래정씨종보에 실린 하마비 이설 기사이다.

<화지산 하마비 옮겨 세움>

화지산 산소 입구, 양정동 산 73의 20번지에 하마비(下馬碑)가 있었다. 그것이 어느 사이 허물어져 보기에 민망스러운 형편이 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일족 가운데 뜻 있는 이들이 ‘하마비 이설 사업 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하마비를 옮겨 세우고 곁에 그 내력을 적은 비¹⁸⁶⁾를 마련하고 1993년 7월 29일 12시에 제막을 했다.

[8] 1994년 2월 5일(토요일) **동래정씨종보** <제 43 호>

화지산 하마비(下馬碑) 옮겨 세움

화지산 산소 입구, 양정동 산 73의 20번지에 하마비(下馬碑)가 있었다. 그것이 어느 사이 허물어져 보기에 민망스러운 형편이 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일족 가운데 뜻 있는 이들이 ‘하마비 이설 사업 추진 위원회’ ‘하마비 건립 위원회’를 조직하여 하마비를 옮겨 세우고 곁에 그 내력을 적은 비를 마련하고 1993년 7월 29일 12시 제막을 했다.

원근에서 많은 일족들과 지방 유자들이 참석하여 심황을 이루었다. 이설 추진위원회의 대표 정두조씨와 건립 위원회 정하진씨는 당일 참가자와 성원해 준 일족 및 유자들에게 심신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인사 글월을 보냈다.

하마비(下馬碑) : 예전에 원(院)이나 전각, 사찰 그 밖의 마을 등의 입구에 세워진 비, 대소인원개하마(大小人員皆下馬)라고 격혀 있다. 지위나 나이에 관계 없이 모두 밭이나 탈 것에서 내리라는 뜻이다. 성현, 왕장(王將), 고관의 출생지에 세워졌다.

1413년(태종 13)에 종묘와 궐문에 처음으로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 위 : 이설하기 전의 하마비
아래 : 새로 고쳐 세운 하마비

▲ 동래정씨종보(제43호, 1994년 2월 5일) 기사 [사진 배치는 편집하였음]

186) 비문 내용은 1999년 유래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14. 하마비와 하마비 유래비

○1999년 하마비 이건 및 유래비 제막

1980년대에 巨堤路 확장공사로 동래정씨 종약소에서 보관하여 오던 하마비를 하마정 교차로 행단보도 앞, 동해남부선 선로 언덕 쪽에 이건하고 옆에 유래비를 세웠다. 다음은 유래비의 비문이다.

하마비의 유래

하마비란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에는 “말에 서 내려라(下馬)”라는 뜻을 새긴 네모난 돌기둥이다. 조선조 1413년(태종 13년)에 처음으로 궁궐, 종묘 앞에 표목으로 표시하였다가 그 후에 “大小人員皆下馬 또는 下馬”라고 돌에 새겨 세우게 되었다.

구전설화에 의하면 고려 때 동래정씨 2세 휘 文道공의 묘소가 화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분묘 입구인 이곳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고 가라는 하마비를 세우게 되었고 下馬停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에 巨堤路 확장공사로 동래정씨 종약소에서 보관하여 오다가 이제 낮은 감이 있으나 동래정씨 종중의 후원을 받아 문화유적을 영구히 보전하고자 본 위치에 옮겨 세우게 되었다.

서기 1999년 월 일¹⁸⁷⁾

주관 부산진구청, 후원 동래정씨종약소

○2017년 하마비 이건 및 유래비 이건 제막

동해남부선 복선화 공사로 일시 철거되었던 하마비와 유래비의 이건 제막식을 2017년 12월 22일에 가졌다.

187) 비석 측면에 날짜, 주관, 후원이 적혀 있다. 보통 年月日에서 日은 적지 않지만 月은 적는데 빠졌다. 국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4월 23일에 제막하였다.

부록 14. 하마비와 하마비 유래비



▲ 동해남부선 복선화공사 전



▲ 2017년 12월 22일 이건 후

부록 14. 하마비와 하마비 유래비



▲ 동해남부선 복선화공사 전 [출처: 다음지도 로드뷰(2010년 1월)]



▲ 이건 위치 [출처: 다음지도 로드뷰(2018년 1월)]



▲ 동해남부선 복선화공사 전후 위치 [출처: 다음지도 스카이뷰(2010년)]

부록 15. 득관대조와 기세조 제단

15. 득관대조와 기세조 제단

○2000년 6월 6일(음력 5월 5일 단오절)에 제단 ‘東萊鄭氏得貫大祖高麗國安逸戶長諱繪文之壇’과 ‘東萊鄭氏紀世祖高麗國甫尹戶長諱之遠之壇’을 추원사 뒤 북서쪽188)에 설단하고 고유제를 지냈다.

○설단이후 득관대조(시조)와 기세조(1세)의 한식향사는 제단에서 지내며 동지향사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제단에서 지내다가 2004년부터 추원사 사당에서 지낸다.



▲ 득관대조(휘 회문) 및 기세조(휘 지원) 제단 (2016년 4월 5일 한식향사)

188) 설단하기 전 이 자리는 호장공(휘 선조)의 제단이 있던 곳인데 이 제단을 폐하였다. ※추원당중건기(정윤모, 1956)에 “신사년(1941) 봄에 추원당 중건공사를 시작하여 3년 걸려 끝낸 후 始祖의 둘째 아들 先祚의 祭壇[430면, 431면 사진 참조]을 쌓고 만세암의 대웅전을 고쳤고 그 후 계사년(1953) 가을 9월에 또 만세암 앞에 修道院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부록 16. 2세 고려안일호장부군 묘갈 번역비

16. 2세 고려안일호장부군 묘갈 번역비

○2009년 9월 3일(음력 7월 15일)에 한글 번역본 비인 ‘동래정씨 고려안일호장부군묘갈’의 제막식을 가졌다. 원묘갈의 가로로 두른 頭篆(전서체 제액) ‘有明朝鮮國東萊鄭氏始祖高麗安逸戶長府君墓碣’에서 ‘有明朝鮮國’과 ‘始祖’를 빼고 ‘동래정씨고려안일호장부군 묘갈’이라 적었으며,¹⁸⁹⁾ 비문 제1면 제1행에서 ‘동래정씨 이세조 고려안일호장 부군 묘갈’이라고 적었다.



▲ 2세 고려안일호장 부군 묘갈 번역비

189) 서체는 MD술체이다.

부록 17. 과정공 유적지

17. 과정공 유적지

[鄭瓜亭重建記]¹⁹⁰⁾

옛 東萊府의 동녘 삼리정쯤 황령산이 있어 창연히 솟아 산맥을 따라 한쪽 동북을 향해 돌아 강가에 다다른 곳의 절벽 위에 한 정자가 있었다. 울돌하게 하늘로 솟아 있는 것이 요사이 사람들이 고려 문인 瓜亭鄭公이 지은 것이라 하였다.¹⁹¹⁾ 공의 휘는 叙요, 호는 瓜亭이니 東萊人이다. 추밀원사 문안공 沈의 아들로 인종조에 출사하여 벼슬이 내시낭중에 이르렀다. 공의 처가 인종의 비 任氏의 여동생이니 이로 인해 총애를 많이 받아왔다. 의종이 즉위하자 하찮은 참소로 동래로 귀양 가게 되었다. 많은 세월 밤낮으로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이 더욱 깊어 이에 소동파의 소위 “아득한 나의 회포여 그대를 향한 마음 하늘 한쪽에서 바라보네”라는 시구를 취해 한 편의 가사를 지어 심정을 토로하였다. 혹 東江에 다달아 낚시질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혹 鏡巖에 올라 거문고를 타며 가곡을 읊조리며 그 정을 호소하였다. 그 가사가 매우 애원하고 그 죽히 매우 간절하여 사람들을 감동하기에 충분하였다.

뒤에 끄껴서 사면되어 서울로 돌아갔으나 오직 江巖과 가곡은 전해 내려왔으나 뒤에 사람들이 이 江巖을 지나면 손을 들어 가

190) 이 번역문은 동래정씨종보(제95호, 2012년 5월 12일)에 게재된 것이다.

19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고적조에 鄭瓜亭의 방주에 [新增] 표시 없이 “亭基至今存焉(정자의 터가 지금 남아 있다.)”라고 했다. 정과정 옛터라고 추정하는 곳으로 ‘정과정천변’이라는 설(1968년 권영철, 1985년 제1회 부산을 가꾸는 학술대회)과 연산7동 ‘전리’라는 설(1997년 조근환(당시 연제구 조직관리계장: 1997년 11월 25일 연제구보 제7호 게재))이 있다. 정과정천변설에도 정과정이 연제구 연산9동이라는 설과 수영구 망미2동이라는 설 두 개가 있다. 지금까지 1997년 발표한 조근환의 참신한 연산7동 전리설을 지지하는 학자는 아직 없고 정과정천변설을 따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부록 17. 과정공 유적지

리켜 말하기를 鄭瓜亭이 머무르던 곳이라 애호함이 그치지 않았다. 이 가곡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여 감상해 말하기를 “鄭瓜亭은 戀君의 曲”이라 하였다. 이렇게 가사를 읊으며 기흥함이 이미 근천년이 지났다.

불행하게 이제 도시개발로 고현의 유적이 훼손되고 곧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때 土鄉會 회장 坡田 金戊祚님께서 당국에 말하기를 고적 보존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으니 이와 같이 철거함이 맞느냐고 하자 당무자가 사과하며 부득이한 일이라 하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그러면 정자를 강 위 경치 좋은 곳에 짓고, 바위를 정자 옆에 옮겨 존령을 위로하자고 하여 이 말과 같이 추진되어 정자를 지었다. 坡田형이 사람을 시켜 나에게 그 증거가 되는 기문을 청하니 나같이 짧은 글로 어떻게 감히 이 일을 감당하랴 고사하였으나 거두지 않아 이에 참고 문헌으로 이와 같이 대략 적어 정과정 기문으로 삼고자 한다.

병술년(2006) 1월 일 양천 許樵 근기

[원문]

舊東萊府治之東三墩許有荒嶺之山蒼然屹立而一枝之脈向東北而逶迤臨江之處絕壁之上有一亭子突兀聳空者令人爲其高麗文人瓜亭鄭公而作也公諱叙號瓜亭東萊人也以知樞密院事文安公沆之子仁宗朝出仕官至內侍郎中則公之妻乃仁宗妃任氏之妹也由是有寵愛而毅宗卽位以群小之讒訴謫居於東萊者多年日夜望北戀主之情悠久愈深於是乃取蘇子所謂渺渺兮余懷望美人兮天一方之句擬作一篇歌詞吐露心情或臨東江垂竿釣魚而自慰其心或登鏡巖彈琴詠歌而自訴其情其辭甚哀怨其曲甚懇切有足感動人者多矣後公得赦歸京惟江巖與歌曲則猶在傳來故後人過此江巖則舉手指點曰鄭瓜亭杖履之所愛護不已

부록 17. 과정공 유적지

聞此歌曲則側耳歎賞曰鄭瓜亭戀君之曲詠歌其興者已爲近千年于茲矣不幸今因都市開發毀廢古賢之遺跡而將建層屋也於時土鄉會長坡田金戊祚氏言於當局曰古跡保存之責惟在於後人如是撤去可乎當務者謝過曰不得已之事如何則可乎曰然則築亭於江上景明處移巖於亭邊以慰尊靈矣乃如其言而推進亭旣成也坡田兄使人徵記於余採之不文何敢當是役固辭不獲乃參考文獻略述如右以爲瓜亭記

檀紀四三三九年丙戌正月 日

陽川許 棫謹記

靈山辛美敬謹書



▲ 鄭瓜亭과 증건기 현판

부록 17. 과정공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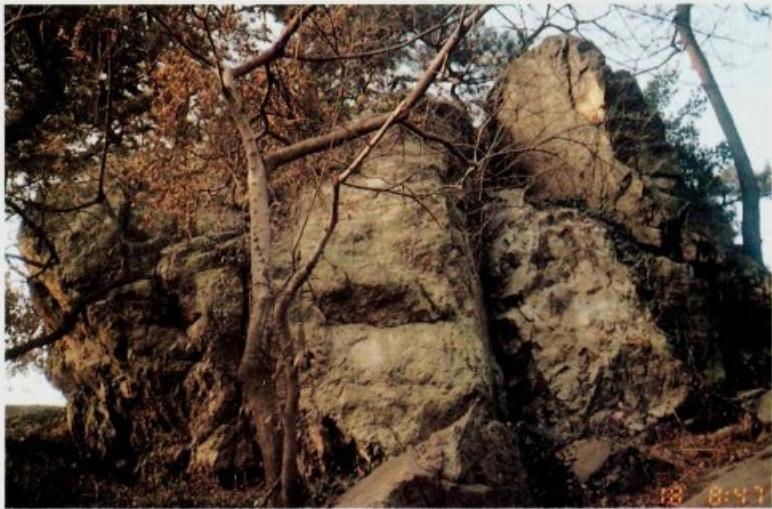


▲ 고지도상의 鄭瓜亭 위치 (빨간색 동그라미)

부록 17. 과정공 유적지



지금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위까지 깎여져 있으나, 바로 이 산 언저리에 과정(瓜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산 건너편에 수영강 삼각주가 있어, 그 곳에 오이밭이 있었다.



이 큰 바위가 용두곶이다. 속설에 경암(鏡巖)이라 한다. 과정 선생이 이 곳에서 개성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망배했다. 여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망산(望山)에 이른다. 망산도 역시 망배하던 산이라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주공 아파트촌이 되어 그 자취를 잃었다.

▲ 과정공 유적지의 과정 옛터와 경암 [출처: 과정문학의 재조명(파전한국학당편, 1997)]

부록 17. 과정공 유적지



▲ 정과정공원(2003년 5월 6일에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4호로 지정) ※망산의 끝자락인 용두곶에 1985년 토향회에서 건립한 '정과정시비'와 소나무 두 그루와 수령이 400년(지정 당시) 되었다고 하는 보호수 팽나무 한 그루가 둘러 서있는 鏡巖 바위가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

인명색인

인명색인

- 【ㄱ】**
- 강문열(姜文烈) 128
강필로(姜弼老) 118
권문해(權文海) 41
김간윤(金干潤) 118
김건배(金建培) 98, 99, 100, 192
김경백(金敬伯) 127
김길형(金吉衡) 119
김덕종(金德宗) 119
김무조(金戊祚) 446
김봉삼(金奉三) 128
김사중(金士重) 118
김상선(金尙善) 128
김상준(金尙俊) 119, 124
김선(金鎰) 75, 148, 158, 196
김성제(金聖濟) 118
김세렴(金世濂) 15, 17
김송강(金松岡) 128
김영오(金英五) 118
김용서(金龍瑞) 118
김운식(金芸植) 119, 124
김인오(金仁五) 172
김장한(金章翰) 128
김재문(金在文) 119
김재호(金在昊) 106, 119
김전욱(金典旭) 172
- 김정필(金正弼) 118
김중호(金重浩) 119, 126
김창하(金昌夏) 34
김창한(金彰漢) 111
김체건(金體乾) 433
김택하(金宅河) 106
김하삼(金夏三) 39
김학수(金學秀) 125
- 【ㄴ】**
- 노운수(盧芸壽) 119, 124
- 【ㄹ】**
- 문명창(文命昌) 357
문진철(文進哲) 119
문혁(文赫) 119
- 【ㅁ】**
- 박근실(朴根實) 118
박무영(朴茂英) 118
박문훈(朴汶勳) 106
박민구(朴敏求) 39
박병영(朴炳英) 172
박상하(朴相夏) 118
박영길(朴泳吉, 永吉)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97, 198
박전라(朴全羅) 128

인명색인

박정화(朴鼎和) 91
 박종준(朴宗俊) 119
 박주서(朴周瑞) 118
 박춘서(朴春瑞) 127
 박춘화(朴春華) 128
 박현정(朴鉉鼎) 124
 박현필(朴鉉弼) 119
 백남필(白南弼) 118
 백문성(白文星) 118, 128
 백은서(白銀瑞) 118

【스】

서우진(徐宇鎭) 118
 소두산(蘇斗山) 13
 손규수(孫圭秀) 119
 손문식(孫文植) 106
 송대련(宋大蓮) 172
 송유은(宋儒殷) 76
 송익명(宋益明) 118
 신만근(辛萬根) 119
 신재준(申齋俊) 128
 신태건(申泰建) 196
 신태언(辛泰彦) 118
 심상훈(沈相薰) 99
 심인택(沈隣澤) 118, 390

【오】

안순명(安順明) 128
 양찬일(梁燦駟) 125
 오성월(吳惺月) 195
 왕극순(王極淳) 118
 우석원(禹錫元) 119
 원세엽(元世燁) 98
 원식(元湜) 357
 유도선(兪道先) 119

윤두침(尹斗瞻) 125
 윤사혁(尹師嫻) 76
 이광옥(李光昱) 119
 이규화(李圭和) 138
 이금옥(李今玉) 172
 이명수(李命守) 172
 이사순(李思淳) 76
 이서기(李瑞基) 119
 이성수(李性守) 126
 이승우(李昇雨) 118
 이용팔(李龍八) 118
 이의신(李懿信) 10
 이일천(李日天) 119
 이종만(李鍾晩) 119
 이중담(李重談) 76
 이지태(李枝泰) 119
 이천여(李千如) 119
 이태기(李泰基) 106
 이홍식(李弘植) 98, 100, 101,
 111, 113, 114, 115, 192
 이화춘(李和春) 118
 이휘녕(李暈寧) 433

【즈】

장덕서(張德瑞) 118
 장문수(張文守) 119
 장선이(張先伊) 128
 전갑조(全甲祚) 172
 전광엽(田光燁) 118
 정갑손(鄭甲孫) 40
 정갑주(鄭甲柱) 411
 정갑준(鄭甲俊) 348, 378
 정갑진(鄭甲鎭) 417
 정강모(鄭康謨) 382
 정강조(鄭綱朝) 410

인명색인

정개동(鄭開東)	415	정광필(鄭光弼)	28
정건모(鄭建模)	412	정광헌(鄭光憲)	350, 380
정건모(鄭建謨)	48	정교흥(鄭教興)	412, 414
정건희(鄭建恢)	417	정구(鄭矩)	40
정겸동(鄭謙東)	53	정구십(鄭九十)	382
정경규(鄭璟奎)	417	정구조(鄭球朝)	415
정경래(鄭敬來)	436	정국린(鄭國隣)	347, 377
정경모(鄭敬謨)	414	정국방(鄭局芳)	352, 381
정경삼(鄭庚三)	338, 387, 417, 436	정국주(鄭國柱)	348, 378
정경수(鄭京守)	410	정국천(鄭局千)	352, 381
정경오(鄭慶五)	382	정국태(鄭國台)	346, 376
정경오(鄭敬五)	352, 381, 409	정국필(鄭國弼)	410
정경조(鄭景朝)	417	정국현(鄭國賢)	346, 376
정경춘(鄭慶春)	346, 376	정귀령(鄭龜齡)	28
정경호(鄭慶浩)	436	정귀성(鄭貴成)	350, 379
정경호(鄭敬浩)	409	정귀조(鄭龜朝)	57, 101, 389, 411
정경호(鄭景浩)	53	정귀현(鄭龜鉉)	417
정경호(鄭璟浩)	382	정규상(鄭圭祥)	417
정경희(鄭景恢)	412, 417	정규상(鄭奎相)	53
정계(鄭桂)	412	정규상(鄭奎祥)	347, 376
정관수(鄭觀秀)	48	정규석(鄭奎錫)	54
정관순(鄭寬淳)	349, 379	정규선(鄭圭善)	100
정관일(鄭寬一)	351, 380, 385	정규성(鄭圭成)	48, 95, 144, 145, 409
정관조(鄭寬朝)	135, 165, 177, 186, 191, 381, 385, 386, 409	정규영(鄭圭瑛)	390
정괄(鄭佉, 佉)	40	정규영(鄭奎映)	417
정광석(鄭光錫)	349, 379	정규오(鄭圭午)	52
정광선(鄭光善)	411	정규옥(鄭奎玉)	417
정광성(鄭廣成)	28	정규욱(鄭圭旭)	115
정광세(鄭光世)	40	정구조(鄭圭朝)	389
정광수(鄭光洙)	178, 186, 382, 387, 409	정구조(鄭揆朝)	389
정광익(鄭光益)	347, 377	정규찬(鄭圭讚)	389
정광주(鄭光柱)	411	정규찬(鄭奎讚)	416
		정규태(鄭奎台)	417

인명색인

- 정규필(鄭圭弼) 410
 정규헌(鄭奎憲) 52
 정규혁(鄭圭赫) 389
 정규호(鄭奎浩) 416
 정규환(鄭圭煥) 127, 135, 139,
 140, 141, 142, 144, 157, 197,
 401, 409, 415, 422
 정근조(鄭謹朝) 389
 정궁조(鄭肯朝) 100, 389
 정기규(鄭基奎) 414
 정기대(鄭基大) 350, 374, 412
 정기룡(鄭琪龍) 415
 정기봉(鄭基鳳) 100, 389
 정기부(鄭基富) 413
 정기선(鄭基善) 69, 77, 78,
 82, 83, 146, 189, 195, 337,
 347, 350, 373, 374, 383, 410
 정기성(鄭基攄) 54
 정기수(鄭岐守) 414
 정기수(鄭琪守) 411
 정기수(鄭驥洙) 52
 정기식(鄭基植) 347, 373
 정기언(鄭起彦) 347, 377
 정기연(鄭祺演) 349, 350, 379,
 384
 정기영(鄭基永) 52, 352, 381
 정기오(鄭基五) 416
 정기옥(鄭基玉) 52
 정기옥(鄭琪玉) 416
 정기우(鄭琪瑀) 51
 정기욱(鄭基旭) 99, 100, 101,
 105, 115, 118, 119, 120, 121,
 122, 123, 134, 389
 정기원(鄭基元) 352, 381
 정기조(鄭耆朝) 48, 96, 101,
 120, 191, 389
 정기주(鄭祺周) 52, 351, 382
 정기주(鄭祺周) 381
 정기준(鄭琪俊) 350, 379
 정기직(鄭基直) 347, 373
 정기진(鄭箕鎭) 48
 정기태(鄭基泰) 53
 정기표(鄭箕杓) 53, 351, 380,
 410
 정기필(鄭基弼) 123, 409, 410,
 413
 정기하(鄭基廈) 351, 380
 정기항(鄭基恒) 48
 정기현(鄭基鉉) 52, 54
 정기호(鄭琪浩) 385
 정기홍(鄭基弘) 52
 정기황(鄭基璜) 389
 정기회(鄭基會) 48, 94, 388,
 389
 정기회(鄭琦恢) 411
 정길순(鄭吉淳) 351, 380, 409
 정난종(鄭蘭宗) 28, 40
 정남조(鄭南朝) 389
 정내경(鄭乃敬) 348, 350, 378
 정내호(鄭乃嶠) 417
 정내화(鄭乃和) 86, 190, 345,
 346, 347, 349, 373, 374, 375,
 376, 378, 384
 정노언(鄭魯彦) 346, 376
 정노용(鄭老容) 349, 374
 정노현(鄭魯賢) 53
 정달선(鄭達先) 45
 정달성(鄭達星) 345, 375
 정달윤(鄭達倫) 413
 정달지(鄭達之) 414

인명색인

- | | | | |
|-----------|----------------------------|----------|-----------------------------------|
| 정대근(鄭大根) | 348, 378 | 정동백(鄭東伯) | 350, 353, 379 |
| 정대기(鄭大琦) | 412 | 정동수(鄭東守) | 349, 378 |
| 정대련(鄭大連) | 351, 380 | 정동우(鄭東佑) | 345, 349, 376 |
| 정대용(鄭大容) | 346, 347, 348,
373, 374 | 정동조(鄭東朝) | 415 |
| 정대용(鄭大鏞) | 413 | 정동학(鄭東學) | 416 |
| 정대익(鄭大翊) | 350, 379 | 정동한(鄭東翰) | 348, 351, 378 |
| 정대인(鄭大仁) | 348, 378 | 정동협(鄭東協) | 374 |
| 정대일(鄭大一) | 351, 380 | 정동협(鄭東協) | 346, 352, 373 |
| 정대진(鄭岱鎭) | 415 | 정동환(鄭東煥) | 347, 373 |
| 정대흥(鄭大興) | 348, 377 | 정동훈(鄭東勳) | 417 |
| 정덕구(鄭德垢) | 346, 376 | 정두만(鄭斗滿) | 349, 379 |
| 정덕륜(鄭德崙) | 345, 375 | 정두명(鄭斗命) | 349, 378 |
| 정덕생(鄭德生) | 416 | 정두모(鄭斗謨) | 411 |
| 정덕순(鄭德淳) | 345, 375 | 정두석(鄭斗錫) | 411 |
| 정덕영(鄭德榮) | 416 | 정두익(鄭斗益) | 411 |
| 정덕영(鄭惠永) | 135, 188, 401,
412 | 정두진(鄭斗鎭) | 411 |
| 정덕윤(鄭德允) | 352, 381 | 정두필(鄭斗必) | 351, 381 |
| 정덕윤(鄭德潤) | 46 | 정두환(鄭斗煥) | 96 |
| 정덕일(鄭德一) | 350, 379, 384,
416 | 정득권(鄭得權) | 346, 376 |
| 정덕화(鄭德華華) | 53 | 정득남(鄭得男) | 437 |
| 정덕흥(鄭德興) | 345, 348, 375,
377 | 정득명(鄭得命) | 345, 375, 410 |
| 정덕희(鄭德禧) | 351, 380, 385 | 정래강(鄭萊綱) | 347, 348, 376 |
| 정도모(鄭道謨) | 416 | 정래백(鄭萊栢) | 86, 190, 346,
376, 384 |
| 정도언(鄭度彦) | 53 | 정래복(鄭萊馥) | 346, 376 |
| 정도언(鄭道彦) | 347, 377 | 정래성(鄭萊成) | 345 |
| 정도윤(鄭道潤) | 347, 377 | 정래순(鄭萊淳) | 346, 349, 350,
376 |
| 정동관(鄭東觀) | 346, 373 | 정래유(鄭萊瑜) | 345, 349, 375 |
| 정동귀(鄭東龜) | 347, 373 | 정래운(鄭萊胤) | 345, 376 |
| 정동기(鄭東驥) | 345, 373 | 정래인(鄭萊仁) | 345, 346, 347,
375 |
| 정동련(鄭東連) | 413 | 정래주(鄭來周) | 38, 92, 94,
143, 180, 344, 373 |
| 정동민(鄭東閔) | 345, 373 | 정래준(鄭萊俊) | 385 |

인명색인

- | | | | |
|----------|--|----------|---|
| 정래창(鄭萊昌) | 346, 376 | 정문준(鄭文駿) | 411 |
| 정래학(鄭萊鶴) | 345, 375 | 정민국(鄭敏國) | 349, 378 |
| 정래호(鄭萊湖) | 345, 375 | 정민수(鄭玟守) | 412 |
| 정래효(鄭萊孝) | 345, 375 | 정민호(鄭民浩) | 53 |
| 정래흥(鄭萊興) | 345, 375, 412,
413 | 정발(鄭爔) | 412 |
| 정만립(鄭晩立) | 344, 375 | 정방우(鄭邦佑) | 344, 374 |
| 정만봉(鄭晩奉) | 344, 375 | 정방유(鄭邦儒) | 345, 375 |
| 정만성(鄭晩成) | 344, 345, 375 | 정방회(鄭邦恢) | 417 |
| 정만수(鄭萬守) | 417 | 정병일(鄭秉一) | 350, 379, 384 |
| 정만순(鄭晩淳) | 345, 373 | 정병조(鄭丙朝) | 100, 115, 120,
123 |
| 정만조(鄭萬朝) | 101, 115, 120,
122, 123, 124, 125, 126, 135,
142, 188, 401, 422, 423 | 정병조(鄭炳朝) | 159 |
| 정만흥(鄭晩興) | 344, 345, 375 | 정병호(鄭秉鎬) | 411 |
| 정맹신(鄭孟臣) | 348, 378 | 정복겸(鄭福謙) | 28 |
| 정명덕(鄭命德) | 416 | 정복근(鄭福根) | 382 |
| 정명록(鄭命祿) | 350, 379 | 정복세(鄭福世) | 86, 87, 190,
346, 376, 411 |
| 정명수(鄭命守) | 417 | 정복영(鄭福榮) | 346, 376 |
| 정명수(鄭明守) | 410 | 정봉래(鄭鳳來) | 413 |
| 정명순(鄭命順) | 348, 378 | 정봉선(鄭奉善) | 415 |
| 정명진(鄭明鎭) | 412 | 정봉식(鄭鳳植) | 412 |
| 정명철(鄭明徹) | 412 | 정봉조(鄭鳳朝) | 413 |
| 정목(鄭穆) | 11, 26, 27,
28, 31, 437 | 정봉좌(鄭奉佐) | 53, 351, 380 |
| 정무성(鄭武成) | 349, 379 | 정봉현(鄭鳳鉉) | 411 |
| 정문규(鄭文奎) | 413 | 정부명(鄭富命) | 348, 378, 411,
413 |
| 정문도(鄭文道) | 440 | 정부윤(鄭富潤) | 46 |
| 정문도(鄭文道) | 3, 14, 15, 26,
27, 31, 35, 36, 40, 337, 354,
428, 434, 436 | 정비(鄭毗) | 28 |
| 정문열(鄭雯烈) | 351, 380 | 정사(鄭賜) | 28 |
| 정문옥(鄭文郁) | 347, 377, 409 | 정사조(鄭士朝) | 413 |
| 정문유(丁文有) | 118 | 정사현(鄭師玄) | 34, 146, 189,
344, 350, 351, 357, 363, 374,
384 |
| 정문조(鄭汶朝) | 416 | 정삼룡(鄭三龍) | 348, 378, 416 |
| | | 정삼준(鄭參駿) | 412 |

인명색인

- 정상곤(鄭尙坤) 382
 정상교(鄭相敎) 414
 정상근(鄭相根) 411
 정상노(鄭相魯) 410
 정상민(鄭相旻) 410
 정상업(鄭相業) 416
 정상엽(鄭相燁) 53
 정상용(鄭相龍) 172
 정상은(鄭祥殷) 349, 379
 정상익(鄭相翼) 53
 정상조(鄭尙朝) 416
 정상조(鄭相朝) 52, 54, 57,
 101, 111, 115, 117, 118, 120,
 123, 135, 137, 139, 144, 146,
 165, 178, 186, 188, 193, 194,
 195, 196, 200, 201, 381, 385,
 386, 409, 410, 422, 433
 정상조(鄭祥祚) 352, 381
 정상준(鄭尙準) 411
 정상진(鄭翺鎭) 416
 정상현(鄭相鉉) 415
 정서(鄭叙) 40, 445
 정석강(鄭錫康) 344, 375
 정석경(鄭錫慶) 46
 정석곤(鄭碩坤) 348, 377, 378,
 409
 정석권(鄭錫權) 350, 379
 정석규(鄭錫圭) 46
 정석노(鄭碩魯) 349, 378
 정석륜(鄭錫倫) 52
 정석린(鄭錫璘) 384
 정석범(鄭錫範) 46
 정석삼(鄭錫三) 46
 정석수(鄭碩壽) 346, 376
 정석수(鄭錫洙) 410
 정석순(鄭錫淳) 411
 정석주(鄭錫周) 350, 380, 384
 정석주(鄭錫疇) 46
 정석준(鄭碩俊) 347, 377
 정석준(鄭錫俊) 352, 381, 382,
 416
 정석징(鄭錫徵) 46
 정석찬(鄭錫璨) 346, 376, 384
 정선(鄭選) 345, 373
 정선용(鄭善容) 349, 374
 정선조(鄭選朝) 48, 100, 105,
 115, 119, 122, 123, 124, 125,
 126, 389
 정섬(鄭暹) 344, 375
 정섭조(鄭燮朝) 100
 정성묵(鄭聖默) 347, 377
 정성배(鄭聖培) 410
 정성신(鄭聖臣) 348, 378
 정성언(鄭成彦) 75, 349, 378
 정성운(鄭成雲) 347, 377
 정성웅(鄭聖雄) 346, 376
 정성철(鄭成哲) 413
 정성팔(鄭聖八) 351, 381
 정성환(鄭成煥) 349, 378
 정성휴(鄭城休) 412
 정세강(鄭世康) 346
 정세언(鄭世彦) 346, 376, 414
 정세진(鄭世鎭) 135, 157, 422,
 425
 정세현(鄭世玄) 344, 345, 374
 정수경(鄭樹璟) 351, 380, 412
 정수담(鄭壽淡) 413
 정수담(鄭壽聃) 414
 정수덕(鄭守德) 348, 377
 정수륜(鄭秀倫) 417

인명색인

- | | | | |
|----------|-----------------------------|----------|--|
| 정수립(鄭秀立) | 410 | | |
| 정수민(鄭秀玟) | 412, 417 | 정시선(鄭是先) | 3, 26, 31, 92, 143, 335, 434, 437 |
| 정수복(鄭守福) | 347, 377 | 정시연(鄭始淵) | 416 |
| 정수삼(鄭秀三) | 346, 376 | 정시영(鄭時英) | 344, 346, 348, 374 |
| 정수석(鄭樹碩) | 411 | 정시용(鄭始容) | 348, 350, 373, 374 |
| 정수암(鄭秀岩) | 417 | 정시용(鄭是容) | 347, 373 |
| 정수연(鄭守演) | 349, 351, 379 | 정시웅(鄭時雄) | 346, 376 |
| 정수영(鄭壽英) | 411 | 정시윤(鄭始潤) | 349, 378 |
| 정수우(鄭秀友) | 416 | 정시익(鄭時翊) | 12 |
| 정수은(鄭壽殷) | 417 | 정시전(鄭始倝) | 351, 380, 385 |
| 정수인(鄭樹寅) | 413 | 정시종(鄭時宗) | 350, 379 |
| 정수조(鄭修朝) | 57 | 정시철(鄭始徹) | 350, 379 |
| 정수준(鄭壽準) | 415 | 정시호(鄭始昊) | 190, 350, 380, 384, 409, 410, 413 |
| 정수창(鄭秀昌) | 414 | 정시홍(鄭始弘) | 349, 378, 412 |
| 정수현(鄭樹賢) | 414 | 정시화(鄭時華) | 351, 381 |
| 정숙(鄭塾) | 350, 374 | 정신모(鄭臣謨) | 415 |
| 정숙조(鄭翻朝) | 351, 374 | 정신줄(鄭信茁) | 53 |
| 정숙조(鄭肅朝) | 48, 101 | 정양생(鄭良生) | 40 |
| 정순진(鄭順鎭) | 411 | 정양순(鄭良淳) | 190, 350, 379, 384 |
| 정순현(鄭舜賢) | 53 | 정양순(鄭良淳) | 146 |
| 정술선(鄭述先) | 45 | 정언모(鄭彦謨) | 116 |
| 정숭(鄭崇) | 28 | 정언섭(鄭彦燮) | 3, 13, 30, 33, 37, 38, 39, 49, 92, 93, 143, 180, 181, 189, 337, 344, 373 |
| 정습(鄭習) | 44 | 정언신(鄭彦臣) | 347, 377 |
| 정승모(鄭承謨) | 100 | 정언유(鄭彦儒) | 46, 143 |
| 정승모(鄭昇謨) | 436 | 정언유(鄭彦裕) | 347, 377 |
| 정승원(鄭承源) | 28 | 정언조(鄭彦朝) | 101, 115, 120, 123, 389 |
| 정승조(鄭昇朝) | 389 | 정언형(鄭彦衡) | 345, 346, 347, |
| 정시권(鄭時權) | 52, 96, 192, 385 | | |
| 정시규(鄭始奎) | 123, 385 | | |
| 정시륜(鄭始崙) | 350, 379, 384 | | |
| 정시린(鄭始麟) | 415 | | |
| 정시목(鄭始牧) | 68, 349, 379, 384, 411, 414 | | |
| 정시민(鄭始民) | 349, 379, 384, | | |

인명색인

- | | | | |
|----------|-----------------------------------|--------------|--|
| | 373 | 정용모(鄭龍謨) | 413 |
| 정여교(鄭汝僑) | 344, 374 | 정용수(鄭鏞洙) | 414 |
| 정여조(鄭與朝) | 390 | 정용억(鄭容億) | 413 |
| 정연모(鄭演謨) | 414 | 정용태(鄭容泰) | 417 |
| 정연조(鄭璉朝) | 123 | 정우권(鄭宇權) | 351, 381, 412 |
| 정연중(鄭連重) | 351, 380 | 정우동(鄭嵎東) | 347, 377 |
| 정엽린(鄭燁璘) | 84, 85 | 정우룡(鄭雨龍) | 346, 376 |
| 정영규(鄭榮奎) | 382 | 정우범(鄭雨範, 雨範) | 94, 95, 116, 123, 145, 410 |
| 정영규(鄭英奎) | 53, 349, 379, 409 | 정우용(鄭愚容) | 349, 374 |
| 정영모(鄭永謨) | 116 | 정우익(丁禹益) | 118 |
| 정영모(鄭泳謨) | 414 | 정우조(鄭佑朝) | 123, 135, 186, 188, 192, 381, 385, 409, 415 |
| 정영모(鄭英謨) | 415 | 정우풍(鄭雨豐) | 95 |
| 정영수(鄭永秀) | 417 | 정우흥(鄭雨興) | 1, 2, 3, 68, 95, 101, 116, 120, 121, 123, 127, 135, 139, 140, 141, 142, 144, 157, 165, 177, 179, 183, 186, 187, 188, 193, 198, 199, 201, 337, 401, 409, 410, 422 |
| 정영우(鄭英佑) | 351, 380 | 정옥선(鄭勛先) | 335 |
| 정영원(鄭英元) | 352, 381 | 정옥선(鄭勳先) | 44 |
| 정영조(鄭永朝) | 389 | 정옥주(鄭旭宙) | 414 |
| 정영조(鄭永祚) | 351, 381 | 정옥현(鄭旭鉉) | 411 |
| 정영조(鄭泳朝) | 91 | 정운용(鄭雲龍) | 414 |
| 정영조(鄭泳朝) | 115, 120, 123, 148, 157, 352, 374 | 정운중(鄭運淙) | 409 |
| 정영조(鄭英朝) | 352 | 정운하(鄭雲河) | 348, 378 |
| 정영주(鄭榮柱) | 411 | 정운홍(鄭雲鴻) | 401 |
| 정영주(鄭英周) | 348, 377 | 정원(鄭瑗) | 344, 374 |
| 정영희(鄭暎恢) | 416 | 정원모(鄭元謨) | 100, 123, 389, 401, 415 |
| 정영희(鄭永禧) | 411 | 정원상(鄭元相) | 344, 375 |
| 정예용(鄭禮容) | 348, 373 | 정원선(鄭元善) | 416 |
| 정옹(鄭雍) | 41 | 정원용(鄭元容) | 346, 373, 414 |
| 정완모(鄭完謨) | 416, 417 | 정원조(鄭元朝) | 96, 117, 148 |
| 정완묵(鄭完默) | 48, 389 | | |
| 정완묵(鄭完默) | 100 | | |
| 정완진(鄭完鎭) | 414 | | |
| 정완철(鄭完哲) | 344, 375 | | |
| 정용갑(鄭龍甲) | 414 | | |
| 정용구(鄭容九) | 413 | | |

인명색인

- | | | | |
|----------|---|----------|---|
| 정원표(鄭元杓) | 415 | 정은조(鄭閻朝) | 48, 96, 115,
119, 123, 143, 191, 389 |
| 정원혁(鄭源赫) | 412 | 정은주(鄭殷周) | 382 |
| 정위(鄭瑋) | 344, 346, 373,
375 | 정은호(鄭垠鎬) | 148, 157, 158 |
| 정유관(鄭有寬) | 352, 381 | 정응순(鄭應淳) | 348, 377, 384 |
| 정유규(鄭有圭) | 54 | 정응택(鄭應澤) | 346, 349, 350,
351, 376 |
| 정유규(鄭有奎) | 415 | 정의교(鄭義僑) | 344, 375 |
| 정유길(鄭惟吉) | 28, 437 | 정의규(鄭義奎) | 190, 351, 380,
385, 409 |
| 정유복(鄭裕福) | 350, 379 | 정의대(鄭儀大) | 347, 376 |
| 정유순(鄭有淳) | 346, 349, 350,
373, 374 | 정의진(鄭義鎭) | 413 |
| 정유신(鄭有臣) | 345, 375, 411 | 정이검(鄭履儉) | 344, 373 |
| 정유완(鄭有完) | 53, 382, 411 | 정이검(鄭履儉) | 46 |
| 정유일(鄭有一) | 76, 189, 347,
349, 377, 384 | 정이교(鄭而僑) | 345 |
| 정유조(鄭惟朝) | 381, 409 | 정이대(鄭以大) | 348, 377 |
| 정유태(鄭有泰) | 348, 378 | 정이화(鄭而和) | 344, 375 |
| 정유흥(鄭有興) | 345, 375 | 정익모(鄭翼謨) | 116 |
| 정윤모(鄭允謨) | 100, 111, 116,
121, 123, 144, 193, 194 | 정익주(鄭益周) | 416 |
| 정윤모(鄭潤謨) | 158, 386, 387,
416, 426, 436 | 정익환(鄭翼煥) | 412 |
| 정윤선(鄭潤先) | 45 | 정인경(鄭寅庚) | 123 |
| 정윤섭(鄭綸燮) | 420 | 정인곤(鄭仁坤) | 348, 378 |
| 정윤수(鄭潤守) | 417 | 정인구(鄭寅九) | 123 |
| 정윤용(鄭允容) | 349, 374 | 정인국(鄭寅國) | 48, 389, 415 |
| 정윤우(鄭潤佑) | 412 | 정인권(鄭仁權) | 414 |
| 정윤우(鄭潤祐) | 412 | 정인권(鄭寅權) | 382, 410 |
| 정윤주(鄭允周) | 53 | 정인규(鄭仁奎) | 352 |
| 정윤철(鄭潤轍) | 417 | 정인규(鄭寅圭) | 119, 382, 410,
415 |
| 정윤한(鄭潤翰) | 413 | 정인규(鄭寅奎) | 412 |
| 정윤현(鄭潤玄) | 413 | 정인도(鄭寅鎔) | 411 |
| 정윤협(鄭潤協) | 414 | 정인동(鄭寅東) | 416 |
| 정윤화(鄭潤和) | 348, 378 | 정인두(鄭寅斗) | 53, 411 |
| 정은석(鄭銀錫) | 415 | 정인방(鄭寅昉) | 101, 116, 414 |
| | | 정인보(鄭寅普) | 120 |

인명색인

- | | | | |
|----------|---|----------|---|
| 정인복(鄭寅復) | 48 | 정인윤(鄭寅潤) | 127, 410, 413 |
| 정인상(鄭寅相) | 412 | 정인일(鄭寅逸) | 382, 415 |
| 정인서(鄭寅書) | 116, 120 | 정인주(鄭寅州) | 390 |
| 정인석(鄭寅奭) | 100, 115, 120, 123 | 정인준(鄭寅駿) | 135, 186, 382, 409 |
| 정인석(鄭寅錫) | 48, 52, 54, 111, 186, 200, 381, 386, 409, 414, 422 | 정인중(鄭寅中) | 123 |
| 정인선(鄭仁善) | 351, 380 | 정인진(鄭寅鎭) | 48 |
| 정인섭(鄭仁燮) | 348, 378 | 정인찬(鄭寅燦) | 415 |
| 정인성(鄭寅成) | 414 | 정인찬(鄭寅贊) | 410, 413 |
| 정인성(鄭寅星) | 48, 101 | 정인창(鄭寅昶) | 382, 411 |
| 정인소(鄭寅韶) | 101 | 정인천(鄭寅千) | 415 |
| 정인수(鄭寅壽) | 115, 120, 389, 415 | 정인철(鄭寅哲) | 339 |
| 정인수(鄭寅守) | 352, 381 | 정인택(鄭仁宅) | 415 |
| 정인수(鄭寅洙) | 414, 415 | 정인팔(鄭仁八) | 350, 379 |
| 정인순(鄭仁淳) | 414 | 정인팔(鄭寅八) | 53 |
| 정인승(鄭寅昇) | 48, 100, 115, 122, 123, 124, 125, 126, 135, 389 | 정인평(鄭寅平) | 414, 415 |
| 정인식(鄭寅栻) | 352, 381 | 정인표(鄭仁杓) | 52, 96 |
| 정인영(鄭麟永) | 414 | 정인표(鄭寅杓) | 101 |
| 정인오(鄭寅五) | 101, 191 | 정인표(鄭璘杓) | 52 |
| 정인옥(鄭寅玉) | 382 | 정인필(鄭寅弼) | 57, 416, 436 |
| 정인우(鄭寅佑) | 116 | 정인하(鄭寅夏) | 413 |
| 정인우(鄭寅祐) | 50, 52, 54, 57, 96, 101, 111, 116, 117, 119, 120, 123, 135, 136, 137, 139, 144, 148, 178, 186, 188, 191, 193, 200, 381, 385, 386, 409, 413, 433 | 정인학(鄭寅學) | 48, 51, 68, 93, 94, 101, 106, 111, 115, 119, 120, 122, 123, 124, 125, 126, 129, 135, 143, 181, 191, 194, 337, 352, 373, 374, 389, 433 |
| 정인욱(鄭仁旭) | 384 | 정인한(鄭仁翰) | 351, 380 |
| 정인욱(鄭寅旭) | 100, 115, 382, 410, 417 | 정인한(鄭寅漢) | 412 |
| | | 정인한(鄭寅翰) | 412 |
| | | 정인헌(鄭寅獻) | 48, 101 |
| | | 정인혁(鄭寅赫) | 413 |
| | | 정인호(鄭仁昊) | 351, 380, 410 |
| | | 정인호(鄭寅灝) | 119, 382 |
| | | 정인호(鄭寅琥) | 48, 101 |

인명색인

- | | | | |
|----------|---|----------|---|
| 정인홍(鄭寅洪) | 415 | 정재식(鄭在植) | 410 |
| 정인화(鄭寅和) | 412 | 정재악(鄭載岳) | 44, 143 |
| 정인화(鄭寅華) | 52, 415 | 정재연(鄭在演) | 384, 411 |
| 정인환(鄭仁煥) | 52, 348, 378 | 정재연(鄭宰演) | 414 |
| 정인환(鄭寅煥) | 100, 115 | 정재용(鄭在容) | 349, 374 |
| 정인흡(鄭寅洽) | 416 | 정재욱(鄭在旭) | 96 |
| 정인흥(鄭仁興) | 347, 377 | 정재중(鄭在宗) | 415 |
| 정인흥(鄭寅興) | 48, 101, 115,
120, 122, 124, 125, 126, 135,
142 | 정재중(鄭載重) | 344, 375 |
| 정인희(鄭寅禧) | 119 | 정재진(鄭在鎭) | 52, 350, 380,
412, 416 |
| 정인희(鄭寅羲) | 101 | 정재철(鄭在哲) | 348, 378, 410 |
| 정일필(鄭一弼) | 414 | 정재태(鄭載泰) | 344, 345, 374 |
| 정잉재(鄭仍在) | 200 | 정재필(鄭在弼) | 120 |
| 정자가(鄭子家) | 28 | 정재혁(鄭載赫) | 96 |
| 정자권(鄭自權) | 348, 377 | 정재현(鄭再賢) | 346, 376 |
| 정장(鄭璋) | 412 | 정재협(鄭載協) | 345, 375 |
| 정재건(鄭載健) | 345, 376 | 정재환(鄭載煥) | 159 |
| 정재관(鄭在寬) | 52 | 정재흥(鄭再興) | 345, 376 |
| 정재교(鄭再僑) | 344, 347, 357,
375 | 정전규(鄭銓奎) | 413 |
| 정재교(鄭宰教) | 416 | 정점(鄭漸) | 26, 27, 31,
32, 437 |
| 정재노(鄭宰魯) | 413 | 정정조(鄭貞朝) | 352 |
| 정재대(鄭載大) | 335 | 정제(鄭濟) | 26, 27, 31,
32, 437 |
| 정재대(鄭載岱) | 335 | 정조(鄭朝) | 389 |
| 정재룡(鄭在龍) | 382 | 정존수(鄭存秀) | 434 |
| 정재룡(鄭宰龍) | 410 | 정존일(鄭存一) | 88, 89, 347,
349, 350, 351, 377, 384 |
| 정재륜(鄭載崙) | 3, 12, 27, 28,
29, 49, 92, 143 | 정존중(鄭存中) | 351 |
| 정재륜(鄭載崙) | 335 | 정중륜(鄭鍾綸) | 50, 53 |
| 정재복(鄭在福) | 123 | 정중범(鄭鍾範) | 52, 54 |
| 정재서(鄭載瑞) | 344, 374 | 정종식(鄭宗植) | 414 |
| 정재순(鄭載淳) | 351, 381 | 정종진(鄭宗鎭) | 415 |
| 정재순(鄭載純) | 344, 374 | 정좌초(鄭佐朝) | 101 |
| 정재승(鄭載嵩) | 335 | 정주묵(鄭周默) | 48, 389 |

인명색인

정주생(鄭周生)	382		
정주익(鄭周翊)	345, 376	정진영(鄭鎭瑛)	413
정주현(鄭周鉉)	412, 415	정진욱(鄭進旭)	350, 379
정준모(鄭浚謨)	401	정진원(鄭鎭元)	413
정준모(鄭準謨)	436	정진조(鄭縉朝)	381
정중교(鄭重僑)	346, 376	정진철(鄭鎭喆)	410
정중록(鄭重錄)	350, 379	정진한(鄭鎭漢)	412
정중회(鄭重鉉)	417	정진홍(鄭鎭弘)	101, 116, 120, 121, 123, 127, 144, 192, 193, 194
정증연(鄭曾演)	385	정진희(鄭鎭熙)	415
정지(鄭智)	44	정차조(鄭且朝)	416
정지권(鄭智權)	350, 380	정찬(鄭瓚)	417
정지린(鄭之麟)	415	정찬모(鄭贊謨)	116
정지수(鄭芝秀)	157	정찬영(鄭濬永)	410
정지양(鄭志養)	347, 377	정찬조(鄭瓚朝)	100, 389
정지원(鄭之遠)	26, 27, 31, 443, 436	정찬조(鄭贊朝)	123, 172
정지인(鄭之仁)	415	정찬종(鄭纘宗)	41
정지형(鄭之衡之)	28	정창겸(鄭昌謙)	347, 377
정지호(鄭志浩)	347, 377	정창규(鄭昌珪)	349, 379
정지홍(鄭之洪)	415	정창모(鄭昌謨)	415
정지화(鄭之和)	417	정창모(鄭昶謨)	116, 416
정지화(鄭知和)	335	정창석(鄭昌錫)	417
정진교(鄭震僑)	34, 189, 350, 384	정창손(鄭昌孫)	40
정진구(鄭鎭九)	116	정창수(鄭昌洙)	409
정진국(鄭鎭國)	135	정창순(鄭昌淳)	349, 378, 385, 410
정진규(鄭辰圭)	416	정창식(鄭昌植)	414
정진규(鄭鎭奎)	386, 413	정창연(鄭昌衍)	28
정진룡(鄭鎭龍)	416	정창욱(鄭彰旭)	115
정진명(鄭辰明)	414	정창조(鄭彰朝)	389
정진모(鄭珍謨)	178, 186, 200, 386, 409	정창조(鄭昌朝)	411, 413
정진세(鄭鎭世)	116	정창현(鄭昌鉉)	411
정진엽(鄭進燁)	416	정창회(鄭鳴會)	350, 380
정진영(鄭珍榮)	338, 386, 412,	정창희(鄭昌禧)	111

인명색인

- | | | | |
|----------|----------------------------|----------|---------------------------------|
| 정채권(鄭綵權) | 416 | | |
| 정채환(鄭采煥) | 347, 377 | 정택순(鄭宅淳) | 347, 377 |
| 정채희(鄭採恢) | 416 | 정택조(鄭宅朝) | 48, 389 |
| 정천우(鄭天宇) | 53 | 정택주(鄭澤周) | 411 |
| 정철묵(鄭哲默) | 409 | 정표현(鄭杓鉉) | 414 |
| 정철원(鄭喆元) | 351, 381 | 정필(鄭弼) | 28 |
| 정철조(鄭喆朝) | 48 | 정필노(鄭必魯) | 349, 378, 384 |
| 정최조(鄭愷朝) | 348, 374 | 정필복(鄭弼福) | 348, 378 |
| 정춘도(鄭春道) | 382 | 정필조(鄭弼朝) | 52 |
| 정춘동(鄭春東) | 348, 377 | 정필주(鄭弼周) | 350, 380 |
| 정춘로(鄭椿老) | 28 | 정하건(鄭夏建) | 158, 159 |
| 정춘석(鄭春碩) | 345, 353, 375 | 정하서(鄭河瑞) | 45, 143 |
| 정충량(鄭忠樑) | 40 | 정학(鄭學) | 389 |
| 정취일(鄭就逸) | 349, 378 | 정학룡(鄭學龍) | 415 |
| 정치규(鄭致奎) | 351, 380 | 정학률(鄭學律) | 413 |
| 정치복(鄭致福) | 382, 415 | 정학묵(鄭學默) | 48, 389 |
| 정치선(鄭致善) | 411 | 정학순(鄭學淳) | 51 |
| 정치완(鄭致完) | 412 | 정학영(鄭學永) | 414 |
| 정치주(鄭致周) | 413 | 정학유(鄭學裕) | 349, 374 |
| 정치진(鄭致鎭) | 412 | 정학조(鄭學朝) | 415, 416 |
| 정치한(鄭致漢) | 53 | 정학주(鄭學周) | 350, 379 |
| 정치화(鄭致和) | 28, 49, 51,
433 | 정한모(鄭翰謨) | 100, 116, 123 |
| 정태구(鄭泰耆) | 414 | 정한수(鄭漢守) | 352 |
| 정태기(鄭泰基) | 416 | 정한영(鄭翰泳) | 416 |
| 정태동(鄭泰東) | 347, 373 | 정한조(鄭漢朝) | 100, 115, 389 |
| 정태복(鄭泰福) | 351, 380 | 정한조(鄭翰朝) | 48, 100, 389 |
| 정태영(鄭台諤) | 52 | 정항(鄭沆) | 26, 27, 31,
32, 40, 437, 445 |
| 정태영(鄭泰榮) | 412 | 정항모(鄭恒謨) | 116, 401, 411 |
| 정태영(鄭泰永) | 349, 379 | 정항의(鄭恒議) | 100 |
| 정태진(鄭泰瑨) | 413 | 정항조(鄭恒朝) | 48, 101, 115,
120 |
| 정태화(鄭太和) | 12, 28, 51,
143 | 정항홍(鄭恒弘) | 389 |
| 정태휴(鄭太休) | 412 | 정해(鄭諧) | 28 |
| 정택(鄭澤) | 26, 27, 28,
31, 32, 437 | 정해조(鄭海朝) | 413 |

인명색인

- | | | | |
|----------|--------------------------------|----------|--------------------------------|
| 정행오(鄭行五) | 44, 143 | 정화식(鄭化植) | 415 |
| 정헌규(鄭憲圭) | 352, 381, 410 | 정화일(鄭和一) | 350, 380 |
| 정헌규(鄭憲奎) | 382 | 정화조(鄭華朝) | 382, 410 |
| 정헌석(鄭憲奭) | 53 | 정화준(鄭華俊) | 350, 380 |
| 정헌조(鄭憲朝) | 350, 374, 410 | 정환(鄭桓) | 350, 374 |
| 정혁선(鄭赫先) | 33, 45, 49,
50, 92 | 정환규(鄭煥奎) | 50, 52, 385 |
| 정현(鄭玪) | 76, 148, 158,
195, 346, 376 | 정환민(鄭煥民) | 53 |
| 정현기(鄭玄基) | 389 | 정환봉(鄭煥鳳) | 416 |
| 정현대(鄭賢大) | 346, 376 | 정환생(鄭煥生) | 382 |
| 정현모(鄭玄謨) | 101 | 정환선(鄭桓璇) | 351, 380 |
| 정현모(鄭玪謨) | 415 | 정환용(鄭煥溶) | 382 |
| 정현조(鄭賢朝) | 101 | 정환용(鄭煥瑢) | 411 |
| 정협조(鄭協朝) | 115, 120 | 정환우(鄭煥祐) | 382, 412 |
| 정형만(鄭亨萬) | 46 | 정환주(鄭桓周) | 350, 352, 379 |
| 정형모(鄭滢謨) | 186, 409 | 정환철(鄭煥哲) | 52, 382 |
| 정형배(鄭炯培) | 413 | 정환필(鄭煥弼) | 416 |
| 정형복(鄭亨復) | 46, 344, 373 | 정회문(鄭繪文) | 443 |
| 정형익(鄭亨益) | 13, 143 | 정회연(鄭會演) | 350, 379 |
| 정형조(鄭亨朝) | 177, 186, 200,
386 | 정후곤(鄭厚坤) | 349, 379 |
| 정형진(鄭亨晉) | 45 | 정후조(鄭侯朝) | 381 |
| 정형태(鄭亨泰) | 46 | 정훈모(鄭薰謨) | 69, 100, 157,
389, 410, 415 |
| 정호준(鄭浩俊) | 52, 352, 381 | 정훈조(鄭勳朝) | 385 |
| 정호진(鄭浩珍) | 410 | 정휘봉(鄭輝鳳) | 414 |
| 정호현(鄭浩賢) | 352, 381 | 정휘조(鄭彙朝) | 52, 96, 385 |
| 정호현(鄭浩賢) | 414 | 정흠선(鄭欽先) | 45 |
| 정홍조(鄭洪朝) | 413 | 정흠지(鄭欽之) | 40 |
| 정화(鄭華) | 417 | 정흥방(鄭興邦) | 345, 375 |
| 정화국(鄭華國) | 348, 377 | 정흥원(鄭興元) | 349, 378 |
| 정화덕(鄭化德) | 351, 380 | 정흥윤(鄭興潤) | 347, 377 |
| 정화복(鄭和福) | 413 | 정흥조(鄭興朝) | 409 |
| 정화수(鄭和守) | 417 | 정흥준(鄭興駿) | 412 |
| 정화순(鄭華淳) | 346, 373 | 정희교(鄭希僑) | 344, 345, 375 |
| | | 정희룡(鄭喜龍) | 351, 380 |
| | | 정희선(鄭希先) | 45 |

인명색인

정희연(鄭憲演) 415
 정희우(鄭喜愚) 348, 377
 정희조(鄭禧朝) 414
 정희표(鄭熙杓) 351, 380
 조상필(趙相弼) 172

【ㄷ】

최경문(崔敬文) 119
 최군한(崔君漢) 106
 최명서(崔明瑞) 128
 최문준(崔文俊) 172
 최상명(崔命相) 39

【왜인】

三吉赫(미요시 아카시) 114
 寺内正毅(테라우치 마사타케)
 116, 121
 志村(志邨)太郎(시무라 타로)
 114, 115, 121
 田中喜策(다나카 기사쿠) 138
 田中常次郎(다나카 죠오지로)
 98, 114, 192

최시명(崔時鳴) 119
 최치교(崔致教) 118
 추종엽(秋種燁) 119

【ㄹ】

한규복(韓圭復) 198
 한상서(韓尙瑞) 118
 허채(許採) 446
 현명운(玄明運) 390
 홍만중(洪萬宗) 41
 황두옥(黃斗玉) 127

磯田清造(이소다 키요스케)
 138, 139, 140, 142, 197
 秋吉富太郎(아키요시 도미타로) 192
 若松(와카마쓰) 127
 若松兎三郎(와카마쓰 우사부로)
 121, 193
 鈴木(스즈키) 105

동래선산기실 출판후원회

단체

입 금 일	단 체 명		금 액(원)
3월 26일	문경공파 종중	회장 정복수	1,000,000
6월 4일	광주전남화수회	회장 정진원	500,000
6월 11일	문경공후 장령공파 문중	회장 정승연	200,000
7월 17일	동지공파 종중	회장 정태우 총무 정종용 재무 정학수 이사 정광모	2,000,000
소계			3,700,000

개인

입 금 일	파명 및 직함	개인명	금 액(원)
3월 12일	동래부원군파; 서울중앙화수회 상임부회장	정하완	1,000,000
4월 7일	동래부원군파; 대종중 상무	정하익	200,000
4월 16일	문경공파파; 서울중앙화수회 회장	정복수	1,000,000
4월 30일	문경공후 함평 도사공파; 서울중앙화수회 이사	정근욱	200,000
5월 10일	문경공후 절효공파; 서울중앙화수회 상무	정선모	200,000
5월 18일	참의공파	정덕희	200,000
7월 3일	창원공후 좌승지공파 회장	정하성	200,000
7월 16일	창원공파; 서울중앙화수회 이사	정계수	500,000
7월 17일	문경공후 목사공 문중 회장	정흥제	200,000
소계			3,700,000
합계			7,400,000

번역자 약력

정진모

소속과 동래정씨 침사공(諱弼) 7대손 호군공(諱會宗)파

1961년 10월 경남 합천군 적중면 월막리에서 출생

1981년 2월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5년 2월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 졸업

1997년 8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이학박사, 입자물리학 전공)

1998년 10월 - 2000년 2월 미국 MIT 이론물리센터 방문과학자

2000년 9월 - 2001년 2월 아태이론물리센터 연구원

2001년 3월 - 현 재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동래선산기실 (원본 저자 정우흥)

발행일 : 2018년 7월 25일

2024년 4월 12일 개정

번역자 : 鄭珍謨

발행 : 동래선산기실 출판후원회

발행처 : 도서출판 여백

jmchung@khu.ac.kr

ISBN 979-11-963832-0-6

